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스티븐 엔디콧 · 에드워드 해거먼 지음 | 안치용 · 박성휴 옮김

중심

지은이

스티븐 엔디콧

선교사 부모 밑에서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태어나 공산 혁명 이전까지 중국에서 자랐다. 그의 가족들은 3대에 걸쳐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살았으며 그는 1980년대에 이곳에서 교수직을 맡기도 했다. 엔디콧 박사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뒤 요크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강의하면서 킬램 시니어 펠로십 등 많은 학문적 영예를 안았다. 저서로는 『외교와 사업 : 영국의 중국 정책 1933~1937』, 『중국으로부터의 반란』, 『붉은 대륙 : 쓰촨성 어느 마을의 혁명』 등이 있다.

에드워드 해거먼

토론토의 요크 대학 역사학과 교수다. 그는 현대전과 현대 전면전의 기원에 관해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미 육군 지휘 및 일반 참모 대학, 미 공군사관학교, 미 공군 공중전 대학 등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미국 남북전쟁과 현대전의 기원』이 있다.

옮긴이

안치용

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향신문 경제부, 문화부 기자를 거쳐
현재 국제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박성휴

67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사회부, 경제부 기자를 거쳐 현재 국제부 기자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DJ 시대의 경제 읽기』(공저)가 있다.

BOOKDESIGN SM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스티븐 엔디콧 · 에드워드 해거먼 지음 | 안치용 · 박성휴 옮김

중심

서문

1952년 2월 말, 북한 외교부장 박헌영(朴憲永)과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미국이 한국에서 생물학전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중국군에 전쟁 포로로 붙잡힌 미국인 조종사들이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측의 비난은 한층 더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추후에 포로 교환에 따라 풀려난 조종사들은—밝혀진 바와 같이,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위협 아래—자신들의 종전 자백을 철회했으며 미국 정부는 그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같은 비난을 선전 책동이라며 일축했다.

이 사건은 아마도 미국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군사 기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즉 1951～1953년 위기에 직면해 추진한 대규모 생물학전 프로그램과 이에 앞서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대영제국 및 캐나다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개발한 세균전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다가 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들은 1937～1945년 중국 침략 기간 동안 일본이 개발한 생물학전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정부가 벌인 은밀한 거래뿐만 아니라 미국의 2차세계대전 프로그램의 진행 수준까지 드러내고 있다.

냉전 초기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는 공개 범위가 좁고 느려 아주 최근까지도 여전히 많은 의문을 미제로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새로 비밀 해제된 미국 · 캐나다 · 영국의 문서와(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의 요청에 의해 비밀 해제됐다),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 분야 비밀문서에

접근을 허용한 중국 중앙문서보관소의 협조에 힘입어 우리는 미국이 작전용 생물학무기 시스템을 구비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비밀의 베일 뒤편에 있던 새 증거를 발견했다.

또한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방어 및 보복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미 행정부의 종전 주장이 의회와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사상 처음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 주장과 달리 광범위하고도 정교한 생물학무기 시스템이 공격 무기로 개발됐다. 미 공군은 1949년 베를린 봉쇄를 둘러싼 위기가 전면전으로 비화하면 생물학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한국전쟁 때는 생물학전이 전략공군사령부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 계획에 포함됐으며, 유럽 주둔 미 공군의 전술 계획에도 들어 있었다. 현대의 군대 역사에서 생물학전이 전쟁 정책에 정규 무기 시스템의 하나로 편입된 건 이때가 처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더해 미국은 비밀리에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보유했으며, 작전 수립과 실행을 위한 체계를 완비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 · 캐나다 · 중국의 문서는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생물학무기를 실험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접경 지역에서 모든 생물학전 증거를 발견해 보고할 책임을 지고 있던 기관인 중국 공중보건국은 전문적이고도 균형 잡힌 기록을 남겼다. 내부 극비 문서로 분류된 이 기록은 세균전 공포에 휩싸여 때로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인 중국인들의 모습까지 냉정하게 그리고 있다. 이 자료를 중국군과 북한군의 전장(戰場) 의무(醫務) 및 작전 기록과 함께 놓고 비교, 분석해 보면 발병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례적인 그 질병의 유형과 운반 수단이 미국의 생물학전 능력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와 첩보에 관한 이 극비 문서에서는 그 혼란의 시기에 중국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인상을 받게 되며, 선전 공작을 기도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1952년 중국 · 북한이 미국과 세균전과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 중앙문서보관소 자료들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도 비밀문서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때나 그 이후에도, 미국이 그들의 실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중국과 북한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냉전이 끝났기에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극비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미국 문서보관소로부터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과학인 의학을 전쟁에 끌어들여 현대전의 범주를 확대해 간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책은 들춰 낸다. 비록 미국의 생물학전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은폐돼 왔지만 2차세계대전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 실제로는 많은 이야기가 존재했다. 2차대전 후 잠시 잊혀졌던 생물학전 프로그램은 냉전 초기에 다시 소생해 한국전쟁과 함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최우선 순위 과제로 급작스럽게 부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군부 · 의학계 · 과학계 · 학계 · 기업 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방부 외에 몇몇 정부 기관들이 깊숙이 관여했다. 영국과 캐나다가 비밀 연구에 참가해 공동작업을 진행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생물학무기 시스템의 구축도 기대됐다.

최우선적인 지원을 받으며 가장 긴박한 명령을 자주 수행했던 생물학전 네트워크는 소련을 겨냥한 전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 · 전술적 측면에서 세균전 도입을 상정할 수 있도록 세균 병원체와 세균탄두 개발, 병참지원 등 필요한 과업을 진행했다. 한국전쟁 기간의 한가운데쯤인 1951년 12월 미국 국방장관은 생물학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최단 시

간 내에 실질적인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몇 주 뒤 미 공군 참모총장은 그 같은 능력이 "신속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대규모의 생물학전 실험을 시작했다고 북한군과 중국군이 미국을 비난한 것은 두 사람간에 극비 전문이 교환된 직후였다. 미 국무장관은 그런 비난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한국전쟁에서 생물학전 유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연구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다.

미국의 세균무기 개발과 관련한 동인(動因)과 분위기, 인체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 수준, 당시의 위기감—미군이 '역사상 유례 없는 일련의 재난으로' 고통받은 때(애플먼, 한국에서의 재난, 5쪽)—등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대답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왜 미군이 한국에서 세균전을 벌이려 하지 않았을까를 묻게 만든다. 이념과 정치적 열정에 사로잡히고 군사적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 어떤 군사 · 정치 · 도덕적 제약이 있었는가?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을 거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가책의 문제는 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악마와의 계약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이런 결정은 미국의 정치 · 군사 역사에서 흔한 것이었다. 미국은 군 수뇌부의 주도로 일단의 일본 전범들을 기소에서 면제해 주고(그들은 중국 여러 도시에서 생물학전 실험을 수행했으며 '과학적인' 세균전 시험 과정에서 미국인을 포함해 최소 3천 명의 전쟁 포로를 살해했다)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생물학전 지식을 제공받았다. 일본 생물학전 프로그램과 미국의 거래는 두 나라가 35년 이상 가장 철저하게 숨겨 온 공식 비밀들 가운데 하나다. 비밀 해제된 문서에서도 일본 프로그램이 미국에 통합된 과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 커넥션에 대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비

밀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 미국 생물학전의 정책과 동기, 추진 과정에 대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 중국 · 일본 · 영국 · 캐나다 · 유럽 대륙에서의 연구를 종합하고, 그리고 앞선 연구자들의 노고를 빌어 이 그림을 더욱 뚜렷한 내용으로 채우려는 시도이다. 우리의 희망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추가함으로써 현대 전쟁의 범위 를 확대한 위기의 시대에 관한 역사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 스티븐 엔디콧 박사와 에드워드 해거먼 교수의 20년에 걸친 진실 추구 열정과 학자적 양심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국내의 관심 있는 독자와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자들이 이 책에 첨부한 방대한 주석을 단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자료의 출처는 모두 영문 그대로 실었음을 특별히 밝혀 둔다.

도서출판 중심 편집부

옮긴이의 글

마취에서 깨어나는 고통을 느끼며

마취제는 보통 감각(感覺)에 작용하지만 이성(理性)에 작동되는 마취제도 있다. 보통의 마취제가 물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이성 마취제'는 사회 · 정치 · 경제적 속성을 띠고 있다. 소속 집단이나 사회의 역사, 정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좀처럼 깨어나기 힘들고, 깨어나는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된다. 이 고통은 때로는 이념 집단이나 이해 집단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폭동으로, 심지어 내전으로 치닫기도 한다. 우리는 역사상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아 왔다.

2003년 6월 현재 한국인을 가장 오래 짓눌러 온 이성 마취제는 무엇일까. 아마 '한국전쟁'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것이다. 한국전쟁은 그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한국인에게 일종의 이성에 대한 마취제이다. 그 앞에서는 합리나 논리, 비판, 이견, 합리적 의혹 제기나 논리적 추론 등 모든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기 십상이다. 혹자는 '왜 6 · 25라 말하지 않고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느냐, 당신 사상이 의심스런 사람 아니냐'라고 힐난(詰難)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성 마취제는 약효도 오래 간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됐지만 한국전쟁이라는 그 실체에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성적 접근은 마치 마취제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혼돈과 혼란을 가져다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같은 혼돈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소위 '남-남 갈등'으로 표출돼 더욱 심해졌다.

'한국전쟁' 이라는 말뿐 아니라 그를 연상시키는 용어 대부분이 그렇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김정일, 남침 등이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면 노근리, 미군 · 우익에 의한 시민학살 등은 오랫동안 터부시돼 왔다.

그 터부의 정점에 미국이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미국이라는 신화가 많이 허물어지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미 감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이성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전쟁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물이다. 미국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생물학전을 펼쳤다는 주장을 접하면 공산주의식 선전 · 선동으로 치부하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성적으로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잠재돼 있던 이성 마취제가 갑자기 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고통을 참으며 인내력 있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때가 되었다.

저자인 스티븐 엔디콧과 에드워드 해거먼의 주장은 단순 명쾌하다. 미국은 2차대전 중 적국의 세균전 개발에 자극받고 전쟁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군수산업의 요구와도 이해가 맞았다. 2차대전 말기 성공적인 핵무기 개발로 세균무기는 실전에서 사용 및 실험 기회를 잃었다. 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 전범과의 비밀 거래를 통해 광범위한 세균전 실험 정보를 얻었다. 생물학무기의 정보와 개발은 실험을 유혹하고, 보유는 사용을 재촉한다. 미국은 결국 냉전 초기 한국전쟁에서 이 무기를 실험, 사용한다.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생물학전 실험 대상이었다.

저자들은 미국, 중국, 북한, 캐나다, 호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비밀문

서 등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막연히 선전 술책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매우 방대하고 정밀하다. 더구나 저자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지식인일 뿐이다. 오히려 저자의 정성 어린 자료 수집과 치밀한 분석은 역자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을—아직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설령 깨어났더라도 두통에 시달리는—부끄럽게 만들 정도이다.

이제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1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진실에 가까운—에 직면해야 할 시점이다. 역자는 우리의 진실을 추구하는 이방인의 노력에 감동받고 그 진실에 고통받았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리라 믿는다.

2003. 6.

안치용 · 박성휴

차례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1 한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통증과 열병

나는 세균전이 이 질병들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1952년 중국으로 갔다. 나는 증거에 접해 보지 못한 채 중국을 떠났다. 하지만 중국 관리들은 이 증거들을 결정적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내 뒤를 이어 호주 외무부 종신 고문을 맡은 앨런 와트가 나에게 알려 왔다. 내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의문에 근거해 그가 미 행정부에 답변을 요청했더니 회신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 단지 실험용 목적으로만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존 버튼 박사, 1997년 4월 12일자 편지[1]

공중에서 곤충을 투하하는 것은 전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다.

G. B. 리드 박사, 캐나다 생물학전 전문가, 1952년 5월 15일[2]

동원 태세를 갖추고, 위생에 주의하고, 발병률을 줄이며, 보건 기준을 높이고, 적의 세균전을 깨부수자

마오쩌둥, 1953년 제2차 국가보건회의 연설에서

제대 군인인 쉬홍루(25)는 1952년 3월 10일 이른 아침에 반쯤 채워진 딱딱한 여행 가방을 들고 고향 산둥성(山東省)을 떠났다. 목적지는 만리장성 너머 있는 창더(常德, 후난성湖南省 북부에 있는 도시: 옮긴이 주)였다. 이곳은 제국의 궁전들로 유명한 곳으로 쉬홍루가 출발한 산둥성에서는 3백 마일 가량 떨어져 있다.

그의 여행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떠돌이 상인인 부친은 5년 전 이질로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당시는 중국 북부지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을 벌이는 와중이어서 가족은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해 선산에 안치할 계획이었다.

쉬홍루는 11일 만인 3월 21일 창더에 도착했다. 그는 여행 내내 걸었다. 대운하를 건널 때는 아마도 거룻배를 빌려 탔을 것이고 때로는 말이 끄는 수레에 잠시 몸을 싣기도 했을 것이다. 창더에서는 제5구역 경찰서 옆에 있는 여인숙에 묵었다. 그가 잡은 방은 이전에 솔 제작용 돼지털을 파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쉬홍루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당시 정황을 알아본 뒤 아버지의 유골이 묻힌 시 교외 23구역으로 갔다. 이장(移葬)을 도와 줄 사람을 한 명 고용했다. 이장 작업 때 고용인은 장갑을 꼈지만 쉬홍루는 맨손이었다.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한 뒤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28일 쉬홍루는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졌다. 다음날 병세는 더욱 나빠졌다. 가슴에 통증이 왔고 고열이 났다. 4월 1일 쉬홍루는 숨졌다. 부검 결과 폐에서 액체가 발견됐다. 혈액 검사도 실시됐다. 그 결과 탄저균 감염을 검사하는 아스콜리(ASCOLI)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미경 조사에서는 바실루스(杆菌, 막대 모양 또는 타원형의 디프테리아 · 백일해 · 장티푸스 · 결핵 · 탄저균을 통칭: 옮긴이 주)가 나타났다. 이 균을 배양해 실험용 흰쥐에 접종한 결과 사흘 만에 죽었다. 혈액 조사가 다시 실시됐다. 탄저균이 발견됐다.

보건 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아낼 수 없었다. 경찰은 쉬홍루가 묵은 여인숙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장 작업 때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증언에 따라 쉬홍루 아버지의 유골을 검사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탄저균은 보통 동물을 감염시킨다. 그렇다. 그는 돼지털 장수가 묵던 방에서 기거했다. 여인숙의 다른 투숙객들은 여행 도중 마차 수레를 탔다는 쉬홍루의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치명적 세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3]

창더에서 동쪽으로 2백50마일 떨어진 선양(瀋陽) 시 교외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승객용 자전거를 모는 왕지빈(47)이란 남자는 1952년 3월 22일 구토 증세를 보였다. 24일 새벽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이날 오전 6시 희멀건 액체를 토해 내며 의식을 잃었다. 3시간 뒤 그는 숨졌다.

검시 및 병리 검사 보고서는 뇌와 호흡기, 림프(淋巴), 부신(副腎)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탄저균과 유사한 바실루스가 발견됐다. 조사 책임자 첸잉치안은 보고서에서 '탄저균이 호흡기 계통을 통해 인체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이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 사체의 비장(脾臟)과 심장 근육을 이용했다. 배양한 균을 실험용 흰쥐에 접종한 결과 3일 내 죽었고 쥐에서 같은 세균을 발견했다. 아스콜리 테스트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탄저균이다."

이 연구 팀도 마찬가지로 질병의 연원을 찾아내지 못했다. 보고서는 단지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병이 나타나기 3～4일 전 사망자가 살던 집 바깥 벽에서 많은 파리들이 발견됐다. 가축과의 관련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전거 영업이라는 사망자 직업 성격상 다른 연원을 찾기란 힘든 일이다. 아마도 감염 경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4]

같은 해 3월 16일 랴오시(遼西)성 창투 마을 만징 기차역에서 역

무원이 호흡기 감염 탄저병으로 쓰러져 급사했다. 4월 8일 랴오닝(遼寧)성 랴오양(遼陽) 마을에서는 젊은 교사가, 4월 14일 안산(鞍山) 시에서는 가정 주부가 동일한 횡액을 당했다.[5] 3월 12일 저녁 진 마을이란 오지에서는 당나귀 한 마리가 쓰러진 뒤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다음날 죽었다. 검시 결과 심장과 비장에서 탄저균 감염에 의한 출혈이 나타났다.[6]

발병 범위는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으나 개별 발병 장소는 서로 떨어져 있어 한 지역에서 시작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전염병의 전개 양상과 달라 보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병은 어디에서 생겨났단 말인가. 불가사의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역무원 쿠자니운의 사례에서 발견됐다. 이 지역 전염병방역위원회가 작성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미군 비행기가 3월 16일 만징 역 상공을 날아갔다. 역무원 리우종구오는 미군기가 날아간 방향을 따라가던 중 역 북쪽 1.5킬로미터 지점에서 검은색 딱정벌레를 많이 발견했다. 그는 이 가운데 몇 마리를 시료(試料)로 가져왔다. 동료인 쿠자니운은 이 벌레를 만졌다. "리우는 감염 예방을 위해 질병예방센터로 갔지만 쿠는 가지 않았다. 쿠는 19일 두통과 '설명하기 힘든' 통증으로 쓰러졌고 다음날엔 메스꺼워했다. 21일엔 쓰핑(四平, 지린성 서남부 도시: 옮긴이 주) 철도병원에 입원했다. 증상은 고열과 계속되는 구토, 무력감, 불면증, 대소변 조절 불능 등이었으며, 백혈구가 증가했고, 침에서는 바실루스가 많이 검출됐다. 쿠는 22일 숨졌다. 부검 결과 탄저병으로 판명됐다."

딱정벌레 시료에서 탄저균이 발견됐다. 쿠는 동물과 접촉한 적이 없고 살던 동네에서도 동물성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쿠는 쓰러지기 전 가족들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다른 가족에게는 아무런 일

도 일어나지 않았다."[7]

1952년 초봄 중국 동북부지역에서는 급성 뇌염이 발생했다. 대뇌피질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이 병원체는 이 지역에서는 생소한 것이었다. 또 발병하더라도 통상 봄, 여름에 나타났으며, 쑹장(松江)이나 지린(吉林)성 같은 산간 오지에서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했다. '봄과 여름' 또는 '삼림 뇌염'으로 알려진 이 병원체의 특성상 주로 벌목꾼들이 감염됐다.[8] 그러나 북한과 맞붙은 랴오닝성 공업 단지인 선양, 안산, 푸순(撫順) 같은 대도시에서, 중국 중공업산업의 중심부에서 사람들은 뇌염 유발 병원체에 쓰러져 갔다. 희생자 숫자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급사자가 속출하자 의료진이 동원돼 조사에 착수했다. 의료진은 진단을 내리는 데 아주 신중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 왜냐하면 뇌염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병리조사단장은 1927년 무크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39년 런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리페일린 박사였다. 그는 당시 선양 시 국립의과대학 병리학 학과장이었다. 지역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저명한 의학자로 병리학과 해부학 분야에서 의학 서적 여러 권을 남겼다.[9]

초기 사례 중 1952년 4월 초 푸순 시에서 어린이 3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이 주목을 끌었다. 리 박사가 이끄는 조사 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조사를 벌였으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1.질병의 의학적 증거

1)질병

a) 싱데푸, 남자, 5세. 3월 5일 발병. 구토, 의식불명, 호흡곤

란. 6일 오전 7시 사망.

b) 바오리룽, 여자, 9세. 3월 6일 싱데푸의 집을 방문한 뒤 3월 9일 오전 1시 발병. 고열에 정신착란, 노란색 타액을 토해 내고 의식불명. 같은 날 오후 5시 사망.

c) 장징윤, 여자, 15개월. 3월 9일 오후 3시 발병. 고열에 노란색 타액을 토해 내고 하얀색 거품. 의식불명, 호흡곤란. 10일 오전 0시 30분 사망.

특징: (1) 위 3건의 사망자 모두 일상적인 방식으로 공급된 물을 마셨으며 다른 특이한 음식은 먹지 않았음. (2) 인근 가축은 페스트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2)현장 조사

사망자 3명은 모두 푸순 시 진푸 구에 살았으며 이곳의 위생 상황은 나쁨. 곤충이 4군데에서 발견됨. 진푸 구 생활환경은 아주 좋지 않음. 거주지와 마당, 도로는 좁고 바오리룽의 집 앞에는 큰 쓰레기 더미가 있었음. 5일 바오의 가족이 쓰레기를 치웠을 때 10마리 이상의 모기와 다른 곤충이 발견됨.

3)결론

위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전염병 가능성이 있고 이 병의 확산은 곤충이 많이 발견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검시 보고

1) 바오리룽: 대뇌 피질 신경 조직이 감염됐음을 발견…… 식세포(食細胞, 혈액이나 조직 내 세포나 세균을 먹고 전염을 막아 주는 백혈구: 옮긴이 주) 조사 결과 장(腸)에서는 특이 사항 없음.

2) 장징윤: 부신(副腎)에서 출혈이 선명하게 보임. 대뇌 피질

세포는 퇴행적 식균(食菌) 작용이 관찰됨.……

결론: 위 사건과 선양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의 주요 증상은 대뇌 피질 세포의 유독성 퇴행, 특이한 유독 퇴행성 뇌염과 유사한 식균 현상임. 그러나 과거 동북부지역에서 일어난 유행성 뇌염과 같은 것은 아님. 2가지 가능성이 있음.

a) 식중독일 수 있다. 육류에 의한 식중독은 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왜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됐을까. 왜 전염병이 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b) 대뇌 피질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유해성 중독이 특별한 형태의 뇌염을 유발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망자들이 의식불명에 빠진 이유가 설명된다. 다음 단계로 살모넬라균에 의한 발병인지 알아보기 위해 소화 기관의 임파선을 조사해야 한다. 또 질병의 원인을 확정짓기 위해 대뇌 피질의 병원체를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동북부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뇌염이 발견된 적이 없다. 이번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균전을 벌였고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명: 병리학 조사단장 리페일린, 첸잉치안[10]

1952년 3월의 마지막 3주 동안 의료 조사 팀은 중국 동북부 공업 지대에서 24건의 갑작스런 사망 사건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24건 중 16건에 대한 병리 진단은 '급성 뇌염 또는 뇌염과 유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발병 이후 24시간 이내에 숨졌다.

의사들은 병원체가 사망자의 몸 속으로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대충 추정할 뿐이었다. 의학적 증거로 볼 때 곤충에 물린 것 같지는 않았다. 소화기나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더 가능성이 높았다.

중국과 북한을 가르는 압록강 남쪽에서는, 특히 주요 전투가 벌어진 38선 인근 최전선에서는 1952년 1～2월 중국군과 북한군 병사들 사이에서 일련의 심상치 않은 보건(保健) 문제가 발생했다. 그 지역은 이천(利川), 철원(鐵原), 금화(金化), 평양(平壤) 등이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미군기가 나뭇잎, 깃털, 면화 솜, 마분지, 콩 줄기와 꼬투리 등 이상한 물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살아 있는 곤충, 썩은 생선과 돼지고기, 개구리, 설치류 등을 채운 폭탄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11]

북한 인민군 의무본부위원회는 1952년 1월 29일 다음과 같은 문건을 발표했다.

> 1952년 1월 28일 아침, 적기가 이천 지역 상공에 나타나 2～3차례 선회하더니 남쪽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날 아침 날씨는 고요했고 안개가 끼어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안개가 걷혔고 중국군은 적기가 나타난 지역의 여러 곳 눈 위에서 파리, 벼룩, 진드기, 거미 등과 같은 곤충을 발견했다. 14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벼룩, 파리, 거미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벼룩이 다른 어떤 곤충보다도 많았다. 벼룩은 1평방미터에 10마리꼴로 발견됐다. 겨울철 눈 위에 이런 곤충들이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에 중국군은 놀랐다. 흥미를 느낀 의무 고문 창차신은 곤충 몇 마리를 채집해 소속 연대 의무대장인 임국모에게 들고 갔다. 임국모는 곤충 발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견 후 17시간이 지난 시점에 창과 함께 최초 발견 장

소로 향했다.

임 박사는 또한 그곳에서 곤충을 확인했다. 지역 주민과 대화를 나눈 끝에 주민들이 과거 눈 속에서 이 같은 곤충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국군 부대가 주둔한 지역에서도 같은 날 곤충이 발견됐음을 알게 됐다. 표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곤충으로 인한 질병 확산이라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그해 1월 1일부터 사건 발생 당시까지 중국군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없었으며 의무 관계자도 질병을 옮기는 설치류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군 N부대 의무대는 그해 1월 대기 온도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사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곤충이 활동하거나 번식하기에는 너무 낮은 기온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군 의무본부 세균 실험실이 1월 29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벼룩과 거미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파리에서는 콜레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콜레라는 1946년 남한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곤충학적인 조사에서는 4가지 부류의 파리가 발견됐다. 그것은 강(綱 classis): 곤충류 유시아강(有翅亞綱 insecta pterygota), 목(目 ordo): 쌍시류(雙翅類 diptera), 부목(副目 subordo): 사이클로라파(cyclorapha), 과(科 familia): 꽃파리(anthomyiidae) 등이었다. 이 가운데 앞쪽 3개 부류의 파리는 한국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류였다. 눈 위에서 발견된 진드기도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종류에 속했다. 이 진드기는 '봄여름 회귀열'(回歸熱)과 뇌염을 옮길 수 있는 것이었다.[12]

북한군 의무본부는 1952년 2월 11일 중국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주전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철원의 중국군 N부대 병사들은 3대의 F-51 비행기가 342.20고지 위를 낮게 날더니 지름 10센티미터, 길이 20센티미터 크기의 회색 원통과 노란색 종이 팩 등을 떨어뜨렸다고 보고했다. 봉합 부위는 이미 뜯겨져 있었다. 원통과 종이 팩 속에는 파리, 벼룩, 개미 등 여러 곤충이 있었으며 군인들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이미 곤충들이 주변으로 번져 나가고 있었다. 부대 의무 장교는 실험실 분석을 위해 곤충 몇 마리를 채집했다. 또 팩을 불태우고 그 지역을 살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지역 주민과 중국군에 전염성 질병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감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사실이 없었고 가축에서도 전염병이 보고된 바 없었다. 중국군 N부대 의무대 기록에서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 지역 기온이 영하 21도에서 영상 5도 사이를 오간 것으로 돼 있다. 북한군 의무본부가 실시한 세균 조사에서 파리, 개미, 거미, 모기 등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벼룩에서는 페스트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조사는 기니피그(속칭 모르모트)를 대상으로 한 생물학 실험, 특정 혈청과의 응집 실험 등에 의해 확증됐다.[13]

며칠 전인 2월 8일 중국군은 미군 2사단 38연대 소속 제임스 챔버스 상병(군번 123621632)을 사로잡았고 그가 페스트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잡힌 남한군 2사단 소속 병사 2명에게서도 예방접종이 확인됐다.[14]

근심에 찬 중국군 참모부는 전방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보냈다. 2월 전반부 그곳의 평균 기온은 영하 7.2도에서 영하 9.2도 사이의 혹한이어서 통상 곤충이 생존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번식할 수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적기가 지나간 뒤 곤충이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

다. 2월 18일에는 진드기를 포함한 더 많은 곤충이 한국 서북부지역 철도 중심지인 안주(安州) 주변에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페스트 진단이 나왔다.[15] 같은 날 중국 인민해방군 니룽젠(聶榮臻) 총참모장 대리는 마오쩌둥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낸 데 이어 배양과 조사를 위해 시료를 베이징(北京)으로 보냈습니다. 이 곤충들이 어떤 종류의 병원균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는 이틀이 추가로 걸릴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재발성 발열 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면 전염병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즉각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련의 인적 · 물적 지원이 필요합니다.[16]

마오는 이 보고서에 대해 '저우언라이 총리와 상의해 문제를 처리토록 하라' 고 지시했다.

이틀 뒤 저우언라이는 곤충과 곤충이 매개한 세균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받은 뒤 6가지 계획을 내놓았다.

1. 전방에서 보낸 감염 곤충 조사를 강화한다; 예비 실험에 따르면 페스트, 콜레라, 기타 세균이 현존한다.
2. 전염병 예방 팀과 백신 등 필요 물품을 전장에 보낸다.
3. 미국의 세균전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미국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4. 세계평화유지 중국인민위원회를 통해 세계평화평의회(WPC)

에 미국의 세균전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제의한다.

5. 전보로 명령을 내려 한국에 있는 전방 부대가 전염병 예방에 힘쓰도록 하고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감시를 강화한다.

6. 소련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마오의 재가를 받은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예방 조치 및 정치 ·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했다.[17]

1952년 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 박헌영은 미국의 세균전 범죄에 대해 유엔에 '엄숙하게 항의' 하고, '전 세계 인민에게 간섭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할 것' 을 호소했다. 이틀 뒤에는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뒤를 따랐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 이 미국 정부의 범죄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의 세균전 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미국이 전쟁에서 생물학전을 자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 12월 미군이 남쪽으로 급박하게 후퇴하면서 한반도 북부지역에다 천연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군이 세균무기를 준비하면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피로 손을 물들인'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장군을 비롯, 일본의 몇몇 세균전 전범들의 전문 지식을 사용했다고 저우언라이 총리는 주장했다.[18]

그동안에 중국 중부군사위원회는 2월 21일과 25일 한국 파견 중국군에 긴급 지령을 보내 군사 및 민간 단위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즉각적인 활동을 펼치라고 명령했다.[19] 총 3백만 개 페스트 백신 가운데 1차분이 전방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2월 28일에는 비록 아직 페스트에 감염된 병사가 없었지만 한반도 주둔 중국군은 페스트 예방접종을 받기 시작했다.[20] 또 다른 2백50만 개 '파이브-인-원 백신' (five-in-

one vaccine, 한 번의 접종으로 5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 옮긴이 주)과 5백만 개 콜레라 백신이 가능한 빨리 보급될 예정이었다. 병원에는 특수 임무가 부여됐다. 환자를 수용 · 치료 · 격리하고, 정보 수집과 세균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 전염병 예방 팀을 창설하며,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21]

페스트는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풍토병이었지만 한반도에서는 1912년 이후 한번도 보고된 바가 없다. 한반도 주둔 중국군사령부에 따르면 1952년 2월 말까지 민간인과 군대 내에서 재발성 발열, 천연두, 발진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병이 있긴 했지만 '심각한 전염병과 페스트, 콜레라' 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개월 뒤 한반도 넓은 지역에 걸쳐 주둔 중인 중국군은 병사들 사이에서 16건의 페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을 진단 내리게 된다. 발병은 20, 27, 39, 26, 40, 12, 67 등 7개 사단에서 일어났다. 죽은 상태의 쥐가 대거 발견됐고, 살아 있는 쥐가 갑자기 죽는 사례도 적잖게 목격됐다. 3건에서 페스트로 판명됐다.[22] 민간인도 피해를 입었다. 6백 명이 살고 있는 안주의 어느 마을에서만 2월 25일부터 3월 11일 사이 주민 50명이 페스트에 걸려 이 가운데 36명이 목숨을 잃었다.[23] 4월에는 군대 내에서 44건의 뇌염과 수막염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16건은 치명적이었다. 평양 인근에서는 5건의 콜레라가 발생해 3명이 죽었다. 이런 질병과는 별개로 4월에 43명이 급성 질병에 걸려 20명이 숨졌다. 희생자 가운데 일부는 발병 후 30시간 이내에 또는 8시간, 6시간 이내에 숨졌고, 심지어 2시간 만에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군 보고서는 '이 병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으며, 적의 세균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더욱 세밀한 조

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고 있다.[24] 한반도 파견 중국군 공식 전사(戰史)에 따르면 "적의 세균전은 중국군과 북한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으며 우리 군과 민간인 사이에서 한동안 심리적 긴장을 유발했다."[25]

중국 인민지원군 부참모장 덩화(鄧華) 장군은 병참부대와 연계해 전염병 퇴치 책임을 맡았다. 쥐잡기, 곤충 박멸, 수자원 보호, 주거 지역 소독 등 보건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전투 지역 및 주요 수송로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살고 있는 1백30만 명의 한국인들도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 인민지원군 공식 역사에 따르면 '전염 상황이 급속하게 진정됐다.' 또한 1952년 한국에 배치된 중국군 3백84명이 미군의 세균전에 의해 감염돼 이 가운데 2백58명이 회복했다고 밝혔다.[26]

신화통신은 1952년 3월 첫째 주 새로운 경향을 보도했다.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적기의 영공 침범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사람들은 국경 남쪽의 전선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곤충과 세균 매개 동물을 발견하기 시작했다.[27]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대처하기 위해 3월 14일 베이징에 중앙전염병예방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장에는 저우언라이 총리가, 부위원장에는 구오모로 중국 과학아카데미 원장과 니룽젠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대리가 임명됐다. 상시 가동하는 이 고위 위원회에는 위생부, 공공안전부, 육군 참모본부 등의 관리들이 파견됐다.

며칠 뒤 위원회는 중국 북부에서 멀리 남부까지, 해안 지방의 각 성 및 지방 정부, 군 본부에 장문의 비밀 전보를 보냈다. 전보는 위원회 발족 사실을 알리고 반(反)세균전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지방 전염병예방위원회 설립 등을 지시했다. "1월 28일 이후 적은 조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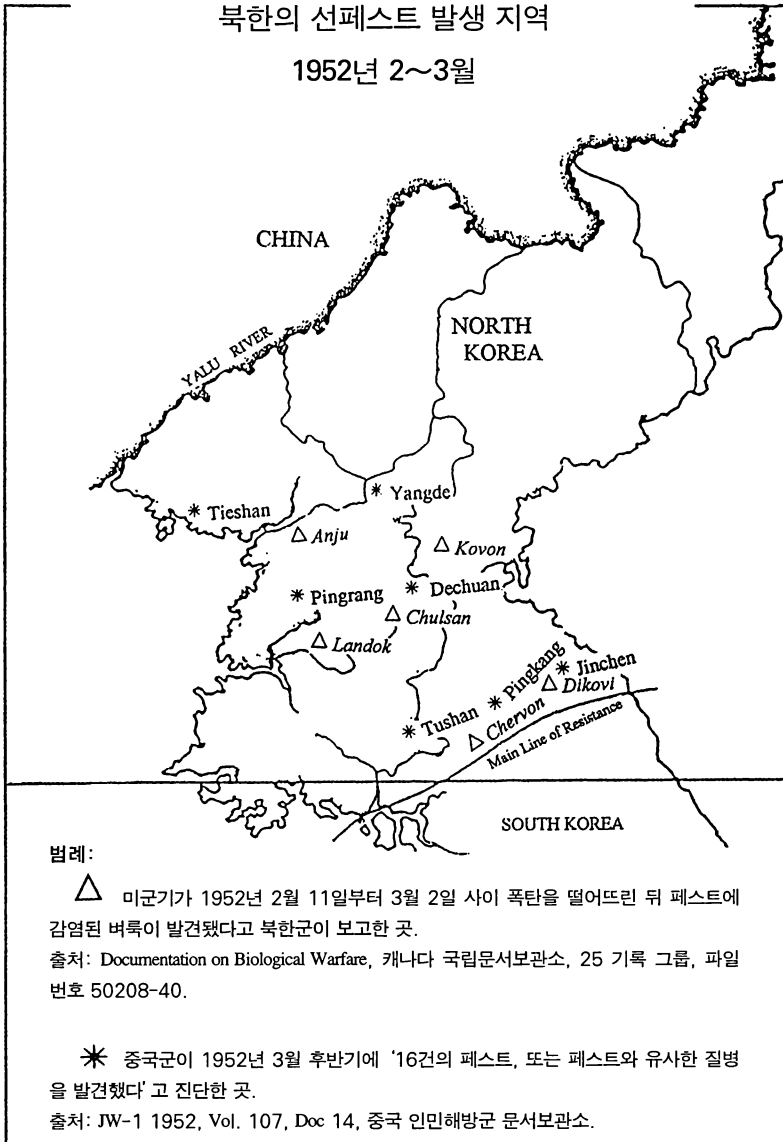
우리 동북부 및 칭다오(青島) 지역에서 계속적인 세균전을 무도하게 펼쳐 파리, 모기, 거미, 개미, 빈대, 벼룩 등 30여 종의 세균 매개충을 떨어뜨리고 있다.…… 곤충들은 아주 넓은 지역에 떨어졌다.…… 실험 조사 결과 확인된 병원 미생물(病原微生物)은 페스트, 콜레라, 수막염, 파라티푸스, 살모넬라, 재귀열, 파상균(波狀菌), 발진티푸스 등에 걸쳐 있었다. 날씨가 더워지면 전염병과 매개 동물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 만약 전염병을 막기 위한 전국적인 활동을 즉각 강화하지 않으면 적의 세균전으로 유발된 심각한 질병이 아주 쉽게 확산될 것이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평소처럼 유유자적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즉각 깨달았다. 각 성과 지방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알게 됐다.

전보는 전염병 예방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줬다.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파라티푸스, 재귀열, 수막염, 뇌염, 황열병 등의 순이다. 전보는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온 이후 이 같은(이 순서대로) 조정이 이뤄졌다' 고 전했다. 구역 구분도 취해졌다. 한국은 전염병 구역으로, 중국 동북부는 전염병 예방 긴급 조치 구역 그리고 중국 북부, 동부 및 중남부 해안 지역은 관찰 구역, 내륙 지방은 예비 조치 구역으로 정해졌다. 각 구역에는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가 부여됐다. 임무는 보건 정찰, 예방 백신 접종,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원 준비 등에서부터 통신 및 수송선 확보, 적기 관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철도나 도로 교차로 등지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토록 했다. 전보는 '만약 증명서가 없다면 역내 검역소에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라' 고 명했다.

범례:

△ 미군기가 1952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 사이 폭탄을 떨어뜨린 뒤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이 발견됐다고 북한군이 보고한 곳.
출처: Documentation on Biological Warfare, 캐나다 국립문서보관소, 25 기록 그룹, 파일 번호 50208-40.

✳ 중국군이 1952년 3월 후반기에 '16건의 페스트, 또는 페스트와 유사한 질병을 발견했다' 고 진단한 곳.
출처: JW-1 1952, Vol. 107, Doc 14, 중국 인민해방군 문서보관소.

전염병 예방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이라는 형태로 진행됐다. 사람들은 파리, 모기, 벼룩, 이, 각종 쥐, 기타 병원체 매개 동물을 박멸하고 불태웠다. 식수원 보호와 수돗물 관리가 강화되며 집 안팎의 화장실에 대한 위생 조치를 취해야 했다. 상점과 음식점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유리 커버를 사용해야 하고 사람들은 날것과 찬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교육받았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엄격하게 검역을 받아야 하고 숨졌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묻어야 했다. 전보는 '전염병 사망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필요하다면 검시를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보건 상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나갔다. 이 같은 요구 사항에 맞춰 전염병 예방 보증서도 도입됐다.

전염병예방위원회는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는 과학연구소 및 대학들에 반(反)세균전 조사 작업에 참가토록 지시했다. 작업 가이드라인은 주의를 기울여 조사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즉 (1) 적들의 세균 살포 방법(비행기로 떨어뜨리는지, 대포로 쏘아 세균 물질을 보내는지, 아니면 스파이를 이용해 퍼뜨리는지 등) (2) 시간과 장소, 곤충들의 밀집도, 곤충의 종류 (3) 적들이 뿌린 세균으로 인해 야기된 농작물 피해, 환자 · 사망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 (4) 정밀 조사를 위한 곤충 채집 등이었다. 조사 전문가와 교수들에게는 상세하고 과학적인 기록을 남기도록 했으며 기록은 서명을 첨부해 타당한 방법으로 보존토록 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전염병 예방 작업이 충분한 기반을 갖고 진행될 것이며 또한 적들의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8]

이 애국적인 캠페인은 대중 매체의 도움으로 곧 전국적으로 실시

됐다. 1952년 3월 말이면 중앙전염병예방위원회는 의료진 2만 명에 1백29개 단체를 거느리게 된다. 2주 사이에 중국 동북부지역과 이외 지역의 주요 운송로를 따라 4백86만 명이 페스트 예방접종을 받았다.[29]

의료 조사단은 중국 동북부지역에 대한 미국 세균전 공격의 최초 확증 사례는 3월 12일 압록강에서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쿠안디안 마을 건이라고 결론내렸다.[30] 쿠안디안 마을은 중요한 철로와 도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중국과 한반도 북부 사이의 핵심 수송로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그날 정오가 막 지나서 미군기 8대가 마을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중국 항공감시부대는 미군기를 F-86 세이버(미 공군 제트전투기 중의 하나: 옮긴이 주)로 분류했다. 부대원들은 비행기 중의 한 대에서 밝은 색 원통형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비행기가 지나간 직후와 다음날 마을 주민들은 수색 팀을 짜 그 물체가 떨어진 동문(東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파리와 거미, 가금류 깃털 등을 주웠다.

9일 뒤 한 남학생이 옥수수 밭 한가운데서 폭탄 투하 지점에 생긴 얕은 탄공(彈孔)을 발견했고 주위에는 용기 파편들(금속 파편과 얇은 통풍성 물질의 조각)이 널려 있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전염병퇴치부대가 지방 관리와 리우중글루 교수의 안내로 이 지점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리우 교수는 1926년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당시 곤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다. 베이징 농과대학 곤충학부의 학과장이기도 했다. 리우 교수는 곤충 표본을 수집하는 등 조사 활동을 벌였다. 리우 박사 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주위에 짧게 바스러진 황백색 깃털과 검은색 깃털이 낱개로 또는 덩어리로 흩어져 있었으며, 깃대에는 살점이나 진흙이 묻어

있지 않았고, 인근에는 어떠한 가금류의 사체도 없었다." 폭탄구멍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여러 크기의 파편 수백 개가 발견됐고 파편들은 '은빛이 감도는 회색이며 석고 같은 물질로 만든 것이었다.'[31] 곤충학자들은 폭탄구멍 주위에서 더 많은 파리와 거미, 깃털을 모으고 '뜨거운 물로 눈을 녹여 가며 용기 파편을 최대한 많이 모아 조립했다.'[32] 생물학 검사 결과 곤충과 거미, 깃털 등에서 탄저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이곳과 주변 지역의 탄저병 발병은 보고된 바 없다.

이 시기부터 4월 5일까지 탄저병과 뇌염이 관련된 4건의 다른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들에서도 쿠안디안 마을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나 중국 과학자들로 하여금 미국이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생물학무기를 사용했음을 확신하게 했다.[33]

또한 과학자들은 세균전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많은 사례들에 접했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에 대해 공황에 가깝게 반응하는 적잖은 사건들을 목도했다. 6편의 기생충학 논문을 발표한 저명한 과학자 친야오팅 박사(1930~1948년 무크덴 의과대학에서 생물학 교수를 지냈고 당시에는 선양 국립의과대학 생물학 학장)는 랴오닝성 남부 5개 공업도시에 있는 전염병퇴치부대들로부터 3월 5일에서 12일 사이 수집한 곤충 7백 마리를 전달받았다. 친 박사는 모든 곤충들을 분석, 분류했으며 이 가운데 60마리로부터는 세균을 배양했다. 배양 세균을 50마리의 흰쥐에 주입했으나 세균전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결과는 통상적인 대장균, 코쿠아준(건초열을 유발하는 균), 아메바균 등이었고 페스트, 장티푸스, 이질, 탄저균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쥐 50마리 중 5마리가 하루 이틀 내 죽었지만 친 박사는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

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실험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나 결론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34]

1952년 봄 각 지방에서 동북부전염병예방위원회로 보낸 일일 보고서에는 모든 종류의 질병과 사망 사건이 적시됐다. 보고 내용은 '한 마을에 60가족이 홍역에 걸려 16명이 죽었고, 다른 마을에서는 89명이 파라티푸스에 걸렸다. 또 말라리아 5건, 성홍열 3건, 발진티푸스 2건, 지린성에서는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 3백89건이 발생했다'는 식이다. 또한 적의 생물학전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저병, 뇌염, 페스트 사례도 있었다.

랴오둥(遼東)성 전염병예방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38퍼센트가 감염된 곤충을 떨어뜨린 적기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병이 전 지역으로 퍼져 가고 있다'"는 놀라운 내용의 보고를 했다.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 사이에 2천 명이 병에 걸려 이 가운데 1백40명이 숨졌다. 대부분의 질병은 명백히 홍역, 백일해(百日咳), 인플루엔자 등이었지만, 이 가운데 5백89건은 정체 모를 급성 질환이었다. 게다가 5백58마리의 가금류와 가축이 죽었다.[35]

동북부전염병예방위원회 조사국은 공황에 가까운 반응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이에 따라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조사국은 선양의 한 교외 지역에서 검은 가루 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조사 결과 화약이었다. 지안(集安)에서는 3명의 어린이가 뇌염으로 의심되는 병에 걸려 1명이 죽었다고 보고했다. 조사국이 부리나케 달려가 조사한 결과 사망 사건은 결핵성 뇌수막염에 의한 것이며 또 다른 어린이는 유행성 이하선염(耳下腺炎, 일명 항아리손님: 옮긴이 주)에 걸렸다가 금방 나았고, 마지막 어린이는 그날 아침에 심하게 울

표 1

미국의 세균전에 대한 저우언라이 총리의 보고서 요약

1952년 4/5월

항목	4월 감염자		누적 감염자	
	감염자	사망자	감염자	사망자
조선 파견 인민지원군				
페스트	9	2	18	8
유사 페스트	8	3	8	3
동북부지역				
뇌염	18	6	42	20
유사 뇌염	40	7	43	8
탄저병	4	4		
파라티푸스	4	4		

주의:

1. "이 전염병 외에도 디프테리아, 이질, 유행성 뇌막염 등등이 있다. 지난 해부터 증가하지는 않았다."
2. 다양한 매개물에 대한 박테리아 검사 결과 발견된 것으로 언급된 다른 전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 패혈균 등이다.
3. "페스트와 뇌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번지는 속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행병은 아니다. 다른 전염병은 지난해 이후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염병 예방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다."
4. 이 보고서는 세균전으로 인한 북한측의 군인이나 민간인 사상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출처: 랴오닝성 문서보관소 권 62, 영구 보존 전보 '5월 반(反)세균전을 위한 중앙전염병예방위원회의 짧은 보고서'

어 댔을 뿐 병에 걸린 게 아니었다.

데후이 시의 한 촌락에서는 어린이 10명이 병에 걸려 1명이 숨졌다고 보고했으며 지방 검시관은 뇌염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검시가 숨지고 며칠 뒤에야 이뤄졌으며 진단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이들은 현기증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단 1명의 어린이만 열이 나고 있었다. 잠정적인 진단은 통상적인 감기였다. 전염병 징후는 없었다. 차오양(朝陽) 시의 한 의사는 7건의 콜레라 사례가 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치명적이라고 보고했다. 이것은 잘못된 진단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이 도착했을 때는 2명이 숨져 땅에 묻힌 뒤였다. 이에 따라 검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회복됐다. 한 보고서는 '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심각하게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냉소적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조사국장인 첸잉치안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차오양과 지안, 데후이의 전염병 보고는 근거 없는 것이었으며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였다. 전염병 상황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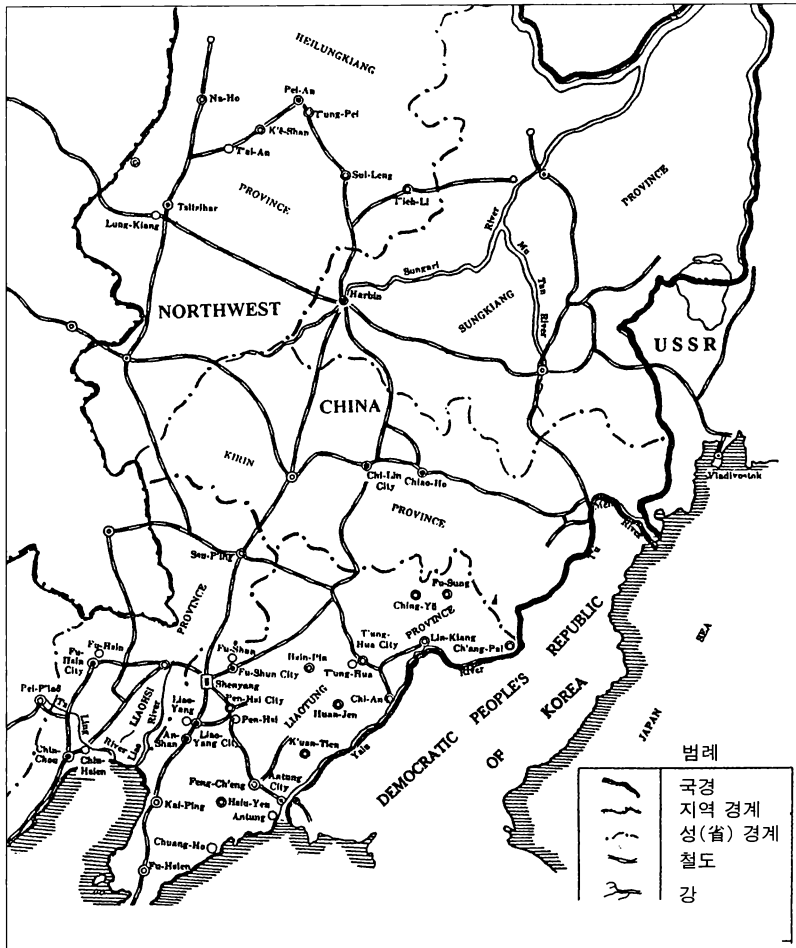
미국의 생물학전 공격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우언라이와 중앙전염병예방위원회는 1952년 5월까지의 상황을 조용히 평가했다. 적 비행기는 한국과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계속해서 유독한 곤충을 뿌려 대고 있으며 중국 중부와 남부로까지 살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4월에는 광둥성(廣東省)에 적기가 3백58회 출현했다. 한국에서 주요 문제는 페스트인 반면 중국 동북부에서는 뇌염이었다. '이상하게도 뇌염의 원인과 감염 수단이 아직 발견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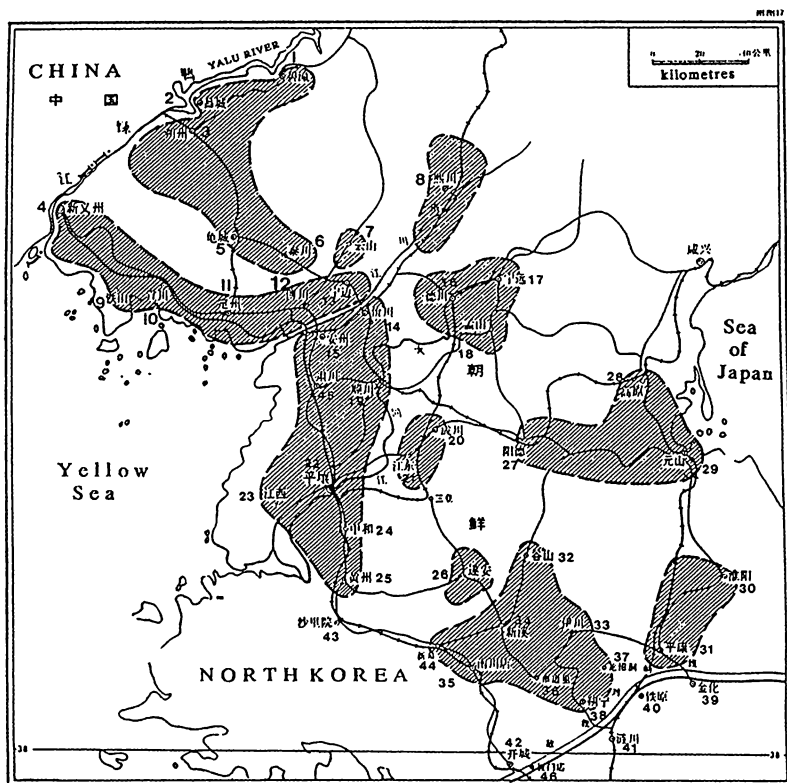
왔다.' 비록 페스트와 뇌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번지는 속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염병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다른 전염병 환자는 지난해보다 늘지 않았다. 전염병 예방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예방 캠페인의 성과는 컸다. 대중은 수백만 마리의 곤충과 설치류를 잡았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가 치워졌다. 동북부지역에서만 거의 3백만 톤에 달했다. '쓰레기 중 일부는 군벌시대, 일제시대,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국민당시대 그리고 현재 등 4개 기간에 걸쳐서 그대로 방치됐던 것이었다. 이번에 모두 없애 버렸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1천1백40만 명이 페스트 접종을 받았고 3백50만 명이 4종 또는 5종 종합 예방 백신을 맞았다.[37]

1년 뒤인 1953년 봄, 그리고 그해 여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국 동북부지역 지방 정부는 여전히 미국 공군이 '뻔뻔스럽게도 동북부지역에서 세균전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주 F-86, F-84 제트기와 가끔 B-26, B-29 폭격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비행기는 세균폭탄과 깃털, 목화 덩어리, 수수 잎이 담긴 용기를 떨어뜨렸다. 깃털에는 곤충, 거미 등이 매달려 있었다. 비행기는 또 가루 혼합물과 병원(病原) 매개 곤충을 스프레이 탱크를 통해 증기처럼 뿜어 냈다.[38]

호흡기 탄저병과 뇌염과는 별도로 1953년 1월부터 4월 사이 1백건의 갑작스런 죽음을 몰고 온 새로운 병이 등장했다. '특수한 형태의 폐렴' 또는 '폐 부종(浮腫)'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그 전년부터 주의를 끌었으며, 미국의 생물학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병의 발생과 확산, 예방과 치료와 관련해 중국 보건 당국은 '지식

중국 지도

'미군기가 침범해 곤충과 다른 물질을 떨어뜨린' 중국 동북부지역(1952년 2월 29일~3월 21일)
출처: 조지프 니드햄의 자료. 한국과 중국에서의 세균전 관련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제과학위원회 보고서, p. 61과 부록 p. 600, 베이징, 1952.

북한: 지도 17

미군이 1952년 세균을 살포한 한반도 전투 지역

주의: 이 지도는 원래 '적군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것임. 이것은 1956년 펑더화이와 덩화가 인민해방군 참모본부를 위해 만든, 아직까지 기밀로 분류된 시리즈 책자 가운데 하나다. 이 시리즈 책자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경험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 지도는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역사』(베이징, 1990)에 No. 17로 게재되어 있음.

부족으로 이 병을 파악하고 예방, 치료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안타까워했다.

1953년 전반기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 일반 현황(다시 말해 세균전과 상관없는 질병)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역 보건 당국은 홍역(8만 2천8백82건), 백일해, 디프테리아, 유행성 감기, 천연두(5건), 말라리아(1백 건) 등 모두 8만 9천8백12건을 전염병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2천6백62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2.96퍼센트였다. 보고서는 또 러허(熱河)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내몽고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 페스트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페스트를 옮기는 쥐들을 발견했지만 조사 결과 미군의 공중 활동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 밝혔다.[39]

병원체, 세균 운반 수단, 질병 등에 관한 증거를 적시한 중국 보건 당국 보고서는 종종 기본적인 기존 질병 자료와 실제로 뒤섞이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중국 보건 당국은 특정 질병에 대해 확신이 가득 찬 태도로 미국의 세균전을 원인으로 지목하다가도 때로 다소 자신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증거에는 세균폭탄 발견과 함께 적기의 출현에 대한 통상적 보고도 포함됐다.

한 보고서는 비행기 한 대가 기차역 근처에 금속성 깡통을 떨어뜨렸는데 이 깡통에서 파리와 모기가 나와 7백 평방미터 넓이까지 퍼져 나갔다고 전했다.[40]

다른 보고서는 적기가 나타나 객차에 기관총을 갈기더니 '콧물처럼 찐득찐득한 물질을 던졌다' 고 적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이 물질은 눈 속에서 하얗게 변했지만 난로와 나무 위에서는 갈색으로 변했고, 불을 붙이자 타올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시료 검사 결과는

문서에 남아 있지 않다. 또 다른 보고서는 기차가 지나간 뒤 갑자기 페스트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작고 검은 벌레가 들끓었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벼룩이 가득 찬 가방이 발견된 사실을 지적하며 적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41]

기차역 가까운 곳에서 전염 병균에 감염된 곤충이 확산됐다는 몇몇 보고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 추운 날씨에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메뚜기 떼에 관한 언급도 마찬가지였다.[42]

어느 다리에서 발견된 '20여 마리의 파리가 든' 가방은 보건 당국으로 보내졌다. 검사 결과는 서류로 남아 있지 않지만 12명의 다리 관리인 가운데 9명이 진단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43]

모기와 파리가 퍼진 지역에 있던 카이난 철도학교 학생 21명은 그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쓰러졌다고 보고됐다. 모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3개의 기차역 주변에서 발생한 페스트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44]

1953년 3월 6일과 13일에는 선양 공군기지의 수비대대 병사 2명이 '특수한 형태의 폐렴과 뇌염' 에 걸려 '급성 사망'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그 질병은 의심쩍었다.[45]

어떤 보고들은 계절에 맞지 않게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952년 3월 진저우 시 병원에 근무하던 일본인 간호사는 살모넬라 티푸스를 옮기는 모기가 자신의 고향 일본에서 흔한 '눈 모기' 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46] 아마도 일본에 있는 미군 406부대가 한국전쟁 기간과 그 이전에 광범위하게 실험한 '겨울을 나는 모기' 였을 확률이 높다.[47]

보건 당국은 쿠안디안 교외에 박테리아 깃털이 든 폭탄이 떨어진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깃털들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호흡성 탄저균과 유사한 세균'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중국 동북부에서 5번째로 확인된 세균전 사례는 뇌염과 심근염(心筋炎)에 감염된 닭털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48]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공식 보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생물학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자 정신에 가까운 비판성과 냉정함을 견지했다. 또한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를 정점으로 한 중국 지도부는 극비 보고를 해석함에 있어 공중보건 분야 종사자에게나 요구될 수준의 사실에 입각한 엄격한 접근법을 채택했다.

마오와 저우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다린 뒤 1952년 2월 말 미국이 실제로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의 의사 결정을 연구한 역사가 치더쉐 대령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 2월 초에도 마오와 저우는 그런 일이 실제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순이 되면서 그들은 콜레라와 페스트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저우언라이의 공식 발표는 니룽젠 총참모장 대리가 2월 18일 마오와 저우에게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보고는 2월 초의 반신반의가 중순에는 확고한 결론으로 바뀌는 상황을 보여 준다. 곤충을 처음 무더기로 발견한 것은 육군 42사단이었다. 2월 중순에 그들은 이 곤충들이 무슨 질병을 옮기는지 알게 됐다. 그것은 페스트와 콜레라였다.[49]

확신이 든 마오는 저우에게 전염병 예방 조직을 만들고 저우가 조

직을 이끌 것을 지시했다. 이 조직은 한편으로는 보건 전문가들이 일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참을성 있게 수집하는 통상 업무를, 다른 한편으로는 적들이 세균전을 펼치고 있다는 특이한 유형이나 명백한 증거를 찾는 업무 등 두 가지 일을 똑같이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마오와 저우 그리고 공산당 간부들이 공중보건 노력에 대한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균전 위협을 이용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실무진과 마오, 저우 등에게 미국이 야전군과 민간인, 통신 시스템을 겨냥해 생물학전 실험을 자행하고 있음을 확신시킨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5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당시 반(反)세균전 활동에 참가한 중국인들은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있을까? 1952년 봄 중국은 미국 세균전범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방대한 규모의 이 위원회는 2개 분과로 나눠져 하나는 북조선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하나는 중국 동북부지역으로 파견됐다.

북조선 위원회에는 저널리스트와 노조, 여성 · 청년 단체, 종교 및 기타 단체 대표 등이 포함돼 사회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동북부 위원회에는 다양한 의학 분야의 중국 과학자 · 전문가 40여 명이 포함돼 있었다.[50] 또 북조선 위원회가 지역 주민을 만나고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동북부 위원회는 증거 검토, 표본 조사, 실험 및 검시 등 과학적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의 지도자는 리데콴과 랴오쳉치였다.

중국 YWCA 회장을 지낸 리는 당시 보건부장이자 중국 적십자사 이사장이었다. 랴오는 중국 공산 정부의 핵심 인물로 그의 가족은 중국에서 최초로 공화국 형태의 정권을 세우려고 시도한 쑨원(孫文)을

적극 도운 전력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저명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대중의 각성을 집중시킬, 신뢰할 만한 목격자가 되려는 분명한 취지를 갖고 있었다.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 그러나 3명의 과학자와 1명의 역사가가 1994년 베이징에서 살고 있었고 이들은 이 책을 위한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자유롭게 외국으로 여행한 적이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일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다음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의 경험과 1952년 미국의 생물학전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힌 인터뷰의 요약이다.[51]

츄웨이판 교수

식물 병리학자인 츄 교수는 전공인 '콩에 나타나는 자줏빛 얼룩점'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R. G. 밀른 박사가 편집한 『식물 바이러스』(The Plant Viruses, 뉴욕, 1988)의 네 번째 장, 중국 편을 썼다. 츄 박사는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화원(異和園) 인근, 베이징 교외에 위치한 베이징 농과대학에서 인터뷰했다. 그곳까지 톈안먼(天安門)에서 택시로 1시간 이상 걸렸다.

> 지금은 82세지만 그때는 40살에 불과한 젊은이였다. 1948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1949년 해방 후 베이징 농과대학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들이 생물학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동료 중 한 사람인 제임스 워커 박사는 갑자기 비밀 작업을 위해 떠났다. 그는 벼에 나타나는 병 가운데 어떤 종류가 가장 파

괴적인지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벼 마름병이었다.

1951년 말에 미 공군은 '폭발 없이 열리는' 이파리 모양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폭탄에는 곤충과 함께 잎, 줄기, 뿌리 등 식물 부스러기가 있었다.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 과학자들은 곤충에서 세균을 분리해 내고 많은 질병들을 발견해 냈다. 우리는 세균을 배양했고, 이것은 보존됐다.

나는 식물 부스러기만 분석했는데 거기서 여러 균들을 발견했다. 그 중 콩에 기생하는 한 종류의 균은 특히 2가지 방식으로 콩에 피해를 준다. 첫째는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둘째는 콩에 자줏빛 반점을 생기게 하는데, 이는 그 콩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병은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들은 이 병을 유행병으로 성공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원했다.

베이징에 있다가 약 1주일쯤 하얼빈(哈爾濱)으로 가 머물렀다. 아마 1951년 11월쯤으로 기억한다. 나는 북한에 가지 않았다. 많은 동료 과학자들은 바깥으로 나가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투하 물질은 시험을 위해 내 앞으로 보내졌다. 나는 실험실에서 이 물질로부터 세균을 분리해 냈다.

우리는 또한 사람에게 전염되는 세균을 발견했다. 많은 마을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등 전염병이 돌았다. 방역 팀이 마을로 달려갔다.

미 공군이 세균전 수행을 위해 고안한 비(非)폭발성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증거가 있다.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1952년 말 즈음에 나를 포함한 몇몇 과학자들은 미국의 세균전 증거를 전시하기 위해 동부 · 중부 유럽으로 갔다. 우리는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방문했다. 전시회에 온 사람들은 세 부류였다. 어떤 이는 미국이 세균전을 펼쳤다고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이는 미국이 이미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생물학전을 펼치겠느냐며 의심했다. 나는 농업 문제와 관련한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 분야는 내 전공 분야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자줏빛 반점은 몇몇 지방에서 유행병이 됐다. 우리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종자를 바꿨다. 새 종자들은 자줏빛 반점에 저항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생충이 들어온 이상 병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츄 박사는 미국 비행기가 세균 물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그는 "나는 실험실에서 일했다. 시료는 나에게 배달된다"고 말했다.[52]

센치이 교수

인터뷰 당시 85세인 셴 교수는 베이징 농과대학 학장을 지낸 식물 병리학자이다. 1952년에는 미국 세균전범죄조사위원회 사무차장, 중국 과학지식보급위원회 지도위원이었다.

나는 생물학전을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에 협력했다. 동북부지역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북한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우리 대학 출신의 곤충학자인 리우중글루 교수는 매우 중요한 과학자였다. 세균전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른 채 조사를 위해 출발했다. 식물 물질이 널리 퍼져 있지는 않았다. 거기에는 이파리와 정체를 분간하기 어려운 다른 물질이 있었다. 리우 교수는 한 용기에서 감염된 곤충의 증거를 발견했다. 우리는 공중에서 떨어진 물건에서 채취한 시료를 배양했다. 츄웨이판 교수는 우리의 작업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에 있었다. 그는 중국에서는 생소한 몇 가지 균을 발견하고는 그 균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됐다. 나는 생물학전 전문가는 아니다.

그 당시에 생물학전은 특별한 것이었고 적은 결과를 알고 싶어했다.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했다. 최종적으로 모든 증거를 담은 큰 검은색 책을 펴냈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재검토했다. 국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조지프 니드햄 박사와 그 외 다른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검은색 책에는 이들의 이름이 수록됐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펴낸 책에서 이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 니드햄과 국제과학위원회 위원들은 미국을 비난했다.

나중에 츄웨이판 교수는 팀을 꾸려 증거를 갖고 외국으로 갔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들은 동독 라이프치히로 갔다. 증거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다.

작업은 2개월 가량 지속됐다. 우리는 선양(무크덴)과 안동 그리고 인근 시골 지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비행기를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보고 그 비행기가 떨어뜨린 물체를 보여 준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나눴다. 주로 거기에는 사람을 감염시키는 질병이 있었다. 미국의 생물학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 팀이 증거의 일부분만 수집했지만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다. 나는 중국 바깥이든 안이든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물론 생물학무기는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무기들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의 전략에서 주요 분야가 아니라 일부분일 뿐이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았다.

얀렌잉 박사

얀 박사는 베이징 연합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여성 질환 전문이다. 그녀는 1948~1949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뒤 귀국했다. 1952년엔 세균전조사위원회에서 중국 의사회를 대표했다.

1994년엔 세계보건기구(WHO)와 12년 동안 함께 활동한 베이징 의과대학 산하 모자(母子)건강센터 소장으로 있었다. 그녀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들어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전화로 그녀를 인터뷰했다.

얀 박사는 북한에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중국 조사 팀과, 한 번은 조지프 니드햄 박사와 함께였다. 그녀는 리데콴 여사의 통역으로 활동했으며 또한 샘플을 모으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데도 참가했다.

얀 박사는 "조사에 참여한 중국 과학자들은 명성이 높고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미국이 1952년 중국 동북부와 북한에서 생물학전

을 펼쳤다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랴오가일룽 교수

랴오가일룽 교수는 76세로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역사학 연구 교수다. 또 베이징에 있는 공산당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이다. 1994년 그는 덩샤오핑(鄧小平) 전(前) 주석의 전기를 완성하던 참이었다. 랴오 교수는 1952년 중국 평화위원회로부터 세균전조사위원회에 참가토록 위촉받았다. 그는 당시 평화위원회 내 '항미원조(抗美援朝) 전(全)중국 연맹의 공공교육부' 부부장이었다.

> 우리는 1952년 3월 15일 미국의 생물학전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베이징을 떠났다. 두 그룹으로 나눠 하나는 북한으로 하나는 중국 동북부로 향했다. 나는 동북부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과 페스트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정확히 적시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폭탄이나 다른 질병 매개물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랴오닝성 남부 쿠안디안 마을에서 있었던 조사가 잘 기억난다. 우리 일행 중에는 '리우중글루'라고 불리는 곤충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구공보다 크고 둥글게 생긴 도기 용기를 발견했다. 용기의 일부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 용기의 안과 주위에는 세균에 감염된 곤충이 있었다. 나는 탄저균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다. 압록강으로 가 약 2주 동안 머물면서 다른 증거도 발견했다. 나는 미군기를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미군 비행기들은 주로 우리가 잠자는 밤중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목적으로 한 생물학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페스트라는 전염병을 유발했다. 우리 판단은 미국이 이런 종류의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시도가 우리의 주의를 끌었다. 우리는 중국 동북부와 북한, 압록강 양안에서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 사람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그 결과 전염병이 멀리 확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는 없다. 나는 미국이, 비록 대규모는 아니지만 생물학전을 펼쳤다고 지금도 확신한다.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있었는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사를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시인하지 않고 있다.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수집한 증거에 따라 우리는 세균전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말한다. 비록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두 건의 조사가 더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 연정(聯政)의 식량장관인 프랑스 사회당 이브 파지의 조사였다. 그는 한국으로 갔고 내가 그를 수행했다. 그때가 6월이었다. 우리는 매일 밤 미군기를 봤다. 파지 장관은 비행기가 격추돼 사로잡힌 뒤 세균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실토한 미 공군 조종사를 면담했다. 파지는 조종사의 가족과 변호사, 미국 장관 등을 초청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저우언라이는

조심스러웠다. 저우언라이는 조종사가 자신의 진술을 철회해 우리가 곤경에 빠질까 염려했다. 중국군이 이렇게 말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후에 국제 과학자들의 대표단이 방문 조사를 벌여 마찬가지로 미국의 세균전을 확인했다.

우리는 1952년 8월에 캐나다에 대표단을 보냈다. 대표단은 토론토 로열 요크 호텔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때 나는 그해 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미국의 세균전을 보고한 메리와 제임스 엔디콧을 만났다.

나는 또한 랴오쳉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증거를 보기 위해 평양으로 갔다. 증거는 확실했다. 우리는 영화 제작자를 보내 영상에 담게 했다. 저우언라이는 채 정리되지 않은 필름을 본 뒤 나를 불렀다. 그는 미국이 빠져 나갈 구멍이 있는지 살펴서 필름을 잘 만들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이 수행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듯이, 세균전에 저항한 중국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실과 다른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연합군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에서 세균전을 목격한 뒤 이를 밝히려 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추적했으나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다.[53] 연합군측 고위 인사 중에서 나온 신뢰할 만한 증언은 한국전쟁 초기 호주 외무부의 종신 고문으로 있던 존 버튼 박사로부터이다. 버튼은 이후 사임했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란 자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참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버튼은 그 이후 전쟁 기간 중 중국을 방문했고 세균전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접했다. 버튼에 따르면 버튼의 후임자인 앨런 와트 경은 세균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호주 외무부가 통보받은 걸 알고 있지만 '문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54] 버튼은 와트 경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과 최근 공개된 랴오닝성 문서보관소, 중국 인민해방군 자료 등 중국측 문서를 실마리 삼아 우리는 추적을 계속했다. 그 결과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정점에 오른 냉전 초기에 미국이 세균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됐다. 추적은 또한 세균전의 진행 과정과, 한국전쟁에서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능력과 동기를 가졌던 인물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2 미국 생물학전의 기원: 제2차세계대전

세균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러한 질병들이 더 광범위한 실험을 위해 여러 대학과 민간 연구소에 연구 과제로 할당됐다.

조지 W. 머크, 생물학전 특별 고문, 1946년

미국이 세균전을 펼쳤다는 중국과 북한의 주장은 미국 정부가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군사 기밀 가운데 하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생물학전 수행 능력이다. 과연 미국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 대답은 2차세계대전 중 시작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세균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초기 연구 결과 생물학무기는 지지 받지 못했다. 1933년 미 화학전부대 의무과장인 레온 A. 폭스 소령이 작성한 뛰어난 보고서는 세균전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폭스 소령은 보고서에서 세균 운반과 아군 피해 차단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가까운 장래에 생물학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1] 그러나 미국이 1941년 2차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군사 · 산업 ·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물려 세균전을 재평가하게 됐다.[2] 위기의 시기에 세균전 재평가 요청은 호응을 받았다.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과 독일이 생물학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1939년 보고였다. 또 소련

과 프랑스,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까지, 게다가 캐나다, 폴란드 같은 약소 국가도 적극적으로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기는 힘들었다.

1939년 8월 미국 화학전부대는 9종류의 질병이 가능성 있는 세균전 무기 대상이라고 결론내렸다.[3] 2년 후인 1941년 7월 육군 의무감은 추가적인 연구를 지시했는데, 이 연구는 오랫동안 세균전 프로그램을 주창하고 폭스 소령의 입장을 비판한 제임스 시몬스 대령이 수행했다. 시몬스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군의감실에 있던 자료를 정리해 헨리 스팀슨 전쟁장관의 특별 보좌관인 하비 H. 번디에게 보냈다.

시몬스는 방어 목적의 세균전뿐만 아니라 공격용 세균전을 위한 연구를 요청했다. 단순히 보복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것인지의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 남겨 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군사적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육군 의무부대의 윤리적 고민과 관련해서 시몬스는 이렇게 언급했다. "의무 부서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유형의 '공격적인' 전쟁 수단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의무부대 이외의 다른 부서 단위에서 수행해야만 한다."[4]

한 달 후인 1941년 8월 20일 번디 특별 보좌관은 시몬스의 제안을 검토하고 도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군 의약 · 의학 · 과학 연구 · 정보 부문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군의감실, 화학전부대, 국립연구자문위원회, 과학연구개발실 산하 의료연구위원회, G-2(정보 기관) 등의 대표였다. 회의에서는 세균전을 공격용으로 개발하자는 시몬스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다.

의무부대의 도덕적 곤경을 해결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시몬스 위원회'는 공격용 · 방어용 세균전을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 다만 군의감실과 육군 의무부대는 공격용 세균전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방어용 세균전을 위한 위원회와 공격용 세균전을 위한 위원회를 분리하지만 두 위원회가 '실제로는 하나'임을 밝힘으로써 위선적인 '해결 방식'을 내놓은 것이다. 공격용 세균전 위원회는 .'인간 의학과 수의학,……, 곤충학, 식물 병리학, 독물학(毒物學), 토양 화학 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군 종사자는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지만 '위원회 구성원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보고 창구도 공격용과 방어용이 분리됐다. 공격용 세균전 보고는 화학전부대에게, 방어용은 육군과 해군의 군의감에게 제출토록 했다. 시몬스 보고서는 육군 의무부대와 의사인 이 부대 장교들이 화학전부대를 만든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5]

헨리 스팀슨 전쟁부 장관은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주도할 저명한 과학자와 학계 인사를 즉각 소집했다. 스팀슨 장관은 1941년 10월 1일 국립과학아카데미 소장에게 민간세균전위원회(Bacteriological Warfare Committee)를 구성토록 요청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6]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작용해서인지 위원회 이름은 'WBC 위원회'로 바뀌었다. 위원회의 과학자들은 즉시 영국, 캐나다의 세균전 프로그램과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1942년 2월 WBC 위원회는 세균전이 실행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모든 공격용 · 방어용 세균전 가능성을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스팀슨은 이 권고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직접 통제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쟁부가 공격

적으로 세균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중이 우려하는 상황을' 합동참모본부는 방지하고 싶어했다.[7] 스팀슨은 이에 따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긴 메모를 보내 민간 기구를 통해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힘차게, 비밀스럽게 추진하자고 설득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약 2주 후 스팀슨에게 편지를 보내 메모를 읽어 볼 시간이 없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지시한다고 말했다.[8] 기록상으로 루스벨트가 세균전을 불쾌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감정은 스팀슨도 공유하는 것으로[9] 루스벨트는 '일본과 독일의 세균전 개발 우려와 전문가 충고에 완벽하게 설득당했다.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이 국가안보를 내세운 주장에 굴복한 것이다.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 화학 업계가 적극적인 화학전 정책을 정부에 로비한 것처럼 2차대전 기간에는 제약 업계가 적극 나서서 세균전 개발을 부채질했다. 거대 제약회사 머크사 회장인 조지 W. 머크는 루스벨트 정부에 의해 민간전쟁연구(War Research Service: WRS)위원회(화학전연구위원회 후신)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1942년 3월 창설된 WRS 위원회는 생물학전 작업을 총괄 ·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머크 위원장 아래로 에드윈 B. 프레드 박사가 조사 · 연구 총책임자, 소설가 존 P. 마퀀드가 정보 · 첩보 총책임자로 임명됐다. 적의 세균전 개발 첩보는 육군, 해군 정보실, 전략부대실, 연방수사국(FBI)이 제공토록 했다. 홍보 활동은 전쟁부 선전국, 전쟁정보실, 감찰실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WRS는 연방안전국 내 사회 안전을 취급하는 하부 조직에 편제됐다.[10]

WRS의 역할은 병원체와 관련한 지식의 범위를 확장해 이 물질을 이용한 적들의 공격을 막아 내는 한편 전쟁 무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머크가 이끄는 위원회는 국립과학아카데미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갔다. 국립과학아카데미는 각계 전문가들로 별도 연구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ABC 위원회'라는 코드명으로 불려졌다. ABC 위원회는 마요 재단, 국립연구자문위원회, 국립과학아카데미뿐 아니라 예일 · 콜롬비아 · 존스 홉킨스 · 밴더빌트 · 펜실베이니아 · 일리노이 대학 등의 정예 과학자들을 끌어들였다. 위원회에는 또 육군, 해군, 공중보건청, 농업부 대표도 포함됐다. 화학전부대 내에서 생물학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한 시몬스 장군은 위원회의 연락관을 맡았다. ABC 위원회 위원장 W. 맨스필드 클라크 박사는 민간인 협조로 생물학전 개발이 진행되던 성급한 초기 시기에 이 위원회의 특징적인 단면을 상징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클라크 박사는 또한 국립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이었고, 국립연구자문위원회 화학기술 분과장이었다. 그가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ABC는 WBC를 승계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11]

적합한 공공 기관이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담당함에 따라 미국 전쟁부는 손을 뗐다. 1943년 12월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 생물학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실행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고, 게다가 독일이 세균 로켓을 발사해 영국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첩보가 입수됐다. 전쟁부와 대통령은 세균전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그 목적을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6월 해군부와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던 전쟁부에 그 과제를 이관했다.

조지 머크의 WRS는 대학의 연구를 계속 지원했고, 과학 인력과 관련 설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전쟁부 장관은 머크를 생물학전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다. 민간 협력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국립연구자문위원회가 만든 위원회에 의해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이제 군이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됐다. 직접적인 책임은 의무부대와 의무부대가 창설한 화학전부대에 지워졌다. 화학전부대는 윌리엄 포터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다. 새 생물학전위원회는 10명의 고위 장교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전쟁부와 해군부에 조언했다.

생물학전 프로그램은 전시 기준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은 25만 달러의 예산으로 처음 시작했으나 곧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성장했다.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규모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였다. 우선 순위가 부여된 생물학전 프로그램에는 2차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에는 약 4천 명의 인력이 투입돼 있었다.[12] 활동의 중심지는 화학전부대의 특별 프로젝트 부서와 메릴랜드 주 디트릭 기지에 새로 건설된 이 부서의 연구개발센터였다.

디트릭 기지는 1943년 4월 세워졌다. 당시 화학전부대의 메릴랜드 주 에지우드 군수창이 더 이상 다른 연구 활동을 수용할 수 없는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해 말 디트릭은 대규모 연구 실험실로 변모한다. 더불어 미시시피 주 혼 섬에 소규모 실험실이 건설됐으며, 1944년 여름에는 유타 주 더그웨이 무기 성능 시험장 내 그라나이트 봉(峰)에서 대규모의 정밀 작업이 시작됐다.

디트릭 기지 과학자들은 광범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 대상은 탄저병, 브루셀라병(波狀熱), 보툴리누스 독소(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옮긴이 주), 페스트, 리신(독성 물질의 하나: 옮긴이 주), 곡류 · 감자 · 사탕무 등의 마름병, 역병(疫病, 감자, 토마토 등에 큰 피해를 주는 병:

옮긴이 주), 감자 역병, 쌀의 갈색 반점병, 식물 성장 장애제, 우역(牛疫, 소 · 양 등에 나타나는 전염병: 옮긴이 주), 비저병(鼻疽病, 말 · 당나귀 등에 나타나는 전염병: 옮긴이 주)과 유비저(類鼻疽, 비저병과 유사한 병: 옮긴이 주), 야토병(野兎病, 페스트 비슷한 설치류의 전염병으로 사람 · 가축에게도 전염됨: 옮긴이 주), 홍합 등 말조개 속(屬)의 독소,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眞菌症), 리케차(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미생물: 옮긴이 주), 앵무병(조류鳥類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으로 폐렴과 장티푸스 비슷한 것: 옮긴이 주), 향신경성 뇌염, 뉴캐슬병, 가금류 인플루엔자 등이었다. 과학자들은 독립적으로 실시된 콜레라, 우역, 구제역(口蹄疫) 등의 연구와 캐나다의 발진티푸스 연구도 검토했다. 이어 과학자들은 리신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P&G, 앨버타 서필드에 있는 영국 연구 팀도 참여했다. 1943년 말 리신 개발 팀은 리신이 보툴리누스만큼 치명적이지만 생산 가격은 싸고 생산이 더 수월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른 병원체들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진행됐다.(머크는 모든 잠재적 병원체를 모두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디트릭 기지에서 가장 먼저 집중적인 관심을 끈 것은 탄저균과 보툴리누스 독소였다. 영국과 캐나다는 상당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에는 병원체 및 세균무기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야전 실험도 포함됐다. 미국의 화학전부대도 혼 섬에서 보툴리누스를 이용해 야외 실험을 벌였다.

작전 목적의 병원체를 대량 생산하는 것도 디트릭 기지의 임무였다. 화학전부대의 윌리엄 포터 장군은 이 때문에 위스콘신 대학의 이라 볼드윈 박사를 실험실의 수석 과학 책임자로 선택했다. 볼드윈 박사는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상업적인 대규모 세균 생산

에 정통한 농업 세균학자였다. 볼드윈 박사는 화학전부대와 가진 초기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1만 갤런 분량의 세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알렸고, 이 때문에 자신을 고용했다고 생각했다.

디트릭 기지 과학자들은 대량 생산된 병원체를 효율적으로 집적해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즉 세균무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영국, 캐나다 연구 팀과도 공동 작업을 벌였다. 과학자들은 주로 작약형 폭탄과 가스 배출형 폭탄 개발에 주력했다. 그러나 병원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형태의 무기를 검토했다. 과학자들은 연무(煙霧)구름 생산과 연막탄을 실험하기도 했다. 또한 대포 탄환 형태를 연구했다. 미시시피 주 혼 섬 연구기지에서는 과학자들이 병원체 매개자로 곤충을 실험했다. 최초로 곤충 실험을 시작한 캐나다 연구 팀이 공동 작업을 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실험을 거쳤고 작전 무기로 사용될 준비가 제일 잘된 세균 운반 수단은 영국에서 고안한 4파운드짜리 연무형 소형 폭탄이었다. 이 폭탄은 표준 5백 파운드짜리 집속(集束)폭탄으로 개량될 수 있었다. 개별 집속폭탄 속에는 1백6개의 소형 폭탄이 담겨 있어 거대한 포도송이를 연상케 했다. 미국은 30파운드짜리 소형 폭탄 14개를 한 묶음으로 만든 변형 집속폭탄을 만들었다. 집속폭탄은 지상에서 산탄(散彈) 형태로 폭발하면서 개별 송이(소형 폭탄)를 상당히 넓은 지역에 원하는 형태로 뿌릴 수 있다.

영국은 스코틀랜드 해안 무인도 그루나드 섬에서 이 폭탄에 탄저균을 탑재해 실제 폭파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을 끝냈을 때 탄저병은 인근 섬까지 번졌다. 이 섬은 이후 40년 동안 격리 검역 조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영국의 실험을 바탕으로 연합군은 첫 번째 실제 생물학

전 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폭탄은 포자 형태로 탄저균을 뿌릴 수 있었다. 캐나다는 서필드에서 탄저균 폭탄을 대상으로 추가 시험을 시행했다. 나중에 집속폭탄에 보툴리누스, 야토병 등 다른 많은 병원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거쳤으나 탄저균이 폭탄화할 수 있는 최적 선택으로 떠올랐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군인과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고와 백신 개발에도 노력했다. 기술자들은 보호 마스크와 보호 의복을 개발했다. 디트릭 기지 특별 프로젝트 부서의 임무는 이처럼 광범위한 실험을 포괄하는 대규모 연구였다.

하지만 포터 장군은 1944년 6월 머크와 볼드윈으로부터 세균전 연구 개발 지휘권을 넘겨받은 뒤 탄저균에 초점을 맞췄다. 포터 장군은 물러난 볼드윈이 만든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4파운드짜리 폭탄 50만 개를 만들어 달라는 영국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 탄저균 대량 생산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따라 탄저균 폭탄은 2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르면 대량살상무기로서 사용 가능해진다. 디트릭 기지의 H. I. 스터블필드 박사에 따르면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시점에서 탄저균과 보툴리누스는 '단기간에 보복용 무기로 쓰기에 충분한 양만큼 생산될 수 있었다.'

보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역으로 기회를 잡아 먼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캐나다 과학자들이 자국군과 영국군을 위해 면역 체계를 개발한 것처럼 미국의 디트릭 기지 과학자들도 이미 효과적인 톡소이드(화학적 처리를 통해 무독화無毒化한 독소로, 항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옮긴이 주)를 대량 생산한 상태여서 더더욱 그랬다. 인체 실험을 이미 거친 이 톡소이드는 미군에게 A형, B형 보

툴리누스에 대한 면역을 제공할 수 있었다. 미군은 침공 작전에 투입하는 모든 부대에게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면역 물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격용 생물학전 가능성에 대해 덧붙이자면, 영국이 페니실린을 발명했고 캐나다와 미국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춤에 따라 연합국은 탄저병 해독제를 갖고 있었지만 독일 등 추축국에는 이 해독제가 없었다. 디트릭 기지 과학자들은 또한 야토병, 브루셀라병, 비저병 등에 대한 면역 체계 개발을 확신했다. 의무부대와 화학전부대가 무기와 면역 체계 개발에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과학자들은 영국과 캐나다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균전에 장래성이 있다며 고위 정책 결정자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했다.[13]

위기의 시기에 다른 무기로는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없고 세균무기를 작전에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연합국이 세균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했으리라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2개의 세계대전 사이에 진행된 군비축소 협상에서 생물학무기 사용에 관한 도덕적 논란은 생물학무기를 실제 전쟁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슬그머니 사라졌다.[14]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미국 대통령은 1953년에 쓴 편지에서 만약 태평양전쟁이 1945년 8월에 끝나지 않았다면 화학무기뿐 아니라 생물학무기까지 사용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15] 루스벨트는 전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리고 루스벨트는 가까운 보좌관들이 1944년 일본의 벼 작물을 대상으로 생물학전을 펼칠 것을 검토할 때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16] 신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과학 프로그램을 창설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무기 사용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다.

일부 장교들은 화학무기(취지로 미뤄 생물학무기까지)가 정통 군사학의 품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나[17] 육군 의무부대와 그 곁가지인 화학전부대에는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화학 약제와 생물학 세균을 군사용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세균전(細菌戰)용 병원체를 개발하기 위해 나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을 손상시켰다. 아마도 많은 의심이 들었겠지만 호기심에 굴복했을 것이다. 윌리엄 D. 리히 해군 사령관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생물학전 사용에 대해 의미 있는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반향이 적었다. 생물학전을 옹호한 사람들은 파시즘과의 투쟁이라는 고매한 의무감을 내세워 합리화했다. 디트릭 기지의 고위 과학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는 화재와 싸우고 있었고, 그 때문에 화상뿐만 아니라 더럽혀지는 것까지 감수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오크 리지(오크 리지 연구소를 지칭.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따라 수천 명의 과학자가 모여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곳: 옮긴이 주), 핸포드(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도시. 2차세계대전 당시 핵 연료 물질을 만들던 곳: 옮긴이 주), 시카고(1942년 12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 융합 실험이 이루어진 곳: 옮긴이 주), 로스앨러모스(뉴멕시코 주에 있는 마을. 원자폭탄 점화장치를 개발한 곳: 옮긴이 주) 등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도덕적 문제를 해결한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18]

미국과 연합국이 전면전으로 향하고 있던 전시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전쟁에서 공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리히 사령관 같이 마뜩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쳐 두더라도 생물학·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미국과

세계의 여론이 전쟁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좀처럼 떨쳐 버릴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미국은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1925년 제네바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부담감은 정치적으로 아주 컸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생물학무기를 금지하는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생물학무기 생산과 관련해서는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국제 사회로부터 비준을 거부한 의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심을 사 왔다.

또 다른 제약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군사 목표물이 그런 위험을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이 부분은 본토 방어 작전을 펼치던 그 시절의 일본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치던 당시 유럽에서는 걱정거리였다. 전장이 일본 히로시마와 가까워지면서 미국 정보 기관은 일본이 생물학전 능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에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일본이 수백 개의 기구를 띄워 그 중 많은 기구가 미국까지 닿았을 때, 특히 일부가 일리노이 주까지 날아왔을 때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생겼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본이 세균무기로 미국 본토를 보복 공격할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19]

윌리엄 포터 장군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전장에서 실험하기를 열망했고, 2차세계대전 중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략사무국(OSS) 과학 고문인 스탠리 P. 로벨은 포터 장군의 열정을 지지했고, 군 지도부는 몇몇 까다로운 상황에서 생화학무기 사용을 심사숙고했다.

미군이 세균무기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첫 상황은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이 1943년 2월 북아프리카 '카세린 요충지' 에서 미군

에게 타격을 가한 직후였다. 미국은 독일의 승리가 스페인 파시스트 정권의 추축국 가담을 부추길까 봐 우려했다. 로벨은 캐나다의 세균전 프로그램 과학자들과 함께 세균전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집파리를 유인할 곡류 등을 다른 혼합물과 섞어 염소 똥 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앵무병균, 야토병균에 감염시킨 뒤 비행기로 적국 전역에 뿌리자는 것이었다. 미국의 개입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마련한 계획이었다. 미군 지휘부가 그 당시 기괴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계획의 실행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롬멜이 물러났고 이에 따라 계획은 폐기됐다. 캐나다에서, 그리고 미국 · 캐나다 공동으로 혼 섬에서 세균을 묻힌 파리 미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20]

또 다른 사례로 미 합동참모본부는 피비린내 나는 타라와(태평양에 있는 섬: 옮긴이 주) 전투를 겪은 뒤 이오지마(태평양에 있는 섬: 옮긴이 주)에 대한 가스 공격에 동의했으나 루스벨트 대통령이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다.[21]

1944년 포터 장군은 세균무기의 개발이 진전돼 세균무기가 가스보다 더욱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다.[22] 그는 전쟁에 동원될 것이라는 희망에 세균전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했다. 1944년 초 독일이 미군의 유럽 진군에 대항하기 위해 보툴리누스균을 이용해 세균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OSS가 제공했을 때 포터의 세균전 프로그램에는 더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같은 가능성에 대응해 미국과 캐나다 세균전 프로그램 팀은 유럽 진출 군인에게 제공할 충분한 양의 보툴리누스균 톡소이드를 준비함으로써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나중에 독일군이 세균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나왔지만 포

터 장군은 볼드윈 박사를 밀어내고 세균전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했다. 그는 틀림없이 태평양전쟁을 내다보고 있었고, 아마도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에서 세균전을 펼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희망한 듯했다.

포터는 처칠의 과학 보좌관 처웰 경이 처칠에게 세균무기가 적어도 원자폭탄과 동등한 초강력 무기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신시켰고, 처칠은 처웰의 결론을 영국 장성들에게 회람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영국군 참모본부가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세균무기에 대한 처칠의 정책에 제한을 가했고, 처칠이 그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영국이 50만 발의 탄저균 폭탄을 주문하고, 이것이 미국의 유럽 진공과 동시에 진행됐을 때 포터는 틀림없이 영국이 탄저균 폭탄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희망에 차 있었다.[23]

유럽에서 세균무기 사용이 현실화되지 않자 포터는 그의 휘하 부대를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마지막 시도를 벌였다. 1945년 여름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바로 직전 포터는 자신의 오래된 제안을 수정했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이 루스벨트 전임 대통령보다 제안을 더 잘 수용할 것으로 믿고, 일본 벼 농작물을 오염시키자는 제안을 다시 내놓았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을 기대한 군 지휘부는 세균전의 여파가 1년 이상 지속되며,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국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포터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국방부 장관 러빗의 승인하에 그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이 항복하면서 계획은 폐지됐다.[24]

미국의 유럽 진공이 난항에 빠졌더라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포터의 경쟁자들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또는

일본이 8월에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포터는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 실험은 또 다른 전쟁을 기다려야만 했다.

3 일본 커넥션

이시이 시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으로 인해 아마 중국에서 전범으로 지명 수배될 것이다.

미국 군사 정보 보고서, 1947년 9월 6일

미군은 실제 실험에 직접 관련된 20여 명을 심문했다. 그 결과 미국만이 이 작업의 전모를 전적으로 보유하게 됐다.

맥퀘일 대령, 이시이 장군의 생물학전 실험에 대한 보고서에서, 1947년 6월 10일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는 것은 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수년 동안 미군 정책 입안자에게 구미가 당기는 선택이었다. 냉전 초기에 소련의 생물학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2차대전 시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냉전: 옮긴이 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였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는 점(2차대전 중 원자폭탄 개발에 20억 달러가 든 반면 생물학무기 개발에는 6천만 달러가 소요됐음)과 생물학무기 연구에서 빠른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전후 예산 삭감에 직면한 정치 · 군사 지도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공중에서 투하하는 생물학무기가 전략적인 원자폭탄과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추진력에 더욱 힘을 보탰다. 또 어떤 전략가들은 대량

살상무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 속에서도 생물학무기 병원체가 비밀 · 전략 · 전술 작전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1947년 미국 정부가 실험 결과, 특히 끔찍한 인간 생체 실험 결과를 미국이 배타적으로 얻는 대가로 세균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인들을 전범 기소에서 면제해 주기로 한 결정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생물학전의 가능성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일본의 실험이 처벌받아 마땅한 전쟁범죄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또 그들은 미국 시민과 국제 사회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비밀 거래를 적발해 낼 위험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했다. 일본의 생물학전 연루 인물 몇 명을 사로잡고 만주에서 잔여 세균전 시설을 파괴한 소련이 미국의 은폐를 폭로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련 정부는 결국 사로잡은 일본 생물학전 프로그램 참여자를 만주 국경선에서 멀지 않은 시베리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전범으로 공개 재판에 회부했다. 소련은 일본으로 달아나 미군에게 붙잡힌 일본인 세균전 연루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소련은 731부대 지휘관인 이시이 시로 중장과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뒤에서 추동한 세력의 운명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미군 합동참모본부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육군 화학전부대는 이 같은 위험을 가늠해 본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비밀 거래가 우연히 발각되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일본의 자료는 가치가 높다고 결론내렸다.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병원체 실험 결과였다. 또한 일본의 세균무기 운반 수단과 야외 실험에 대해서도 큰 관심

이 있었다.[1]

1945년 10월 트루먼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공대(MIT) 학장 칼 T. 콤튼 박사를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본의 과학 개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 밀사로 일본에 보냈다. 1947년 미 합동참모본부는 증거를 전범재판소에 넘기기보다는 '정보 채널'에 털어놓고, 대신 기소 면제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거래를 이시이 중장과 맺었다.[2] 이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가 시급하게 일본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폐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됐다. 1950년대에 이미 몇 명의 일본 퇴역 군인들이 자신의 체험기를 출판했지만 이 사건을 주제로 한 모리무라 세이치의 베스트셀러 역사 소설 『악마의 폭식』은 1981년에서야 발간됐으며, 731부대를 다룬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1시간짜리 TV 다큐멘터리가 요시나가 하루코에 의해 제작돼 도쿄 방송(TBC) 전파를 탄 게 1976년이었다. 미국 정부와 일본 이시이 중장 사이의 비밀 거래를 입증하는 최초의 문서상 증거는 거래가 일어난 지 35년 만인 1980년, 지칠 줄 모르는 저널리스트인 존 윌리엄 파월에 의해 발견돼 일반에 공개됐다. 파월은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추적한 고발 정신이 강한 저널리스트이다.

유명한 미국인 잡지 편집자 J. B. 파월의 아들로 1919년 중국에서 태어난 파월은 2차세계대전 중 미국 전쟁정보국에서 근무했다. 파월은 아버지가 일본 포로수용소에서 학대를 받아 숨진 뒤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회원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다. 파월은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월간 중국 리뷰』(China Monthly

Review)의 편집인과 발행인으로 일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유엔의 역할을 비판하고, 미국이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북한과 중국의 비난을 지지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1953년 이 잡지의 미국 내 우편 반입을 금지했다. 주요 독자를 잃은 파월은 그해 잡지사 문을 닫고 미국으로 귀국했다. 파월은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해달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요청을 거부한 뒤[3] 의회의 여러 위원회로부터 시달림을 받았고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했다. 파월은 결국 1956년 2명의 편집 조수인 아내 실비아 캠벨 파월, 줄리안 슈만과 함께 반정부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은 한국전쟁 중 세균전 보도를 포함해 중국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주장한 '고의적인 오보'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을 처지였다. 파월 등 편집진은 전국법률가조합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을 강력하게 방어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결국 기소는 철회됐다. 1961년 존 F. 케네디가 아이젠하워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이 사건은 정부 요청에 의해 취하됐다.

수년 후 사건의 여파가 진정된 뒤 파월은 미국의 세균전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자들에게 가끔 행운의 사건이 일어나듯 파월은 맥아더 장군이 관련자 몇 사람과 주고받은 비망록을 입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일본 세균전 전범과 맺은 거래의 증거를 들춰 냈다. 비망록을 주고받은 당사자는 맥아더의 정보 보좌관인 찰스 윌라비 장군, 법률 고문 알바 카펀터,[4] 국무-전쟁-해군부 조정위원회였다. 파월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참여 아시아 학자 회보」(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를 통해 폭로했고, 이어 이 내용을 축약해 「핵과학자 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했다.[5] 미국 정부는

파월의 폭로를 계속 부인했으나 2년 후 일본 정부는 이시이 중장이 엄청난 퇴직 연금을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2차세계대전 당시 세균전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식 시인했다.[6]

두 나라가 숨겨 온 것은 세계에서 처음 실시된 주요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932년 시작됐으며 중국 군대를 대상으로 실제 작전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소 1만 명의 전쟁 포로에게 생체 실험한 과거 역사를 은폐했다는 사실이다. 전쟁 포로는 대부분 중국군이었다. 일부 러시아군이 포함됐으며 미국 정보 기관[7] 판단에 따르면 미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극악무도한 실험을 당한 끝에 숨졌다. 몇 가지 실험 내용은 나중에 소름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밝혀졌다. 일본 세균전 과학자들은 몇 명의 포로들에게 치명적인 세균을 주입한 뒤 이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으면 죽을 때까지 실험을 계속했다. 어떤 포로들은 야외에서 5미터 간격으로 박힌 말뚝에 묶였다. 이어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탄저병, 콜레라, 페스트균, 가스 괴저(壞疽) 등의 세균이 담긴 폭탄이 전류에 의해 폭발했다. 일부는 파편에 의해 즉사했으나 일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부지했다. 일본 의학자들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생명 유지 기능을 기록했다. 만주에 있던 이 죽음의 공장에서는 살아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해부도 행해졌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실험용 포로들은 특수 감옥에 수용됐으며 의료 과학자들은 보통 이들을 '마루타(통나무)'로 불렀다.[8]

이 프로그램은 수자원정화부대란 간판을 내걸고 창설됐다. 그 중심부에는 이시이 시로가 이끄는 731부대가 있었다. 이시이는 의학 박사였으며 열정적인 노력으로 일본군 중장까지 오른 직업 군인이었다.

이시이의 생각은 만주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의 이해와 부합했다. 관동군 지도자들은 강한 반공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소련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북진 전략'을 주장했다. 관동군은 서방 국가의 식민지를 상대로 한 남진 정책에 반대하고,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 정복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생물학전은 소련군과 비교해 수적인 열세인 일본군 전력을 소련과 엇비슷하게 만들어 줄 잠재력이 있으며 동시에 소련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는 이시이의 주장을 관동군 지도자들은 받아들였다. 만주의 수자원정화부대는 천황의 칙령에 의해 창설됐으며 천황 가족 중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관여했다.[9]

이시이 개인에 대한 미군 정보 장교들의 평가는 그를 전범에서 면제시키기 위한 길을 닦아 주었다. 정보 장교들은 1947년 한 보고서에서 이시이를 '학구적이고 솔직하며, 인정 많고 친절하다'고 묘사했다. 나아가 '이시이는 친미적이며, 미국의 정신 문화와 자연과학을 존경한다'고 적었다.[10]

일본의 세균전 지식을 얻기 위해 미국 화학전부대와 극동사령부, 군무국장, 합동참모본부, 전쟁부, 국무부, 법무부, 전쟁범죄 담당 수석검사 등 모두가 이시이 장군과 그 공범자들을 전범 기소에서 면제시켜 주는 데 한몫씩 했다. 그들은 지구 저쪽 편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미국 대표가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규탄했던 그런 범죄를 숨기는 일에 의도적으로 가담했다.[11] 하바로프스크에서 진행된 소련의 일본 세균전 전범재판에 대해 말하자면, 그곳에서는 일본의 실험 증거가 상세하게 세계에 드러나고 있었는데 미국의 군부, 정계, 학계, 언론계는 당시 그것을 '쇼 재판', '허튼 수작', '이미 죽은 이슈' 그리고 '선

전 목적을 위한 무대' 등으로 격하했다.[12]

미국은 그 거래로 무엇을 얻었는가? 미국 문서보관소에서 이용 가능한 기록에 따르면 이시이 장군과 그의 부하 과학자들에 대해 최소 24차례의 인터뷰가 있었으며, 이 인터뷰는 존속된 기록 또는 재구성된 기록, 사진물 등에 의해 뒷받침됐다. 이시이는 자신이 직접 연구 작업을 벌인 보툴리누스 중독증, 브루셀라증, 가스 괴저, 비저, 인플루엔자, 페스트, 천연두, 파상풍, 야토병 등에 대해 보고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은 키타노 마사지 중장으로 그는 출혈열, 선(腺)페스트, 탄저병, 진드기 뇌염, 발진티푸스, 이질, 장티푸스 등에 대해 진술했다. 또한 파상열(undulant fever), 콜레라, 복어 독, 뮤신(점액소粘液素), 살모넬라, 쓰쓰가무시병(털진드기병), 결핵 그리고 각종 식물 병 등에 대한 진술도 있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병원체를 조사했지만 몇 가지 종류에 집중했다. 페스트는 모든 실험실에서 중점을 둔 연구 대상이었으며, 탄저병 · 콜레라 · 발진티푸스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일본 과학자들은 35건 이상의 보고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8백 차례 이상 실시된 인체 실험 관련 슬라이드 사진 8천여 개가 딸려 있었다. 또 인체 실험과 관련해서는 3백50쪽에서 8백 쪽 이상 되는 비저병, 페스트, 탄저병 등에 대한 3건의 검시 보고서도 포함돼 있었다.[13]

미국 과학자들은 일본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해 20건 이상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미국 생물학전프로그램연구센터 디트릭 기지에서 기초과학 분야 책임자로 일했던 에드윈 V. 힐 박사는 1947년 11월 일본에서 귀국한 뒤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는 생물학전의 많은 분야를 크게 보완하고 강화했다"[14]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전문가는 벼

록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실험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15] 이시이는 벼룩에 의한 선(腺)페스트균 확산에 특별히 열중했고, 효과적인 무기 운반 시스템의 하나로 자기(磁器)로 만든 폭탄을 개발했다.[16] 다양한 분야가 집결돼 이뤄진 광범위한 실험으로, 일본의 정교한 인체 실험 기록은 미국의 생물학전 지식 체계를 강화했다. 미국은 이로써 미국·캐나다·영국의 공동 작업이 일본보다 앞선 분야를 확인했고, 또한 연합국을 압도하는 분야의 일본 자료를 끌어올 수 있었다.

또한 세균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연합국의 세균 운반 시스템은 아마도 일본보다 앞섰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생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세균무기를 실험했다. 그들은 생물학전 병원체를 실어 나를 운반 수단으로 연무질(煙霧質)과 깃털을 실험했다.[17] 비록 탄저균 폭탄을 개발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명백한 실패로 끝났지만 키타노 중장은 공중에서 페스트균을 뿌리는 야외 실험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지금까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기밀 해제된 문서 가운데 일본 관동군이 중국인에게 생물학무기를 사용한 뒤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없다. 이시이가 추운 날씨에 생물학무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 생물학전에 관한 자신의 전술·전략적 아이디어를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년 이후 미국이 생물학전에 사용할 소형 폭탄을 고안하고 실험하는 개발 과정에 일본의 정보가 크게 도움을 줬다는 증거가 있다.[18]

4 마셜 국방장관과 프로그램 재개

무기를 도덕적인 유형과 비도덕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잘못된 개념이 발전돼 왔다.

1950년 6월 30일 미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스티븐슨 보고서

생산력에 있어 미국보다 열등한 적(敵)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효과적인 무기의 수와 종류가 증가할수록 빠르게 산업적 피폐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스티븐슨 보고서

일본의 생물학무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확보하려는 비밀작전은 미국의 세균전 프로그램과 연계된 전 영역에 걸친 활동의 전후 복구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과학계와 업계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단체가 새롭게 동원됐으며 정책이 만들어졌다. 또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고 전략과 전술 이론, 원칙과 계획이 개발됐으며 전략적 임무가 부여되고 각 군은 작전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일본의 패전 직후 전쟁부(戰爭部)[1]의 지시로 뒤에 화학부대로 바뀐 화학전부대는 세균전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상당히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전쟁부 특수 참모 산하 신개발국 국장은 이후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정부 기관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계획을 승인했고, 이것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의학적 문제와 관련해 의무감의

지원을 받아 화학전부대에 실행 책임을 부여했다.[2]

세균전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제약 업계에서 제국으로 군림했던 머크사의 대표 조지 머크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2차대전 프로그램을 만든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1946년 전쟁부는 그가 전쟁부를 위해 준비했던 미국의 생물학전 능력 보고서 요약본을 기밀 문서에서 제외했다. 머크 보고서는 2차대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영국, 캐나다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들 나라와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다.[3] 머크는 세균무기가 군사적으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군대 병기창에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도 세균무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적었다.

머크는 세균무기는 개발이나 사용에 있어 특별히 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는 단순한 또 다른 무기의 일종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세균무기로) 전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떠보았다. 머크 보고서는 이와 함께 생물학전 연구가 인류에게 보건, 농업, 산업 및 기초과학 분야에서 부수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4] 이것은 바로 전쟁부가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비판적인 반응과 점증하는 냉전의 긴장은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이 보고서를 재빨리 기밀 문서로 재분류하도록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1974년까지 기밀 문서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막후에서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재개하려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독일의 항복 이후 한 달여가 지난 1945년 6월 14일 이들 세 나라는 생물학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해 협력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영국의 합참위원회는 1945년 12월 보고서에서 생물학전 프로그램이 계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세균무기가 갖게 될 잠재력에 강한 확신을 표시하고 대량살상무기로서 핵무기에 비해 세균무기가 갖는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영국은 핵 전쟁의 보완으로 생물학전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핵폭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전투나 핵무기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 전쟁에서의 유용성도 인정했다. 영국 보고서는 여론이 세균전에 적대적이라는 머크의 우려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보고서는 '생물학전이 문명 세계에서 거부된 전쟁 수단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며 '제대로 된 정보를 받게 된다면 대중은 생물학무기가 핵폭탄에 비해 실제 아주 인간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밝혔다.[5]

몇 차례의 주도적 작업이 1940년대 후반 국방부, 특히 화학부대 지휘 책임을 맡았던 연구개발위원회에서 나왔다.[6] 1947년 초반부터 연구개발위원회의 생물학전위원회(원래는 위원회 X로 불렸다)는 강력한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학전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1948년 노이에스 위원회, 1949년 하스킨스 위원회, 1950년의 스티븐슨 위원회 같은 국방부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도구' 가 됐다.

마침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 스티븐슨 위원회가 탄생하게 될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 위원회를 주도한 사람은 MIT 대학의 학장 출신으로 당시 연구개발위원회의 간사였던 칼 T. 콤튼 박사였는데 그는 트루먼 대통령의 개인 밀사로 일본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연구하기도 했다. 국방장관을 대신해 콤튼은 얼 P. 스티븐슨에게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간청했다. 8개월 뒤 스티븐슨은 조지 마셜 국방장관에게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보고했다.[7] 공교롭게도 보고서는 한국전이 발발한 뒤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6월 30일 모습을 드러냈다.[8]

연구개발위원회 자체는 물론 노이에스 위원회, 하스킨스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스티븐슨 위원회도 2차세계대전 당시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이해 관계 그룹을 대표하고 있었다. 스티븐슨은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컨설팅사인 아서 D. 리틀의 사장이었는데 이 회사는 세균전 운반 시스템 개발에 주요 역할을 했다. 다른 구성원들로는 U.S. 라버 컴퍼니의 연구 개발 부책임자 윌리스 A. 기본스, AT&T사의 전 부사장인 아서 W. 페이지, 하버드 의대 생화학 교수 에릭 G. 벨 박사, 미 육군 퇴역 장군 제이콥 L. 데버, 유엔 핵에너지위원회 미국 부대표였던 프레더릭 오스본 그리고 국무차관 특별 보좌관 R. 고든 아네슨과 국무부 출신인 그의 대리인 조세프 체이스 등이었다. 위원회의 인력들은 국방부와 연구개발위원회, 화학전부대, 공군 등에서 차출됐다.[9]

이 위원회는 2차세계대전 당시 정한 방향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방어적인 정책뿐 아니라 공격적인 정책을 건의하고 당시 화학전에 적용됐던 '보복 차원만 사용' 등과 같은 어중간한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생물학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위원회는 도덕적 근거로 생물학전을 반대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현대 전면전의 현실을 들어 반박했다. "무기를 도덕적인 유형과 비도덕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잘못된 개념이 발전돼 왔다.…… 이들 무기나 그외 다른 현대 무기가 그 자체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확대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쟁이 국민간의 전면전으로 번졌을 때는 한쪽이나 다른 쪽 국민의 고통이나 피해가 너무 커 항복하거나 붕괴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지속됐다.…… 어떤 무기나 수단을 사용했는가에 상관없이 민족 · 국가간의 전쟁은 끔찍한 것이었고 만일 사람들이 대의명분을 위해 싸웠다면, 그것이 지혜에서 근거했건 무지에서 비롯됐건 간에 전쟁의 지속은 결국 대량 파괴로 이어졌던 것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든 전쟁에 직면하면 어느 쪽도 노력과 사용 무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싸웠다."[10]

이것은 위기의 1950년대 초반 상당수 미국 지도자들의 냉전 의식을 보여 주는 냉혹하면서도 현실적인 진술이다. 위원회의 주장은 이제 막 끝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잠시 멈췄다고 생각하는 세계대전의 경험에 의해 강화된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스티븐슨 위원회는 이 같은 세계관의 연장선 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한하려던 1948년 유엔의 노력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위원회는 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정확한 용어로 구성된 만족할 만한 개념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대의 대포도 적당한 양이 사용되거나 적절한 계획에 따라 발사하면 무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위원회의 기본 논리는 '현대 전면전은 그 자체가 한 국가의 경제 자원이나 사회 구조를 파괴하는 대량살상무기'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량살상무기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대량살상무기나 다른 무기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생물학 병원체를 대량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로 분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상당 부분 억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세균을 퍼뜨렸을 때 어느 정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가를 평가할 만한 권위 있는 자료가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대규모 전염병을 퍼뜨릴 게 확실시되는 진행 과정은 밝혀진 바 없다. 질병이 한 마을이나 한 나라에 전염되는 정도는 상당 부분 알려지지 않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전염을 야기한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기대한다면 살포된 물질에 감염된 사람을 직접 접촉해야 한다. 그러므로 곡물이나 동물에 작용하는 세균의 사용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생물학적 병원체를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11]

공격적인 생물학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단호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슨 위원회는 그들이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중은 아직 전면전으로 확전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수용하지 않았고 '생물학무기가 도덕적 개념과 무관한 단순 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따라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국내외의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고, 대중이 '분별 있는 행동' 을 취할 수 있도록 방어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조율할 것을 요구했다.[12]

화학 · 방사능 무기뿐 아니라 생물학무기의 효용성을 옹호하면서 스티븐슨 위원회는 미국이 인적 자원에 있어 우월한 소련과 그 동맹국에 비해 유리한 것은 앞선 기술력과 산업 생산력이라는 전략적 주장을 전개했다. 이 같은 전략적 논리를 확대해 위원회는 '생산력에 있어 미국보다 열등한 적(敵)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효과적인 무기의 수와 종

류가 증가할수록 빠르게 산업적 피폐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13] 생물학무기가 전략적 균형 관계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공격 무기로서 생물학무기 개발을 옹호했다.

스티븐슨 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생물학무기를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연구 개발 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시험적으로 하나의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는데, 일단 표준화된 세균무기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면 대규모 무기 공장 건설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14] 위원회는 참가 인력만 거의 4천 명이었다가 전쟁이 끝날 무렵 4백 명 미만으로 줄어든 2차세계대전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기 위해 그 긴급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공식 재가하도록 건의했다.

4개월간 그 문제를 검토한 끝에 조지 C. 마셜 국방장관은 중국군이 한국전에 개입한 2주 뒤인 1950년 10월 27일에 이르러 스티븐슨 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미국의 2차세계대전 핵심 기획자이며 가장 명망 있는 군인 중 한 명이었던 마셜이 특히 새로운 세계대전 가능성이 잠재한 냉전시대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스티븐슨 보고서에 나타난 군사적 세계관은 마셜의 마음속에 이미 각인돼 있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는 2차세계대전 당시 그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지도 아래 형성된 것이었다.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학무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추론됐던 '보복 차원에서만 사용' 정책을 바꾸자는 위원회의 건의를 마셜이 거부한 것은 전략적인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그

리고 그는 핵 전쟁에 대한 건의를 뒤로 미루는 한편, 특별히 육군장관에게 화학전과 생물학전에 관한 제안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기는 등 나머지 보고서의 건의 내용은 실행에 옮겼는데, 당시 육군장관은 이미 생화학전 분야의 연구, 개발, 조달 책임을 맡고 있었다.[15]

미 국방부는 1950 회계연도에 5백30만 달러였던 생물학전 개발 자금 지원을 1951~1953년 3억 4천5백만 달러로 늘렸다.[16] 대규모 증액의 사용처는 표 2에 나와 있다.

표 2

생물학전의 개략적인 비용 요약

1951~1953 회계연도(단위: 달러)

항목	금액
연구 개발	58,500,000
건설	
a. 연구 개발 설비	56,334,000
b. 실험 설비	12,859,000
c. 생산 설비	87,000,000
	156,193,000
생산 및 조달	131,160,000
합계	345,85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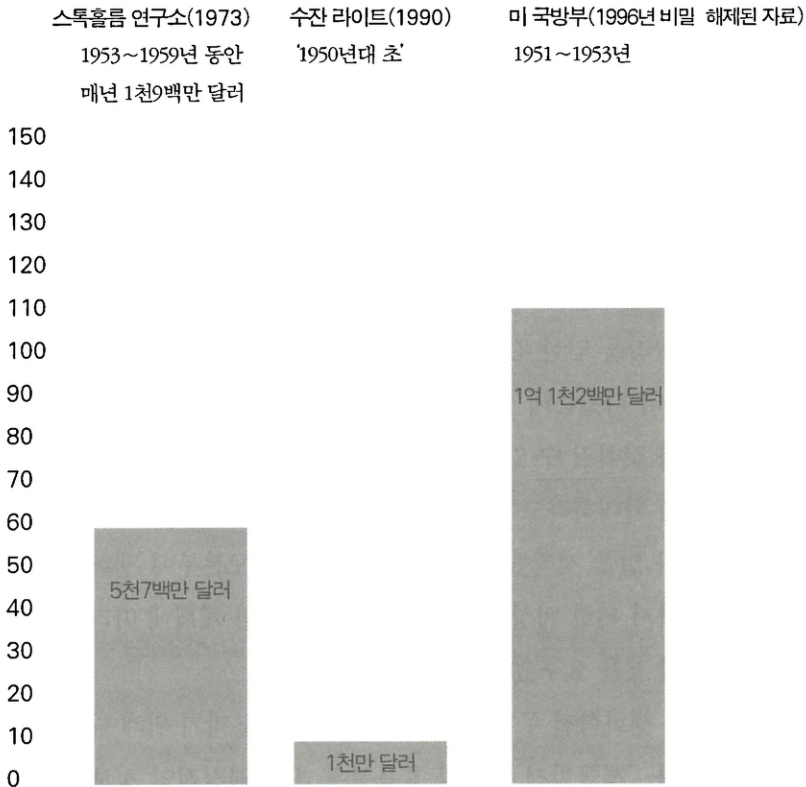
출처: Attachment to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Subject: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arfare, Top Secret, 15 Dec. 1951, TS-A94-0125, R1 Doc. 9(also identified as Doc. 941196, p. 170), CD 385(General), RG 330, NA. 이 숫자에는 운영 비용, 즉 시설 유지비, 관련 군인들의 봉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같은 기간 화학전 예산(신경 가스, 겨자 가스, 포스겐 가스)은 4억 1천9백만 달러였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국방부 극비 문서의 복합적인 수치들이 1996년 비밀 해제되기 전까지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세출 예산안과 그

밖의 공개된 수치들을 모아 생화학전 지출 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표 3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 국방부의 생화학무기 연구 개발 자금

자료를 내놓은 기관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출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생물학전의 문제』, 2권(스톡홀름, 1973), 204~205쪽. 1946년에서 1957년까지 매년 평균 1천9백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수잔 라이트, 『생물학전 정책의 진화: 1945~1990』(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1990), 33쪽;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 부록, 제목: 화생방전, 1급비밀, 1951년 12월 15일, TS-A94-0125, R1 Doc. 9 (also identified as Doc. 941196, p. 170), CD 385 (General) RG 330, NA. 화학전 5천3백60만 달러, 생물학전 5천8백50만 달러, 합계 1억 1천2백10만 달러

그 결과 그들은 이 같은 무기에 소요된 비용을 상당히 낮게 산정했다. 표 3은 1973년과 1990년(연구 개발 부분만 다루었다)에 나온 잘 알려진 역사적 연구의 결론 2개와 최근의 미 국방부 수치들을 비교한 것이다.

화학부대 소속 생물학전 부서 인원은 1952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 8백85명에 달했지만 예산안은 1954년까지 인원을 2.5배 더 늘리라고 요구했다.[17]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1951년 말까지 2백 건이 넘었던—대학, 전문대, 의과대, 일반 기업 등과 체결한 '전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원체와 세균무기 및 방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개발 계약들이었다.[18]

가장 놀라울 만한 긴급 지시는 1951년 12월 말 로버트 러빗 국방장관으로부터 나왔는데 당시 그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실제 준비 태세가 갖춰질 수 있도록' 3군에 스티븐슨 위원회의 건의 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19] 국방부 내 전문가 50명이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했다.[20]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생화학전 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비상 전쟁 계획 및 병참 지원 계획에 따라 적절한 지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러빗은 생화학전 무기 배치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생물학전 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 부족이 공격적인 것이든 방어적인 것이든, 생물학전의 정책과 개념 및 작전 계획 준비를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이러한 무기를…… 배치하는 작업이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미결정된 채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상호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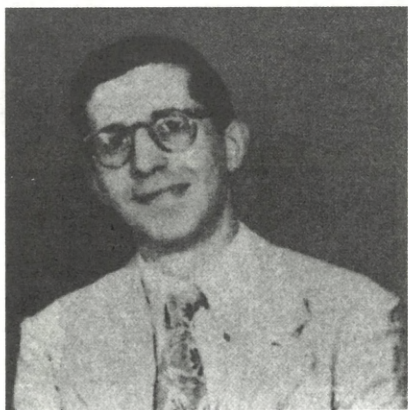
하고 영향과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21]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생물학전을 제1전략 그룹, 화학전을 제2전략 그룹에 올려 놓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것은 비록 생물학전에 대한 공식 정책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면 부담 없이 생물학전에 대한 비밀 선제사용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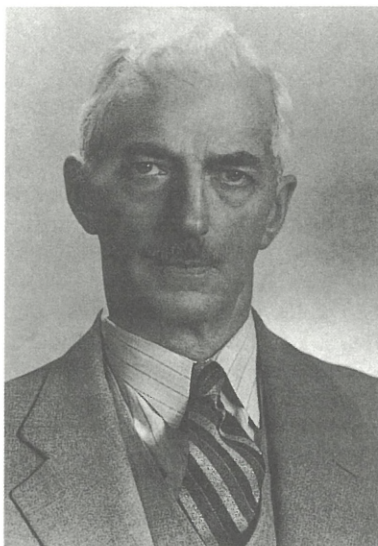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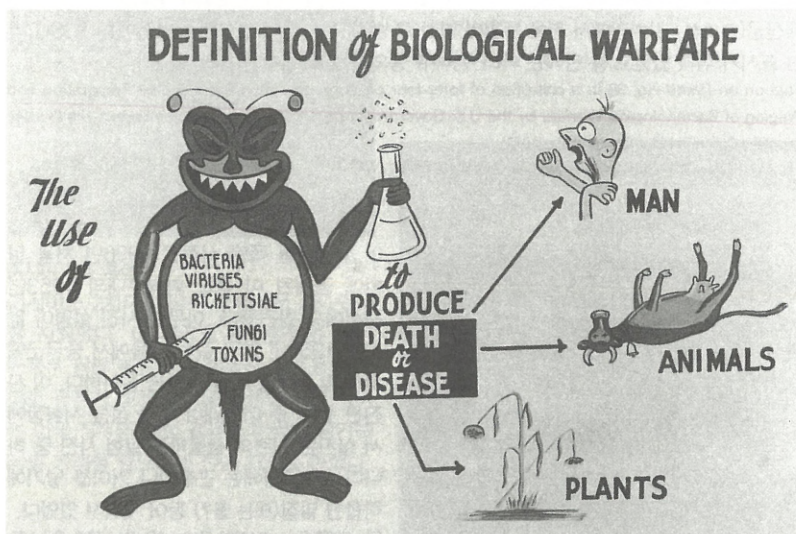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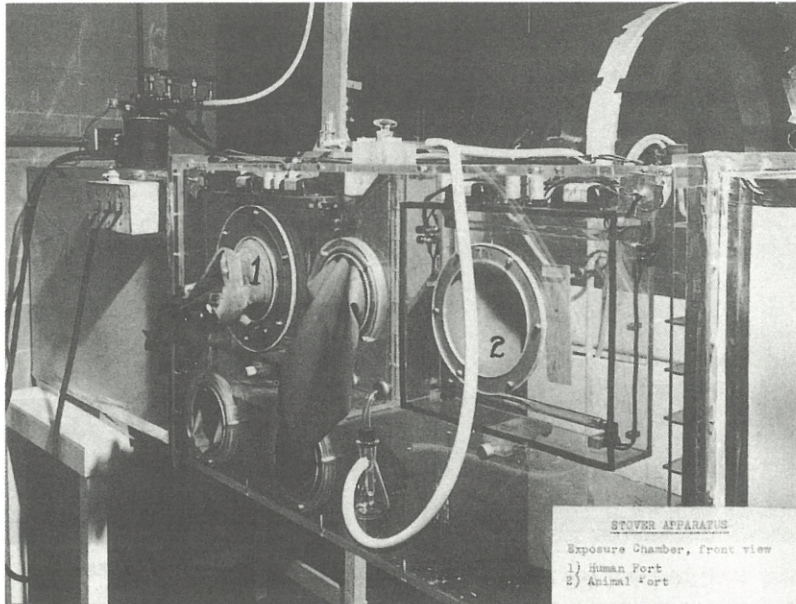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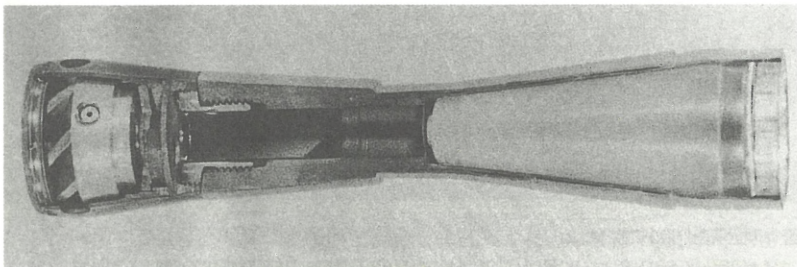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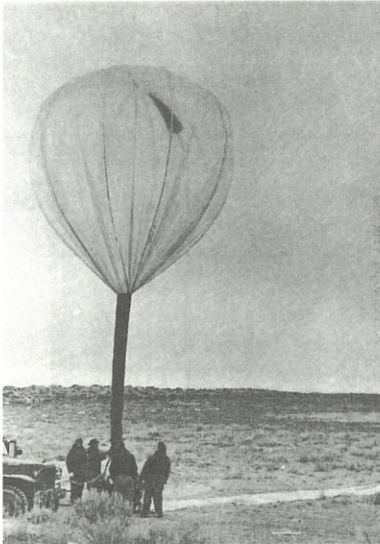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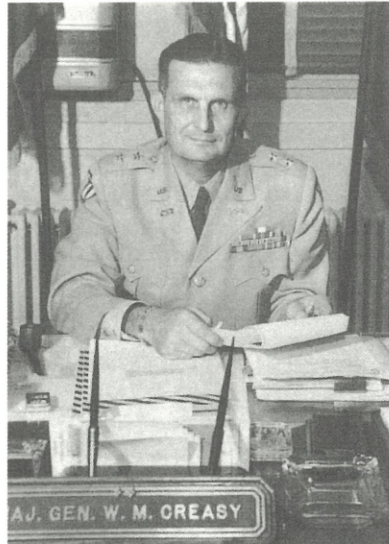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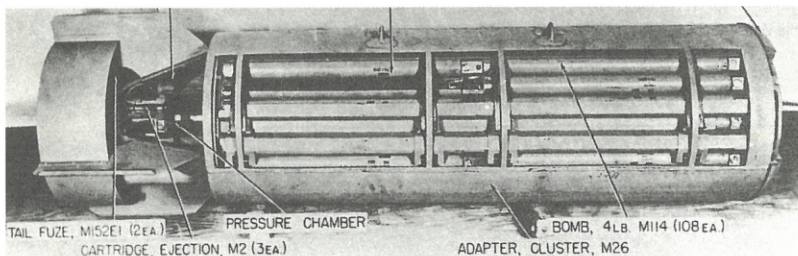
1943년 메릴랜드 주 프레데릭의 디트릭 기지에 세워진 생물학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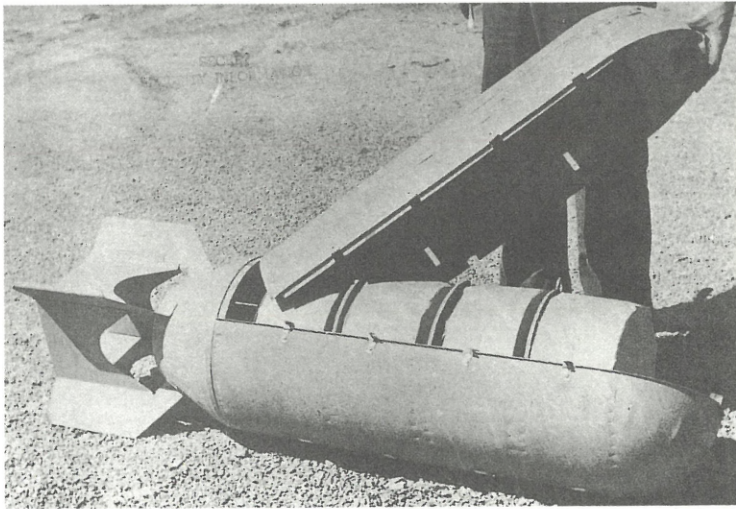
미 육군 화학부대를 이끌었던 에그버트 F. 블린 소장. 그는 한국전 기간 동안 극비였던 이 세균전 연구소의 책임자였다.
SC 419068, Box 246, RG 111,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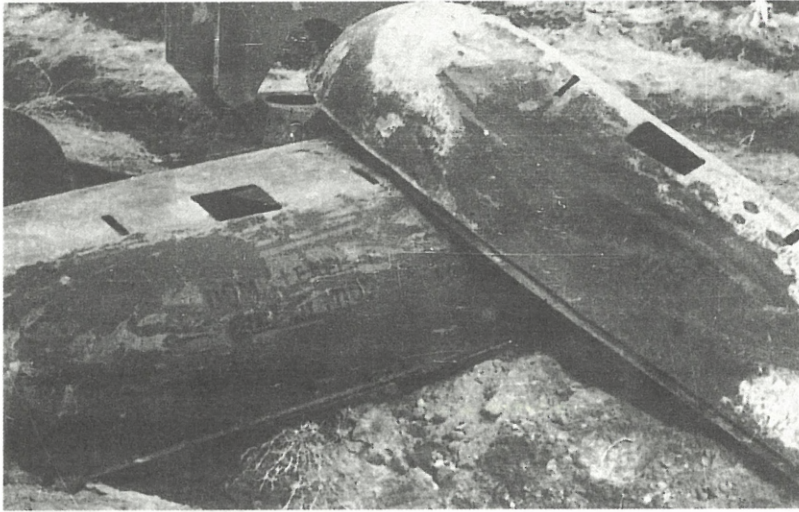
이시이 시로 중장
이시이는 2차대전 당시 중국에서 731부대를 지휘했다. 이 세균전 부대원들은 중국 동북부 핑팡(平房)에서 연합군 포로들을 상대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 이시이는 미국 정부와 실험 결과를 미국에 넘기는 비밀 거래를 함으로써 전범 처벌을 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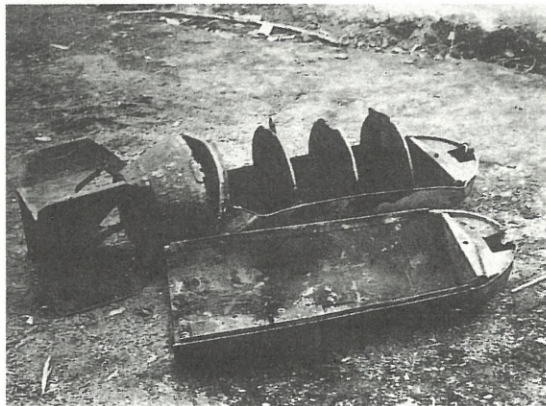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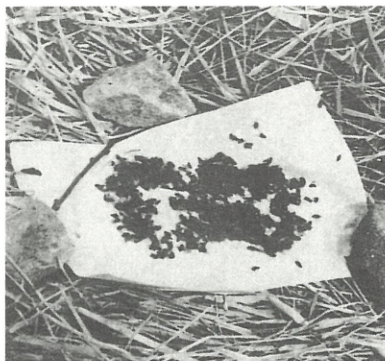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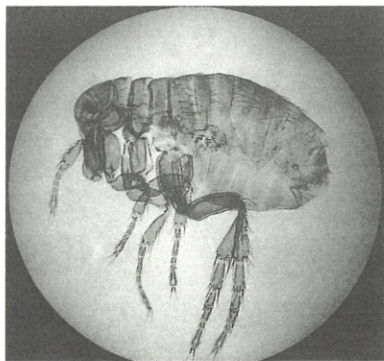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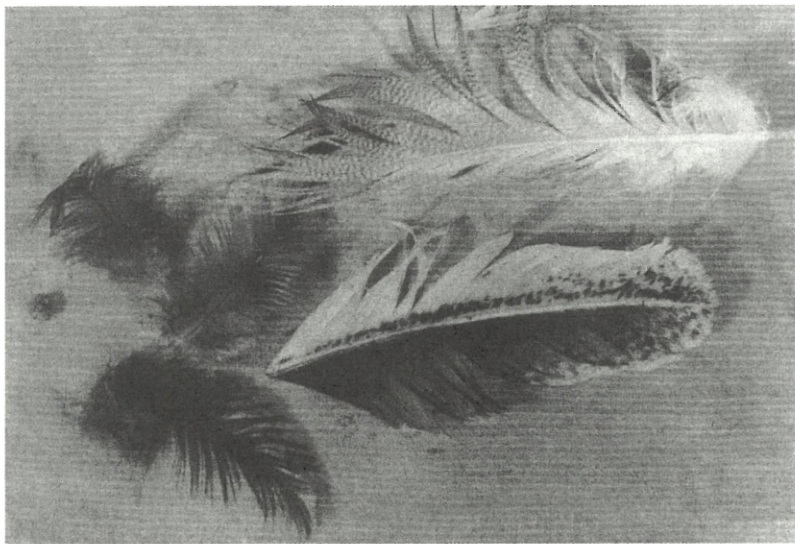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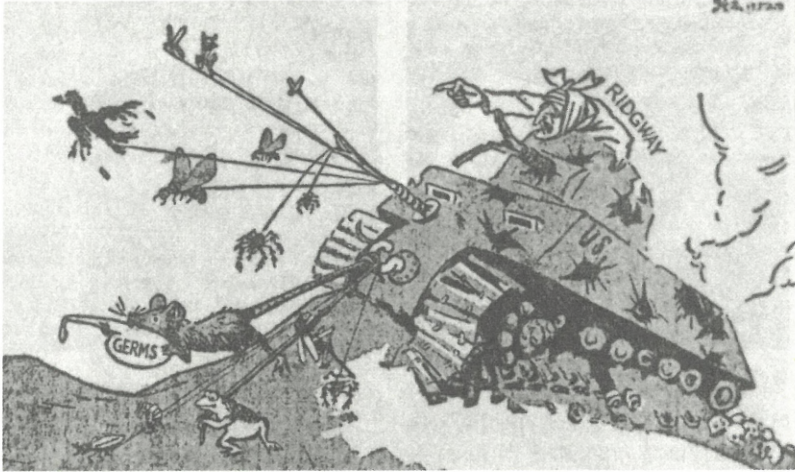
조지 W. 머크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주요 계약자였던 제약사 머크의 대표로 트루먼 대통령의 생물학전 특별 고문이었다.
SCA, World War II, Album 211, RG 111, NA

존 W. 파월
1980년 미국과 이시이의 비밀 거래를 폭로한 『월간 중국 리뷰』지의 편집인

"위의 실린더형 마분지 세균폭탄은 1952년 2월 29일 미군 비행기로부터 투하된 것으로 한국 곡산군(谷山郡) 갈치리에서 한쪽 뚜껑이 열린 채 발견됐다. 통에 부착된 낙하산에는 'USC'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고 통 안에는 파리, 등에류 등의 곤충과 거미가 들어 있었다."
Caption on Photo No. 38 in a collection of forty-four photographs titled Facts on the Preparation and Waging of Bacteriological Warfare by the U.S. Government against Korea and China(Peking: The Chinese People's Committee for World Peace, 1952)

이 실린더형 폭탄 사진은 1996년 처음 일반에 공개된 미 육군 화학부대의 1953년 문서에서 발견됐다. 아무런 사진 설명이 없지만 1952년 한국 갈치 마을에서 중국군에 의해 발견된 것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이 사진은 유타 주 더그웨이 무기 성능 시험장에서 실시된 일련의 생물학전 실험 사진 중 하나다. 용기 안에는 곤충이나 거미를 넣기에 적합한 밀집(또는 풀?) 등이 채워져 있었다.
File 1280-Secret(1953), Entry 1B, Box 256, RG 175, NA

길포드 B. 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킹스톤의 퀸스 대학에 설립된 캐나다 정부의 생물학전 실험실 책임자. 퀸스 대학 총장은 그를 '우리 대학의 가장 탁월한 과학자'라고 칭찬했다.(「퀸스 대학」 Vol. 2, 1983, p. 327)
Queen's Alumni Office photo

1954년 6월 미국 앨라바마 주 맥클레인 기지 미 육군 화학부대 훈련소에서 제작한 생물학전 교본에 나오는 슬라이드 2
File 4456-Secret, Box 272, RG 175, NA

미 해군은 세균전의 기술적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Q열(가축을 통해 전염되는 발진티푸스와 비슷한 병: 옮긴이 주)과 야토병(野兎病) 등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특수 기계 장치(Stover Apparatus로 불림)의 개발을 지원했다. 피실험 자원자들은 연무를 발생시키는 캡슐이 정확하게 측정된 박테리아 무리를 순환시키는 동안 머리를 노출실에 밀어넣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체계화된 생체 실험 관련 규범은 '실험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검토돼야' 했다.(결국 미국이 한 생체 실험은 예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뜻: 옮긴이 주)
File W/1497-Secret(1953), Entry 1B, Box 257, RG 175, NA

E61연무 소형 폭탄은 탄저균 포자를 살포하기 위해 고안됐다.
File 1326-Secret(1953), Entry 1B, Box 256, RG 175, NA

유타 주 더그웨이 무기 성능 시험장에서 생물학무기를 실은 풍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File 1284-Secret(1953), Entry 1B, Box 256, RG 175, NA

윌리엄 크리시 준장
화학부대 연구 개발 부서 지휘관
SC 442969, Box 265, RG 111, NA

집속 세균폭탄, 500-LB. M33
브루셀라균을 담고 있는 이 폭탄은 명백히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에 대비한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표준화됐다.
File 1329-Secret(1953), Entry 1B, Box 256, RG 175, NA

1952년 9월1일 남한의 민간인 노무자들이 심리전에 사용될 5백 파운드(약 2백30킬로그램)짜리 전단폭탄(M16)에 종이 전단을 채워 넣고 있다.
USAF, Korean War Series, Box 3048, RG 342, NA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에는 세균 운반 수단으로 세균에 감염된 깃털이나 다른 감염 물질로 채워진 5백 파운드짜리 전단폭탄이 사용됐다. 깃털로 채워졌을 때 이 폭탄은 E73R 또는 M115 폭탄으로 불렸다.
File 1280-Secret(1953), Entry 1B, Box 256, RG 175, NA

미국의 세균전에 대한 신화통신 보도

"미국 세균전 범죄자들에 의해 투하된 M105 세균폭탄, 영문 표기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다."
People's China, 1 Apr. 1952

'지상에 부딪칠 때 두 쪽으로 갈라지며 세균에 감염된 곤충들을 쏟아 내도록 투하된 미 침략군의 세균폭탄'
NCNA

“미 침략군에 의해 투하된 세균에 감염된 파리 덩어리. 이 파리들은 땅에 떨어졌을 때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기만 했다.”
NCNA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의 마이크로 필름 사진, Pulex irritans(f), 미국 비행기에 의해 1952년 2월 강원도 철원 지역에 투하됐다.”
NCNA

“세균에 감염된 깃털. 1952년 3월 침략군의 비행기에 의해 중국 영토인 콴뎬(寬甸) 지역에 투하됐다.”
NCNA

죽음을 몰고 오는 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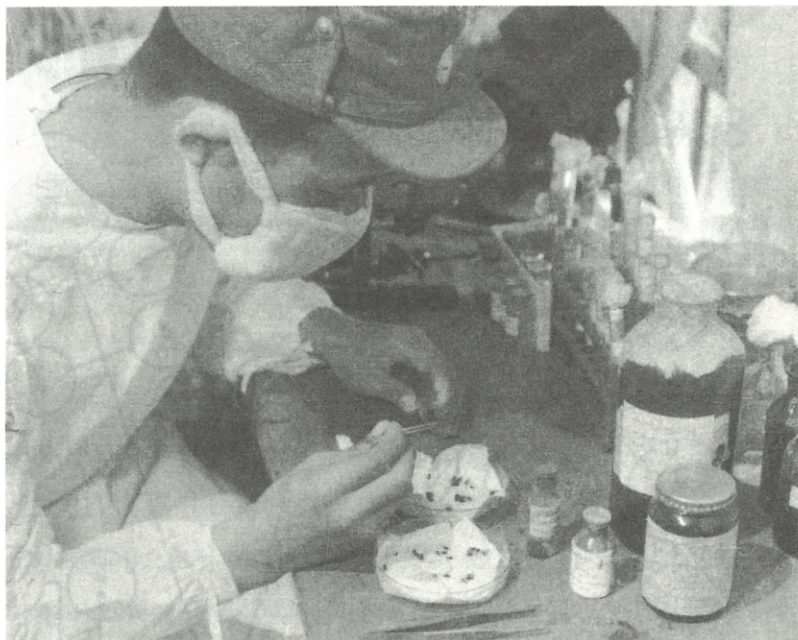
『인민일보』에 실린 저우루쉬의 만평

People's China, 16 Apr. 1952

저우언라이 총리

저우 총리는 1952년 3월 중국의 영공을 침범, 세균폭탄을 사용한 미 공군 조종사들은 생포되면 전범(戰犯)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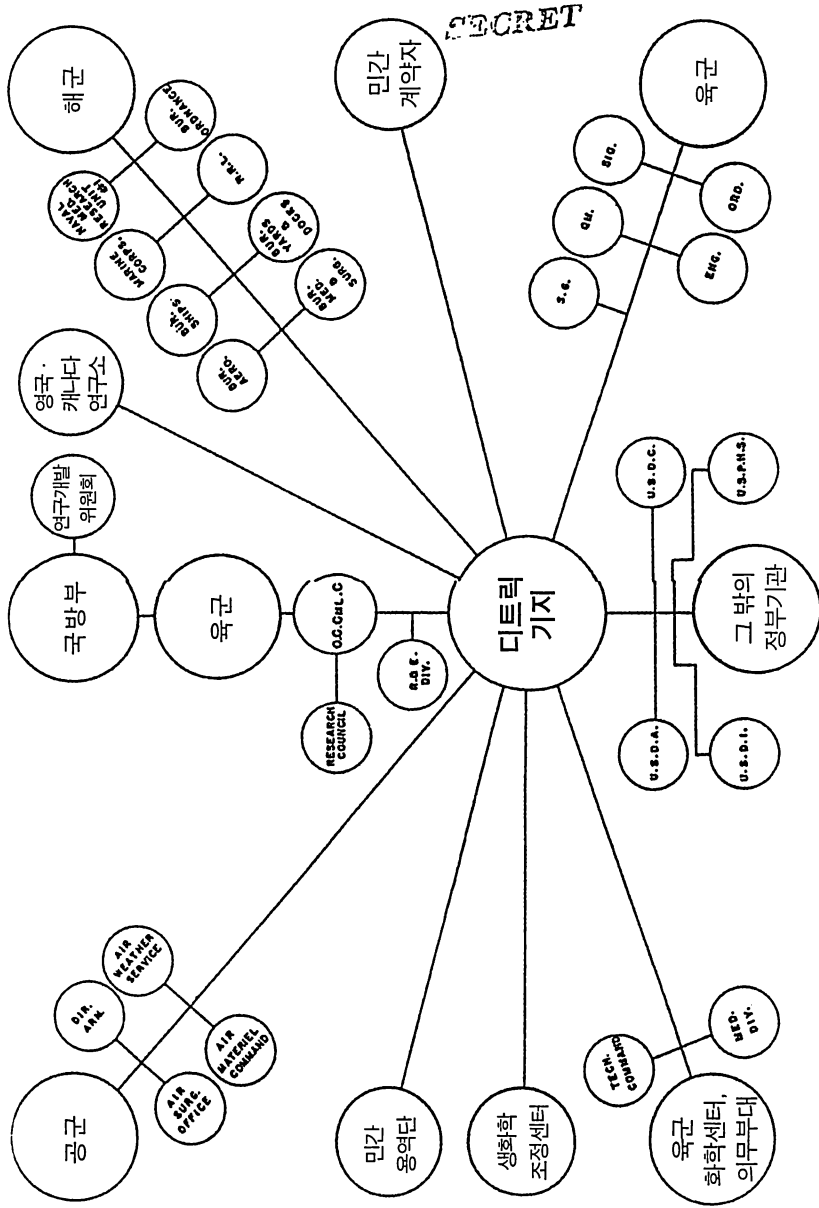
리데콴 여사

보건부장으로서 리는 1952년 3월 중국 동북부와 조선에서 세균전 증거를 수집하는 조사단을 이끌었다.

“조선인민군 의무 장교 김인환이 실험실에서 세균에 감염된 곤충을 조사하고 있다.”
NCNA

“세균에 감염된 힐레미야 (hylemya) 종류 곤충. 이 곤충은 1952년 2월 미 침략군에 의해 강원도 문산 지역에 투하되었다.”
NCNA

디트릭 기지

1949년 당시 다른 기관과의 주요 연계 현황

1949년 10월 1일 화학부대 생물학 부서에서 생물학전 연구개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Appendix No. 1. Records of the Chemical Corps, Dugway Proving Ground. Utah. computerized keyword index

5 연구 개발: 1945~1953

역으로 생각하면 생물학전은 본질적으로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이다.
1952년 1월 미 육군 준장 윌리엄 M. 크리시

초기 냉전시대 미국의 비재래식 생화학전 무기 개발의 주요 책임자는 에그버트 F. 블린 소장이었다. 그는 미 육군 화학부대의 수석 화학 장교와 부대장으로서 이 과업을 수행했다. 1952년 2월 블린 소장은 뉴욕의 헌터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한국전에서 자신의 부대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서 '유독전'(toxic warfare)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연 참석자 대부분은 미국 화학산업의 주요 기술자나 제조업자 등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블린 소장의 부대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다.

블린은 청중들에게 한국전이 발발한 지 2주도 채 못 돼 화학부대가 한반도에 상륙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부대 전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네이팜탄은 한국전을 통해 '최고의 다목적 무기'라는 것을 입증했는데, 매일 평균 7만 갤런(약 27만 리터) 분량의 네이팜탄이 적군과 적의 보급망에 투하됐다. 화염방사기, 백인(白燐)폭탄, 발연(發煙)탄 등도 위력을 발휘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독가스—겨자 가스, 포스겐 가스, 사린 가스—등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 언급하지 않았으며 신경 가스 개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

았지만 블린은 '독가스전에 대한 현재의 무관심'이 빠른 속도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소수의 과장된 개념과 두려움'을 날려 버리고 독극물을 사용하는 전쟁에 대한 무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학산업이 미국 산업 구조의 '첫 번째 위치'에 오를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의 천재 과학자와 산업계의 뛰어난 인물들이 구현한 이 위대한 무기를 미국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게 블린의 생각이었다.[1]

화학부대의 연구와 공학 분야 책임자이며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던 각진 턱의 미남 윌리엄 M. 크리시 준장도 같은 연설을 했다. 1951년 12월 메릴랜드 대학에 인접한 캠퍼스에서 그는 '안의 내용물을 보여 주지 않고 상자를 팔기'는 어렵다고 농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근 몇 년간 쏟아진 생물학전에 대한 몹시 부정확하고 감정적인 기사나 간행물을 추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시는 생물학전의 잠재력은 엄청나며 '막연한 공포에 휩싸여 있거나 다른 나라보다 생물학전 지식과 준비 작업에서 앞서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물학전을 '역(逆)의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이라고 정의하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나 동물, 작물을 죽이고 질병을 일으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 있는 질병 병원체 및 거기에서 나오는 독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종류의 무기가 지니는 장점은 예를 들어 핵폭탄 같은 폭발성 무기와 달리 건물과 기계를 파괴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먹는 음식에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본질적인 의미의 대인(對人)무기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 청중을 초

청한 크리시 준장의 강연회 요지는 군대에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물론 훈련을 감독해 보라는 것으로, 더 직접적으로는 생물학전 '물질과 장비를 개발, 제조, 조달, 공급하는 일에 지원하라' 는 것이었다.[2]

디트릭 기지 내부는 '현대 화학, 물리학, 병리학, 식물학, 통계학, 세균학을 다루는 실험실들'[3], 세균무기를 터뜨리거나 사람과 동물을[4] 상대로 연무 실험을 할 수 있는 직경 40피트(약 12미터)의 '안개 상자', 온실, 동물 사육장, 기계실, 소규모 생산 공장, 검사실 등을 수용하고 있는 거대한 복합 건물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건물은 모두 체인과 철조망이 처진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또 기지 내부에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연계해 준군사적인 비밀 생물학전 활동을 수행하는 여러 연구 부서들로 구성된 특수 작전 부서도 있었다. 디트릭 기지와는 별도로 유타 주 '더그웨이 무기 성능 시험장' 에 있는 무기 실험장은 2백50평방마일의 넓이에, 길이 22마일의 도로와 비행기 활주로, 주거용 막사, 하수구, 부패물을 담는 저장탱크, 발전소와 전기, 증기, 물 공급 시스템을 갖춘 복합 단지였다.[5]

크리시와 블린은 친밀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세균전을 전후 전략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올려 놓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제휴 세력에는 화학부대와 기업, 과학계, 학계 그리고 1942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처음부터 관여한 정부의 이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1949년 이후 이 제휴 세력은 국방부 연구개발위원회[6]에 자신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화학부대는 연구개발위원회와 산하 생물학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생물학전의 잠재력과 준비 태세에 관해 스티븐슨 위원회에 보고할 차례가 오자 크리시는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줄 동조자들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크리시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조심스럽게 논의됐다. 전후 예산삭감 압박으로 생물학전 프로그램은 전쟁 기간 동안 진전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존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잠재력 있는 병원체와 세균무기를 개발하는 노력을 통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육군 화학부대와 공동으로 진행됐던 해군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디트릭 기지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보완했다.[7]

비록 혼 아일랜드와 인디애나 주 비고 같은 미국 내 실험 · 생산 기지는 폐쇄돼 있거나 대기 상태에 있었지만 일부 시설은 여전히 사용이 가능했고, 미국과 영국은 캐나다의 알버타 슈필드에 있는 넓은 캐나다 실험 부지도 계속 활용했다. 민간 의료 시설과 브룩해븐 국립 실험실이 국방부 시설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었다.[8]

1947년 화학부대 소속 미 육군 의료센터는 방어와 공격 준비 사이에서 전용이 가능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생물학전 방어 교육을 시작했다. 각 군과 예비군에서 선발한 장교들은 기초 · 심화 교육을 받았다.[9]

화학부대는 치명적인 세균전 프로그램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2차세계대전 동안 이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화학부대의 계획은 탄저병, 보툴리누스균, 브루셀라균, 야토병과 다른 세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2차세계대전 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질, 리케차균과 바이러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른 지리적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질병'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또 세균 매개 곤충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계획들도 강조됐다.

1949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에는 잠재적인 생물학전 병원체로 사용하기 위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생물, 기생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세균전 매개물로 곤충이나 거미 같은 절지동물을 연구하며, 선택된 병원체를 생산, 배양하거나 실험실에서 병원체를 개발하는 작업 등이 포함됐다. 세균무기 프로젝트는 집속탄의 표준화, 연무질 개발, 지표를 오염시키는 세균무기, 유도 미사일, 소형 무기, 세균을 포탄에 채워 넣는 방법, 세균 탐지법, 세균무기의 은밀하고도 전술적인 배치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10] 연구 작업의 강도는 1949년 디트릭에서 세균전에 관해 연구했던 과학자들이 남긴 2백여 건의 출판물과 또 다른 1백 건의 서류 그리고 각 대학들과 맺은 방대한 연구 계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11]

1950년 2월 크리시는 스티븐슨 위원회에 '비상시' 3개월만 주어지면 화학부대가 세균전 공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고 공장을 가동시키고 디트릭 기지 시설을 활용하면 화학부대는 4일마다 90평방마일에 충분히 뿌릴 수 있을 정도의 M33 집속탄용 대인(對人) 병원체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된 새 공장이 1년 안에 생산을 시작한다면 이 능력은 4일마다 5백 평방마일로 증가할 수 있었다.[12]

크리시는 또 스티븐슨 위원회 출석을 이용해 생물학무기의 전략, 전술, 비밀작전을 촉구했는데 그의 출석은 각 군에 화학부대 지휘관들이 과학자일 뿐 아니라 군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전략 폭격 개념이 압도하고 있던 군 분위기 속에서 크리시의 보고서는 생물학무기가 핵무기 못지않게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세균무기가 기존 무기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련되게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2차세계대전의 전략 폭격에 대한 조사 보고의 결론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만큼은 세련되지 못했다. 생물학전은 전략 폭격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 즉 적의 사기와 생산에 충격을 가하는 분야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크리시는 또 세균무기가 건물과 다른 물적 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무기라며 비교 우위를 내세웠다. 세균전 프로그램이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점도 거론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전략적 해결책을 찾고 있던 당시 분위기에서 이 같은 주장은 핵폭탄을 가급적 선택하지 않으려 했던 전략 폭격 옹호론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재래식 폭탄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균무기가 폭발 무기나 화염폭탄이 제공하지 못하는 '유연성' 있는 무기라는 점이 먹혀들었다. 전략 입안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13]

전략적 전망을 체계화하면서 크리시는 세균무기가 전체 전쟁의 사기에 미칠 충격의 정도를 포착했다. 세균전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심지어 현대 전면전으로 단련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이 알려지지 않은 무기가 주입시킬 공포심을 강조했다.

> 세균전이 독특한 심리적 위협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균전 위협이나 세균전 공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균무기의 특성상 공격이나 위협을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자극할 것이다. 질병에 대한 인간의 공포는 보편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균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공기와 물, 음식을 통해 침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무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는 무력감은 심리적 충격을 더해 준

다. 심리적 충격과 줄어든 식량은 한 나라의 전투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14]

크리시는 군의 전술과 비밀작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보툴리누스균은 적군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아군은 면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 측면에서 '선택 가능한 세균'이라고 강조했다. 면역법의 개발에 따라 세균전의 전술적 효용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보고서는 또한 숨어 있는 적을 노출시키는 데 있어 고엽제의 살포가 가지는 효용성을 강조했다.[15]

한국전 발발과 전면전의 위협 그리고 화학부대의 전망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으로 세균전 프로그램은 확대됐다. 1950년 10월부터 1951년 7월 사이, 세균 매개물은 우선 순위의 앞자리에 올랐고 그것을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 특히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인(對人) 박테리아에 관심이 집중됐다. 1950년 2월 초, 크리시는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E48R2 4파운드짜리 세균폭탄에 3종류의 병원체를 넣어 실시한 야전 실험이 성공했으며, 세균무기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병참과 저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에 보고했다.[16]

1950년 10월까지는 대인용 병원체 5종, 작물용 2종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 기존 시설이나 제안된 시설에서 생산될 수 있었다.[17]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코드명 N으로 불린 이 세균은 인간과 동물에 탄저병을 일으킨다. 거의 파괴가 불가능한 마른 포자(또는 포자가 들어 있는 물기 있는 씨앗)에 의해 퍼진다. 항생 물질로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기로 들어간 뒤 2~3일 안에 거의 1백

퍼센트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다.

• 돼지 브루셀라균(Brucella suis), 코드명 US, 치사율 3퍼센트의 이 균은 사람의 체온을 오르내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주로 동물에 감염되지만 인간에게도 심각하고 만성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 균에 감염된 파리, 모기, 진드기 그리고 다른 곤충에 물려 전염된다. 브루셀라균은 호흡기나 소화기,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환자는 심한 통증과 근육통을 앓고 땀을 심하게 흘린다. 또 체온이 급등락하면서 식욕을 잃고 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심한 우울증, 분노, 불안, 초조와 감정 상실 증세도 나타난다. 이 같은 증상은 다른 질병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물학무기 공격에 의한 체온의 급등락이 브루셀라균에 의한 것으로 진단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절한 치료법은 없으며 면역을 통해 예방하기도 어렵다.[18] 어떤 경우에는 뇌혈관 혈전증, 뇌수막염, 수막염 등을 동반한다.[19] 브루셀라균류 중 가장 치명적인 종인 'US'는 1950년 말까지 유일하게 표준화된 가장 앞선 세균무기였다.

• 야토병 박테리아(Bacterium tularense), 코드명 UL, 인간에게 야토병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체력을 떨어뜨리며 치사율은 5~10퍼센트 정도다. 심한 피로와 감기, 발열, 통증, 가슴 통증 그리고 호흡곤란 증세를 수반한다. 포유동물에 기생하며 진드기, 등에류, 모기, 벼룩 등에 의해 전염된다. 공기 중의 미세한 입자 먼지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도 한다.[20]

• 페스트균(Bacillus〔Pasteurella〕 pestis), 코드명 LE, 인간에게 선페스트나 전염성 폐렴을 일으키며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상당히

높다. 선페스트는 쥐벼룩에 의해 퍼지고 폐렴은 공기 중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경우 호흡곤란, 각혈, 고열, 쇼크 증상이 나타나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며, 대개 3일 만에 사망한다.[21] 이 세균을 생물학무기로 개발하는 데 미 해군 실험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22]

• 보툴리누스 독소(Botulinus toxin), 코드명 X,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박테리아 파생물로 신경 시스템을 공격한다.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언어 구사에 지장을 주며, 음식물을 삼키는 능력을 빼앗는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감염 후 수 시간 안에 사망한다.[23]

• 곡류의 녹병균 포자(Cereal rust spore), 곰팡이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람으로 퍼지는 세균으로 곡물을 죽인다.

• 화학적인 성장 억제제, 예를 들어 2, 4-D 같은 물질은 특정한 곡류, 식물성 기름 작물, 섬유 작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죽인다. 크리시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가장 앞선 세균전 물질 중 하나는 성장 억제제 2, 4-D였는데 이것은 이미 상업적으로 널리 생산됐고 군사적 목적으로도 쉽게 전용될 수 있었다.[24]

1950년 12월 5일 생물학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정을 건의하는 1951년 지침 보고서를 발표했다.

a) 공격 목적으로 발진티푸스와 탄저균을 이용하는 작업 연기

b) 최종 단계까지 브루셀라균과 보툴리누스균 개발 완료

c) Q열(Coxiella brunetii, 가축을 통해 전염되는 발진티푸스와 비슷한 병)과 들토끼병, 페스트 병원체를 최종 단계까지 개발하는 프

로그램 강화

d) 장티푸스와 앵무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25]

크리시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병원체는 아직 개발 단계에 돌입하지 못했으며 우역과 구제역이 가장 잠재력 있는 세균으로 여겨졌다.[26]

1951년 여름 화학부대의 생물 분과와 각 군은 신무기 개발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돼지 브루셀라균(Brucella suis), 산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페스트균, 보툴리누스 독소 그리고 다른 대인(對人)용 세균의 실험과 생산 계획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 돼지 브루셀라균(Brucella suis)과 앵무병균은 1951년 9월 11일까지 생산하고, 산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은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시험 생산 단계에 있었다. 보툴리누스 독소도 시험을 거의 끝내고 시험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고, 야토병균은 시험 생산을 마쳤으며, 브루네티(Brunetti)균은 1951년 9월까지 완료해 시험 생산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페스트균은 1953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시험 생산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27]

이 같은 우선 순위와 계획은 1954년 7월 전면전이 시작될 경우를 상정한 생물학전 표준화 지침과 이에 따른 장기 계획의 일환이었다. 동시에 이 같은 과정은 이미 한국전 초기에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상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 리스트에는 비밀작전과 적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 중이던 병원체의 수가 더해질 것이다. 비밀 작전용 세균무기 개발은 일찍 시작됐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암시가 있다. 비밀작전이란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1950년 생물학전위원회는 디트릭의 특수작전부대에 대해 '세균전 병원체를 은밀하게 살포하는 수단과 장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 보여 준 독창성과 상상력, 적극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고 치하했다.[28] 당시의 연구 개발 수준에서 비밀, 무력화 작전 능력은 쉽게 동원될 수 있었으며, 적이 자연적인 질병 발생과 세균전을 거의 구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다.[29] 인간을 상대로 한 세균으로는 보툴리누스 독소와 함께 콜레라, 이질, 티푸스균이 주목을 끌었다. 동물을 상대로 한 세균으로는 탄저병, 우역, 구제역과 흑멧돼지병, 조류전염병, 뉴캐슬병, 조류말라리아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었다. 동물 상대 세균은 모기를 매개물로 빠르게 전염될 수 있었다. 세균은 적은 분량으로도 효력를 발휘하고 생산과 은폐가 쉽다는 점에서 적의 작전 능력을 빼앗는 최고의 무기였다.[30] 1950년 12월 생물학전위원회는 '특수작전 프로그램이 최대한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기를 북돋워 줘야 한다' 고 건의했다.[31]

화학부대는 비행기에서 살포할 수 있고, 본래 특성을 살리면서 폭탄에 넣을 수 있고(건조 분말이든 액체 부유물 상태이든), 깃털 같은 것에 뿌리거나, 감염된 곤충 덩어리로 살포하거나, 감염된 쥐 같은 설치류나 다른 매개물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체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과 실험용 동물을 상대로 한 무수한 실험' 끝에 디트릭 기지의 미 육군 의무부대 과학자들과 의료진은 인간을 상대로 질병을 퍼뜨리는 가장 효

과적인 수단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에 따라 그들은 적절한 무기에 의해 연무 형태로 퍼뜨리기 알맞은 병원체를 찾아내는 작업에 몰두했다.[32]

디트릭 기지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집속탄 안에 돼지 브루셀라균을 채운 4파운드짜리 M114 소형 폭탄 1백8개가 들어가는 주력 세균무기인 M33 집속탄의 가치를 집중 설명했고 또 이 폭탄의 장점과 단점도 몇 가지 언급했다.

연무폭탄은 전략적인 사용, 즉 인구 밀집지, 공장 지대, 복합 교통 시설과 그 밖의 후방 시설에 사용됐을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적의 사기를 꺾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만일 공장이 공격당한다면 '노동자들이 모두 세균에 의해 사망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병을 앓을 것이며, 병상에서 공장으로 내몰린다면 생산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33]
- 효력의 범위에 관한 실험은 지상에서의 최적 살포 형태를 보여 준다. 즉 집속탄이 3만 5천 피트 상공으로부터 '코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지표 가까이까지 떨어졌을 때 터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형 폭탄들이 타원형으로 터지며 목표 지역의 넓이 8백 피트, 길이 0.5마일에 걸쳐 병원체를 퍼뜨릴 수 있다.[34]
- 만일 세균무기가 고성능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나 화염탄 등과 함께 사용된다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정상적인 보건, 위생 시설이 파괴되고 또 이로 인해 방역 작업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35]

• 기습 공격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세균무기 공격에 관한 모든 계획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적이 방어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기습 효과는 공격의 잠행성과 증상이 나타나기 전의 잠복 기간 등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더 높아질 수 있다.[36]

• 적의 의료 시설을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균 공격을 대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첫 번째 공격이 특히 그렇다.

• 세균무기는 다른 표준화된 무기에 맞춰 크기와 모양을 규격화했기 때문에 보통 폭탄을 다루는 장비로도 쉽게 다룰 수 있다.[37]

폭탄은 폭격기의 폭탄 적재실이나 전폭기의 외부 부착 장치를 이용해 투하할 수 있었다. 1952년 8월까지 미 공군은 2만 3천9백 개의 M33 집속탄을 확보했다.[38]

연무폭탄의 단점 또한 명백했다.

• (탄저균을 제외한) 질병 병원체는 비교적 신속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조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사용해야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생산 공장에서 공군의 발진기지까지 공수해야 한다.[39]

• 전선 부근에서의 전술적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균의 높은 전염성, 지속성, 유행성'은 진격하는 아군에 잠재적 위험이 된다. 수색대와 정찰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포로로 잡은 적으로부터 전염될 수도 있다.[40]

• 날씨—풍속, 풍향, 돌풍, 습도, 그 밖의 기상학적 요소—는 공

기 중에 퍼져 예정된 목표물을 공격하는 연무의 효력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41]

이 같은 이유로 디트릭의 과학자들은 연무폭탄의 평가에 있어 신중을 기했다. 그들은 세균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효과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적용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균전은 그 자체가 결정적인 무기가 아니었다. 세균전은 전쟁의 다른 형태로 전쟁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었다.

비록 M33 폭탄이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당시 공군이 필요로 했던 것을 제공했다. "작전 계획이 수립됐고, 병참 장비가 개발됐으며, 절차를 규정한 문서들이 통합됐다. 공군은 비상시에는 언제라도 이 폭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42]

M33 폭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더 작고 성능이 개선된 0.5파운드짜리 연무폭탄 E61이 개발됐는데, 1951년 1월 시험을 마친 이 폭탄은 '중간 정도의 고도에서 투하되는 집속탄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었다. 이 폭탄은 7백50파운드짜리 신형 집속탄 E133의 일부가 되었는데 E133은 전폭기 외부에 장착하기 적합했으며 탄저균을 사용해서 해외 기지에서 집속탄 안에 세균을 채울 수 있었다.[43]

가장 성공적인 세균무기는 지표면을 오염시키는 기존의 5백 파운드짜리 M16-A1 전단폭탄(propaganda leaflet bomb)이었다. 이 전단폭탄은 내부에 칸막이가 쳐져 있고 각 칸막이에는 E73RA 세균 깃털폭탄이 들어 있었다. 깃털폭탄은 깃털에 건조된 세균을 뿌려 만들었다. 생물학전위원회는 '세균 운반 수단으로 깃털이나 다른 적절한 물질을

사용하는' 전단폭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44] 깃털은 스폰지처럼 기능하면서도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 공군은 1950년까지 M16 전단 집속폭탄 약 7만 개를 무기 격납고에 채웠다. 비밀, 무력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디트릭 기지에 설립된 특수작전부대가 작물용 세균을 살포하기 위해 처음 깃털폭탄을 개발했다.[45] 이와 함께 깃털을 적의 병참 시스템, 즉 '보급과 장비'를 은밀하고 전술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운반 수단으로 고려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도 있다.[46]

1951년까지 공군은 쉴새없이 세균무기를 개발했고 또 이를 곧바로 실전 무기화했다. 공군 역사학자인 도로시 밀러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작업은 공군과 화학부대의 장기가 합쳐졌을 때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군은 공기역학 법칙을 잘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비행기에 맞춰 디자인된 무기의 효용성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반면 화학부대는 세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야전 실험의 경험뿐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의 정보를 보다 많이 축적하고 있었다.[47] 이 같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확대는 일정 부분 한국전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이 프로그램에 투입됐음을 반영한다. 기업과 공공 기관, 대학, 의과대학을 상대로 엄청나게 늘어난 계약들만큼 눈길을 끄는 것도 없다. 입수 가능한 리스트에 따르면 공군의 세균무기 개발 한 분야에서만 다음과 같은 기관이 참여했다. 스탠포드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보잉, 아서 D. 리틀, 랄프 M. 파슨스, 제너럴 밀스, 웬젠 리서치, EDO, 하이에스 항공, 이스트 코스트 항공, 에어로 프로젝트, 에어크래프트 아머먼트, 섬머 기로스코프, 림, 일렉트로-필름, 스탠더드 컨테이너, 브라운 트레일러, 스틸크래프트 매뉴팩처링, 베이커 라울랑 등이다.[48] 펜실베이니

아 대학이 공군과 계약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최우선 순위 사업 중 하나여서 '빅벤'이라는 단독 코드명이 부쳐졌을 뿐 아니라 공군의 세균전 부서 테이블에 별도의 박스를 차지하기도 했다.[49] 화학부대 실험실은 2백여 건의 연구 계약을 체결했으며 '여러 교육, 산업 기관의 수많은 뛰어난 생물학 전문가들과 설비를 이용했다.'[50] 1951년 말경 세균전 분야는 주요 성장 산업이었다.

도로시 밀러에 따르면 해군은 육군이나 공군보다 세균전에 깊이 관여했으며 예산도 많이 사용했고 제일 먼저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 해군은 작전 목표 수립에 신속했고 1952년 1월에 이르러서는 해군과 해병대를 위한 생물학전-화학전 교본의 초안을 완성했다.[51] 개발한 세균무기의 일부는 해군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는 적용 범위가 넓어 공군이나 화학부대와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52]

해군 병기 실험실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세균 어뢰를 개발했다. 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연무 발생기도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53] 이 무기는 비밀 및 무력화 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지만 전술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1951년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하면,

> 해군은 육군 화학부대와 함께 1950년 9월 샌프란시스코 시에 대한 대규모 가상 공격을 실시해 항구와 그 시설에 대한 세균전 공격의 잠재력을 과시했다. 해군 수중폭파 팀은 이동식 연무 발생기를 이용해 넓은 지역에 상당량의 세균을 퍼뜨릴 수 있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에 이어 '세균을 퍼뜨리는 연무 발전기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공군기지를 전염시킬 수 있으며' '감염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해 2차적으로 세균이 공기 중에 퍼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54]

아마도 해군의 세균무기 주요 프로젝트는 해병항공비행전대와 공군 용도의 다목적 스프레이 탱크 개발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EDO사의 저공(低空)용 스프레이 탱크 프로젝트다. 이 탱크는 스탠포드 대학과 아서 D. 리틀, 스티븐슨 보고서를 만든 얼 스티븐슨이 사장으로 있던 캠프리지 컨설팅 등이 공공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EDO 탱크는 완성이 지연됐고 그 사이 미 공군이 자체 연무 스프레이 탱크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55] 실험 결과 보완할 부분은 있었지만 이 탱크를 이용하면 B-29, B-50 그리고 C-119 비행기로 2천 5백 피트 상공에서 세균을 분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 공군은 즉시 작물 성장 억제제를 살포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적합한 병원균만 개발되면 잎이 넓은 특정 작물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스프레이 탱크는 전략적, 전술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중 하나는 낮은 고도에서 도로, 좁은 길, 화물 야적장, 항만, 건물, 가축 사육장, 사료와 곡물더미 등 지표면의 목표물을 오염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다.[56] 공군은 1952년 10월부터 이 스프레이 탱크를 조달하기 시작했고 1953년 4월 1일 관련 프로젝트를 완성했다.[57]

미국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또 다른 구성 부분은 세균 매개물로 곤충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미군이 질병을 퍼뜨리기 위해 곤충을 사용했다는 중국과 북한의 주장과 뒤이은 미국의 부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미국이 한국전에서 생물학전을 수행하기 위해 매개 곤충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

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할 대상은 디트릭 기지의 곤충학 부서 책임자였던 데일 W. 젠킨스의 발언이다. 1963년 '밀리터리 메디신'이 후원한 생물학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그는 중국인과 북한 사람들이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던 1953년 이전 "미국은 생물학전을 위해 절지동물(곤충)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58] 그러나 이 같은 단언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었다. 1951년 10월 30일자로 된 화학부대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 목록' 수정본은 생물학전에서 '절지동물을 살포'하는 연구에 3년에 걸쳐 16만 달러가 따로 배정됐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59] 또 다른 디트릭 기지 프로젝트(NO. 411-02-041), 즉 존스 홉킨스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생물학전 병원체로서 뇌척수염 바이러스와 매개충으로서 모기에 대한 연구에도 1951년 한 해 14만 7천9백5달러가 사용됐고, 이후 1953년까지 38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다.[60]

디트릭의 과학자들은 매개 곤충을 개발하는 데 있어 캐나다의 생물학전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협조했다. 캐나다에는 이 분야의 선구자인 G. B. 리드 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한국전 기간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에 위치한 퀸스 대학의 국방연구위원회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었다. 리드는 매개 모기에 관한 2차세계대전 당시의 연구를 계속했다. 미국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매개 모기와 뇌척수염에 대한 방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는데, 캐나다측 프로젝트의 기록은 두 프로그램 사이에 밀접한 협조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리드는 또 미국인들과 공동 프로젝트로 모기 떼를 대량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61]

그러나 당시 리드는 그의 연구 영역을 무는 날벌레와 페스트에 감

염된 쥐와 벼룩으로 확대했다.[62] 2차세계대전 동안 그의 킹스턴 연구소는 야토병균, 보툴리누스균, 탄저균, 페스트균, 발진티푸스 관련 전염병균, 뇌척수막염균, 이질균 등 다양한 세균을 여러 가지 매개 곤충(집파리, 과일파리, 모기, 진드기유충, 벼룩, 진드기)에 감염시키는 '감염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을 세균으로 오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 지점에 세균에 감염된 곤충 미끼를 살포하는 기술에 있어 리드는 선구적이었다. 그는 세균에 감염된 연어 통조림을 미끼로 사용해 20만 마리의 파리를 운반할 수 있는 5백 파운드짜리 폭탄을 실험했다. 또 매개 곤충을 옮기기 위해 요소수지 골판지 용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알버타에 위치한 서필드 실험기지는 매개 곤충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집파리 배양 작업을 계속했다.[63]

2차대전 종전 후 리드는 미끼와 곤충폭탄 개발 작업을 재개했다. 1947년 말까지 그는 2가지 살포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하나는 티푸스균과 이질균, 파리 유인 물질을 함께 담은 집파리용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미끼는 긴 유리폭탄에 담아 투하했는데 유리폭탄이 깨지면 파리를 유인하는 패드가 남게 된다. 실험 결과 미끼에 유인된 파리 등이 사람들의 음식에 세균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드는 또한 이미 감염된 파리를 대량으로 살포하기 위해 고안된 '2차세계대전 폭탄' 연구도 계속했다. 모기를 대상으로 했던 것처럼 그는 파리를 대량 생산해 세균 매개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64]

리드는 재개된 캐나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보조했던 퀸스 대학의 스태프와 별도로, 7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국방부 연구위원회의 곤충학 연구소, 북부 지방의 곤충학적 조사에 협력했던 몬트리올의 북미 북극학회 등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65] 1948년 말 국방부 연구위원회는

곤충 연구위원들에게 생물학전 연구위원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북부 지방의 포유동물과 새에 기생하는 외부 기생충 및 무는 날벌레의 동식물 숙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무는 곤충 연구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1949년 초 북부 지방의 곤충학적 조사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다. 연구위원회는 북극학회를 하부 조직으로 편입하고 '캐나다에서 곤충학 연구를 수행 중인 외국 연구 팀'과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측 참가자는 해군과 의무센터, 앞서 언급한 디트릭 기지의 곤충학자인 데일 W. 젠킨스 박사 등이 포함됐다. 1949년 4월 미국은 캐나다측의 요구와 비용 부담 의사에 따라 캐나다 북부지역에서 무는 곤충을 연구하기 위해 젠킨스를 캐나다로 파견했다.[66]

1951년 12월 초 공동 연구 팀의 캐나다측 위원이 미 국방부 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미 공군이 특별한 무기 사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 공군이 캐나다의 콜드레이크와 서필드의 시험 시설을 사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캐나다는 협력을 제안했고, 2차대전 공동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캐나다 쪽 시설을 확장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3개국의 생물학무기 연구 표준화 작업은 1947년에 다시 시작됐고 1949년에는 알버타의 서필드 실험기지에서 공동으로 병원체와 세균무기 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67] 리드의 실험실과 서필드 실험기지는 모두 1950년부터 1952년까지 규모가 확대됐으며 세부 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1951년 여름까지 리드의 실험실은 서필드에서 미국과 공동 실험에 적극 참여했다.[68]

디트릭 기지의 의무분과 실험실에서 젠킨스 박사는 1947~1951년

사이에 모기와 한 종류의 진드기 유충을 대상으로 4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69] 전례에 따라 디트릭의 의무분과는 공격적인 생물학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디트릭의 생물학 실험실과 협력했다. 사실상 한 가지였지만 공격과 방어에 관한 생물학전연구위원회가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명목상 분리가 이뤄졌다. 1953년 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실제로 의무 실험실의 임무는 상당히 광범위했다. 보고서는 '화학부대 의무 실험실의 전반적인 임무를 기초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신경학, 독극물학 그리고 화학전 공격과 방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임상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70]

임무에 대한 언급에서 세균전은 빠졌지만 한 세균전 프로젝트로부터 나온 생생한 증거는 화학전의 범주에 실상 생물학전이 포함됐고, 의무 실험실이 의식적으로 세균전 매개 곤충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양 측면의 연구를 수행했음을 보여 준다. 증거는 '살충제와 방충제 도입과 사용에 관한 메커니즘' 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NO. 465-20-001에 기술돼 있다.

> 생물학전에 대한 적용: 2만 5천 달러(7만 2천 달러의 35퍼센트)
> 살충제 작용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는 세균에 감염된 곤충의 살포 공격과 이에 대한 방어 양쪽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465-20-001 프로젝트는 방충제와 살충제 개발에 관한 연구였다. 이 프로젝트는 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전 공격이 잠재적으로 위력적인 공격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이 프로젝트 중 살충제에 대한 저항력과 곤충 행태(즉 화학 유인물, 예를 들어 세균전에서 미끼로 쓰이는 살포 물질에 대한 반응)에 관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당시 생물학 실험실이 전액 재정 지원을 한 411-04-004

프로젝트로 이어졌다.[71]

디트릭 기지의 의무 실험실에는 '살충제와 쥐약의 생물학적 작용' 만 전적으로 연구하는 부서가 있었다.[72]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의무 실험실의 주요 활동은 생물학전 발발에 대비하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세균 감염 지역에서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곤충을 통제하는 것이었다.[73] 그러나 살충제에 관한 NO. 465-20-001 프로젝트는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학과 병원체, 세균무기 개발 작업이 밀접하게 조율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465-20-001 프로젝트는 미국이 생물학전에서 곤충 미끼를 이용하는 연구를 하면서 캐나다와 협조하거나 캐나다를 뒤따라 갔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기밀 해제된 더그웨이 무기 성능 시험장 기록센터의 1천여 쪽에 달하는 화학부대 프로젝트 관련 서류에는 곤충을 이용해 병원체를 살포하는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다.

아주 최근의 기밀 해제 전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매개 곤충 연구 작업은 비밀에 부쳐졌는데 이는 1960년대 초 젠킨스가 이에 대해 부인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이것을 살짝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일례로 우리는 1949년 2월의 극동사령부 화학부대 장교 전원에게 배포된 월간 뉴스레터에 첨부된 비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연구개발위원회는 벼룩을 이용해 페스트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는 것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1949년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 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74] 우리는 캐나다측의 연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디트릭 기지의 연구 개발 부서 기술국장이 된 시오도 로즈버리 박사가 다른 곤충뿐

아니라 벼룩을 이용한 페스트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즈버리는 나중에 그 자리를 사임한 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와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보기 드물게 과학자의 도덕성을 강조했지만, 그는 매개 곤충 연구의 초기 옹호자였다. 그와 그의 동료 엘빈 A. 카밧은 1947년 장문의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이 보고서는 디트릭에 근무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1942년, 조언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그들은 세균 매개물로서 곤충을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벼룩과 이가 선페스트 전파에 가장 유망한 곤충이라고 생각했지만 '페스트가 퍼질 조건을 갖추었으면서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부 지역'에 한해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일본이 이 같은 연구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일본인들이 세균에 감염된 벼룩을 살포하기 위해 중국에서 그 같은 지역을 골랐을 수 있다'고 기술했다. 로즈버리는 상세한 장문의 보고서에서 몇몇 병원체에 대해서는 모기와 벼룩이 매개물로 적합하다고 추천했다. 또 야토병은 여러 종류의 매개물에 의해 전염될 수 있고 이질균은 파리에 의해 전염된다고 밝혔다.

세균무기에 대해 로즈버리와 공동 저자 카밧은 '판지나 다른 가벼운 용기'가 적합하다고 추천했는데, 이는 북한과 중국에 의해 보고된 운반 수단과 일치했다. 우리는 1942~1949년까지 디트릭 기지에서 무기 관련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로즈버리와 카밧의 '최근 몇 년간 발전으로 일부 작업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됐다'라든가 '그동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것들이 이미 현실화됐다'라는 식의 언급을 통해 무기 관련 연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75]

우리는 이시이의 일본 생물학전 프로그램이 페스트를 옮기는 매개물로 벼룩과 이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했고 또 그것들을 살포하기 위해 도자기 폭탄을 고안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군은 이런 연구를 높이 평가했고 그 성과를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통합시켰다.[76] 디트릭 기지의 매개 곤충에 대한 빈약한 연구와 개발은 이후 미 육군 의무부대의 매개 곤충과 질병을 옮기는 설치류 숙주에 관한 방대한 지식에 의해 보충됐는데, 이 같은 지식은 극동사령부 산하 의무부대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1951년 가을까지 화학부대가 사용 가능한 모든 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구개발위원회는 세균 개발과 세균 살포 양쪽 분야 모두 최우선 등급인 'A' 등급을 부여하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1951년 10월 하순까지 화학부대는 1951~1953년 프로젝트의 확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국방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연구소, 외부 인력 등과도 계약을 체결했다.[77] 그 중에는 군과 민간 의료 시설, 생물학연구소 활용 방안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1945년 특수 프로젝트 부서가 2차세계대전 이후 세균전 프로그램의 최우선 정책으로 요구한 것이었다.[78] 매개 곤충 연구를 확대하는 데 있어 최적의 시설은 일본에 있던 극동사령부 산하 의무부대의 406 일반 의무 실험실이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국방부 합동전략기획위원회는 1953년 8월 생물학전의 유용성이 '미국의 많은 일류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거액의 자금이 지출되는 응용 연구의 주제'로 자리잡았다며 연구 개발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79] 1951~1953년 투입된 돈은 거의 3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도록 만든 것은 세균전의 위력을 군사적 임무와 작전에 통합할 목적으로 1952년 미 공군이 추진한 '충격 프로그램' 이었다.

6 작전 계획과 임무: 1945~1953

세균전은 강력한 감정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세균전은 새로웠다. 그것은 놀라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처럼 보였다.

1957년 미 공군 역사가 도로시 L. 밀러

적어도 1949년까지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휘하 각 군은 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생물학전 능력을 비상 작전 계획으로 세워 놓았다.[1] 1948년 베를린 봉쇄를 둘러싼 전쟁 위협으로 생물학전을 곧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 계획들은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어서 제임스 V. 포레스탈 국방장관과 조지 마셜 국무장관에게 구두로 보고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회의를 우회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이는 생물학전 시행에 대한 합의가 국무장관을 통해서 직접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세균전에 대한 은폐, 기만 작전을 누구와 논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1952년 초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합참은 세균전 계획 시행에 앞서 국무장관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끝에, 결국 국방장관 하고만 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구두로 연락하기로 한 1949년 결정에 비춰 볼 때 위의 1952년 결정이 말 그대로 국방장관 한 사람 하고만 논의 한다는 것인지, '관련 부인' (plausible denial) 독트린에 따라 1명 또는 2명의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는 서류상으로, 누

구에게는 구두로 보고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인지는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2]

1950년에 미 공군은 '미 공군 중거리 전투 계획에 부속되는 생물학전'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195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전면전에 대비한 단계별 작전 계획 가운데 하나였는데, 합참은 이 날짜 바로 직후를 세균전 준비 태세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삼으려 했다. 이는 당초 목표 시점으로 설정된 1956년이나 1957년에서 앞당겨 조정된 것이었다.

1단계 계획은 전략공군사령부가 같은 비행기에 세균 집속탄과 핵폭탄을 동시에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단계 계획은 적의 방어선과 병력 및 산업 인력에 세균 공격과 핵 공격을 동시에 감행하는 것이었다. 3단계 계획과 이어지는 계획들은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세균전 공격에서 전략공군사령부와 유럽 주둔 미 공군 그리고 극동 공군이 합동 작전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합동 작전 시 그 속도는 적당한 목표물이 포착되는 정도, 상황의 긴박도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3] 한국전이 확대될 경우 미 공군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려 했는지는 1951년 7월 3일 나탄 트위닝 공군 참모차장이 웨일랜드 극동 공군 사령관에게 보낸 다음의 전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주와 산둥(山東)반도, 중국 북부의 최우선 전략 목표물과 비행장을 공격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당신의 장담이 필요할 경우 실행되기를 바랍니다."[4]

또한 소련과 중국의 식량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생물학전의 일환으로 중국 농작물에 대한, 준비 일정까지 갖춘 특정 공격 목표의 선정 작업도 이뤄졌다. 암호명 '스틸야드'(STEELYARD)로 명명된, 대(對)소련 계획은 소련의 겨울밀을 목표로 삼았다. 또 이 계획은 M16 세균

폭탄으로 표준화된, 개량된 전단형 폭탄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비록 중국을 상대로 한 작전명은 입수되지 않았지만 '목표물 서류철에는 스틸야드 프로젝트와 같은 유형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5]

이에 더해 소련군을 상대로 단계별로 실행할 생화학전 전술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향후 보다 치명적인 세균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돼지 브루셀라균과 표준화된 M33/M44 폭탄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돼지 브루셀라균은 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로부터 입수한 신경 가스와 결합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베를린 봉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돼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세균무기를 사용한다는 비상 계획안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1952년 1월 트위닝 장군에 의해 이 계획은, 계획에서 언급된 대로, 급속도로 추진됐다.

전술 계획은 영국에 있던 전략공군사령부 중형 폭격기 비행전대와 유럽의 경(輕)폭격기 비행전대, 4개 전투폭격기 비행전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전술 계획은 소련군을 철저히 패배시키기 위해 각 비행전대에 관련 보급 조직과 함께 임무를 부여했다. 이 책을 쓰는 현재, 입수 가능한 문서에서 나온 유일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국에 주둔하고 있는 중형 폭격기 비행전대가 폭격기의 52퍼센트는 돼지 브루셀라균을, 48퍼센트는 신경 가스를 탑재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계획 입안자는 작전을 실행할 경우 소련의 70개 사단에 이르는 예상 공격부대의 절반에 대해 약 30퍼센트의 무작위적인 인명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것은 이들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것으로 여겨졌다.

전술 계획은 전략 계획보다 우선시됐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세균

폭탄의 양과 적합성이 제한적이었고, 또 최우선 사항은 소련 야전군을 묶어 두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실행 일정에 따라 모든 전략공군사령부의 폭격기 및 전투폭격기 비행전대(전투폭격기로서의 작전 능력을 가진 F-86 세이버 제트기를 포함)는 1953년 1월 1일까지 생화학전에 대비해 훈련을 받고 장비를 구비해야 했다. 이 같은 비재래식 무기가 긴급한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개량될 수 있다는 것은 베를린 봉쇄가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세균무기를 사용한다는 계획에 의해 드러났다.

현재 입수 가능한 문서에는 극동에서의 생물학전 전술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 전역(戰域) 계획이 모든 작전 계획의 지침이 될 예정이었고, 그 실행 스케줄이 전(全) 전술공군사령부로 확대됐다는 기록은 있다.[6]

미 공군의 비판과 보다 신속하게 작전 태세를 갖추라는 1951년 12월 러벳 국방장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합참은 그때까지 무척 바빴다. 러벳 장관의 압박에 대해 합참은, 예상할 수 있듯이, 생물학전의 '충격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실패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데 신중했다. 동시에 합참은 준비 태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능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7]

러벳 장관의 메모 훨씬 이전에 합참의 합동전략기획위원회(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는 세균전 활동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전쟁과 스티븐슨 위원회에 대한 반응으로, 그뿐 아니라 위원회 자체의 전망에 따라 합동전략기획위원회는 1951년 2월 '전략적, 작전상의 비상 계획'과 관련해 생물학전 준비 태세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생화학전을 사용하기 위한 독트린을 전술과 기술까지 포함해 실행 가능할 정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8]

1951년 9월 합동심층연구위원회(Joint Advanced Study Committee)가 합참에 보고한 비망록보다 생물학전의 잠재력을 열렬히 지지한 것도 없다. 1952년 2월 26일 합참은 일부만 수정한 뒤 위원회의 비망록을 수용했다.[9] 비망록의 표현은 크리시와 스티븐슨 보고서의 표현보다 훨씬 강했으며, 세균무기를 위기의 시대에 서둘러 개발해야 할 초강력 무기로 생각했던 미국 엘리트 사이의 초기 경향을 강력하게 보여 주었다.

비망록은 소련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논쟁을 무시하고 공격적 전략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이전 보고서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비록 소련의 생물학전 능력에 대한 정보가 기껏해야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련이 생물학전 능력이 있고 작전 계획으로 수립됐다는 가정하에서 행동했다.[10] 비망록은 '전쟁과 같은 조건에서 치르는 대규모의 실질적 연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1] 세균무기는 재래식 고폭탄이나 화학무기, 핵무기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다 적은 양으로 더 큰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비록 세균무기로 핵 전쟁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특히 자세히 설명하면서 세균무기는 다른 무기의 보완재라고 결론내려 한발 물러섰지만, 위원회는 세균무기를 완벽한 무기 시스템으로 주장하기 직전까지 갔다.[12]

비망록은 세균전의 은밀한 잠재력을 확인했고, 한국전에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전술적 사용에 관한 특정한 권고들을 했다. 비망록은 생물학무기의 전술적 잠재력으로 전장을 고립시키고, 전투지역에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적 부대가 집결지에 집합돼 있거나 제한된 혼잡한 도로망을 따라 전선으로 이동할 때' 연속 타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비망록은 집결 지역을 머물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 공격에 앞서 적을 약화시키는 병력 증강의 방해 수단으로 '안정된 전술적 상황에서' 이 같은 무기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비망록은 또한 아군을 면역시킬 수 있거나 작전에 앞서 세균을 살포할 수 있는 유동적인 전술 상황에서 세균전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13]

세균전에 대한 권고와 채택은 세균전 정보에 대한 군의 보안 규제 완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엄격한 보안 규정은 병사들에게 세균전 이론을 주입하는 데 방해가 됐고, 젊은 장교들에게는 바람직한 경력 이동의 하나로 세균전을 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세균전 교육을 받은 장교의 부족으로 작전 계획을 연구 개발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웠다.[14]

심지어 합참이 1952년 2월 전략 계획 비망록을 채택하기 전에도, 세균전 작전 계획을 직접 책임지고 있던 트위닝 장군은 공군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했다. 1951년 4월 감찰감이 보고서를 통해 공군의 세균전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중앙조정기구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트위닝은 생물학전과 화학전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군 본부의 원자력실 내에 특수 부서를 설립했다. 그는 생물학전과 화학전도 핵 전쟁과 똑같은 원칙과 개념, 작전 절차를 지니고 있으며 똑같은 우선 순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15]

조직이 정비되자 트위닝은 작전 계획 수립에 나섰는데, 이는 나중에 1952년 1월 15일의 '트위닝 지령'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것은 1954년 7월 1일까지 모든 세균전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단계별 계획안이었다. 이 계획은 1950년 5월에 만든 미 공군 중거리 전투 계획에 부속되는 '생물학전'의 수정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계획의 첫 단계는

1952년 12월 31일까지 전략공군사령부의 중거리 폭격기 1개 비행전대가 표준화된 대인, 대농작물, 대동물용 세균 및 세균무기를 갖추고 작전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53년 12월에는 3개의 중거리 폭격기 비행전대가 추가로 표준화된 세균과 세균무기를 갖출 예정이었고, 1954년 12월 31일에는 모든 전략공군사령부 부대가 작전 가능한 상태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이 지시는 모든 전략공군사령부와 극동공군부대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됐다. 수정된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16]

그러나 공군의 생물학무기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공식 역사를 보면 이 계획에서 '실질적인' 생물학전 능력을 알리는 첫 증거는 이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다. 1952년 3월에 발간된 '특수 무기를 위한 미 공군 작전 프로그램'은 공군부대들에 특정한 기능을 할당했다.[17]

작전 계획에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전술 목표물도 포함됐다. 세균전에 사용되는 폭탄은 처음에는 폭격기의 폭탄 적재실에서 투하하도록 돼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곧 근접한 전술 임무를 위해 전투폭격기의 외부에 장착할 수 있게끔 개조됐다. 폭탄의 외부 장착을 위해 전폭기가 개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폭탄 개조 결정이 한국전쟁 초기에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18]

세균전을 위한 이 같은 전술적 준비 태세 확대는 1951년 초 합참이 상세하게 지적한 내용과 분명한 관련이 있었다. 당시 합참은 '세균을 전술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균을 개발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19]

세균무기 운용을 위한 병참 지원 업무는 오하이오 주 라이트 패터

슨 공군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군군수사령부(Air Materiel Command: AMC)에 떨어졌다. 공군군수사령부의 최초 지침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폭탄을 미 대륙에 저장했다가 이를 세균 등으로 채워 필요한 곳으로 공수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전은 세균전의 전략적 역할만을 가정한 것으로 각 목표물에 제한된 개수의 폭탄 투하가 요구됐다. 브루셀라균과 M33 폭탄의 결합(M33/돼지 브루셀라균)은 이런 가정하에서 개발, 표준화됐다.

그러나 1951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보유한 계획의 효율성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30평방마일에 걸친 30개의 목표물을 폭격하는 데 M33 폭탄 1만 7천 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무에는 C-54 수송기 1천2백21대나 그에 상당하는 수송 수단이 필요했다. '트위닝 지령' 은 공군군수사령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보다 나은 계획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1954년 7월 1일까지 세균전 작전 능력을 완비하라고 명령했다. 'AMC 작전 계획 13-53' 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무기 성능 개선에 맞춰 해마다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도 있었지만 비상 병참 계획은 1952년 4월 이전에 정착됐던 것으로 보인다.[20]

병참 계획(AMC 작전 계획 13-53)은 몇 가지 선택 사항을 고려했다. 병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옵션은 폭탄을 해외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세균 등을 채워 사용하는 것이었다. 또 폭탄에 들어갈 세균을 해외에서 생산,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이들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브루셀라균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존 기간이 짧아 해외에 저장하기가 어려웠다. 또 당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과 해외 저장 사실이 알려질 경우 쏟아질 국제적 비난 여론 등도

고려해야 했다. 명백히 선택된 옵션은 미국의 긴급 생산기지에서 조립된 세균/폭탄 결합체를 해외로 수송하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입수 가능한 기록들은 표준화된 브루셀라/M33 폭탄에 관한 초기 병참 계획만 언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송 기간 동안 세균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냉동 트레일러와 세균의 효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감시 실험실의 개발로 수립될 수 있었다. 이 같은 기술적 능력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은 대통령이 전투에서의 세균전 사용을 재가하면 즉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시 밀러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계획은 장비가 사용 가능해지기 전에 마련됐다. 냉동 트레일러는 1952년 8월까지 군에 인도되지 않았고 이동 실험실은 여전히 제작 중이었다. 그러나 밀러는 충분히 작전 가능한 계획과 즉각 작전 가능한 계획을 구분했다. 그녀는 통상적인 '사용 가능함' 은 장비가 표준화, 목록화되고 재고가 수량화돼 공군 제1군수사령부에 넘겨진 상태라고 적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지원 장비들은 사용 가능한 것이 못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필요하다면 (세균전) 작전 계획은 적용될 수 있었다' 고 말한다.[21] 세균이 채워진 폭탄을 직접 운반하기 위한 원래 계획도 그랬듯이 공군군수사령부의 계획은 한정된 양의 세균을 비밀작전이나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송할 수단을 제공했다. 공군은 이와 함께 세균전 작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교한 조직을 발전시켰는데, 이 조직은 비밀 공군부대가 만들어지며 완성됐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국전 동안 세균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루는 별도의 장에서 언급하는 게 나을 것 같다.

1953년 늦여름, 유명한 트위닝 지령과 '충격 프로그램' 은 비평가

들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한국전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전면전 위협이 완화되면서 세균전에 대한 열광은 갑자기 이에 대한 경계와 회의로 바뀌었다. 세균전 프로그램은 초기부터, 특히 핵무기 예찬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트위닝 장군과 참모진의 고압적인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세균전 반대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군대 조직 내에서 돌기 시작한 불평들은 도로시 밀러의 평가에 잘 나타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물학전의 잠재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허용되지 않는 '정서적 분위기' 에서 트위닝 지령을 '반복해서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됐다고 그녀는 적고 있다. 트위닝 지령은 '무기 개발이 무리 없는 성공을 보장하기도 전에 생물학무기를 작전 지휘 체계 속으로' 편입하려고 시도했다. 워싱턴의 미 공군 본부 내 생물학전 부서는 '생물학전 수행을 지시하는 데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다.'[22]

구체적인 불만을 들자면 M33 생물학전 집속탄의 경우 너무 많은 병참 지원이 요구돼 공군을 극도로 실망시켰다. 이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무력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험 데이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작전 계획' 은 불가능했다. 결국 공군 정보부서는 '잠재적인 목표 지역을 설정할 수 없었고', '세균폭탄 공격이 적의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무기 개발과 병참, 정보 기관 활용 사이의 조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이것은 위기를 맞아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도입할 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마찰과 진통이었다.

1953년 초까지 모든 전술 부대를 작전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일정 계획이 어느 정도 재조정됐다. 1953년 1월 9일의 지침 보고서는 전

략 목표물을 겨냥한 생물학무기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했지만, 비상 전쟁 계획에서 생물학무기의 전술적 사용에 대해서는 그전만큼 강조하지 않았다. 화학무기는 전투 병력이 집결된 지역에서 더 빠른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는데 이는 유럽의 전략에서 지배적인 관심 사항이었다. 그러나 생물학무기는 '즉각적인 효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종류의 목표물'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됐다.[23]

하지만 도로시 밀러가 지적하듯, 세균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마찰이 있는 가운데서도 '충격 프로그램'은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위기의 시기에 비상 능력 확보하는 요구받은 임무를 성취했다.

> 세계적 불안감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군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중에 생물학전 프로그램 지도부의 공세적 정책을 비판할 사람들조차도 소극적인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 게다가 지나친 낙관주의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개인들의 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세균전은 강력한 감정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할 것처럼 보였다.…… 공군은 어떤 것에 대한 열광이 냉정한 계산의 필요성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1953년 초 생물학전 프로그램 전체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24]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빈약한 활동에 대한 신임 국방장관 찰스 윌슨의 사문에 대한 답변으로 합동전략기획위원회는 1953년 8월 31일자

로 된 장문의 평가 보고서에서 '충격 프로그램'을 파기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주 후 합참의장 아서 래드포드 장군은 그 결정을 승인했다. 국방장관에게 보낸 일부 기밀이 삭제된 편지에서 래드포드는 '지난 2년간의 사태'는 '생물학전 프로그램이 지나친 낙관론과 그에 따라 일을 빨리 끝내려는 시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적었다.[25] 결국 미 공군은 1952년 9월 캐나다와 영국의 동료들에게,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높고, 안정적이며, 실행 가능하고, 쉽게 살포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전염성을 유발하는 생물학전 세균을 아직까지 획득할 수 없었다'고 통지했다.[26]

정책 변화와 관련한 어떠한 문서에서도 '충격 프로그램'이 한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고백을 찾아볼 수 없다. 대조적으로 래드포드는 신경 가스 프로그램에 대해 비슷한 만큼의 신뢰를 보이며 칭찬했다. 이 같은 사실은 래드포드와 그외 다른 사람들이 생물학무기가 아직 전술적 개발 단계에 있는데 반해 신경 가스를 중시하는 시류에 편승하면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 생물학전 충격 프로그램이 억지로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한 실망, 국제적 긴장 완화, 미국의 정치 군사적 방어 전략의 변화 등이 1953년 중반 다른 무기 시스템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제 정치의 긴장 완화가 신중한 개발을 허용하는 동안에도 생물학전 프로그램은 지속됐고 비상시 능력도 그대로 유지됐다. 합동전략기획위원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작전은 생물학전 준비 태세 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수용 가능한 위험을 가정으로 수반한다.…… 가장 유망한 생물학전 세균-무기 결합체는…… 1956년

쯤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향 전환 속에서도 각 군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세균전 작전 능력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었다.[27]

7 한국전쟁: 제한전?

> 우리는 남북한의 거의 모든 도시를 불태웠다.…… 우리는 한국인을 1백만 명 넘게 죽이고 수백만 명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
> **1965년 커티스 르메이 미 장군[1]**

1950~1953년 사이 벌어진 한국전쟁은 제한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술돼 왔다.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지만 주된 전장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만주 국경을 넘지 않았으며 중국도 주일 미군기지나 피난민들이 모여 있던 부산에 대해서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양 진영 모두 전쟁 이전의 기존 체제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또한 사실이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핵무기도 한국전쟁에선 사용되지 않았다. 많은 제한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초토화됐다. 그 학살을 형용할 단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오리건 주보다 작은 지역에서 2백50만 명의 병사들이 3년 내리 전선을 형성하며 싸웠다. 해안을 따라선 해군 함정이, 공중에선 비행기가 포탄과 폭탄을 억수같이 퍼부어 파괴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1950년 가을, 미 육군이 북한에서 후퇴할 때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미 공군에 압록강 남쪽부터 전선 사이에 있는 '모든 통신 수단,

시설, 공장, 도시와 마을'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2] 네이팜탄을 이용한 대규모 폭격으로 도시들은 불길에 휩싸였고 폐허 위로 연기가 솟구쳤다. 이 '제한전'은 사실상 또 다른 전면전이었다.

2차세계대전 때처럼 전략적 폭격은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유발했다. 2차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전쟁 초기 유럽인들을 폭격할 때 견지했던 제한을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격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1945년 뉘른베르크 헌장에서 무자비한 파괴와 합법적 군사 목표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듯 미국의 군사 문화는 소모전으로 확대된 전쟁에서는 대규모 민간인 살상 역시 합법적 군사 목표가 된다는 2차대전 때의 입장을 고수했다.[3]

문제는 종종 '제한전'으로 기술되는 동북아 한구석에서 일어난 전쟁이 무엇 때문에 끔찍한 대량살상 전쟁이 됐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은 풍요로운 문화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다. 2천여 년 전에, 고대 전설에 따르면 훨씬 더 이전부터 한국인의 선조들은 한반도에 정착해 자신들만의 신체적 · 문화적 특성, 고유의 언어와 전통을 가진 고유 집단으로 통합됐다. 수 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계속된 중국의 침략과 일시적 점령을 겪으며 한국은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채택하게 됐다.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는 수많은 사찰과 암자의 건설로 이어졌고 학자와 예술가들은 풍부한 문학과 민속 예술을 창조했다.

한반도의 북쪽과 동쪽 해안가는 산악 지형이고 서쪽과 남쪽은 농사에 적합한 구릉과 계곡들로 이뤄졌다. 다른 동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쌀 농사 기술을 발달시켰고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를 창출했다. 20세기 중반 한국의 인구는 2천9백만 명에 이르렀다.

한국인은 두 민족이 아니라 단일 민족이다. 미국 학자 조지 매컨

은 한국 민족의 성장과 불가분의 단일성에 관해 '한국의 문화 사회적 패턴을 확고하게 형성한 오랜 역사적 영속성은 한국인에게 독특한 유산을 남겼다. 그들은 하나의 인종,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자랑스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한국 민족의 동질성은 한국의 정치 문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19세기 후반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이 무역 및 변방의 식민지를 찾기 위해 동아시아로 몰려들면서 한국은 격렬한 분쟁의 원천이자 국제적 경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에 이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왔고 심지어 벨기에와 이탈리아까지 경제적 이권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첫 현대식 광산, 첫 전기 조명, 첫 현대식 건물, 첫 가스 공장, 첫 전차는 모두 미국제였다.'[4]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쓰시마 해협에서 1백 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일본이 한국 개발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주장했다. 일본은 1910년 한국민의 무장 저항을 진압한 뒤 한국을 식민지로 공식 병합했다. 다른 국가들은 일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됐다. 혐오스럽고 잔혹한 일본의 식민 정부는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35년간 한국을 수탈했다.

그동안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은 한국 민족의 삶에서 중심적인 정신적 힘이 됐다. 한국 동북쪽에서 활동한 무장 공산주의 집단을 포함한 애국 세력은 '일본 통치하에 형성됐고 해방의 순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5]

한국은 1945년에 해방됐지만 독립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두 지역으로 분단된 채 해방군인 소련군과 미군이 대치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2차대전 때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도록 지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

의했지만 어떤 한국인들로 임시 정부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두 강대국은 대신 전후 분단된 독일처럼 자국 모습을 본뜬 경제 · 정치 기구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북쪽에선 토지 개혁과 사회주의가, 남쪽에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들어섰다.

잔혹한 일본 식민통치시대에서 해방된 한민족에게 나라의 분단은 더욱 쓰라린 절망이었다.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가족이 이별하고 경제가 분리됐다. 한국인들은 조속한 통일을 고대했다. 그러는 동안 남북한에는 각각 단독 정부가 만들어졌다. 소련의 지지 속에 김일성이 평양에서 북한을 이끌었고 남한은 미국이 지원한 이승만이 서울에서 지배했다. 양쪽 모두 통일 한국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조직해 나갔다. 그 결과 내전이 발생했다. 후방에서 게릴라전이 벌어졌으며 무장 세력들은 필요할 때마다 지도상의 분단선을 거의 마음대로 넘나들었다.[6]

1945년 연합국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한 유엔 기구가 한국 관련 사안을 감독할 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당시 유엔 기구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북한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평화 중재자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동아시아의 다른 곳, 특히 일본에서 미국은 강력한 존재로 떠올랐다. 1945년 9월 항복 조문에 의거,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지위를 갖고 6년간 일본에서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다. 이는 미국에 강력한 기지, 즉 다가오는 한국전쟁을 수행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제공했다. 1952년 4월 미 · 일간의 평화협정 조문은 미국의 군사기지를 일본에 계속 둘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다른 반대쪽, 중국에선 사회적 대격변이 진행 중이었다.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혁명군은 농민들의 지원 아래 1949년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이 외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토지 개혁을 이뤄 내는 데 성공한 사실은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인들을 고무시켰다. 반대로 미국 지도층은 중국 혁명을 소련 공산주의의 힘이 달갑지 않게 동아시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던 노련한 자국 외교관과 군사 고문관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회담 제의를 묵살했다. 대신 미국은 대만으로 쫓겨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계속 지원했다. 미국 정부와 대다수 동맹국들은 베이징을 수도로 새로 등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유엔 참가도 거부했다. 미국은 그 대신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아시아 전역을 휩쓸기 시작한 혁명의 물결을 견제하려고 시도했다.

다가오는 한국전쟁—내전이 국제적 대치와 대량살상 전쟁으로 변모한—의 잔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퍼즐 한 조각을 보태야 한다. 중국 혁명의 성공은 미국의 국내 정치에 촉매 효과를 유발했다. 워싱턴에서는 마녀 사냥의 시대가 개막됐고 시민의 자유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우파가 이끄는 공화당은 집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왜 미국이 중국을 '잃었는지' 를 알기를 원했다. 이 같은 실패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조지프 매카시 상원 의원은 답변을 요구했다. 매카시는 광풍을 주도하면서 민주당원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물러빠졌고' 국무부 내에 반역자들을 숨겨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들은 충성서약에 서명하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애국주의와 미국주의를 경쟁적으로 과시했다. 할리우드는 영화 제작자와 배우

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처럼 들끓는 분위기 속에서 소련에 대한 불신은 급속도로 커졌고 러시아 스파이가 사방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 언론과 학자들이 자유와 예속, 민주주의와 독재, 신과 악마 간의 싸움으로 뻰질나게 묘사한 냉전이 무르익으며 반공 정서가 급속히 확산됐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의 분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다시 한 번—1950년 봄에—다짐케 했다. 그는 거의 성공할 뻔했다. 북한군과 남한군 간의 교전은 1950년 6월 마지막 주에 시작됐다. 일부의 주장처럼[7] 남한군이 먼저 도발했건 아니건 간에 북한군은 한 달 만에 한반도를 휩쓸며 동남쪽 구석에 있는 부산 주변의 작은 교두보를 제외한 전역을 장악했다. 미국인 작가 로버트 시몬스는 한국전쟁의 기원과 첫 단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950년 6월의) 최종 위기 1년여 전부터 남과 북 사이에는 상당 규모의 교전과 경계 침범이 지속됐다.…… 한국인들은 전투와 전쟁 발발 가능성에 익숙해졌다. 양측은 조기 재통합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서울 정권은 대중적 지지를 거의 얻지 못했지만 북한을 침공할 의도를 공언했으며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뒤이은 북한의 신속한 승리는 침공군의 병력 규모 때문이 아니라 우월한 화력(탱크, 포대, 비행기)과 기습, 높은 사기, 상당수 남한인들의 지지 등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8]

그러나 김일성은 몇 가지 중대한 판단 착오를 범했다. 그는 북한

군이 한국 통일을 완수하는 속도를 과대평가했다. 반면 당시 '중국을 잃었다' 는 비난을 받고 있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한국을 잃지는 않을 것' 이며 미국과의 협의를 배제한 한국의 통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과소평가했다. 또 트루먼이 유엔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음을 예견하지 못했다.[9] 더욱이 김일성은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관해 소련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언질도 얻지 못한 채 모험을 감행했다.[10]

남한군과 미군은 부산 주변에 집결했고 유엔 기치를 내건 미 해군과 해병대, 육군은 1950년 9월 북한군 후방에 위치한 인천에 상륙하는데 성공했다. 전쟁의 운명은 급속도로 바뀌었고 김일성의 군대는 산으로 흩어져 재결집을 꾀했다.

유엔 총회 회원국의 다수가 38선을 넘어 중국 국경까지 북진하겠다는 맥아더 장군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들은 '한국 문제' 가 곧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중국 인민은 외국의 침공을 용인하거나 이웃이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잔인하게 침탈 당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이란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의 거듭된 경고는 무시됐다.[11] 압록강 주변에는 북한과 중국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수력 발전소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중대한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었다. 여기에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은 수많은 조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 혁명과 항일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만큼 동지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12] 1950년 10월 맥아더는 중국이 압록강 너머로 대규모 지원군을 보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13] 당시 그는 38선을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궤멸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이제는 맥아더 장군이 자신의 정치 · 군사적 오산의 결과를 감수할 차례였다. 그는 이 때문에 6개월 뒤 해임됐으며 미국 국내 정치를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펑더화이(彭德懷) 사령관이 이끄는 중국 인민지원군 선발대는 10월 18일 황혼 무렵 압록강을 건넜다. 중국군 지휘관 중 가장 유능하고 대담한 인물의 하나로 꼽히는 펑더화이는 이틀 뒤 압록강 50마일 남쪽까지 내려와 평북 대유동(大楡洞) 마을 근처 오래된 광산에 사령부를 차렸다. 그와 거의 동시에 펑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그들은 적과 맞닥뜨렸다. 사령부에 미군의 네이팜탄이 투하됐고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이 전사했다. 평북 북진(北鎭) 근처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 '1차 공세' 에서 중국군은 다수 적군 부대를 격퇴하고 유엔군을 일시 후퇴하도록 밀어붙였다.[14]

그러고 나서 전선에는 갑작스런 정적이 찾아왔다. 중국군은 교신을 끊은 채 주둔지를 위장하면서 한국의 북서쪽에 1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예정된 지점으로 적군이 진군하길 기다렸다. 펑더화이는 중국군에게 '우리가 겁을 먹고 후퇴하고 있다' 는 인상을 적에게 심어 주라고 지시했다.[15]

중국 고위 대표단이 뉴욕 주 레이크 석세스의 유엔 본부에 도착했지만 맥아더 장군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모든 노력을 경멸했다. 그는 자신이 맞서고 있는 중국군의 규모를 알지 못한 채 11월 24일 미8군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의 북서쪽 전선 위를 공중 시찰했다. 조종사에게 중국 국경 위로 낮게 날도록 지시한 그는 다음과 같이 그 광경을 묘사했다.

이 고도에서 북한과 중국 간 국경 전역을 상세히 볼 수 있었다.…… 우리 눈앞에는 완전한 불모지와 톱니 모양의 야산, 쩍 갈라진 틈, 눈과 얼음에 갇혀 죽음처럼 고요한 검은 빛깔의 압록강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무정한 황무지였다. 대규모 부대나 보급 열차가 국경을 넘어왔더라도 압록강 계곡의 간헐적인 눈보라 속에 그 흔적은 이미 묻혀 버렸을 것이다.[16]

다음날 워싱턴에 보낸 전문에서 맥아더는 '한국의 북쪽 국경선 남쪽에 있는 모든 적군을 전멸시킨다는 반복돼 온 목표' 를 이루기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미국이 실패한다면 가장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합동참모본부를 설득했다. 또한 이러한 실패는 한국인들로부터 '그들의 주권과 국토 통일, 그들을 위해 시작된 숭고한 과업에 대한 배신' 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그는 썼다. 그는 병사들과 지휘관들의 높은 사기에서 '우리가 가는 길의 정의로움과 임무가 조속히 완성될 것임' 을 느낀다고 언급했다.[17] 맥아더는 미군, 남한군, 영국군, 터키군 등으로 구성된 25만 명을 불과 70마일 떨어진 압록강을 향해 진군시켰다. 조속한 승리를 약속하며 그는 기자들에게 병사들이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18]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싸우도록 만든 동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적 피해자로서 이들에 대해 갖게 된 적대감이었음을 한국 파병을 지지하는 중국의 한 신문 사설에서 읽을 수 있다.

기계화되고 잔인한 백색 테러가 북쪽을 향해 중국 국경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인민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 나라의 분위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국 동북쪽에서 치명적 '사건'을 저지른 1931년 9월 18일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다. 중국 인민은 과거 여러 차례 침략자들에게 엄숙히 경고했다. 이는 침략자들을 멈추게 하기 위한 즉각적인 합동 작전을 말한다.…… 한 세기 동안 온갖 구실 아래 다양한 제국주의자들의 침탈로 고통받은 중국 인민은 침략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위장하더라도 그들을 알아챌 수 있게 됐다.[19]

펑더화이는 베이징의 마오쩌둥과 매일, 심지어 매 시간 전신을 주고받으며 '2차 공세' 전략을 수립했다. 북한의 늘어선 언덕과 계곡, 얼어붙은 강—여기에 산길로만 오를 수 있는 춥고 눈 덮인 산봉우리까지—은 가벼운 무장을 한 건장한 중국 시골 청년들에겐 유리한 지형이었다. 이들은 이미 고향에서의 혁명 승리에 고무돼 있었다.[20] 중화기나 공군력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군은 수류탄을 이용한 야간 전투, 포위 및 측면 공격, 근접 백병전과 위장 전술 등 적을 놀라게 함으로써 전투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작전을 선호했다. 그들은 마오쩌둥이 체계화시킨 '인민 전쟁' 전술에 의존했다.

인민의 지지, 지형, 날씨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아군보다 강한 적의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주요 전력(戰力)을 집중시켜야 한다.…… 적의 측면 부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적의 주력 부대와 다른 쪽 측면 부대는 게릴라나 소규모 분견대로 견제한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21]

중국인들은 미군의 결정적 약점을 간파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에 고무됐다. 한 중국 정보 보고서는 '1차 공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미군 보병들은 허약하고 죽는 것을 겁내며 공격이나 방어할 용기가 없다. 그들은 비행기와 탱크, 대포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화력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엄청난 규모의 장비를 수송하려면 지형과 날씨가 모두 좋아야 한다. 그들은 대로와 평지에서는 신속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언덕 지형에선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주간 전투가 전문이며 야간 전투나 백병전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패배한 경우에는 대형이 흐트러진다.…… 그들은 후방이 끊길까 봐 두려워한다. 보급이 멈추면 보병들은 싸울 의지를 잃는다.…… 우리에게 포위된 적들은 우리가 잘 조직돼 있고 잘 무장돼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싸우기보다 항복하려 할 것이다.[22]

맥아더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맞기 위한' 공격이 실행에 옮겨지자 마오쩌둥과 펑더화이의 주의 깊은 계획과 검증을 거친 전술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군은 산 속 은신처에서 내려와 경계 태세를 채 갖추지 못한 미군과 유엔군을 야간에 공격했다. 마치 '유령 부대'가 미8군을 괴롭히는 것 같았다고 미국 역사가 로이 애플먼 대령은 기술했다.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런 현장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욕구밖에 없었다.…… 그 다음달까지 적과의 교전을 피해 남쪽으로 달아나는 상황이 전부였다.' '그 달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일련의 재앙이 미군을 덮쳤다.'[23]

가장 유명하고 희생이 컸던 패배는 6개 포병대대를 거느린 미2사단이 평안남도 군우리(軍隅里)에서 남쪽으로 퇴각하려 할 때 발생했다. 마오쩌둥과 펑더화이는 그런 시도를 예상하고 탈출을 막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38군 산하 113사단의 2개 연대를 지름길로 보내 미군 탈출로를 막았다. 중국군은 구보로 산을 넘고 계곡을 가로질러 2개의 남쪽 탈출로, 즉 삼소리에서 대동강을 건너가는 주요 포장 도로와 5마일 서쪽의 와동과 용원리를 가로지르는 비포장 도로를 봉쇄했다. 14시간 동안 45마일을 구보로 행군함으로써 2개 연대는 후퇴하는 미군-유엔군을 측면 공격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도착했다. '모두 지치고 굶주리고 목말랐지만 113사단은 용맹스런 봉쇄 작전을 펼쳤다'고 생존 부대원은 회고했다.[24]

중국의 한국전쟁에 관한 공식 역사에는 2사단을 궤멸시킨 그 전투가 한 문단으로 쓰여 있다.

> (11월) 30일 적군은 비행기 1백여 기와 탱크 1백여 대의 지원 아래 필사적으로 돌파로를 찾았다. 113사단은 그들을 가로막고 용맹스럽게 반격하며 (삼소리와 용원리의) 전장을 사수했다. 적들은 탈출로를 찾으려 했다. 그들과 북쪽 지원군(영국 미들섹스 여단)은 1킬로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볼 수 있었지만 합칠 순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을 탈출하려던 적의 시도는 분쇄됐다. 이 작전으로 38군은 인민지원군 고위 지휘관들로부터 훈장을 받았다.[25]

중국 역사가들이 이처럼 간결하게 기술한 이 전투는 애플먼 대령의 미국 전사에선 한 장(章)에 걸쳐 군우리~순천간 도로에서 중국군

의 포화 속에 2사단이 6마일을 통과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술된다. 그 속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좁은 길을 향한 기관총과 박격 포성, 폭파된 다리에 배치된 적 저격수, 미군 비행기의 능선 폭격과 네이팜탄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와 연기, 파괴되거나 불이 붙은 채 길을 가로막고 도랑으로 처박힌 차량들, 길가에 널브러진 시체들, '죽음의 계곡' 을 더듬어 가던 탱크 · 포병 · 보병 대대로 이루어진 7개 공격 부대 중 누군가 자신을 차량에 태워 주길 바라며 도랑에서 기어 나오는 부상자에 대한 묘사가 들어 있다.[26] 군우리 철수가 끝났을 때 2사단은 5천여 명의 희생자를 냈고 대포 대부분을 잃었다. '그것은 전력의 절반에 해당했다.'[27]

11월 하순 군우리 근처에서 일대 재앙이 일어나자 미국 군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원자폭탄으로 기울었다. 이전까지 자신만만하던 맥아더 장군은 11월 30일 합동참모본부에 8군과 10군단을 한국의 좁은 목을 가로질러 걸쳐 있는 전선에 배치하는 것은 '실행하기 매우 어렵다' 고 말했다. 전선의 길이와 병사의 수적 열세, '남쪽과 판이한 북쪽 전선의 산악 지형' 에 따른 병참 문제 등이 모든 가능성을 무효화했다.[28] 같은 날, 24시간 뒤 태평양 건너편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침울한 성명을 낭독한 뒤 유엔이 중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승인한다면 맥아더 장군에게 원자폭탄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29]

12월 4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패배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는 원자폭탄 사용을 우려하던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수상과 트루먼 대통령 간 회담을 준비하고 있던 국무부의 자문 요청에 대한 회답이었다.

합참은 '원자폭탄 사용'이란 제목의 국무부 입장이 담긴 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군사적 견지에서 어떠한 반대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재앙을 막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원자폭탄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30]

이 같은 표현에서 한국전의 제한을 확장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정책 결정자들의 전략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 이들 정치인과 장군들은 2차대전 때 미국의 전략이 전면전의 바깥쪽 경계까지 확장되면서 부상하고 이에 단련된 사람들이었다. 원자폭탄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생물학무기에도 같은 비중을 둘 만했다. 조지 마셜 국방장관이 승인한 스티븐슨 보고서는 공개적 수단으로서든 은밀한 수단으로서든 생물학전 사용에 대한 열망을 표명했다. 재앙이 임박한 이 시점에 생물학무기가 원자폭탄의 대안으로 채택됐음을 보여 주는 미국 기록은 아직까지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스티븐슨 보고서의 생물학무기 옹호를 알 턱이 없는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월 사이' 미군이 '38선 이남으로 퇴각하면서 평양,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도와 여타 지역에 천연두 바이러스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31]

중국군의 2차 공세는 1950년 12월 초에 수도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 대부분을 되찾으면서 끝났다.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중국군은 3만 7백 명의 병사를 잃었으며(전사 또는 실종) 미군과 유엔군에 3만 6천 명(미군 2만 4천 명 포함)의 인명 손실을 입혔다.[32] 짧은 휴식 뒤 3차 공세에서 중국군과 재결집한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1951년 1월 서울을 점

령했다. 2주 뒤 그들의 공격 선봉은 남쪽으로 37도선까지 이르렀다. 애플먼 대령은 '미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퇴각'으로 기술했다.[33] 미군은 후퇴하면서 초토화 전술을 지속했다.

한국 주둔 미군의 3분의 2가 궤멸에 직면하면서 미국 언론은 '초인적 빨갱이 무리'를 떠들어 댔고 트루먼은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폭탄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럽 동맹국들이 한국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할 경우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자 트루먼은 뒤로 물러섰다.[34]

1951년 1월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신임 미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운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국방부에서 곧장 날아온 리지웨이는 병사들의 규율을 다시 잡아 반격에 나서기로 작정했다. 그는 소모전을 통해 보병부대가 적을 조금씩 밀어붙이도록 했다. 목적은 영토가 아니었다. 적의 전력을 떨어뜨리고 지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 섬멸에 나섰다. 그것은 2차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돼 온 전략이었으며 미군 장교 교육과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그 전례가 남북전쟁 때까지 거슬러올라 간다.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그는 미국의 '명백한' 사명에 대한 도덕적 확신과 미국인의 역사적 가치관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1951년 1월 21일 병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에겐 문제가 명확하다. 한국의 이 마을이나 저 도시를 점령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곳 어디를 점령한들 그건 일시적일 뿐이다.…… 진정한 문제는 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에서 꽃핀 서구 문명의 힘이 공산주의를 패배시킬 것인가, 포로에게 총을 쏘고 시민을 노예로 부

리며 인간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자들의 통치가 개인과 인권을 신성하게 여기는 통치로 바뀔 것인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는 신의 손길과 함께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과도 같은 신 없는 세상에서 멸망할 것인가이다.[35]

리지웨이의 군대가 공습과 포격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안겨 주면서 중국군과 북한군을 38선 쪽으로 다시 밀어붙이자 양측 모두 무승부를 받아들일 준비에 나설 것임이 명백해졌다. 휴전협상은 38선 바로 남쪽에 있는 개성에서 1951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 쉽게 진척되지 못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1951년 7월 10일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과 중국 공산군에게 최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겨 줌으로써'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36] 이 같은 소모전의 정치적 동기는 2년쯤 뒤 새로 선출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공화당 정권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가장 일목요연하게 언급했다. "중국군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명백한 우위를—모든 아시아 국가들 앞에—보여 주지 못한다면 한국의 협상에서 얻어 낼 것이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 본다."[37]

간헐적인 지상전과 미군의 집중 폭격이 6개월 동안 지속된 뒤 쌍방은 38선에 근접해 있는 현재의 전선을 따라 휴전선이 그어져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포로 교환이 '자발적 송환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요구가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다. 당연히 중국과 북한의 협상 대표들은 모든 포로를 지체 없이 자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한 1949년 제네바협약 조문에 따라 이에 반대했다. 미국은 공산당

치하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 고려를 내세웠으나 당시 미국 주장의 동기를 놓고 역사가들은 지금껏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는 인간을 학살 대상이나 노예로 내주면서 휴전을 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38]

미군과 유엔군이 이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 내는 데 15개월이 걸렸으며 그 대가는 전후방에 걸쳐 혹독했다. 전투의 교착 상태와 적의 보급로 교란 실패에 좌절한 미 공군은 1952년 6월 중국 접경의 압록강 일대 수력발전소와 북한의 인구 밀집 지역, 마침내는 1953년 5월 북한의 관개용 댐에까지 폭격을 확대했다. 이는 뉘른베르크의 나치 전범재판에서 전쟁범죄로 단죄된 것과 같은 종류의 행위이다. 후방의 미군이 관할하던 거제도 전쟁 포로수용소에서는 송환 찬성파와 미군이 부분적으로 부추긴 송환 반대파 간에 통제권을 놓고 폭동이 발생했다. 질서가 회복되기 전까지 많은 포로들이 죽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 정부가 전쟁 및 포로 처우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정치 및 군부 지도자들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 준다. 이는 또한 미국이 전쟁의 범위를 합의 아래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전쟁의 실질적 제한을 확대시켰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51년부터 1953년 사이 전선에서 전투가 지속되면서 상황은 점차 1차세계대전 당시의 참호전을 닮기 시작했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난공불락에 가까운 진지에서 작전을 펼치며 교착 상태의 지상전에서 전반적으로 우위를 보인 반면 미군은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군과 유엔군은 1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미 8군은 중국군과 북한군 25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생포됐다고 주장

했다.[39] 북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미군 폭격으로 집을 잃거나 목숨을 잃었다. '자발적 송환' 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40]

전선에서 전개된 참호전에서 쌍방은 땅을 팠으며 특히 중국군은 미군 폭격기와 포격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그들은 참호, 동굴, 깊은 땅굴 등으로 이른바 '지하 만리장성' 을 구축했다. 그것은 주방어선을 따라 20마일 폭의 지역 지하에 총 1천2백50킬로미터에 걸쳐 건설됐다. 이곳에서 그들은 사실상 폭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음식을 조리하고 부상자를 돌보고 겨울에 추위를 피했으며 전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그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적의 방어선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전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고 펑더화이 장군은 썼다. '이 전술은 …… 장기전 성격의 진지전에서 최선의 조건을 만들었다.'[41]

1951년 여름과 가을, 미군-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적을 수색해 섬멸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유리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밀쳐 내기' 를 시도했다. 하지만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 (미군 병사들이 붙인 전투 이름) 등의 표현이 보여 주듯 대가는 비쌌다. 1951년 10월의 미군 1군단사령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 적의 강력한 저항 속에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는 동안 많은 지역에서 서너 차례씩 주인이 바뀌었다.…… 대포와 박격포, 탱크 등이 엄청난 포격을 쏟아 부었음에도 견고한 벙커를 파괴하지 못했다.…… 네이팜탄과 1천 파운드급 폭탄 투하도 적 방어 병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적의 완강한 저항—많은 경우 최후의 1인까지 버티는—때문에 1기갑사단

은 대규모 사상자를 냈으며 미군 돌격대가 적은 병력으로 목표 지점을 확보했을 때는 곧바로 뒤이은 적의 강력한 반격에 맞서야 했다.[42]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지상 작전은 1951년 10월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43] 미8군은 대규모 희생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았다. 추락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 미8군은 매달 2만 명씩 돌아가며 본토의 고향으로 휴가를 보내 주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전투에 숙련된 군대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44] 미국이 적을 압박하기 위해선 적의 보급로를 끊어 굶주리게 하거나 강력한 저지선을 뚫기 위한 뭔가 다른 비정규적 수단을 사용해야만 했다.

극동사령부는 1951년 8월 적의 통신망과 보급로에 대해 최대한의 공중 압박을 가하는 '교살 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8개월 동안 미 공군(해병대, 해군, 제5공군, 제20공군)은 적을 굶주리게 하기 위해 9만 차례 이상 출격, 철도 1만 9천 곳을 끊고 2백76량의 기관차, 3천8백20량의 객차, 3만 4천2백11대의 트럭 및 대로상의 다른 차량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조종사들은 철도, 다리, 조차장(操車場), 대로, 열차, 트럭은 물론 마차나 손수레, 창고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주택과 방공호에다 네이팜탄과 소이탄, 세열탄(細裂彈) 등을 투하했다.

이 같은 기술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미군 고위 지휘부는 믿기 어렵게도 휴전협상을 시작한 뒤 1년간 한국 내 적 지상군 병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을 지켜봤다.[45] 폭격은 지상의 수송을 방해하지 못했다. 보급은 계속됐다.

'교살 작전'이 실패한 데는 2가지 주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일부

소련 공군 비행전대가 미그-15 전투기를 몰고 참전하는 등 중국군의 대공 방어력과 공군력이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개선됐다.[46] 미 극동 공군사령부는 1951년 9월 '비행기 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공산군 조종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달려들었다' 고 기록했다. 소련제 미그-15기는 상승, 강하, 가속력에서 미군기를 앞섰다. 중국군 미그-15기 조종사들은 미군 조종사보다 경험이 적었지만 1951년 10월 셋째 주에는 '그들이 얼마나 능숙해졌는지를 보여 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중전' 이 한국 북서부에서 펼쳐졌다. 여기서 미군 전투기 9대와 B-29 폭격기 5대가 격추되고 8대 이상이 손상을 입었다.[47]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1951년 5월 한 폭격편대 지휘관이 심각한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으며 6월에는 공군 참모총장 호이트 반덴버그 장군이 한국 내 공군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48] 공중전 상황이 미국에 갈수록 불리해지자 반덴버그 장군은 1951년 11월 한국 일선을 긴급 시찰한 뒤 워싱턴으로 돌아와 침울한 보고를 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공산 중국은 공군력에서 세계 주요 강국으로 부상했다.'[49] 그때 이후 줄곧 미군 폭격기는 북한 상공을 밤에만 비행할 수 있었다. 소련제 레이더 조준식 대공포가 배치되면서 B-29와 심지어 B-26 폭격기조차 비행 고도를 더 높여야 했고 그 결과 정확성이 떨어졌다.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B-26 경폭격기와 전폭기 피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교살 작전' 이 제한적 성공에 그친 두 번째 이유는 적이 구축한 후방 지원체제가 효율성을 더해 갔기 때문이다. 처음 한국에 파견된 중국군은 전문적인 병참체제가 없었다. 하지만 미군 폭격기에 의해 희생이 커지고 1951년 여름 북한에서 홍수가 일어난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정규군 조직과 3천 명 이상의 본부 인력을 가진 인민지원군 병

참사령부가 평양에서 동남쪽으로 30마일, 전선에서는 50마일 떨어진 수안(遂安)에 들어섰다.

이 사령부는 곧 18만 명의 후방 지원 요원들을 지휘해 군사 물자를 수송 · 수령 · 이동 · 저장 · 배급하는 한편 부상병들을 돌보거나 배편으로 귀국시키고 다리와 도로를 고치고 통신망을 보호했으며 대공 방어를 조직하고 후방의 안정과 안전을 도모했다.[50] 거기에다 철도 수송과 정비를 책임진 5만 2천 명으로 구성된 중 · 조(中朝) 합동사령부가 있었다. 펑더화이 장군은 전선 후방에 있는 모든 전투부대들에게 도로 건설, 수송선을 따라 트럭 대피소 굴착, 대공 경계 강화 등의 병참 책임을 분담하도록 지시했다. 1천2백 마일에 걸친 주수송선에는 1마일 간격으로 대공(對空) 경계 요원이 배치됐다. 그들은 미군 비행기가 날아오는 소리를 들으면 총을 쏘거나 나팔을 불어 운전사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트럭들은 즉각 전조등을 끄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숨었다. 이런 식으로 트럭들은 하룻밤에 평균 1백 마일 가량을 움직일 수 있었으며 피해율은 40퍼센트에서 1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다.[51]

한국전 중반 무렵인 1951년 12월 미국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재래식 무기가 동원된 고정된 진지전에서는 기술적 우위가 적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했다. 상대는 휴전협정 조건에 일부 동의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날이 더 강해져 갔다. 일부 미군 지휘관들은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군이 또다시 전면 공세에 나설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군의 전선 요새들은 지상 공격으로 파괴할 수 없었고 적의 보급로도 다소 조악하긴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미 공군의 폭격도 적 주방어선의 전투 효율을 떨어뜨리지 못했다.

만약 제5공군이 믿었듯, 중국군이 '교살 작전'에 맞서 아직도 50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다면 미국이 어떻게 그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국이 원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한 방법은 전쟁의 폭력을 인구 밀집 지역과 경제 자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압록강변의 수력발전소 11곳이 1952년 6월 폭격당했다. 8월에는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78개 도시와 마을이 집중 폭격과 초토화 작전으로 폐허로 변했다. 9월에는 미군 비행기들이 소련 접경의 나진 정유 시설을 폭격했다. 그동안 지상에서는 가을의 삼각산 전투에서 '밀쳐 내기' 시도가 또다시 실패했다. 중국과 북한을 깨부수는 데 실패하자 미국은 1953년 5월 수많은 하천을 통제하는 북한 관개 댐들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이는 독일군이 1945년 네덜란드의 둑을 폭격했을 때 연합군이 전쟁범죄로 비난한 것과 같은 행위다. 이와 동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협상의 교착 상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원자폭탄을 사용하겠다는 트루먼의 위협을 되풀이했다. 미 공군은 오키나와(沖繩)로 원자폭탄 몇 발을 공수했으며 호이트 반덴버그 공군 참모총장은 중국 동북부의 선양이 전략적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암시했다.[52]

이 같은 전쟁의 확대가 생물학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는가?

생물학무기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은 전쟁의 전개 양상에 미국이 점차 좌절하던 바로 이때였다. 미 공군은 생물학전에 대비하라는 긴급 계획을 지시받았다. 은밀하고 급박한 작전 수행은 이미 수립된 전쟁 계획의 일부였다. 미국은 상당한 양의 생물학무기를 갖고 있었다. 최고 지도자들은 생물학무기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덕적 망설임을 이미 떨쳐 냈고 나중에 생물학 전쟁을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한다면 여론이나 국제 사회의 정치적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생물학무기 사용이 드러난다 해도 미국은 1925년 생물학전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었다. 1952년 미국은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5억 달러를 집행했다. 투자자들이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잡고 싶지 않았을까? 상황과 동기를 종합해 보면 이 같은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생물학전이 적에게 입힐 수 있는 효과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무기력증을 확산시킴으로써 도로 보수나 폭격 당한 교량 복구, 식량 및 탄약 수송에 동원된 중국군이나 북한군 사이에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탈영이 일어나고 지휘 체계가 교란될 것이다. 치명적인 세균은 폭탄이 닿지 않는 전선의 땅굴이나 동굴로 침투할 수 있다. 전투부대의 힘은 서서히 고갈될 것이다. 미국 군사 기획자들은 생물학전이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53] 적이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고 제네바협약 위반 또는 전쟁범죄에 관해 분노에 가득 찬 비난을 쏟아 냈을 때 미 국무장관—생물학전 은폐와 기만 계획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된—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재확인시키고 공식적으로 그런 비난을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으로 일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빈약한 위생 상태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원인을 돌릴 수도 있다.

1952년 초 저우언라이가 북한 외무상의 두 번째 생물학전 주장을 공식 지지했을 때—중국은 1952년과 53년 대규모 공습 때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했다—그것은 미국의 주장처럼 선전이었을까? 아니면 그 질병의 발병은 이미 중국인들이 한 세대에 걸쳐 지속

적으로 경험했던, 격동과 전쟁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을까? 이 책의 1장은 당시 상황을 평가할 능력을 갖춘 중국인들이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1952년 초 세균전에 관한 공식적인 비난이 트루먼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있는 그의 겨울 별장에서 일정을 1주일 앞당겨 돌아와 악화되고 있는 한국 전황에 대해 고위 관리들과 회의를 가진 직후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54] 또한 로버트 러빗 국방장관이 '실행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점'에 생물학전 '실전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자주 인용되는 중요한 1급비밀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 내린 1951년 12월 21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도 우연이었을까?

북한과 중국 동북부의 특정 질병들은 북한과 중국의 주장처럼 세균전의 결과인가, 아니면 미국 역사가들의 설명처럼 질병에 취약한 전시 한국의 환경 탓인가?

미국은 비밀 요원을 통해 적군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추적하려고 노력했다. 1952년 3월 13일 미국이 훈련시킨 요원 9명이 전선 후방으로 공중 투하됐다고 한국 파견 중국군은 보고했다.

> 4명은 도주했으나 나머지 5명은 사로잡았다. 39군이 2명, 67군이 2명, 3병단이 1명을 잡았다. 이 첩자들은 미군에 항복한 우리 병사들로 적에게 포로로 잡힌 뒤 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훈련을 받고 정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과 생김새를 알고 있었으며 자백이 서로 일치했다. 그들 모두 적이 만든 인민지원군 군복을 입고 있었으나 색상이 좀더

짙었다. 그들은 카본 소총이나 소련제 소총, 14년식 일제 권총, 쌍안경, 라디오, 무전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다. 군용 비둘기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군 장교 행세를 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세균전의 효과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즉 군대와 민간인의 전염병 감염 상황,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 사망자 숫자, 희생자 중 노인과 청년 비율, 어떤 주사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군대 내에 전염병이 발병했는지, 거주지 내에 죽은 쥐들이 있었는지, 빈대와 이는 얼마나 있는지 등이었다.[55]

한국전쟁 당시 미군 의무부대의 역사학자 앨버트 E. 코드리는 미군 정보 보고서를 근거로 1950년 한겨울과 1951년 초봄에 '천연두와 티푸스가 북한과 남한 전역에서 보고됐다'고 말한다.[56] 반면 컨버스 미 육군 소령은 1951년 3월 미 국무부 주선으로 열린 14개 연합국 대사들의 모임에서 남한 내 피난민과 10만 명의 이주민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난 8개월간 어떤 종류의 전염병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57] 불행히도 이 기간 초기의 질병 사례에 관한 중국군과 북한군 기록은 아직 기밀 해제되지 않았다. 어쨌든 미 정보 소식통은 북한 내 보건 위생 프로그램의 결과로 1951년 늦여름에 '봄철 전염병이 사라졌다'고 믿었다.[58] 이는 생물학전이 광범위하게 수행됐다는 첫 주장이 나오기 6개월 전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질병이 전쟁 노력을 결정적으로 도울 수 있으려면 필시 이를 의도적으로 유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접근 가능한 중국 정부 기록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1952년 봄에는 중국 동북부와 북한 북부지역에 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59] 이 때문에 미 육군은 생물학전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에 크게 실망해 결국 1953년 가을에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원인이 무엇이든 페

스트, 탄저병, 뇌염, 콜레라 등의 질병이 북한과 중국 동북부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하긴 했지만 중국군과 지방 정부 당국의 공중보건 정책으로 신속히 제압됐다.

미국의 대량 파괴 작전이 휴전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협상 대표들로 하여금 전쟁 포로의 '자발적 송환'에 관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휴전협정은 판문점에서 쌍방에 의해 조인됐고 1953년 7월 말 전쟁은 끝났다.

미국이 생물학전을 수행했다는 중국과 북한의 주장을 둘러싼 상황은 많은 검토거리를 제공한다. 이 책의 나머지 장들은 한국전 당시 어느 정도 규모의 생물학무기 실험이 수행됐는지에 대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 우리는 수단, 동기, 계획이 실행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조사했다. 미군 중 누가 그런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특징과 병원체, 운반 수단은 중국측 주장의 세부적 내용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이나 한국전쟁의 기본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확인된 증거와는 달리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일부 불완전한—광범위하고 주의 깊게 검토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은—증거에 의존할 것이다. 수년에 걸친 조사와 셀 수 없는 정보 공개 요청에도 많은 문서들이 역사학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채로 남아 있다. 일부는 발견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창고에 쌓여 있거나 기밀로 분류돼 국방부 통제하에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미국 · 캐나다 · 영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비밀문서로 남아 있다. 일부는 분실되거나 파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관 문서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한 최근의

결정이 미국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생물학무기의 현장 실험을 했다는 우리의 결론과 판단의 신뢰성을 추후 검증하는 데 충분한—심지어 풍부한—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1952년 미8군 제2화학박격포대의 관측소에서 바라본 한국 내 주전선의 험난한 지형
Book 4364, SC418463, RG 111, NA

1952년 9월 27일 금화에서 미8군 937야전 포대의 1백55밀리 대포가 공산군 진지를 향해 불을 뿜고 있다.
Book 4364, SC426125, RG 111,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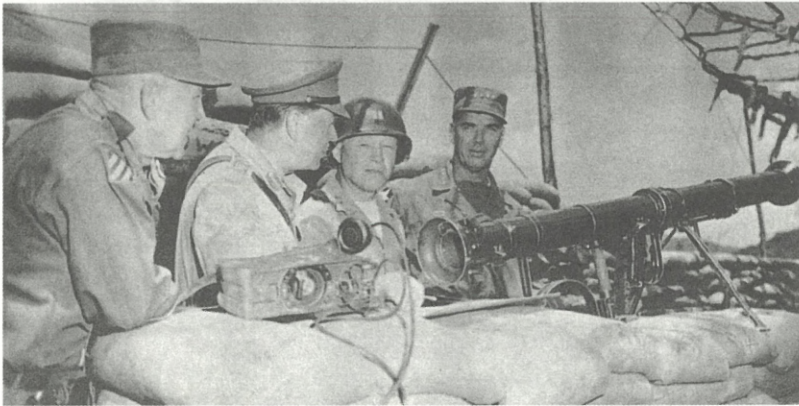
1951년 6월 14일 금화 근처 603고지에서 미 해군 폭격기의 집중 폭격과 네이팜탄 투하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Book 2362, SC371369, RG 111, NA

1952년 6월 14일 금화 북쪽의 한 민가에서 한국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Book 2362, SC371376, RG 111, NA

1953년 2월 20일 미 육군 제40보병사단 23연대 A중대가 적의 벙커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Box 247, SC421205, RG 111, NA

1952년 6월 27일 올드 볼디에서 여러 차례의 전투가 치러진 뒤의 참호들 모습
Box 234, SC404671, RG 111, NA

1952년 2월 19일 마크 클라크 장군(오른쪽)이 한국 고산동의 작전실에서 제3보병 사단장 로버트 소울 장군과 함께 있는 모습
Book 2362, SC378541, RG 111, NA

1951년 1월 17일 대구 공항에서 미8군 사령관 매튜 리지웨이 장군(오른쪽)이 CIA 국장인 월터 B. 스미스 장군(가운데)과 극동사령부 G-2 사령관인 찰스 윌라비 장군에게 개인적인 전황 평가를 하고 있다.
Book 2492, SCA356388, RG 111, NA

1952년 6월13일 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오른쪽)이 영국 국방장관 얼 알렉산더 육군 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함께 연천 부근의 일선 벙커에서 미 제45보병사단 189야전포대를 시찰하고 있다.
Box 252, SC4270471, RG 111, NA

심리전 전단 샘플

흡혈귀, 거미줄 그리고 B-29폭격기
이것은 한국 주둔 제5공군 심리전부대의 공식 표지였다.

'정예군에 더 많은 지원을'

'이 경고에 주의하라'
농가와 대피소를 군사 목표물로 적시하면서 미군 폭격기가 오기 전에 피할 것을 촉구하는 전단

1950년 10월 압록강을 건너는 중국 인민지원군
Photo No. 6241,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항미원조(抗美援朝) 기간 동안의 중국의 펑더화이(오른쪽)와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가운데)
Photo No. 012925,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나팔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돌격을 시작하고 있다.'
Photo No. 6425,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1950년 11월 28일 군우리 부근의…… 전투에서 우리 군은 적의 진지를 공격했다."
Photo No. 5819,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배윤산의 38군 병사들이 군우리에서 퇴각하는 미군 2사단을 막고 있다.
Photo No. 6026,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지하 만리장성'을 건설해야 한다."
Photo No. 6374,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현대 목판화
바 진의 「영웅들과의 생활」(1954) 표지
Photo No. 6026,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이것은…… 파괴할 수 없는 철도 수송선이다."
Photo No. 6403,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방에서 전장으로의 식량, 탄약 수송'
Photo No. 6379, 6376, and 6357,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1952년 10월 한국 전선에서 열린 제2차 중국인민대표단의 위문 공연은 삼각지 전장에 있던 병사와 장교들을 크게 격려했다."
Photo No. 6369,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중국 인민지원군의 문화 일꾼들. 이들은 전사(戰士)들을 위해 노래하고 공연을 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 그들은 부상자와 환자들을 돌봤다. 때로는 총을 메고 전투에 나서거나 전쟁 포로들을 감시했다."
From *Women of China*, October 1951

1951년 1월 17일 북한 제물포 마을의 네이팜탄 공격 희생자들. 미 화학부대 사령관 에그버트 F. 블린 소장은 1951년에 미 공군은 한국에서 매일 평균 7만 갤런의 네이팜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Armed Forces Chemical Journal, No. 4(1952); NCNA

북한 해강촌 근처의 폭격 당한 마을 잔해
NCNA

8 심리전과 생물학무기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극동이 그렇다.…… 그렇다. 숨기는 게 좋겠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지워졌음)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정말 극동 문제는 끔찍하다.

월터 베델 스미스 CIA 국장,
1952년 10월 30일 심리전전략위원회에서[1]

공군은 생물학전 비밀작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

생화학전부대 지휘관 프랭크 실러 대령,
미 공군 1953년 8월 11일[2]

심리전부대는 비재래식 무기인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비밀작전을 지휘하고 감독할 것이다.

로버트 M. 리 소장, 미 공군 전쟁기획국장 1953년 3월 17일[3]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생화학전 수행 능력을 감독한 공군 참모부대는 머리글자를 따 AFOAT-BW라고 불렀다. 지휘관은 프랭크 실러 대령이었으며, 보고 계통은 원자력 부문 보좌관 H. G. 벙커 소장과 그 윗선으로 작전참모차장 T. D. 화이트 중장으로 이어졌다. 1951년 여름 실러 대령과 상관들은 생화학무기 개발에 진척이 없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 생화학무기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실러 대령을 부대장으로 하는 이 부대는 'USAF BW-CW'라고 불렸으며 벙커 소장과 화이트 중장의 지휘하에 있었다. 'BW-CW' 부대의 임무는 생물학전 능력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것이었다.[4]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또 다른 지휘 계통에서 세균 및 화학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이 또한 화이트 중장의 지휘를 받았다. 화이트 중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쪽 지휘 계통은 기획국장 로버트 M. 리 소장과 심리전부대 지휘관 존 J. 허치슨 대령으로 내려갔다. 심리전부대는 '현재 능력과 요구를 종합해' 생화학무기를 전쟁 계획 수립 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구체화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또한 승인받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생화학무기 소요량을 결정할 때 참가하라는 업무까지 떨어졌다.

부드러운 느낌까지 주는 '심리전부대'란 용어는 이 부대가 통상적인 선전 공작의 범위를 벗어난 비재래적인 생화학전 작전을 은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을 감추게 했다.[5] 심리전은 적군에게 혼란 · 공포 · 불안 · 패닉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했다. 또한 원자폭탄 · 세균무기 · 화학무기 등의 사용 명령을 포함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심리전부대가 세균전을 위한 무기 소요량을 결정함에 있어 심리전 부대의 가장 앞선 선전무기인 전단 투하용 폭탄을 표준화된 세균무기로 개조토록 했다는 사실이다.

심리전부대의 역할 공개를 통해 우리는 한국전쟁 중 은밀하게 생물학전을 수행한 조직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공개된 희귀 문서는 막대한 돈을 들인 세균전 관할 작전센터가 공군 내에 존재했음을 알려 준다. 그 책임자는 당시 공

군 참모총장 호이트 반덴버그 장군으로 그는 중앙정보국(CIA) 설립자였으며 비재래식 전쟁과 비밀작전의 열광적 지지자였다. 센터의 임무는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것이었다. 비밀 세균전 작전을 지휘하고 감독했으며, 작전 계획 승인에 따른 생물학무기 소요량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여기에다 별도 공군부대도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다. '581ARC 비행전대' 로 알려진 이 부대는 수송부대로 위장한 채 아시아에서 작전센터의 명령을 이행했다. 이 부대 부사령관은 심리전부대 지휘관인 허치슨 대령이 겸직했다.[6]

정통한 CIA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반덴버그 장군은 방공사령부, 전술공군사령부, 전략공군사령부에 필적할 만한 제대로 된 심리전사령부를 공군 내에 설립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물론 비재래식 전쟁과 비밀작전을 위해서다. 그는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 나름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정규군이 담당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 및 고도로 훈련받은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전문가 집단에는 군사력과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믿었다.[7] 트루먼 대통령에게 발탁돼 CIA를 만든 그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개인적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전사(戰史) 담당관인 마이클 E. 하스 대령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 공군은 비재래식 전쟁과 비밀작전을 수행할 준비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8]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야심찬 시도가 1951년 2월의 '공중재보급 및 통신 부대' (ARCS) 창설이었다.

워싱턴 북서부 뉴아크가(街) 3800번지에 본부를 둔 ARCS는 명

목상으로는 공군 수송부대 소속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이었다. 이 부대는 실질적으로는 심리전부대 예하 작전 조직으로, 펜타곤 기획국 부참모장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9] 반덴버그 장군의 지휘 아래 밀라드 C. 영 대령과 존 J. 허치슨 대령은 4개 이상의 비행전대를 갖추려는 방대한 계획을 추진했다. 각 비행전대에는 3천5백 명의 병력이 배속돼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자급 병참체제를 갖추도록 한다는 복안이었다. 몇 개월 뒤 이 계획은 다소 축소돼 각각 1천2백 명의 병력을 갖춘 2개 비행전대로 현실화됐다. 병사들은 아이다호 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훈련을 마친 뒤 해외로 전출됐다. 한 비행전대는 북 아프리카 리비아로 가 대(對) 유럽 작전에 투입됐다. '581ARC 비행전대' 로 알려진 다른 비행전대는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주둔했다. 대(對)중국 작전 수행이 당초 주요 임무였다.

'국제 정보 활동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에 제출된 심각하게 훼손된 극비 보고서에는 ARC 비행전대가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 ARC 비행전대 본부에는 기획자, 지역 전문가, 조정자, 아이디어 맨, 통역 등의 인력이 상주하며, 산하에 다음과 같은 대대를 거느리고 있다.
>
> (1) 심리 작전에 필요한 흑색 및 백색 선전물을 생산하는 대대……이런 작전의 일환으로 좁은 한반도에서 매일 3백50만 장의 전단을 뿌렸다.
>
> (2) 비재래식 전쟁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물질을 공수하기 위해 포장하고 보관하는 대대
>
> (3) 비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고 지휘하기 위한 통신대대
>
> (4) 비재래식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비행대대. 나는 여기서 이 대

대가 전장에 침투했다 퇴각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행대대에 소속된 항공기는 12대의 B-29기, 4대의 C-119기, 4대의 H-19 헬리콥터, 4대의 SA-16 수륙양용차이다.

(5) 일상적인 부대 운용과 정탐 및 게릴라전에 투입할 현지인을 수용하고 교육하는 대기 및 교육중대[10]

581ARC 비행전대가 1952년 7월 필리핀에 도착한 후 비행기와 승무원은 극동 공군과 한국의 제5공군 휘하로 배속됐다. B-29 폭격기 4대는 일본 야코타 공군기지로 이동해 91전략정찰대대 지휘 아래 '전단 투하' 작전에 투입됐다. 4대의 C-119기는 아시야 공군기지로 이동해 공수부대 수송 작전에 동원됐다. 그리고 가장 이례적인 사건은 여러 부대에서 차출된 26명의 장교와 98명의 병사로 구성된 혼성 부대가 제5공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581ARC 비행전대 역사에는 '배치된 부대의 임무와 관련한 의무' 라고 단순하고 무미건조하게 표현된 모종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는 것으로, 그들은 아마도 심리전 부대의 명령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1]

581ARC 비행전대 지휘 장교는 1953년 1월 중국군에 붙잡혀 간첩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존 K. 아놀드 대령이었다. 아놀드 대령은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폭격기 조종사로 석사 학위까지 갖고 있었다. 태평양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제43 기상(氣象) 비행전대' 지휘관으로 도쿄에 부임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놀드 대령은 동북아 기후와 지형을 속속들이 파악하게 된다. 581ARC 비행전대가 1951년 4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아이다호 주에

서 훈련받고 있을 때 아놀드 대령은 워싱턴과 극동을 빈번하게 왕래했다. 그 중에는 한 달 동안 한국 전선을 방문해 그 부대 전사에 따르면 '현대의 심리전 기법을 연구했다.'[12] 중국에서의 재판에서 그는 CIA와 함께 일하면서 특수 공작원들을 중국과 소련으로 공수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필요 물자를 공급하거나 공작원과 지상에서 접촉했으며 탈출을 돕기도 했다. 작전 중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재판 기록에서 아놀드 대령의 시인이나 언급을 발견할 수 없었다.[13]

미 앨라배마 주 맥스웰 공군기지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돼 있는 581ARC 비행전대 전사는 예상대로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은폐가 많았다. 또한 공허한 찬미만 가득하고 사실은 적었다. 특수 작전 명령 중 '비밀로 분류된 내용'은 열람에서 제외됐다. 일일 작전 명령과 일일 임무 보고는 581ARC 비행전대 전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아놀드 대령이 워싱턴, 도쿄, 한국에서 회의에 참석한 기록도 없었다. 전사에는 비행전대가 펜타곤 내 미 공군 본부 기획국 산하 심리전부대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당연히 581ARC 비행전대가 수행한 임무의 실체는 전사에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심리전과 비재래식 전쟁을 담당한 부대라고 적고 있다. 즉 '적군이 점령한 지역에 게릴라를 침투 · 퇴각시키고 필요 물자를 공급하며' 심리 전쟁 물질—즉 전단 등—을 운반하는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고 '전 세계에 진실을 전파했다'는 것이다.[14] 전사는 또한 581ARC 비행전대가 '매우 유연한' 조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역사 기술에서도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581ARC 비행전대가 비밀 생물학전 임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을 통해서 드러난다. 첫 번째는 극동공군사령

부로부터 받은 전문이다. 사령부는 '잡동사니'를 공중에서 대량 살포하고 주파수 측정기를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를 비행전대에 요청했다.

잡동사니를 살포한다? 그것은 적군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해 흔히 투하하는 금속 조각일 수 있었다. 또한 잘게 썬 밀짚이나 잔디, 나무 잎사귀일 수도 있었다. 확실한 것은 후자의 물질이 세균 확산이나 곤충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며 종종 권장됐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 주민들은 1952년 자신들의 머리 위로 기이한 여물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신고했다.[15]

또 다른 단서는 581ARC 비행전대가 미국을 떠날 때 가져간 장비 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 접히는 야전 테이블, 석유 랜턴, 책상 등 일상적인 물품 외에 워싱턴의 ARCS 사령부가 비행전대에 지급을 명령한 장비 중 용량이 각각 1백50큐빅피트인 3대의 휴대용 냉장고가 눈길을 끈다.[16] 냉장고 지급 이유는 물론 명시하지 않았다. 비행전대는 부식 등 식량을 자체 조달하지 않았다. 선전 전단을 냉장고에 보관할 이유도 없다. 분명한 것은 만일 세균무기를 쓰려고 한다면 차가운 보관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군 세균무기의 대표격인 브루셀라균을 비롯, 페스트·발진티푸스·콜레라균 모두 저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군부 내 여러 심리전 수행 조직들은 누가 비밀작전과 비재래식 전쟁의 주도권을 쥐는가를 두고 서로 경쟁했다. 원자폭탄, 생화학무기까지 수중에 넣고 있는 육군 심리전부대는 극동에서 CIA와 비재래식 전쟁 통제권을 놓고 다퉜다. 심리전부대는 프랭크 페이스 육군장관의 강요에 떠밀려 표면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극동에서 활동 중인 많은 군사 조직들은 동상이몽 상태였다. 선전 업무의 총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극동사령부 · CIA · 합동참모본부는 CIA에게 비밀작전과 비재래식 전쟁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그러한 조정이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밀 심리 작전을 관할하는 또 다른 주요 기구는 '합동부속기획국' (Joint Subsidiary Plans Division)으로 알려진 미 국방부 산하 조직이었다. 1950년 1월 설립된 이 조직은 레슬리 C. 스티븐슨 해군 소장이 지휘를 맡았다. 임무는 '평화 시 군부 내 심리전 및 비밀작전 능력 개발을 조정하고, 세부적인 군사 계획을 국무부, CIA 등 정부 내 다른 조직과 협의하며, 전시에는 합동참모본부로 귀속돼 이들 특수 작전을 지휘 · 감독한다' 는 것이다.[17]

1951년 초 백악관은 극동사령부와 한국전쟁에서 심리전 전략을 명백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개입했다. 당사자들은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대통령과 보좌관들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1947년과 1948년 냉전의 전쟁 수단으로 비밀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모든 정부 기관들은 이 영역에 실질적인 권력이 집중되리라는 점을 곧 알아챘다.

트루먼 대통령은 정보 · 군사 기관간 격렬한 주도권 다툼에 진저리를 쳤다. 이에 따라 1951년 4월 비재래식 전쟁 및 비밀작전의 지휘 권한을 백악관 아래 두려는 의도로 최고위급 심리전전략위원회 (Psychological Strategy Board)를 설립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 기구의 형태를 취했지만 위원회는 실제로는 주요 이해 당사자인 국무부, 국방부, CIA 고위 관리로 구성된 협의체 성격이 더 강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 출신인 고든 그레이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기구에는 국무부, 국방부 등 정부 내 막강 부처에 버금가는 권한이 부여됐다. 업무는 공개 및 비밀 영역을 총괄하는 심리전 계획을 전략적 관점

에서 수립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러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국가 정책에서 심리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맡겨졌다.[18]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리전 단독 항목으로 1952년 2백5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1953년엔 4백50만 달러로 늘었다.[19]

위원회 업무를 규정한 문건은 전면전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레믈린의 지배력과 영향을 줄이고 소비에트 시스템 내에서 파괴의 씨앗을 키운다' 고 기술했다.[20] 당시 위원회 의사록에는 냉전시대 임무의 비정함을 느끼게 하는 극단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미국 듀크 대학 출신 중국 전문가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폴 M. S. 라인바저 박사의 발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문명간 전쟁은 특정한 때가 없이 늘 지속된다. 시작도 끝도 없다. 승리 또는 절멸 사이의 궁극적 선택만 있을 뿐이다.…… 냉전의 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종국적으로 소비에트 시스템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싸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 투쟁의 일부분이며 제3차세계대전은 불가피하다."[21]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는 위원회의 전략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위원회의 첫 번째 작전 '이륙' 과 관련해 작전관할권 잠식에 저항했다.[22] 기록을 보면 이러한 영향으로 심리전전략위원회가 각종 조직의 개별 작전을 승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권한 사용을 전략적인 범위 내로 자제했음을 알 수 있다.[23] 또한 위원회가 비재래식 전쟁 및 비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관할 범위에 걸친 작전을 수행하기보다 자체 작전을 선호했다고 돼 있다. 한국전쟁에 개입해 분주하게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다.

심리전전략위원회는 한국에서의 상황 전개과 관련해 4개의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 첫 번째는 작전명 '이륙' (Takeoff, 1951년 10월 '브로드브림' Broadbrim으로 개칭)으로 1951년 7월 17일 시작된 휴전협상 결렬에 대비해 마련됐다. 두 번째는 작전명 '험머' (Hummer, 1951년 10월 '어필리에이트' Affiliate로 개칭)로 휴전협상 성공 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조약을 맺기 위한 정치회담 기간 동안 적군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입안됐다. 세 번째 작전은 '금귤' (Kumquat)로 중국 공군이 방어 태세에서 공격 태세로 전략을 변경했을 때 중국 내 공군기지를 폭격하려는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소련과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기 위한 검토 단계의 계획이 있었다. 마지막 3가지 비상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륙' 작전에 주목해 보자.

휴전협상은 시작하자마자 좌초 조짐을 보였다. 실제로 1951년 8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회담이 중단됐다. 따라서 '이륙' 작전은 이러한 비상한 조건에서 즉흥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시작된 심리전전략위원회 설립 이후 첫 번째 주요 작전이었다. 8월~9월 초 사이 마련된 몇 가지 작전 초안을 검토한 뒤 위원회는 9월 18일 서둘러 '이륙' 작전을 승인했다. 그러나 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작전 계획서에는 핵심 내용이 모두 삭제돼 있어 전략 목표 및 협력 관계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세부 작전 내용은 (중국에 전단을 투하한다는 내용을 빼고는) 모두 지워졌다. 또한 육·해·공군과 CIA가 모두 비밀작전에 참가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24] 다만 심리전전략위원회가 그들이 주도한 작전에 대해 전략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25]

고든 그레이 위원장이 관련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내용을 파악하지 말라고 엄명한 '이룩' 작전은 매우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룩' 은 중국에 선전 전단을 뿌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 · 경제 · 군사작전을 지원했다. 위원회는 공개적인 심리 전쟁과 비밀작전을 동시에 명령했다. 한반도 내 북한 및 중국 공산당 군대는 물론 중국 본토의 중국인과 중국 군대에게 압력을 최대한 가할 수 있도록 '작전을 극한까지 밀고 가라' 는 명령을 하달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작전 투입 부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작전 명령서는 '게릴라전을 포함한 추가적인 비밀작전을 수행해 실질적 또는 심리적 효과를 달성할 것' 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26]

작전 명령서 첨부 문서는 작전 계획을 15개 항목 및 7개 별첨 사항으로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별첨 사항 'G' 는 계획이 관련 부처들의 '작전 실행 가능성' 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장관은 별첨 사항 'G' 가 '너무 많은 군사 ·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고, 따라서 너무 방대한 계획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며 불평했다. 그러므로 작전 명령을 해당 부대에 하달해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27]

1951년 10월 3일 열린 '이룩' 작전 조정회의에서는 참석 장군들 사이에 망설이고 확신이 없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존 매그루더 장군은 작전 계획을 합동참모본부로 이첩하는 걸 미뤘다고 고백했다. 비록 작전 계획 문서에 '승인된' 계획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지만, 펜타곤 대표들은 왜 계획 자체에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시가 없는지 알고 싶어했다. 왜 서류에 관련자의 서명란이 없는가? 왜 그 계획에는 심리전전략위원회의 공식 서류 양식에 매겨져 있는 페이지 표시가 없는가? 매그루더 장군은 상부로부터 재차 확인을 받은 다

음에야 회의 참석자들에게 '내일 작전 실행을 위해 문서를 이첩한다'고 밝혔다.[28] 당시 불편하고 꺼림칙한 상황이 연출된 건 분명했다.

4일 후 '구두 명령'에 따라 3명의 육군 대령이 도쿄 극동사령부 총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떠나 '극비' 여행에 올랐다.[29] 우리는 이 여행이 '이륙' 작전의 일부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우연찮게도 1953년 중국군에 비행기가 격추돼 체포된 미국 전쟁기획국 출신 앤드루 J. 에반스 2세 대령은 '한국에서 생물학전은 1951년 10월 착수됐다'고 중국측에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다른 고위 전쟁 포로 프랭크 H. 슈와블 해병 대령에 의해 확인됐다. 슈와블 대령은 합동참모본부가 1951년 10월 인편으로 리지웨이 장군에게 명령을 전달했으며, 내용은 '한국에서 세균전을 개시하되 초기에는 소규모 실험 수준으로 진행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30]

3명의 육군 대령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일본과 한국에서 2주를 보냈다. 그들은 육군 내 여러 계층의 장교, 사병과 면담했을 뿐 아니라 극동 공군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리지웨이 장군과 수석 참모를 빼고는 '아무도 그들의 임무를 알 수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했다.' 작전 명령 첨부 문서에서 밝혀졌듯 최소한 그들 임무 중에는 '극동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돕기 위해 원자폭탄 사용에 대비하는' 방안 수립이 포함됐다.[31] 이 책 초반부에서 살펴보았듯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 계획은 원자폭탄 사용을 검토할 땐 생물학무기 사용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극소수 인원에만 통보하는 비밀작전일 때는 공식적인 통로를 거치는 보고 체계를 생략했다. '이륙' 작전 같은 비밀작전에는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정이 적용됐다. 미국 정부는 정부가 입안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종류의 비밀작전에 있어서 소

수의 관계자 이외에게 작전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만일 작전이 외부에 노출된다면 미국 정부는 기만에 의해 관련을 부인할 것이다.[32]

대통령 산하 심리전전략위원회 문건에서는 미국 정부가 '특별한 무기' 사용을 일반적인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륙' 작전이 실행에 들어간 1951년 10월을 즈음해 괴이한 소문이 증폭되고 있을 때 '특별한 무기'가 생물 · 화학 · 방사능 무기임을 언급하는 '특별한 무기에 관한 성명'이 발표돼 일대 소동이 일었다.[33] '이륙' 작전과 겹쳐 진행된 '험머' 작전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험머' 작전은 비밀리에 열린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륙' 작전 개시를 결정한 다음날인 1951년 10월 4일 승인을 받았다. 휴전 이후 진행될 정치 협상 기간 동안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험머' 작전의 일부는 '한국에서 특별한 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은밀히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34]

러빗 국방장관을 필두로 군부에서 '이륙' 작전에 대해 명백하고도 불편한 감정을 잇달아 피력했지만 심리전전략위원회 고든 그레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확고한 후원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작전을 밀어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1951년 12월 12일 계획을 승인하면서 '실행 계획이 마련돼 이미 작전 주체의 수중에 전달돼 있다'고 밝혔다.[35]

대통령 직할 기관이 1951년 후반 직접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정규 군부 조직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CIA는 한국전쟁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남았다. CIA 총수 월터 베델 스미스 장군은 심리전전략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

9 한국전쟁에서의 CIA

비밀작전은……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미국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는 듯 보이고, 공개될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어떠한 책임도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안, 실행해야 한다.

미 국가안보회의 훈령, NSC 10/2, 1급기밀, 1948년 6월

비밀을 본령으로 삼는 정보 기관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해 완전한 증거를 남겨 놓지 않는다. 정보 요원들이란 원래 자신들의 은밀한 작전을 숨기기 위해 계산된 기만의 명수들이다. 하지만 '알 권리'를 표방하는 여론의 압력과 1975년 중앙정보국(CIA) 활동에 대한 미 상원의 조사로 CIA의 정책 안에 세균전 사용이 포함돼 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다. 실제로 그랬다.[1] CIA는 생물학무기로 분류된 고엽제를 베트남에서 사용했다. 또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쿠바와 자메이카 등지에서 농작물과 동물을 죽이는 물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2]

하지만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 동안 CIA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 수년간 CIA의 특수 작전들을 보고한 플레처 프라우티 대령은 CIA가 한국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단언한다.[3] 예상할 수 있듯 그는 작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하

지만 그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CIA가 극동사령부와의 특별하고도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한국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갔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비밀작전과 CIA의 지도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특수부대 역사가인 알프레드 패독 2세의 지적처럼 1947년과 1948년의 미 국가안보회의 훈령은 '의문의 여지 없이 냉전의 은밀한 측면에 걸린 미국의 이해가 크게 증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50년 초 CIA의 정책조정실(Office of Police Coordination: OPC)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비정규전의 책임이…… CIA로 넘어간 게 명백해졌다.' 이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하 저항운동 지원 및 위협 받는 자유세계 국가들의 토착 반공세력 지원 등 정치전(政治戰)
2. '흑색', '회색' 선전 등의 심리전
3. 경제전(經濟戰)
4. 탈출, 철수에 대해 최고 책임을 지는 소개(疏開) 작전
5. 게릴라전과 유격전
6. 태업과 태업 분쇄
7. 기타 비밀작전(첩보 · 방첩 · 군사 작전의 은폐 및 기만 등은 제외)[4]

CIA는 한국전쟁에서 극동사령부와의 협조 아래 복잡한 대규모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여기에는 마찰의 소지나 비효율적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합동참모본부와 CIA, (특히 맥아더 장군 해임 이후에) 극동사령부 모두 CIA의 이런 역할에 동의했다. 가장 신랄한 비판자는 육군 심리전부대의 유능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지휘관 로버트 매

클루어 준장과 그의 상관 프랭크 페이스 육군장관이었다. 페이스와 매클루어는 효율성 제고를 내세워 심리전의 선전 부문 조정 업무를 육군 통제 아래 두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은 비밀작전과 비재래식 작전 부문에서는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 합동부속기획국이 1951년 말 대통령 직속 심리전전략위원회의 지원 아래 이 부문의 적임자로 기존의 특수 조직(CIA를 뜻함: 옮긴이 주)을 강력하게 밀었기 때문이다. 패독은 비밀 전쟁에 관해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이 갑작스럽게 형성됨에 따라,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한 각 군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 자체 특수부대를 확보하기까지 현장에서 기존 전문가들(역시 CIA를 뜻함: 옮긴이 주)과 함께 활동해야 했다고 설명한다.[5]

합동부속기획국은 CIA 및 한국 내 비밀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극동사령부 사령관(Commander in Chief Far East: CINCFE)과 한국정찰활동합동사령부(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CCRAK)에 부여했다. CCRAK는 극동 사령관이 모든 전선의 배후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이다. 하지만 극동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는 (한국합동자문위원회〔JACK〕로 위장해 활동 중인) CIA 한국지부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독립 조직이 돼야 한다는 CIA 극동사령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편성에 따라 CIA 한국지부는 CIA 워싱턴 본부의 지령을 받는 CIA 극동사령부의 승인 없이는 극동 사령관 지원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CIA 내부자 플레처 프라우티가 지적하듯, 냉전 초기에 '더러운 술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커짐에 따라 권력이 확대되고 있던 CIA의 수장 월터 베델 스미스 장군은 비밀 전쟁의 총지휘권을 자신이 쥐고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이에 따라 CIA와 군부

의 핵심 인사 사이에 공감이 이뤄져 양측은 서로에게 할당된 임무에 상호 참여했다.[6]

양자 사이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감과 협력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견해차가 있지만 CIA가 한국전쟁에서 주요 군사력이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둘 사이의 협력에 대해) 회의론을 펴는 측인 존 싱글라웁 소장은 1952년 육군 소령으로서 CIA 한국지부 부지부장 재직 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CCRAK를 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쓸모없고 중복되는 '잡탕'으로 간주했다. 싱글라웁은 CIA의 독립적인 임무가 북한 내에 군사 정보원, 첩보원, 저항 요원들을 투입하는 일이었다고 기술했다. 그는 '소규모의 중무장한 고속 순찰정들'을 타고 해안 근처 섬들에 있는 비밀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공중 투하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공중 투하 때 CIA 비행기를 사용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7]

CIA 베테랑 요원인 프라우티는 마찰 속에서 CIA가 점차 활동폭을 넓혀 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한국전쟁이 CIA를 구했다고 믿는다. 한국전쟁은 CIA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전쟁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전시 상황 속에서 각 군의 자원까지 제공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국가안보회의(NSC)의 훈령은 CIA가 비밀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없도록 했고, 대통령조차 CIA의 그런 기능은 N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CIA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즉각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거대한 역량을 창출해 냈다.[8]

프라우티는 CIA가 '핵심 정보 그룹의 영원한 적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제거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9] 하지만 맥아더가 건재할 때에도 CIA는 반덴버그 장군과 같은 군 고위 인사를 비롯, 많은 촉망받는 장교들 사이에서 비밀 전쟁에 헌신적인 동조자들을 언제나 갖고 있었다고 프라우티는 밝혔다.

> 평상시 군대는 이런 유형의 작전에 더욱 능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CIA를 지원해 준…… 반덴버그 장군 같은 이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CIA와의 역할 분담을 수용했다. 이런 부대는…… 수많은 CIA 위장 요원들의 안식처가 됐다. 이들 CIA 요원은 유사 군부대에서 군대 요원으로 쉽게 일할 수 있었다.[10]

하지만 거래는 쌍무적이었다. CIA 요원들은 정규전 임무도 수행하면서 두 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축적했고 이들은 점점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프라우티에 따르면 육 · 해 · 공군 특수부대에 'CIA 요원들이 대거 침투했고, 전장에서 그들은 대부분 CIA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았다.[11] 하지만 프라우티는 이와 동시에 CIA 요원들이 정규군에 침투함에 따라 전 군의 비밀임무 수행 능력도 향상됐다고 기술했다.

> 이는…… 당초 계획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 많은 고위직을 포함해 (CIA의) 보직 상당수가 처음에는 현역 군인들에게 할당되었다.…… CIA 요원들은 군과의 합의에 따라 전쟁 계획 부서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육군 특수부대와 공군 ARC 비행전대와 같은 부대의 지원 아래 수백 명의 군인들이 CIA와 함께 비밀작전을 수행하리라곤 예상하

기 어려웠다. 또 수백 명의 CIA 요원들이 각 군으로 넘나들며 정규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리라곤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12]

CIA는 싱글라웁의 고속정 외에 다른 독자적인 수송 수단을 갖고 있었다. CIA가 한국 내 작전에서 사용한 주요 수송 수단 중 하나는 중국 국민당 깃발을 달고 대만 국적으로 운영된 항공사였다. 이 회사는 '민간항공수송사'(CAT)로 알려졌다. CAT는 2차대전 당시 중국 남부 공군기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며 명성을 얻은 미국 '플라잉 타이거스'의 지휘자 클레어 세노 장군이 운영했다. 종전 후 세노는 CAT라는 미국 민간 기업을 설립해 그의 거칠고 사나운 비행전대를 계속 거느렸다. 그의 C-46기 비행전대는 중국 공산당과 내전을 벌이던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를 지원했다. 장제스가 내전에서 패한 뒤 대만으로 쫓겨가자 세노와 그의 반공 동료들도 그곳으로 옮겼지만 일감이 없어 파산 직전에 있었다. 1949년에 CIA가 접근해 CAT의 매입을 제의했다. 1년 뒤 세노는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되어 타이베이에서 장제스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으며, 새 사장인 알프레드 T. 콕스는 이 '중국 국민당' 항공사를 한국전쟁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CIA의 동아시아 비밀공작 책임자이기도 했다.[13] CAT는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만약 뭔가 잘못돼 비행기가 중립적인 중국 영토에서 격추되더라도 미국 정부는 용병 조종사에 대한 책임이나 외국 항공사와의 연계를 전면 부인할 수 있었다.

맥아더는 처음 CIA 핵심 요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준군사 작전을 그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14] 하지만 긴박한 전쟁 상황과 항공 수송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CAT는 미 극동공

군군수사령부와의 계약 아래 도쿄 인근 다치카와(立川) 공군기지에 자리를 잡게 됐다.

전투수송사령부 역사가인 애니스 G. 톰슨 대위에 따르면 CAT의 C-46 더글러스 쌍발 비행기는 군용 비행대대처럼 움직였고 공군 수송부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며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C-46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한국 내 어떤 활주로에라도 모든 종류의 화물을' 운반했다. 공수된 무기는 '폭탄, 기관총 및 소형 화기용 탄환, 포탄, 네이팜탄, 탱크 등을 망라했다.'[15] CAT는 또 전투수송사령부를 위해 2~3일간에 걸쳐 한국 내 미군기지 수십 곳에 '다양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정을 소화해 내기도 했다. 톰슨 대위는 수송사령부 역사를 쓰면서 CAT의 CIA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보안상의 제약'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몇 개의 장(章)을 삭제한 것'[16]을 사과했다.

또 다른 역사가 윌리엄 M. 리어리는 같은 주제에 관해 기술하면서 CAT의 활동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상을 제시했다. 그는 CAT의 공수 활동이 극동공군수송사령부에 크게 기여했지만 CIA 정책조정실의 일본 및 한국 내 작전에 대한 CAT의 결정적 지원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언급했다.[17]

정책조정실(OPC)은 1948년 트루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창설된 CIA의 한 부서로 비밀 전쟁, 비재래식 전쟁, 심리전 등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이는 CIA가 심리전 조직과 만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다. 정보 당국 안에서 OPC는 '더러운 술책 부서'로 알려졌다. 앞 장에서 기술했듯 더러운 술책은 첩보원의 파견과 철수, 흑색 또는 회색 선전의 수행, 태업의 조직, '심리적 목적을 위한' 생물학

무기 등 '비재래식 무기의 사용' 등을 망라했다.[18]

정책조정실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급속히 성장했다. 1949년에는 4백70만 달러의 예산에 직원이 3백2명에 불과했지만 1952년엔 8천2백만 달러의 예산에 2천8백12명의 직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팽창했다. 윌리엄 E. 콜비 CIA 국장은 이 같은 성장을 설명하면서 '한국전쟁의 자극 속에 반공주의와 반(反)소련 정서 및 수사(修辭)가 맹렬히 불붙으며 비밀 준군사 활동과 정치 공작이 정보전 속에 편입됐다' 고 말했다.[19]

OPC의 작전은 처음부터 부인권(deniability)을 염두에 두고 입안됐다. 초대 실장에 따르면 이 부서가 나머지 국가 군사기구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비밀작전이 '공식적인 미국의 이해 관계와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돼야 하며, 만약 예기치 않게 그런 이해 관계가 드러날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그럴듯하게 이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20] 뒤에 청문회 심문에서 콜비는 '그럴듯한 부인' 의 의미가 '미국이 어떤 것을 부인하면서 명백하게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럴듯한 부인이란 우리 국가가 어떤 것을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밝혔다.[21] 생물학전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부인은 이런 범주의 행동 양식으로 쉽게 분류될 수 있다. 또 미 합동참모본부는 1952년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을 '생물학무기 은폐 및 기만 계획' 의 실행 결정에서 배제시킬지 여부를 논의하면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22]

한국전쟁에서 CIA의 은밀한 공수 활동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1950년 7월에 시작됐다. 당시의 정보 자원은 CIA 비행기 3대로 이들은 일본과 한국 사이를 오가며 'AD 작전' 으로 불린 모종의 임무

를 수행했다. 도쿄 인근 다치카와 공군기지에 기지를 두고 24시간 대기하던 비행기는 '민감한 인물들을 수송하고 또 다른 긴급 임무들을 수행했다.' 리어리에 따르면 '비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CAT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게 됐다.'[23]

1950~1951년 사이 일본과 한국 내 CIA-OPC의 비밀작전 책임자는 2차세계대전 때 폭넓은 준군사 활동 경험을 쌓은 한스 V. 토프테였다. 1930년대에 토프테는 만주의 덴마크 동아시아 회사에서 일하면서 휴가 기간 중에는 국경 지역에서 장기간의 대규모 사냥 여행을 다녔다. 리어리에 따르면 토프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쪽 전선에 중요한 국경 통과 지점이 있음을 알아채고 최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점에 그의 부대를 배치했다.'[24] 토프테는 일본 내에 6곳의 CIA 지부를 설립함으로써 OPC 활동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가장 큰 기지는 도쿄 남쪽 차량으로 1시간 거리인 요코하마(橫濱) 지역의 아쓰기(厚木) 미 해군 항공기지 내에 있었다. CIA는 이곳에서 사가미(相模) 만 앞 치가사키(茅ヶ崎) 공장촌과 아쓰기 사이의 사가미 강변 외딴 지역에 50에이커를 확보했다. 토프테는 북한에서 격추된 미군 조종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서 파괴 요원과 대원들을 훈련시켰다. 1950년 말경 일본에서 훈련시킨 대원은 1천 명을 상회했으며 1년 뒤 OPC는 1천2백 명의 게릴라를 북한 지역에 투입, 수송 트럭을 매복 공격하고 열차를 멈추게 하는 한편 만주와 시베리아 동부로부터의 보급품 수송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토프테에 따르면 이 같은 임무를 지원하면서 CAT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25]

CIA의 공중 지원은 CAT에 국한되지 않았다. 1952년 여름에 '581ARC 비행전대'가 한국전쟁에 투입되자 CIA는 이 비행전대도 끌

어들였다. 공군 심리전부대 산하 ARC 비행전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CIA의 특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26] 공군은 이 비행전대를 창설하면서 2차세계대전 때의 공군과 전략사무국(OSS, OSS는 CIA의 전신) 간의 연계를 부활시켰다. 이 비행전대의 지휘관과 승무원들은 '뜨내기' 라고 불리며 유럽 전역에서 OSS의 비밀임무를 수행했던 492 폭격대에서 선발됐다.[27] CIA와 공군 심리전부대가 수행한 임무의 은밀한 속성으로 미뤄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ARC 비행전대와 CIA의 합동 작전에 대한 지나가는 듯한 언급이 3건의 문헌에 나와 있어 주목을 끈다. 첫째는 공군부(Department of the Air Force)가 극동 공군 사령관에게 보낸 텔렉스 전문으로 새로 편성된 '581ARC 비행전대' 의 CIA 임무 지원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문에는 '친전(親展)' 이란 도장이 찍혀 있으며 1급기밀보다 보안 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되는 '옵틱(OPTIC)'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우리가 맞부닥친 유일한 '옵틱' 등급 전문이다.[28] 이 전문이 왜 이토록 높은 보안 등급으로 분류됐는지를 추정하는 일이 남아 있다. 공군이 이런 부대를 운용한다는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에 민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시 공군이 CIA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더 중요한 대목은 이 전문이 CIA 임무를 지원할 때의 ARC 비행전대에 대한 지휘 계통을 적시하고 있는 점이다. "합동참모본부의 정책에 따라 특정한 임무에 관한 작전지휘권을 합참을 대표해 미 공군 참모총장에게 맡길 것을 지시한다." 공군 내에서 CIA 작전을 지휘한 반덴버그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세균전을 비난하던 그때 비밀 세균전에서 미 공군 심리전부대의 역할이 공개됐다면 반덴버그와 ARC 비행전대, CIA 간의 조

직적 연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 같은 비난을 반박하던 미국의 일관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을 것이다.

CIA와 ARC 비행전대의 첫 번째 합동 작전은 1952년 9월 또는 10월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직전인 7월 말 이 비행전대는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극동 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이 워싱턴 D.C.의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와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전문은 그가 임박한 임무를 '제한된 범위의 전투 조건하에서 ARC 비행전대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로 여겼음을 보여 준다.[29] 1952년 10월로 돼 있는(정확한 날짜는 암호로 돼 있다), 클라크 장군이 극동 공군 사령관에게 보낸 부속 문서는 CIA가 ARC 비행전대와 작전을 수행할 때의 협의 또는 지휘 계통의 전모를 보여 준다. 클라크는 극동 사령관, 극동 공군 사령관, 극동사령부 중앙심리전부(Chief Psychological Warfare Section), 극동사령부 G-2(정보부), CIA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구축했다. 이는 ARC 비행전대의 본부가 극동사령부 관할 지역 밖인 필리핀에 있었고 CIA 한국지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적어도 지휘 계통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사본에 쓰여 있는 문구는 이 지휘 계통이 일상적인 작전보다 훨씬 특정한 용도로 사용됐음을 보여 준다. 거기에 쓰여 있는 '비상 전쟁 계획'이란 표현은 클라크가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에서 ARC 비행전대가 수행할 역할과 관련해 필요한 지휘 계통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극동사령부의 비상 전쟁 계획에 포함돼 있는 미 공군의 어떠한 세균전 작전 계획도, 은밀한 사용을 포함해, 미 공군 심리전부대의 책임이었으며 581ARC 비행전대는 그 부대의 유일한 작전 수행 팀이었던 점을 다시 주목해야 한

다.[30] (우리와) 거의 동시에 교도(共同)통신의 일본인 기자 오타 마사도 세균전 프로그램에 관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밀 해제된 기록에서 이 문서를 찾아냈다.

ARC 비행전대는 또 CIA의 필요에 적합한 H-19 헬기부대인 2157비행구조대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정찰활동합동사령부(CCRAK)를 통한 6개월간의 작전에서 이 구조대는 1천1백 시간 이상의 전투 시간을 기록했고 3백 차례 이상의 정보 작전과 구출 작전을 수행했다. 이 구조대는 밤에만 임무를 수행했으며 한반도 해안에서 10마일, 북한 전선 뒤쪽으로 60마일 떨어진 초도에서 주로 발진했다. 중국에서 16마일 떨어진, 즉 단둥(丹東)에서 10분 비행거리에 있는 지점에서 임무를 수행[31]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구조대는 북한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공군 특수부대는 CIA의 공중 지원 작전에서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됐다. 프라우티가 지적하듯, CIA 요원들이 침투해 있던 특수부대는 자주 이들의 작전 지휘를 받았다. 마이클 하스의 공군 특수부대 역사에는 특수 임무 계획을 세우고 있는 CCRAK 팀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사진에는 미 공군 및 육군 특수부대, 해군 잠수부대, 영국 해병대, 남한 비정규군, CIA에서 각각 파견된 요원들이 나와 있다.[32]

공군 특공대(Air Commandos)로도 알려져 있는 공군 특수부대가 비밀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CIA의 지시로 파견된 심리전부대들과 긴밀히 활동했다. 공식 전사(戰史)는 공군 특공대와 '581ARC 비행전대' 간에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기밀 해제된 공군 비정규 부대의 내부 역사는 ARC 비행전대의 H-19 헬기들과 다른 비행기들 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33] 공군 특공대의 또

다른 지휘 기관은 CIA가 일정 정도 관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극동사령부 기술 정보 팀이었다. 기술 정보 팀은 의무 정보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생물학전 작전 계획들을 모니터하는 임무를 맡아야 했을 것이다.[34] 한국 내 공군 특공대에 관한 기록 대부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여 및 임무의 전체 모습은 자체 기록으로부터 알 길이 없으며 CCRAK의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다.[35] 우리는 미 공군의 '『한국에서의 게릴라전과 공군력, 1950~1953』(Guer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1953)' 이란 책에서 공군 특공대를 비롯한 비정규군의 활발한 작전과 대강의 조직 구조를 일별할 수 있다. 이들의 잦은 작전 목표물 중 하나는 미군 요원들이 질병에 감염된 곤충을 살포했다고 중국 측이 의심한 철도 시설이었다.

공군 특공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주로 함께 작전했던 부대는 공군 수송사령부 315사단 산하 21병력수송대대였다. 이 부대는 일본 내 어떤 활주로에서도 눈에 띄는 초기의 유랑 생활 작전 때문에 '규슈(九州) 집시' 로 알려지게 됐다.[36] 1950년 9월 이후 이 부대는 서울 김포공항에서 활동했다. '규슈 집시' 들은 수송사령부의 다른 비행대대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비행했으며, 공군 역사가들에 따르면 '한국 내 공중 수송부대들 중 거인처럼' 우뚝 섰다.[37] "집시들에겐 비행이 최고였으며…… 미 공군에서 그런 종류로는 유일한 부대였다. 그들의 지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독특하다."[38]

'규슈 집시' 내엔 2분견대(Detachment 2)로만 알려진 비밀스런 특수 비행 임무(SAM) 부대가 있었다. 『공군특공대』(Air Commando)의 저자 마이클 하스 대령은 헨리 애더홀트 대위가 지휘한 2분견대는 6~8대의 C-47기로 구성됐으며 극동사령부 연락 9분견대로 위장한 채

CCRAK를 통해 활동했다고 기술했다.[39] 이 부대는 깊숙이 가려져 있었으며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 1951년 가을 애더홀트의 2분견대는 전선 근처에 기지를 둔 제5공군 산하에서 '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수송사령부 역사가인 애니스 G. 톰슨 대위에 따르면 용감무쌍한 SAM 분견대는 선전물과 확성기를 이용한 선전 임무 대신 '특수 기밀 공수 임무'를 수행했다.[40] 이 임무에는 적 후방 정찰과 '토끼'라고 불린 첩보원 투하가 포함됐다.[41] 생물학전 활동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1952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일부 '극비' 작전 기록은 일반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42] 하스는 공군 특공대가 서울의 전진 배치 사령부에 있는 제5공군 경폭격기 작전 데스크로부터 특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약 비밀임무였다면 CIA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다.[43]

기밀 해제된 '『한국에서의 게릴라전과 공군력, 1950~1953』'은 2분견대가 6004공군 정보대대에 속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 부대에 관해 길게 서술하고 있다. 이 부대는 '규슈 집시 내 2분견대'와 같은 부대일지 모른다. 만약 아니라면 이 부대는 '규슈 집시 내 2분견대'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비행기와 고속정으로 비정규군을 운영·지원·유지하는 하부 분견대들 중 어떻게 2분견대가 1952년까지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스의 연구를 뛰어넘는다. ARC 비행전대는 H-19 헬기들로 이 부대를 지원했고 1953년 봄에는 SA-16 비행기 2대를 추가 운영하게 되면서 2분견대는 더 멀리 떨어진 전선 부대에까지 닿을 수 있게 됐다.[44]

CIA가 1952년 봄에 수행한 '열대(TROPIC) 작전'은 중국 내 작전의 극적인 사례다. 중국이 CIA 요원 2명을 생포, 재판하고 윌리엄 리

어리가 참가자들을 면담함으로써 이 작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지게 됐으며, 적의 후방에 요원을 침투시키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미국이 들인 노력에 대해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45]

중국 본토를 겨냥한 미국의 비밀 전쟁의 일환인 '열대 작전'은 장제스와는 무관하고, 대신 미국 정보 당국과 직접 연계된 새로운 요원들을 중국에 침투시키기 위한 '제3병력' 계획이었다. 요원들은 낙하산, 소총 및 폭발물 사용법, 라디오 조작 등의 기초 기술을 익힌 뒤 소규모 팀으로 나눠져 안전기지를 구축하는 법과 폭격 지점 표기법, 연락선 구축법 등을 교육받았다. 그들은 중국 본토로 투입된 뒤 '지역 반군을 끌어 모으고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한편 격추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려 했다.[46]

이들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51년부터 1953년 사이 무기, 라디오, 암호 코드, 보이지 않는 잉크, 위조 통행증, 금괴 등을 소지한 2백12명의 중국 출신자들이 본토에 낙하산 투입됐다고 밝힘에 따라 확인됐다. 이들 중 1백1명은 사살되고 1백11명은 사로잡혔다.[47]

'열대 작전'의 초점은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성과 지린성이었다. 압록강을 경계로 한국과 맞닿아 있는 이 지역에는 중국 최대의 산업기지가 들어서 있었다. 이 지역은 바로 중국측이 미군 비행기의 침범에 자주 항의했고, 또한 중국측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대부분의 세균전 공격이 발생했던 곳이다. 미국 정보 당국이 중국의 전쟁 활동과 세균무기의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지역이었다.

야간에 지상에서 발견하기 어렵도록 동체에 갈색 올리브 빛깔을 칠하고 엔진 화염 억제장치를 장착한 3대의 CAT 비행기가 '열대 작전'을 수행했다. 승무원들은 일본 아쓰기의 CIA 지부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48] 그들은 정기적으로 부산이나 서울로 비행했으며 공중 투하를 쉽게 하기 위해 짐칸 문을 없앴다. 황혼 무렵 그 비행기는 미 공군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일본해 상공 동쪽으로 향한 뒤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중국군에게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발각되지 않도록 중국의 큰 도시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승무원들은 낙하 지점에 도착했고 고도를 낮췄다. 항법사의 신호에 따라 비행기 내 CIA 요원들은 화물이나 사람들을 문 밖으로 밀었다. 승무원들은 곧바로 아쓰기로 귀환해 임무 보고를 했다.

'열대 작전'의 지휘관은 코네티컷 주 판사의 아들인 존 T. 다우니로 그는 1951년 예일대 4학년 때 적진 후방에 낙하산을 타고 투입돼 저항 전선을 구축한다는 CIA 모집관의 말에 매료돼 CIA에 들어왔다. 그는 홍콩이나 대만에서 지린성 출신 중국인들을 면접, 채용해 4명씩으로 두 팀을 구성해 훈련시킨 뒤 그들의 고향으로 침투시켰다. 몇 달 뒤 그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한 명을 떨어뜨렸다.

사람들을 목표 지점까지 데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데리고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전직 정보 장교의 묘사에 따르면 CIA-OPC 팀은 이런 일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고안했다.

> 장대 2개를 땅 위에 세운 뒤 둘 사이에 줄을 걸친다. 그 줄에다 데려갈 사람의 멜빵을 묶은 줄을 연결한다. 거의 엔진 정지 속도(시속 약 60마일)에 근접하도록 비행 속도를 낮추며 접근한 비행기는 그 줄을 낚아채 사람을 당긴 뒤 비행 속도를 높인다. 그런 뒤 줄을 감아 비행기 안으로 사람을 끌어올린다. 목숨을 잃거나, 충격을 받거나, 또는 크게 부상당할

수 있는 데도 멜빵을 한 채 태연히 앉아 있기로 한 그 대담무쌍한 사람들의 용기는 놀랄 만한 것이었다.[49]

이 방법을 충분히 훈련한 뒤 첫 번째 실전 시도가 1952년 11월 29일에 있었지만 참사로 끝났다.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 낙하산으로 투입된 요원이 빠져 나올 준비가 됐다고 무전을 보내 왔다. 다우니와 또 다른 정보 장교 리처드 펙토, 비행기 승무원 로버트 스노디, 노먼 슈워츠 등은 서울을 떠나 3시간 만에 랑데부 지점에 도착했다. '그들이 줄에 접근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다' 고 윌리엄 리어리는 썼다. "1분 뒤 공산군의 총격을 받고 스노디와 슈워츠가 죽고 비행기는 격추됐다. 다우니와 펙토는 추락에서 살아남아 포로로 잡혔다."[50]

'제3병력' 팀이 방첩 경찰에 뚫렸던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2년간 침묵을 지킨 뒤 베이징 라디오는 미국인 13명이 간첩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방송했다. 다우니와 펙토가 여기에 포함됐으며 무기징역과 20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 다 군대의 민간인 고용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간첩혐의를 부인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그들은 서울과 일본 사이를 '정기' 비행하던 중이었으며 간첩 판결은 '국제 관계에서 그 체제(공산 중국을 말함: 옮긴이 주)의 행동 특징이랄 수 있는 불성실, 위선, 부도덕성' 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간첩 혐의는 유엔사령부를 상대로 이전에 만들어 낸 수많은 허위 주장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고 미 국방부는 덧붙였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혐오스런 중국인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은 능히 포로를 세뇌시켜 허위 자

백을 받아 낼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51]

CIA 북아시아사령부는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다우니와 펙토가 중국군에게 모든 것을 다 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하워드 헌트는 1955년에 북아시아사령부에 재직했으며 그는 '몇 년 뒤 그들이 풀려났을 때 그 추정은 사실로 확인됐다' 고 기록했다.[52]

CIA 정책조정실 활동의 또 다른 측면은 심리전이란 이름으로 수행됐다. 국가안보회의는 1947년과 1948년에 비밀 심리전을 CIA가 책임지도록 하는 훈령을 하달했다. CIA는 다소 아이러니컬하게도 적의 주장을 반박하는 선전 활동과 미국이 수행한 비밀공작의 흔적을 미국인 및 해외 동맹국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데 그 시간과 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비했다. CIA는 생물학전과 같이 수상쩍거나 불법적인 활동들을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CIA는 선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언론사에 침투했고 라디오 방송국을 세웠으며,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한편 학생 조직에 자금을 대고 학술지를 후원하고 출판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모든 일은 일련의 위장 기업, 가짜 문화재단, 재정지원 계약 등을 통해 수행됐으며 그 비용은 1953년에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했다.[53] 이를테면 프리거(Praeger) 출판사 대표는 1950년대 초반에 CIA의 제안으로 '공산권 국가들' 에 관한 '15~16권' 의 책(나중에 그는 '20~25권' 으로 늘렸다)을 출판했음을 시인했다. 프레더릭 프리거는 기자가 그 책 출판 자금을 CIA가 전액 혹은 일부를 댔는지를 묻자 '말할 수 없다' 고 답했다.[54]

프리거가 출판한 책에 CIA가 자금을 댔다는 증거는 없지만, 의도

적이었든 아니었든 CIA의 목적을 도와 준 주목할 만한 연구는 존 클루스의 『공산주의자의 새 무기: 세균전』(The Communists' New Weapon: Germ Warfare)이란 책이다. 1953년 링컨-프래거(Prager)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책의 서문은 영국 과학진흥협회장이었던 A. V. 힐이 썼다.[55] 이 책의 증보판 서문은 옥스퍼드의 세인트 앤터니 대학 G. F. 허드슨 교수가 썼으며 나중에 프리거 뉴욕 출판사에서 인쇄했다. 클루스의 이 책은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학문적 권위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다. 이 책은 신뢰성 있는 역사적 문헌을 표방하며 서방 독자들에게 '흑색', '회색' 선전을 쏟아 붓는 완벽한 매체 역할을 했다.

존경할 만한 신임장(유명 학자들의 서문을 말함: 옮긴이 주)이 붙은 책이 일단 공적 영역에 출현하게 되면 그 책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 미국이 생물학전을 벌였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루기보다 우스꽝스런 난센스로 취급한 클루스의 책은 한국전쟁 때의 미 육군 공식 역사가인 월터 G. 허미스에 의해 긍정적으로 인용됐다. 허미스는 그 책을 중국측의 세균전 주장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라고 부른다.[56]

야심만만한 젊은 학생 존 클루스는 1950~1951년 사이 영국의 전국학생연맹 국제담당 부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와 투쟁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인 국제학생회의에 참가했다. 그는 동유럽, 소련, 중국 등지를 여행했다. 아마도 그는 몰랐겠지만 국제학생회의는 CIA가 주도하고 자금의 대부분을 댔다. CIA는 이미 성공적으로 침투한 미국 전국학생연합의 국제담당 부서를 통해 이 조직에서 활동했다.[57] 클루스는 CIA의 존재를 몰랐을지 모르지만 CIA 요원들은 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잠재적 필자로서의 그의 능력과 정치적 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필요한 모든 연계가 구비돼 있었다.

클루스가 출판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밀어 준 그의 옥스퍼드 스승 허드슨 교수는 당시 CIA가 자금을 대던 영국 학술 잡지의 편집 고문이었다.[58] 허드슨은 중국의 세균전 주장 — '세균무기를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시도도 없이' 처음엔 일본군을 겨냥했다가 나중에는 지독한 잔혹 행위라는 주장과 함께 미국인을 겨냥한 — 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된 것' 이라고 썼다. 허드슨 교수는 클루스가 중국의 그와 같은 비난이 '정치적 분석을 결코 견디어 낼 수 없음' 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59]

월터 허미스는 클루스나 허드슨과 달리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사(戰史)를 쓰면서 스스로 간과했든지 혹은 그의 상관들이 지금은 기밀 해제된 관련 문서들을 못 보게 했든지, 2차세계대전 때 중국인 목표물을 겨냥해 일본군이 개발한 세균전 기술을 미국이 실제로 획득했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실제로 강력한 세균전 공격 능력을 창출했고, 반덴버그 미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제5공군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특정 공격 역량이…… 급속히 구체화하고 있다' 면서 생물학전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1952년 2월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사실을 허미스는 언급하지 않았다.[60]

허미스 또는 그의 검열관은 버티는 대신 그 문제를 얼버무리는 쪽을 택했다. 이제는 '일반' 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증거들을 보면 공식 전사(戰史)가 은폐의 역할을 맡았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공식 역사가에게 종종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생물학전에 대한 국무장관의 노기 띤 부인을 인용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허미스는 학생 기자 존 클루스가 쓴 32쪽짜리 공식 선전물 소책자를 독자에게 언급하고 있다.

당시 민간인 동요, 태업 관여, 첩보원 구출 등을 목적으로 CIA가 북한과 중국에서 수행한, 과감했지만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던 비밀 작전들에 관한 특공대 심리전 관련 기록은 많다. 하지만 생물학전에서 CIA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닉슨 대통령에게 치욕을 안겨 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CIA의 활동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열림에 따라 비밀의 베일이 일부 걷혔다. 워싱턴 청문회에서 CIA가 결핵, 탄저병, 뇌염, 지구대 열병, 살모넬라, 보툴리누스 중독, 천연두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비축했음이 드러났다.[61] 또 윌리엄 E. 콜비 CIA 국장은 청문회에서 CIA가 1952년 이후의 생물학전 활동 기록을 갖고 있었으나 1972~1973년 사이에 일부 기록들이 파기돼 지금은 '그 기록이 매우 불완전하다' 고 말했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CIA가 그 서류의 목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파기됐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고 애매하게 말했다.[62]

일부 기록은 찢어졌고 또 다른 기록들은 예기치 않게 분실되거나 파기되기도 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공개될 것 같지 않은 기록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CIA가 한국전 기간 동안 생물학무기를 은밀히 사용하는 작전 계획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이 계획을 수행하면서 광범위한 비밀 구조에 접근했다는 문서상의 정황 증거 흔적은 남아 있다.

10 점령지 일본에서의 매개 곤충: 406부대

페스트 · 콜레라 · 탄저병 · 파상열 · 야토병 등의 감염 물질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운반해야 한다.

406의무부대 복무 규정, 도쿄, 1947년 연례 보고서

사람을 무는 습성을 갖고 있는 데다 매개 곤충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디등에에 연구의 강조점이 두어졌다.

406의무부대 곤충 분과, 도쿄, 1953년 연례 보고서

작은 포유류와 새의 체외 기생충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연구는 한국전쟁을 통해 완성됐다.

위 보고서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연구 결과는 다른 경로로 보고했다.

406의무부대 일반 실험실, 도쿄, 1951년 8월 월례 보고서

한국전쟁 개전과 함께 생물학전 연구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극동의 무사령부 산하 406의무부대가 매개 곤충 연구의 보고가 됐다.

406부대는 1946년 요코하마에 있는 아쓰기 해군 항공기지 근처 창고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나중에 도쿄 중심가 미쓰비시 히가시 빌딩에다 본부를 개설했으며 교토에 지부를 열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406부대는 전투 지역에 실험 인력을 공급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개입했다.[1] 부대의 당초 임무는 진료, 혈액은행, 접종 등 통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일본과 한국 주둔 미군 병사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부차적 임무는 맥아더 장군의 점령군을 도와 민간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공중보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406부대는 의무감실 산하 예방의학 부문 책임자인 제임스 S. 사이먼스 준장의 지휘를 받았다. 사이먼스 준장은 이미 10년쯤 전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배후 추진 세력이었으며, 또한 육군 의무부대가 공격적인 세균전 연구에 참가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든 핵심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406부대 초대 지휘관이자 B형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곤충에 관한 연구의 권위자인 W. D. 타이거트 중령(의학 박사)이 1946년 일본에서 본국으로 전보된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타이거트 중령은 미국으로 귀환해 5년 동안 디트릭 기지 의무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것을 포함해 일련의 고위 연구직을 역임했다.[2] 그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가 406부대로부터 정기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3]

406부대 연례 보고서는 창고에서 출발한 이 부대가 전염병, 세균, 곤충, 바이러스성 질병 및 발진티푸스 등을 망라한 완전한 규모의 실험 기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1949년 무렵과 한국전쟁 기간 내내 406부대는 생물학무기 시험 및 제조를 위해 매달 흰쥐 2만 마리를 비롯해 기니피그, 개구리 등 엄청난 양의 소형 동물을 요청했다. 실험용 소형 동물 중 상당 부분을 이시이 장군의 옛 동료들로부터 공급받았다.[4] 406부대가 미국 본토뿐 아니라 극동의 일본에서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작업을 진행했음은 '특별 조항'이라 불린 복무 규정

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복무 규정은 '전염성이 강한 페스트 · 콜레라 · 탄저병 · 파상열 · 야토병 등의 세균성 물질을 운반할 때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숙지한 자로 한정한다' 고 되어 있었다.[5] 406부대는 상당한 업무를 일본 국립보건원에 위임했다. 그곳에서는 일본군 세균전 전문가인 와카마쓰 유지로(松佑次朗) 전 중장이 연구 과학자로 재직했으며, 세균전에 참여한 다른 과학자들도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2차세계대전 기간 중국에서 생물학전 실험을 실시한 일본군 100부대 사령관을 지낸 와카마쓰 전 중장은 일본 세균전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시이와 키타노의 뒤를 잇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6]

전쟁이 끝난 뒤 일본 세균전부대의 지휘관들은 의과대학, 제약회사, 나중에 녹십자사로 이름이 바뀐 일본 혈액은행 등 공공 및 민간 보건 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했다.[7] 이들은 일본,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일본 점령지 내 군대, 대학, 공공 의료 기관에서 이시이를 위해 일한 수많은 얼굴 없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8] 미군은 긴급 상황에서 이전의 '이시이 과학자들' 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들 '이시이 인프라' 는 생물학 물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부르기만 하면 미국이 이러한 물질을 생물학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만한 잠재력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다.

1951년 406부대 지휘관인 리처드 P. 메이슨 대령(군의관)은 모든 소속 부대원에게 12시간짜리 화학 · 세균 · 방사능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더해 연구 부서 인력은 추가로 매주 4시간씩 훈련을 더 받았다. 이수 과목에는 생물학전, 모기 채취법,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 모기와 말 뇌척수염, 모기와 B형 일본뇌염, 벼룩 식별법, 벼룩과

페스트, 벼룩과 티푸스, 진드기 생물학, 진드기와 바이러스성 질병 등이 포함됐다.[9]

406부대는 광범위한 실험을 일본, 한국, 오키나와 등지에서 실시했으며, 심지어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베이징에서도 실험을 진행했다.[10]

406부대의 가장 큰 과제는 곤충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특별히 매개충으로서 모기 연구에 집중했다. 1946년 부대 창설 이후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연구 과제는 모기에 의한 B형 일본뇌염의 확산이었으며, 특히 겨울나기에 성공한 모기에 주목했다.[11] 매개 곤충에 관한 연구는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과학자들이 이룩한 이전의 성과에 의존했으며, 1951년 여름 406부대 곤충 분과 아래 생태학 팀이 설립되면서 연구가 한층 더 강화됐다.[12] 뇌염은 또한 바이러스성 질병 분과의 주요 연구 과제였다.[13]

한국전쟁 전에는 주요 프로젝트로 벼룩과 파리 연구, 말라리아·뎅기열·필라리아병·말뇌염의 매개충인 진드기 연구가 포함됐다. 도쿄에서는 쥐 연구가 진행됐고 디프테리아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엔 일본과 한국의 벼룩, 진드기가 406부대 교토 지부 내 '특수 그룹'의 주제였다.[14] 그해엔 B형 일본뇌염의 매개체로서 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조사가 있었다. 설치류도 주요 대상이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북한 인민군 포로가 관련된 살모넬라와 주한미군 사이에 발병한 수두가 관심사였다. 이처럼 매개충 연구는 모기, 진드기에서 시작해 벼룩, 모래벼룩, 이, 파리, 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1952년 406부대는 '이 분야의 지도적인 일본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특별한 연구에 착수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디등에의 지리적 분포, 생태, 번식과 무는 습관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 강조점이 주어지게 된 이유는 진디등에가 사람을 무는 곤충이며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으로서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많은 연구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15] 또한 페스트와 쥐티푸스 매개충으로서 벼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다. 이 연구는 뒤에 디트릭 기지의 시오도 로즈버리와 캐나다의 G. B. 리드 박사의 프로그램으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다. 벼룩을 통한 페스트 전염은 이시이에게도 우선 순위 연구 과제였다. 디트릭 기지의 미국 과학자들은 앞선 이시이의 실험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406부대는 바이러스성 질병과 관련해 진드기 연구도 수행했다.

1947~1953년 동안 연구 대상이 된 다른 질병은 탄저병, 파상열, 야토병,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주혈흡충병 등이다. 콜레라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추진돼 1953년 성공적인 백신을 개발했다.[16]

406부대 못지않게 '8003극동의학연구실험부대'(Far East Medical Research Laboratory)에도 주목해야 한다. 8003부대는 우연찮게도 미 공군이 생물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1952년 봄 도쿄에서 창설됐다. 8003부대는 역사학자들에게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편제는 406부대와 비슷해 세균, 전염병, 곤충, 바이러스성 질병 분과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연구 개발 팀을 보유했으며 406부대와 실험 설비를 같이 썼다. 8003부대를 둘러싼 모호함은 우선 극동의 무사령부 기록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데, 언제 이 부대가 창설됐고 누가 추진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창설 날짜에 대해서는 1952년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다양한 기록이 나타난다. 어쨌든 8003부대는 1952년

3월 10일 미국의 일본 병참사령부 명령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B형 일본뇌염의 매개충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406부대의 곤충 분과 생태학 팀을 보완한다는 내용의 설립 계획은 훨씬 전에 수립됐다. 적시된 임무는 '적법한 지휘 계통에 의해 지휘나 승인받은 작전을 수행한다'는 너무나 일반적인 문구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406부대와 임무가 중복된 별도 기구를 만든 이유는 접근 가능한 기록에서는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는다.[17]

분명한 것은 406부대와 함께 8003부대도 군 · 공공 부문 · 민간 부문의 각종 보건 기관으로부터 많은 과학자들을 흡수했다는 사실이다. 그해가 끝날 무렵엔 눈에 띌 정도의 지식인 대이동이 일어났다.[18]

406부대와 8003부대가 실제로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관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추측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비록 연결 고리에 관한 실체 파악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디트릭 기지와 406 · 8003 부대간에 형성된 커넥션을 통해 일본에서 수집된 자료가 미 메릴랜드 주 디트릭 기지의 세균무기 연구 팀에 전달되었으리란 점을 들 수 있다. 캐나다 소식통은 또한 캐나다와 미국이 일본에서 백신에 관한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하고 있다.[19]

그동안 가장 큰 주목을 끌어 왔던 소문은 이시이의 세균전부대 과학자들이 406부대의 비호 아래 미군 프로그램에 은밀히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혹은 일본에서 유명 작가 모리무라 세이치의 「악마의 폭식」이란 3부작 대중 연극을 통해 극화되기도 했다. 모리무라는 미군 극동사령부 산하 G-2 정보부대가 J2C-406이란 작전명 아래 이시이 과학자들을 미국의 비밀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가담시켰으

며, 이들은 도쿄 중심부 미쓰비시 빌딩에서 406부대 설비를 함께 사용했다고 묘사한다. 우리뿐 아니라 츠네이시 케이치, 셸던 해리스, 피터 윌리엄스, 데이비드 월래스 등 많은 이시이 연구자들이 이 같은 커넥션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정황 증거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을 때까지 조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시이의 부하들이 어떻게 미국 생물학전 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모리무라의 픽션은 이시이 그룹 내에 비밀리에 잠입해 활동 중인 일본 공산당 활동가가 있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미군 정보 기관 기록에 따르면 미국이 이시이 장군이 만주에서 추진한 세균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파악한 경로는 1945년 일본 공산당이 미군 당국에 전달한 메모를 통해서였다.[20] 미국의 저술가 셸던 해리스는 전달된 정보가 "전체로서 매우 믿을 만한 수준이어서 만약 이 정보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때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여한 '제 발 저린 사람들' 뿐 일 것"이라고 말한다.[21] 이시이가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킨 게 명백해지면서 이시이 그룹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룹 내에 잔류키로 했으리란 상황은 충분히 그려봄직하다. 우리는 현재의 일본 공산당 지도부와 접촉해 이러한 가정을 입증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당시 활동가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과는 모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부대 자체 기록에 의하면 406부대는 1951년 일본인 1백7명을 포함해 3백9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22] 이들의 업무 범위는 고급 과학자로부터 실험실 기술자, 보조원, 운전사, 실험동물 관리인, 통역,

기계공, 안내 및 관리인까지 망라됐다. 1년 사이에 전체 일본인 직원의 절반 가량이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교체되는, 상대적으로 급속한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었다. 일본인 직원 대부분이 영어를 상당한 수준까지 이해했으나 406부대 지휘 장교는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명령 불이행의 주된 이유였다' 고 불평했다.[23] 이것은 한국전쟁에 반대하는 일본 공산당이 406부대 내에 조직원을 심어 놓기에 매우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미국의 세균전기지가 도쿄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는 제목으로 1952년 일본 평화협의회가 작성한 한 팸플릿은 '페스트, 콜레라, 성홍열, 이질, 뇌수막염 등 전염병 세균에 감염돼 매개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곤충들이 잘 포장돼 미국 디트릭 기지로부터 실험을 위해 지시와 함께 정기적으로 거기에 수송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 파견대인 406부대는 즉시 세균의 대량 배양에 돌입한다는 것이다.[24]

공산당원으로 맥아더 사령부에서 일하다 1947년 좌익 대숙청 때 쫓겨난 타구치 신키치는 좌익 침투로 간주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맥아더 사령부에서 쫓겨난 뒤 그는 사이타마(埼玉) 현에서 살았는데, 사이타마는 406부대가 쓰는 실험용 동물 대부분을 공급하는 지역이었다. 타구치는 기니피그 생산에 뛰어들었으며 생산자 조직에도 가입했다. 또한 그곳에서 병원도 설립했는데, 그곳 원장은 이시이의 731부대 출신이었다.[25] 모리무라의 소설은 사이타마의 일본 실험동물연구소가 406부대의 세균전 활동을 은폐하는 한편 406부대에 세균무기를 검증하고 배양하기 위한 설치류를 비밀리에 공급했다고 적고 있다.

일본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한국에서 출혈열이 대거 발병했을 때 406부대와 8003부대 소속 미군 의사들을 도왔다. 매

우 이례적인 최초 발병은 1951년 4월이었으며, 1년 뒤인 1952년 5~6월에 다시 미군들 사이에 크게 번졌다. 병은 38도선 북쪽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주요 전선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그 지역은 1950년 미군이 북진하면서 통과한 적이 있으며, 1951년 봄엔 전투가 거듭된 전장이었고, 1952년 발병 당시에는 미군 점령지였다. 미 군의관들은 전염병 치료에는 실질적인 성공을 거뒀으나 병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매개체와 병원체를 분리해 내는 데는 실패했다.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가장 유력한 감염 경로로 추정됐으나 몇몇 동물 실험 결과 연관성을 확증하는 데 실패했다.

406부대 보고서에 따르면 더욱 의미심장하게도 406부대 과학자들은 미군들 사이에 감염이 대대적으로 확산된 1952년 봄 이전인 1951년에 출혈열을 대상으로 이미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체를 조사하는 초기 단계에 경험이 많은 일본인 인력의 비중을 배가했으며, 그 중에는 카사하라 시로가 포함됐다. 카사하라는 이시이의 731부대 구성원으로 미군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연구 결과 중에는 자원자에게 접종을 받게 해서 출혈열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다.[26]

1951년에 발병하기 시작한 출혈열에 관해 이처럼 일찍 연구를 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406부대 소속으로 예방의학 전공인 존 크레이그 대위와 또 다른 전염병 전문가는 '한국에서 그 질병과 조우하게 될 가능성'을 일찍부터 알게 됐다.[27]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출혈열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28] 세계에서 출혈열이 확인된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만주의 작은 지역으로 1945년까지 15년 동안 일본이 지배했던 지역이다. 이것은 이주민 혹은 적군이 출혈열을 남쪽으로 가져왔을 가능

성을 제기했다.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 전염병 전문가들이 모든 가능성을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크레이그는 나중에 드러나듯 조심을 거듭했다. 크레이그 대위는 1951년 8월 406부대 월례 보고서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 이곳의 질병은 렙토스피라병으로 사료되나 일본인들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묘사한 병과도 닮았다' 고 적었다. 이러한 기술 앞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연구 결과는 다른 경로로 보고했다' 는 문구가 있다.[29] '다른 경로' 는 만일 아직 존재한다 해도 여지껏 역사학자들에게 접근이 금지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렙토스피라병과 출혈열 사이의 이러한 연계가 이시이 과학자들이 1951년 406부대의 세균 연구에 깊숙이 개입한 결과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여기서 개입은 부대 내에서의 공동 작업뿐 아니라 부대 외부에서 이뤄지는 협력 작업까지를 뜻한다. 또 다른 의문은 미군 생물학전 연구자들이 출혈열에 관한 일본인들의 기존 연구를 십분 활용했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화학부대 기록에서는 이 같은 추론을 확증해 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어쨌든 출혈열에 관한 연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1951년 4월 단 한 건의 치명적인 사례를 발견한 것만으로 406부대는 즉각 주요 관심사로 이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역학과를 만들었다.[30] 크레이그 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406부대는 일본쪽 정보를 수집했다. 미 극동사령부 산하 의무사령부는 키타노, 카사하라 외에 생리학자 이시카와 타치오마루, 다미야 다케오 등 이시이의 731생물학전부대와 연관을 맺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31] 406부대 과학자들은 또한 출혈열을 발견한 토코로 야스오 박사의 연구를 활용했

다. 문학 작품에서는 최소한 이시카와가 부대로 불려가 슬라이드 필름을 보면서 자문에 응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문 결과는 의무사령부 소속 랄프 타카미 대위에 의해 보고서로 번역, 정리돼 1951년 8월 극동사령부 내에 배포됐다.[32] 출혈열에 대처하기 위해 8003부대도 투입돼 최소한 406부대 곤충 분과를 부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단 한 가지 사례가 보고된 것만으로 왜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떤 것일까? 731부대 연구 결과를 406부대와 8003부대를 거쳐 미군 생물학전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체계적인 자문 과정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물음이 나올 법하다.

미 육군 의무부대가 생물학전의 현장 연구에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일본 맥아더 군정에서 공중보건 및 복지담당 수석 보좌관을 지낸 크로포트 샘스 준장 주변에서 발생한다. 샘스 준장은 친구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후광을 업고 육군 군의감까지 평탄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이 1951년 4월 맥아더를 해임하면서 맥아더 인맥은 몰락 위기에 처했으며 샘스 준장의 앞길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샘스 준장은 행동을 통해 막힌 길을 뚫었다. 그는 적 전선의 배후 작전을 지휘했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얻은 교훈의 일부가 됐으며, 또한 의무부대의 다양한 역할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51년 3월 어느 날 밤, 샘스 준장은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실험장비를 탑재한 상륙정을 타고 북한 영해로 들어가 해안에 접근했다. 샘스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임무는 원산 지역 중국군 부대에서 선페스트가 발병했다는 첩보원의 보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페스트 발

병이 사실이라면 미군과 유엔군 병사들에 대한 면역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한국에서 미군 의무부대의 역사를 연구한 사학자 앨버트 카우드리에 따르면 페스트는 면역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한 탓에 당시 미군과 유엔군은 페스트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백신 재고도 소량밖에 없었기 때문이다.[33] 샘스 준장의 임무는 병에 걸린 적군 병사를 마취해 상륙정으로 납치한 다음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닷가에 상륙해 첩보원과 접선한 샘스 준장은 상당한 과학 교육을 받은 첩보원으로부터 전염병은 페스트가 아니고 출혈성 수두라는 수정 정보를 받았다. 당연히 납치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러한 그저 그런 얘기가 오랫동안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독자들은 놀랄 것이다. 비밀 해제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적군 병사를 마취해 납치하려고 한 샘스 준장의 기도가 '군의관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군 군의관 전체의 명예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 이었다. 또한 비밀 해제로 미국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손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샘스 장군이 투약 의사가 없는 환자에게 약물 사용을 계획한 것은 불필요했으며, 그 자체로 비윤리적 행동이 될 수 있다. 또한 병원에 강제로 침입해 투병 중인 환자에게 몰핀을 사용한 뒤 납치하려고 샘스 장군이 계획한 것은 제네바협약과 지상전 교전 수칙의 명백한 위반이다…… 단순화하면 미국이 '전쟁범죄' 를 조장한 셈이었다."

비밀 해제 요청을 거부한 해명 문안이 미군이 공개를 거부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시인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드러난 기록 이외에 비밀스런 내용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샘스 준장에게 기록 외 다른 임무가 더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증거는 없다.[34]

다른 사건 역시 샘스의 실험실로 개조한 해군 상륙정과 관련이 있으며 남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적군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생물학전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상륙정에서 행한 실험은 수용소에 만연한 이질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미국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물론 한국전쟁 연구자들도 미국이 포로들을 세균전을 위한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실험선의 활동은 미국 언론에 일부 포착됐는데 『뉴스위크』 1951년 4월 9일자는 적군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실험 장비를 적재한 보병 상륙정에서 많은 중국 공산군들을 대상으로 선페스트 관련 실험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AP통신은 보병 상륙정 1097호 선상에서 거제 포로수용소 환자들의 구강과 항문에서 채취한 가검물을 대상으로 매일 3천 건 가량의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1951년 5월 18일 보도했다.

미국 열대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열대 의학과 위생 저널』 1952년 1월호에는 짧은 학술 논문 한 편이 게재돼 '전염병 통제선'으로 알려진 실험선이 거제도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논문은 전쟁 포로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전염병, 즉 이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35] 논문은 전염병 발생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필자인 하디 · 메이슨 · 마틴 박사는 거제도에 설치된 극동사령부 산하 '제64야전병원 이질합동대책반' 구성원들이었다. 포로들 사이에서 이질은 1951년 초에 발생해 1년간 지속됐다. 우리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험선이 최소한 1951년 초에는 거제도에 배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의관들도 전염병이 터졌을 때 이미 실험선이 현장에 있었

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 전염병의 가장 이례적인 특징은 그 규모였다'고 말했다.

> 이질은 발병과 함께 1백61명의 입원 환자와 8백 명 가량의 경증 환자를 발생시켰으며 입원 환자의 치사율이 9퍼센트에 이르러 곧바로 매우 중요한 전염병으로 취급됐다. 발병 후 4개월 동안 매일 이 정도 수준의 피해가 보고됐다. 기세가 수그러든 뒤에도 전염병은 지속돼 총 1년을 끌었다. 말하자면 1백50개 주요 전염병이 하나로 응축되어 나타난 형국이었다.

발병 후 4개월 동안 놀랍게도 1만 9천3백20명의 입원 환자가 생겼으며, 가벼운 증세를 보인 환자는 10만 명에 달했고, 치사율은 9퍼센트였다. 군의관들은 통상 전염병에서 하나의 병원체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과 매우 다른 특수한 사례를 목격한다. "매일……시겔라(이질균의 전형종典型種)의 여러 변종에서 기인한 아메바성 이질, 바실루스(간상균桿狀菌)성 이질이 뒤섞인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거제도의 이질은 단순히 설사만 수반하는 미국 내 이질과는 여러 모로 달랐다. 병상 기록을 살펴보면 포로수용소를 휩쓴 전염병균이 매우 독성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논문 필자들은 미국에서 성인이 이질에 걸렸을 때 시겔라만 확인하면 되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절차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의심스런 세균의 종류가 너무 많았다"고 기술했다.

군의관들은 6개월에 걸친 정교하고 광범위한 시험 프로그램에 대해 묘사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수한 세균을 비교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대적인 전염병 발발이 귀중한 과학 지식을 매우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또 "'전염

병 통제선' 이 훌륭한 장비를 갖춘 떠다니는 실험실로…… 이미 거기 있었으며, 바로 전염병 발생 장소에서 즉시 필요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줬다"고 기술했다. 논문 필자들은 몰랐을 테지만 떠다니는 실험실은 아마도 질병 검사와 감염 유발이란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가장 큰 의문은 현대적인 의료 장비와 항생제, 정밀하고 광범위한 의료 프로그램을 수중에 넣고도 왜 그렇게 치사율이 높았는가 하는 점이다. 또 전염병이 왜 그렇게 널리 퍼졌으며 1년이란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 동안 지속됐을까도 의문 사항이다. 406부대와 극동의무사령부가 열대 이질을 퇴치할 만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공을 들인 검사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꼬리를 무는 다른 의혹은 논문에서 지적했듯, '전염병은 발병하고 4개월이 지나서야 워싱턴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보고됐다' 는 사실이다.

이상의 의문은 1950년 12월 5일 미 국방부 생물학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침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침은 '중요한 생물학전 질병에 대한 면역 증거를 찾기 위한 군 프로그램은 적군 도망자나 전쟁포로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36] 디트릭 기지에서 한때 연구 개발 부서의 기술국장을 지낸 시오도 로즈버리 박사가 곤충을 매개로 한 이질 확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또한 2차세계대전 후 첫 번째 프로젝트로 티푸스-이질 세균과 관련한 매개충 연구를 선택한 캐나다 생물학전 프로그램 책임자인 G. B. 리드 박사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1947년 리드 박사는 자신이 현재의 면역 수단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이질균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드 박사가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1949년 미국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제출된 많은 보고서 중 하나다.[37]

극동사령부 산하 미 육군 의무부대가 406부대와 8003부대를 통해 실험 인프라를 구축해 매개 곤충 및 설치류 숙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생물학전을 개발 중인 디트릭 기지로 보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50년 12월 12일 극동사령부 산하 육군 의무부대는 정보 기관인 G-2에 보낸 메모를 통해 생물학전 연구에 있어 화학부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자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화학부대와 의무부대 간 지속적 협력은 생물학전에 있어 잠재적인 위험과 작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의무부대는 모든 전염병의 관할권을 자대에 맡겨 준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생물학전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도 긴요하다.[38]

이 메모는 또한 세균전 계획 수립이 방어 목적에 국한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군사 정책에 관한 여러 문건을 통해서 '방어 목적' 이란 수사 아래 비밀스런 공격 전략이 숨어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생물학전 세균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며, 여기에 의무부대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의무부대의 협력 다짐은 미8군이 압록강에서 후퇴하면서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나왔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합동참모본부에 중국군을 저지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합참과 트루먼 대통령은 심각한 패배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39]

10장의 논점은 미국의 부인과는 반대로 만일 미국 정부가 선택만 한다면 생물학전을 수행하기 위한 풍부한 이론적 지식과 실질적인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중국과 북한의 주장은 충분한 가능성의 영역에 있었다. 중국군에 포로로 붙잡혀 생물학전 목적으로 매개충을 살포했다고 자백한 워커 M. 마후린 공군 대령은 나중에 자신의 자백을 철회했다.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온 마후린 대령은 미국인들에게 '세균전을 위해 벼룩, 파리, 모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며 서툰 날조라고 주장했다.[40] 그것은 이솝 우화에서 도둑이 도둑을 꾸짖는 것과 같다.

11 조종사들

오랜 심문으로 심신이 지쳐 가고 그들이 내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무심코 메릴랜드 주 프레더릭에 있는 디트릭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해 버렸다. 당연히, 이것은 그들이 원하던 것이었고, 나에게 방문 내용을 자세히 쓰라고 강요했다.…… 기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 나자 그들은 모두 자백하라며 꽤 심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워커 M. 마후린 공군 대령, 포로 대표
미 공군 조종사, 한국전쟁 전쟁 포로 출신,
1953년 본국 송환 후의 진술

그는 계속해서 내 생각과 감정, 공산주의에 관한 견해 등 흔한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었다. 이미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돼 싸울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리 있게 쓸 수가 없다.

존 퀸 중위
미 공군 조종사, 한국전쟁 전쟁 포로 출신,
1953년 본국 송환 후의 진술

미군 장교들의 인성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그들은 매우 유순하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많은 미군 장교들을 상대했다. 그들은 심하게 다루지 않아도 쉽게 마음을 바꾼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 영국 장교들은 다르다. 영국 장교들의 주장을 꺾는 일은 쉽지 않다.

주춘, 전 정치 장교,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수용소 사단 본부,
1996년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 소위 '세균전' 관련 자백은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거대하고 계산된 거짓말 책동이다.
>
> **찰스 메이요 박사, UN 주재 미 대리 대사**
>
> **1953년 10월 26일 UN에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군에 의해 격추 당해 포로로 잡힌 미 공군 조종사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세균전 공격에 가담했다는 자술서를 썼다. 그들 중 일부는 1951년 말에 세균전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중국군 정보부대는 이 자술서를 미군의 생물학전 실험 개시를 입증하는 여러 증거에 대한 확증 수단으로 사용했다.[1] 25개 자술서는 대외에 공표됐다. 자술서를 작성한 조종사들은 모두 나중에 미국으로 송환된 뒤 자백이 거짓이며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장(章)에서는 미군 포로들이 남긴 증거물을 미 제5공군의 예기치 않은 기록과 함께, 중국과 서방 양쪽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중국군은 벽동(碧潼) 근처 압록강변에 여러 곳의 포로수용소를 운영했다. 이 중 빙장리 수용소에는 남한군을 제외한 미국 · 영국 · 호주 · 터키 등의 장교들이 수용돼 있었다. 포로들의 병과는 다양했으며, 1952년 봄쯤에는 수용 인원이 약 3백 명에 이르렀다.

"수비 중대가 포로들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높지는 않았지만 가시 돋힌 철책이 수용소를 빙 둘러 처져 있었다"고 주춘은 회상했다. 그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에 파견된 중국 인민지원군 총정치국 소속 포로수용소 사단 본부 정치 장교로 일했다.[2]

중키에 악수할 때 손을 꽉 잡고 느긋하게 말하는 주 교수는 1996년

인터뷰 당시 71세였다. 중국국제전략연구소(CIISS)의 부소장인 그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했다. 주 교수는 1952년 세균전을 자백한 36명의 미 공군 포로 장교들을 심문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우리의 질문을 반갑게 여겼지만 40년의 세월이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줬다. 그는 가장 먼저 포로가 된 존 퀸 중위와 케네스 에녹 중위는 자신이 직접 심문한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했고, 사진을 본 후 찰스 커 중위와 조지 브룩스 중위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심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주 교수는 상하이(上海) 푸단(復旦) 대학에서 저널리즘과 영문학을 전공했다.(그는 자신의 영어가 녹슬었다고 말했으나 알아들을 만했다) 그는 졸업 후 1년 반 동안 쓰촨성(四川省) 충칭(重慶)에서 일하다가 1951년 7월에 26세의 나이로 인민지원군 포로수용소 사단 소속으로 북한에 도착했다.

"빙장리의 포로수용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20명의 중국군 장교와 수비 중대가 주둔해 있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장교들은 2개 소대로 편제됐다. 첫 번째 소대는 포로에게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등 수용소 내 행정 담당이었고,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된 다른 쪽 소대는 나를 포함해 모두 영어로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을 배속시켜 정치 문제를 처리했다." 그는 수용소 건물을 '굉장히 낙후되었으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기억했다. 수용소는 이전에 학교 자리였다. 안쪽에는 전형적인 한국식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기와를 얹은 목조 건물들이 서 있었다. 바깥쪽은 농구, 축구, 야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었다.

세균전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 공군 장교들은 자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다른 장교들에 대한 중국군의 정보 수집 방법은 구술

을 통해서였다.

1952년 1월 이후 생포된 모든 미 공군 장교들로부터 세균전 자백을 받아 냈느냐는 질문에 주 교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약 10~20퍼센트 정도였다. 우리는 그들과 얼마간 얘기해 보고 정보를 얻은 후 누구에게 물어볼지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포로들이 자술서를 썼던 환경에 관해서 설명했다.

> 포로들이 처음 우리 수용소로 오면 신상 정보를 묻는 양식을 나눠 주고 가족, 입대 이전의 삶, 군 경력, 사회 경력 및 소속 정당(해당자만)을 채우게 했다. 이것은 행정 장교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정치 소대의 장교들이 포로를 한 명씩 불러서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1~2시간,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며칠씩 걸리기도 했다. 세균전에 참가했다고 판단되는 포로들에게는 자술서를 쓰도록 요구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바로 자술서를 작성했다. 끝나면 자술서를 제출한 후 막사로 돌아갔다. 우리는 자술서를 읽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포로들을 불러 더 상세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포로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됐다.

포로였던 미 공군 장교들이 1953년이나 수년 후 본국에 송환된 뒤 진술한 내용을 들으면서 주 교수는 경멸에서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정하고 고개를 끄떡이거나 심지어 웃음을 띠기까지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나쁜 대우, 형편없는 음식, 몇 달간의 독방 감금, 정신적 학대 그리고 한 사례에 있어서는 구타에 시달려 세균전 자백을 요구하는 중국군에게 굴복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군 상사들과 미국의 대중들에게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미국의 생물학전 수행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3]

주 교수는 그가 들은 것에 대해 "이들이 말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응했으며, 포로들의 처우에 대한 설명에도 이견을 보였다.

> 미군 장교들의 인성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많은 미군 장교들을 만났다. 그들은 굉장히 유순하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많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없다. 금방 마음을 바꾼다. 영국군 장교들은 다르다. 그들이 당신과 생각이 다를 때 그들의 견해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1952년 미 공군이 세균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미군 장교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기로 결정했으며,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부터는 공표할 수 있도록 서면 진술을 받으려 했다.

어떻게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 우리는 그들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들과 개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화했다. 처음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밖에는 눈이 오고 있었고, 땅에는 눈이 쌓였으며, 우리 군은 땅에서 세균에 감염된 곤충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로부터 압력이 있었다. 우리는 포로들에게 발견한 세균폭탄들에 대해 알려줬다. 우리는 이런 범죄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주지시켰다. 우리는 그들이 공군에 입대한 후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말했다. 포로들은 대개 불충분하고 여기저기 애매한 구석이 있는 자술서를 써서 제출했다. 우리는 추가 질문을 했고 그들은 사무실로 불려와 다시 더 많은 것을 작성했다.

우리는 그들을 심문했고,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들과 이성적으로 대화했고, 우리의 원칙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왜 조선에 자원해서 왔는지 설명했다. 우리가 조선과 함께 공동으로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압록강 국경에 미군이 근접하게 되면 우리는 국익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우언라이 총리가 인도 대사를 통해 미국에게 경고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우리는 물었다. "만일 적대적인 외국 군대가 너희 나라 국경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느끼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들은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아주 쉽게 굴복했다. 뒤에 그들은 막사의 동료들에게 돌아가서는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는 우리를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자술서를 가지고 있었다. 한 명씩, 그들이 아는 것을 말하게 하기는 아주 쉬웠다.

그 다음 주 교수에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중국에서의 외국 제국주의의 역사 등에 대해 포로들과 대화하려 시도했는지 물었다.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며, 특히 초기에 더 그랬을 것이다. 이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원하면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잡지를 그들 주변에 비치해 놓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과 여가 활동으로

보내도록 허용했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포로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애썼다.

주 교수는 인터뷰를 끝내고 자전거에 올라타려고 하면서 자신이 심문한 포로 중 한 사람인 앤터니 파러-호클리 장군(당시 대위)이 중국 재방문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무심코 말했다. 주 교수는 친구를 통해 그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주 교수의 연구소로 초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때까지 답장을 받지 못했다.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공식적인 전사를 쓰기 전에, 파러-호클리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 경험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문체의 『칼날』이란 책을 집필했다. 1954년에 첫 출간된 이 책은 냉전 초기의 언어와 이미지,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누는 단순한 이념적 진실, 벽장리의 중국군에 의해 행해진 거짓말과 야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군을 '누리끼리한 얼굴', '개구리 눈', '사악한 난쟁이', '철저한 거짓말쟁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진지한 사회주의자',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더러운 꼬마'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했다. 포로수용소 소장인 딩산은 '중국인 치고도 작고 뱀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불행한 포로들에게 뱀처럼 씩씩댔다. 그로부터 수년 뒤 냉전이 한풀 꺾이고 난 후에 파러-호클리는 중국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췄다. "수용소 내에서 중국인에 의한 심한 물리적 폭행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중국군은 잘 훈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수용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개조되어야 할 '비열한 놈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따금씩 우리는 못된 어린이들이었고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순응할 때까지 유모

가 우리를 혼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던 적도 있었다."[4]

심문자 중에 파러-호클리가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한 사람이 바로 주 교수였다.

> 빅(Big) 주는 다른 범주에 속했다. 그는 특별히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참모진이었다. 심문, 훈육 그리고 선전까지 중요하다 싶은 일은 그의 관할 범위에 들었다. 1백75센티미터 정도의 키에 마른 그는 독특한 소리를 내며 걸었다. 빅 주가 어떤 포로를 찾아와 중국식 억양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때에는 대개 수용소 소장이 그 포로의 호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5]

주 교수는 파러-호클리와 글로스터(영국 서남부 도시) 출신인 그의 동료 장교들에 대해 정중하게 말했다.

> 포로로 붙잡힌 영국 제29글로스터 부대 제1대대 소속 장교들을 알게 됐다. 파러-호클리 대위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그들과 접촉했다. 그들 모두는 교육을 매우 잘 받았고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철저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굉장한 자부심과 동시에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나중에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뒤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영국군 정보를 물었으나 그들은 강한 사내들이어서 완고하게 거부했다. 그들은 조금씩 풀어졌다.

고정 관념이 없고 이념의 날이 완화된 세상에서 과거 적이었던 이 늙은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만나 그들의 기억을 화해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주 교수와의 인터뷰 몇 달 전 플로리다 주 사라소타에서 하워드 히첸스 2세는 한국전쟁에서 생물학전에 참가했다고 자백한 미국인 포로 조종사들 중 한 명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회고했다.[6] 키가 크고 마른 그는 주 교수처럼 71세였으며, 나이에 비해 젊고 건장해 보였다. 그는 한국전쟁 경험과 오랜 미 공군 생활 그리고 냉전 초기와 그 후에 대해 똑똑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쉽게 이야기했다.

2차세계대전 동안 태평양에서 젊은 조종사로서 3년 반 동안의 임무를 마친 뒤 그는 고향인 델라웨어의 대학으로 돌아왔으며 결혼도 했다.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B-26 항법사로 참전하게 됐다. 끔찍한 전쟁 포로 경험을 겪었고, 포로 기간 동안 태어난 아이까지 딸린 유부남이었지만, 종전 후 그는 비행에 대한 동경을 접지 못하고 공군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결정 때문에 생물학무기 사용을 고백한 조종사로서의 그의 경험은 이후 군 경력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4년간의 조종술 교관 복무를 끝낸 뒤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새로 생긴 공군사관학교의 창립 교수로 배속받았다. 그는 거기에 머물며 시라큐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받았고, 12년 뒤 제대할 때까지 공군사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끌었다. 그는 또한 생물학전에 관해 자백한 이유와 군사 정책에 있어 이것이 지니는 의미를 대중과 10년간 그를 거쳐간 생도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히첸스는 짧든 길든 어떠한 길이의 강연 시간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자로 잰듯이 정확하게,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대중을 상대로 끊임없이 강연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공군사관학교의 생존 및 윤리 규범 과정 과목으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가 고안하고 가르친, 그리고 미 공군도 승인한 이 과정은 주 교수의 회고와 미 육군의 전후 연구 사이의 수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 교수가 히첸스를 심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 교수는 자신이 심문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고서 조지 브룩스를 심문했던 것 같다고 생각했으며, 심문 내용에 따르면 그는 히첸스와 함께 수용된 3명의 조종사 중 한 명이었다. 히첸스는 자신을 주로 심문한 심문관은 지적으로 세련되고, 영어를 잘 구사했으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고 묘사했다. 이는 파러-호클리 장군이 묘사한 주 교수와 일치한다.

그러나 히첸스와 주 교수는 포로 처우나 수용소 일상생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다르다. 예를 들면 주 교수는 조종사들이 집단으로 수용됐다고 말했으나 히첸스는 각각 분리되어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조종사들을 심문실로 불러 자술서를 쓰게 했다고 했지만 히첸스는 심문관들이 그들에게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미 조종사들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육체적인 학대 때문이 아니라 상황 대처 능력에 있어 그들이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으며 강인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히첸스는 자신은 물론 당시나 그 이후에 대화해 본 수용소 내 다른 조종사들도 구타나 고문이라는 의미에서의 육체적인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 교수에 동의했다. 물론 다른 조종사들처럼 히첸스도 권리 박탈이나 육체적, 정신적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주 교수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히첸스는 극심한 협박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서

는 단호했다. 또한 포로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훈련을 받았더라면 저항할 수도 있었고, 또한 저항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히첸스는 자백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리고 대화해 본 다른 사람들도 단지 당시 가해지는 가혹한 압박을 끝내고픈 생각에서 자백했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주 교수와 다른 심문관들이 미국 조종사들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히첸스는 순진하고 세계, 정치, 전쟁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의 배경을 묘사했다. 그와 함께 참전한 다른 조종사들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애국심과 반공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했으나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지식도 빈약했다. 조종사들의 관심은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그저 맥주와 계란 요리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에 대해서만 대부분 생각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격추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포로로 잡히면 어떤 일에 직면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공군 교육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그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갖춰 주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빈틈을 메우는 일에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바치기로 했다. 적군에게 협력하지 않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군인의 행동 강령을 강조하면서 그는 고문이나 항거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심문에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한국 포로수용소에서 미군이 어느 정도까지 협력했는지를 가장 광범위하게 조사한 미 육군 연구는 '세뇌'가 없었으며 구타 내지는 고문 등의 육체적 학대가 미군 포로들 사이의 고도의 협력 원인이 아니

라는 데 동의했다.[7] 원인은 포로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과 성숙함이 부족했다는 문화적 배경에 있었으며, 더불어 이를 보충할 만한 군사 훈련이 부족했던 탓이었다. 비록 이 연구가 조종사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잘 맞지 않는 한 전쟁 포로 집단을 다루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결론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주요 지침으로 수용한 히첸스의 관찰과 결론은 본질적으로 육군 조사와 동일했다.

히첸스는 심문관들이 그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그가 속한 비행전대 지휘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이상의 다른 정보는 들이대지 않았다는 주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나아가 심문관들이 만족할 때까지 정보를 더 내어 놓으라는 단순한 요구를 반복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비록 중국측이 자백을 공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심문관들은 미군이 생물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 아래 정보를 수집하고 조합하기 위해 기초적인 정보 수집 기술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 히첸스의 생각이었다. 히첸스는 자신이 생물학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가 쓴 자술서는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놓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세균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문서들을 보여 주고, 프로그램과 히첸스 자신의 진술을 포함해 포로들의 자백 내용이 일치함을 제시하자 그는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는 동료 조종사들과 세균전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소수의 절친했던 B-26 동료 조종사들 사이에 그런 정보가 있었다면 그 정보가 비밀로 지켜지긴 불가능했으며 새어 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대대장 선까지만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비

밀리에 임시 폭탄 저장고에 파견된 요원이 폭탄을 폭발물이나 전단 대신 세균으로 교체했을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무 때마다 직접 폭탄을 검사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부대들이 세균전 프로그램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속했던 제17폭격비행전대가 있으리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

중국군은 포로들로부터 생물학전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를 얻었는가? 송환된 미군 포로들이 자백을 철회한 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가? 또 미 극동 공군의 입수 가능한 작전 기록은 어느 수준까지 세균전 비난에 대해 실증하거나 반박하는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알아보겠다.

총 36명의 미국 장교가 중국측에 생물학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이 중 현재 27개의 자술서를 확인할 수 있다.[8] 대부분의 진술은 제5공군 소속 조종사들로부터 나왔는데 대령 2명, 대위 2명, 중위 20명이다. 이들 중 7명은 군산(K-8)과 부산(K-9) 비행장에서 출격한 폭격 비행전대의 B-26 조종사였고, 10명은 수원(K-13), 진해(K-10), 대구(K-2) 기지에서 출격한 전폭기 비행전대 소속이었으며, 5명은 김포(K-14)와 수원(K-13)에서 출격한 요격 비행전대 소속 최신형 F-86 세이버 전투기 조종사였다. 두 명은 교대로 24시간 비행하며 사진을 공급한 전술 정찰 비행단 소속이었다. 나머지 진술은 1952년 7월 함께 격추된 제1해병항공비행전대장 프랭크 H. 슈와블 대령과 병기 장교 로이 블레이 소령 그리고 오키나와에 기지가 있던 제20공군 소속 토마스 아이레스 중위로부터 나왔다.

중국은 이 장교들로부터 미 고위 지휘부의 생물학전 결정에 관한

정보, 미국의 생물학전 선택 배경, 세균무기 생산기지, 사용된 세균무기 유형, 유포 질병의 종류, 생물학전 임무 수행 방식, 생물학전의 역사 · 개발 · 훈련에 관해 군인들에게 행한 강의 내용, 미 세균전 프로그램 진행 단계, 보안 주의 사항 그리고 세균전 결과에 대한 미군의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정확하건 정확하지 않건 중국측은 조각을 맞춰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심각한 패퇴에 직면한 1950년 12월, 미 합동참모본부는 1951년 말까지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라고 연구 개발 부서에 지시했다. 그 프로그램은 합동참모본부가 극동사령부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직접 명령을 전한 1951년 10월 시작됐다. 지시 내용은 한국에서 세균전을 실험 차원에서 소규모로 개시하여 점차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미 공군 참모총장이던 반덴버그 장군은 구식 전투기 교체 명목으로 최신예 F-86 세이버 전투기 75대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명령했다. 개발 담당 참모차장 G. P. 사빌 소장에 의하면 이 비행기들은 세균전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돼 있었다.[9]

11월, 군산의 제3폭격비행전대 소속 B-26 폭격기들과 오키나와의 제20공군 소속 B-29 중형 폭격기들에 의해 실험이 시작됐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서 정식 승인이 났고 다른 부대들도 1951년 12월 말 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앤드루 에반스 대령은 제5공군 부사령관 어니스트 K. 와버튼 준장의 말을 빌어 합동참모본부가 세균전 범위를 압록강 북쪽 중국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전은 1952년 1월 시작됐다.[10]

중국은 1952년 5월 24일 또는 그 즈음에 미 생물학전 프로그램이 실험 단계에서 작전 단계로 변경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명령은

제5공군 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된 글렌 바커스 장군이 내렸다. 바커스는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군사 정책이 아닌 국가 정책의 문제이며 1급기밀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자격을 갖췄으며,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러운 군인들로 바커스가 직접 뽑은 조종사들만이 투입됐다. 세균전의 목표는 만주에서부터 38선 근처의 주요 저항선까지 남쪽으로 이동하는 병력과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오염 벨트를 만드는 것이었다.[11] 전폭기 비행전대의 한 정보 장교에 의하면 미국이 생물학무기를 도입한 이유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였다. 같은 주제로, 미 네바다 주 넬리스 공군기지 훈련대대 지휘관이었던 제임스 맥인타이어 소령은 1952년 3월 F-86 세이버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주요한 목적을 '지난 전쟁에서 일본에 대해 원자폭탄이 수행한 역할처럼'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학무기 사용은 전방과 후방에 전염병을 퍼뜨릴 것이다. 이것은 적군의 사기를 전쟁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릴 것이다. 사용될 세균과 세균폭탄의 유형을 설명한 뒤 그는 모든 내용은 1급기밀이며 "우리는 누구에게도, 또한 우리끼리도 이 문제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12]

생물학무기를 사용한 또 다른 배경은 중국군이 제압하기 힘들고 중국군의 보급 체계를 붕괴시키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고 일단 산악에 자리를 잡게 되면 중국군을 물리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더불어 다리, 도로, 철도, 병참 시설이나 주둔 지역을 폭격함으로써 수송 체계를 마비시킨다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 "우리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밤에…… 적의 보급망이 지속적으로 복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중국군과 북한군의 복구 시스템 효율

은 매우 높았다. 그래서 매 임무 때마다 비행기 한 대에는 '복구를 지연시키기 위해 세균폭탄을 싣는' 계획이 수립됐다. 오직 '철저한 조치'만이 적이 지금 준비 중인 춘계 대공세를 막을 수 있었다.[13]

제5공군의 병참 담당 부사령관 에프라이트 대령은 폭탄 케이스, 휴즈와 분사 탱크는 미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수송됐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 반면 살아 있는 병원체는 도쿄 근처의 공장에서 생산된 뒤 용기에 담겨 필요할 때마다 화물 비행기로 '부산과 대구에 하나씩 있는 세균무기 임시 보관 창고로' 운반됐다.[14]

사용된 폭탄과 세균은 수 개월이 지나면서 다양해졌다. 가장 흔한 무기는 감염된 곤충이나 깃털 또는 다른 세균 매개물을 운반할 수 있는 칸막이가 된 5백 파운드 폭탄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무기는 액체 또는 세균이 섞인 가루를 뿜는 1백20갤런 용량의 유류 탱크처럼 생긴 분사 탱크였다. 어떤 폭탄에는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었다.[15] 제49전폭기비행전대장 로버트 로저스 대령은 그의 부관에게 세균전 수행을 위한 출격은 보통 대구에 있는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매일 내려오는 정규 작전 계획 속에 통합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 제공자에 의하면 이러한 특수 임무를 위해서 활주로 끝에 있는 유도로에서 폭탄을 장착했다. 분사식 부착 장치를 사용한 뒤에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 소독했다.[16]

제5공군 사령관 프랭크 에버레스트 장군은 마후린 대령에게 이러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꺼리는 조종사들에게는 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질병 전파 수단으로 사용된 곤충은 말라리아, 티푸스, 페스트, 이질에 감염된 파리 · 벼룩 · 모기라고 말했다. 미국 맥스웰, 터너, 루크, 넬리스 공군기지와 일본 이타주케 공군기지에서

교육에 참가한 다른 조종사들은 천연두, 황열병, 콜레라, 파상열, 발진티푸스, 뇌염 등도 가능한 감염 병원체로 언급됐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그들은 미국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역사가 일본이 생물학전 연구를 진행하던 2차세계대전 때 시작됐으며, '미국이 일본의 연구를 이어받고 개선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17]

지휘관들은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관해 보안을 강조했다. 미군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을 속여야 했으며, 아군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생물학무기는 일반 폭탄 또는 네이팜탄과 함께 적의 보급로에 가하는 통상적인 공격의 형태를 띠며 사용됐다. 조종사들은 만약 세균폭탄에 관해 대화하다 적발되면 군법회의에 회부돼 '공군의 보안 규정에 의거해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전시에 1급기밀 정보와 관련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조종사들은 생물학 폭탄을 보고하기 위해 임무 수행 보고서에서 '불발탄', '초강력 선전' 또는 '결과 미확인'과 같은 위장 단어를 쓰거나 '합동작전센터 임무' 또는 '대공포 진압 임무'라는 표시를 달았다. 보고서는 별도 1급비밀 채널을 통해 사령부에 직접 전달됐다.

미국측은 작전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스파이를 고용하고, 전쟁 포로를 심문했으며, 야간 이동 트럭 수 조사, 북한과 중국 당국의 발표 관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미국은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면 소문이 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행전대 차원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느낌으로는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슈와블 대령은 "내가 아는 그 누구도 기울인 노력과 위험, 부정직

에 상응할 만한 성과를 어디에서든 거둔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아는 전체적인 결과는 실망스럽고 좋지 않은 것이었다"고 심문관에게 말했다.[18]

1953년 9월 6일 일요일, 중국과 북한은 마지막 남은 미군 전쟁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켰다. 포로들을 실은 트럭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그날 아침, 베이징 라디오 방송은 한국에서 생물학전에 참가한 것을 시인한 미 공군 장교 25명의 이름을 발표했다. 판문점에서 38선을 넘은 첫 번째 지프차에는 이 25명 중 3명의 대령인 앤드루 에반스, 워커 마후린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프랭크 슈와블이 타고 있었고, 이들의 사진이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신문은 대부분의 장교들이 '트럭 안에 멍하니 앉아서' 이름이 불려질 때만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19] 그들은, 당연하겠지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했다. 신문은 슈와블 대령과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음에 일어난 것은 추가적인 미국 위신의 손상을 막기 위한 광적인 노력이었다. 마후린 대령에 따르면 모든 송환자들은 입원 환자로 분류되어 "모두가 철저한 감시하에 놓였다." 또한 그들은 자백을 철회할 것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형, 아마도 극형에 처해지리란 강한 압력을 받았다. 허버트 브라우넬 미 검찰총장은 "한국에서 공산주의자 심문관에게 협력한 미군 전쟁 포로들은 반역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공식 기록되었는데, 반역죄는 사형도 가능했다. 또한 미 국방장관 찰스 윌슨은 상원 군사위원회 중진 의원인 리처드 러셀 상원의원이 보낸 글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러셀 의원은 이 글에서 "내 견해가 극단적일 수도 있으나 나는 적군에 협력하고 거짓 자술서에 서명한 자들은 즉시 군에서 불명예 제대시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해

병대가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위원회 주관으로 슈와블 대령에 대한 심리 재판을 워싱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유포됐다.[20] 마후린 대령은 "밤마다 장래를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21]

모든 송환자들이 종전 자백을 철회하도록 펜과 종이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였다. 그리고 미 국방부 특수작전실 소속 J. J. 켈리허 2세 소령이 준비한 주요 질문 목록표도 주어졌다.[22] 그들은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나 자신의 자유 의지로'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시작했고 '이 진술서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이 군법회의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의 형식을 취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들은 군법 31조에 따라 약식 재판소 관리들과 법무관실 대령, 또는 공군 특별조사실 상급 장교들이나 요원들 앞에서 증인을 세운 채 작성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조차도 이처럼 잘 조직된 공공연한 압력 아래에서 행해진 철회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를 표시했다.[23]

6주 후 UN 주재 미국 수석 대표 헨리 카봇 로지 2세는 선서된 진술서 10개를 UN 총회 정치안보위원회에 내놓으며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음해하기 위해 만든 '유례 없고 악독한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거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24] 제출된 진술서 중 8개는 중국군에게 자백한 사람들 것이었으며, 2개는 저항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것이었다. 8개의 진술서 중 폴 니스 중위와 앤드루 에반스 대령의 진술서만이 협력 이유로 '극심한 정식적, 육체적 고문'을 들었다.[25] 마후린 대령과 슈와블 대령을 포함한 나머지 진술서에는 '협박' 또는 '부당한 대우', '신체적 권리 박탈' 그리고 '정신적 학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후자

에 속하는 사람들도 협력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전범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중국측 위협을 들면서 심문관들은 그들이 '전쟁범죄'를 자백하면 관대한 처분 약속을 했다고 진술했다.(전범 위협은 1952년 3월 8일 "중국 영공에 침범해 세균무기를 사용한 미 공군 요원은 생포되면 전범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저우언라이 총리의 성명에서 유래했다)[26]

세균전을 자백한 사람들 중 선임인 프랭크 슈와블 대령은 미국 송환 뒤 '세균전 사용 제안'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중국인 스스로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독방에 감금돼 '허위와 속임수로 가득 찬 터무니없는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중국군은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지치게 하고, 겁주고 협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내 조국에 대한 사악한 비방으로 내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했으며, 거짓 희망과 약속을 나에게 주었고, 그리고 '자백'을 통해서만 전쟁에 대한 죄책감을 씻을 수 있다는 의식을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 그들은 그를 지치게 만들어 "미군이 수행하는 전쟁 방식은 비인간적이다"라고 믿게 만들려고 했다. 한국의 생활 수준이 낮았고 전시라는 상황이 더 많은 제약을 가했음을 인정했지만 그는 아직도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굴복한 뒤 그랬던 것처럼 시설이 조금 더 나은 압록강변 후방으로 나를 옮겨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슈와블은 임시 수용소에서 제네바협약에 따른 인도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 시원찮긴 했지만 어쨌든 잠자리는 항상 제공됐다. 음식은 형편없고 모자랄 때도 있었으며 물이 없을 때도 많았지만 굶은 적은 없었다. 두꺼운 겨울 옷과 누비 이불, 담요를 줬지만…… 무척 추웠고 부분적으로 동상에

결렸다.…… (정신적 학대와 함께 독방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가 세균전을 자백한 이유다.

아마 가장 신랄한 진술은 존 퀸 중위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이란 고통 속에 그는 "포우 같은 시인이 바로 그렇게 묘사했을, 악마적인 정신적 고문으로 인해 공산주의 선전물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퀸 중위는 독방에 8개월 이상 감금된 채 주춘으로 짐작되는 심문관과 함께 생활했으며, 그는 심문관을 "미칠 정도로 적개심을 갖게 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감정, 공산주의 등에 대해 준비된 질문으로 열변을 토했다. 이미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돼 싸울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리 있게 쓸 수가 없다.…… 강요에 의해 내가 작성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나와 동료들이 지내 온 과정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어떤 느낌을 가져 보길 바란다.…… 결과는 주문에 걸려 기꺼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산송장이자 인간 로봇이다.

퀸 중위는 세균전이 어떻게 수행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자백의 많은 부분이 구술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백의 상당 부분은 '믿기 어려운 환상'처럼 보였으며 또한 이 '세균전과 반미' 운동은 '지각 있는 사

람 누구에게나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번복 진술서는 세균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교육에 참석했거나 이 주제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송환 포로들과 그들이 중국군에게 한 자백을 떼어놓기 위해 그들에게 가해진 엄청난 압력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동참모본부가 1951년 2월 생물학전을 '전략 · 작전 및 비상 (전쟁) 계획' 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으며 동시에 군인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명령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27] 이러한 훈련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특별하게 진행됐지만 미 공군 감찰감 산하 특수조사실(OSI) 기록은 1951년 말 퀸 중위와 에녹이 근무한 군산(K-8) 공군기지의 제3폭격비행전대에서 세균전 교육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기록은 이 교육이 방어적 세균전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퀸 중위가 1951년 12월 18일 교육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거명한 어윈 로저스 중위는 OSI 조사관에게 "그는 12월쯤 군산에서 교육에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서는 동양이 바이러스와 세균 연구에 매우 뛰어난 만큼 세균전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수준까지 생물학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역시 제3폭격비행전대 소속인 랠프 에버레트 대위도 자신의 감독 하에 전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서 "세균전이 거론됐다"고 OSI 조사관에게 말했다.[28]

세균전 훈련이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는 더욱 확실한 증거는 제임스 A. 맥도널드 2세의 '한국전 미 해병 포로들의 문제점' 이란 보고서에서 나타난다. 보고서는 1952년 봄 격추된 헬기 조종사가 중국군에게 "그가 특정한 전문가 훈련 과정에 참가했으며 화생방전에 관해 상당

한 이론적 지식을 갖춘 사실을 감추는 데 성공했다"고 적고 있다.[29]

마찬가지로 '벼룩, 파리, 모기'가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사용됐다는 것을 냉소적으로 일축한 마후린 대령의 진술은 2차세계대전 때부터 벼룩, 파리, 모기뿐 아니라 다른 매개충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개발이 진행됐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디트릭 기지 활동에 대해 자신이 중국군에게 제공한 정보는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것'이란 그의 항변도 마찬가지다.[30]

마후린은 자의든 타의든 자술서를 작성한 포로들의 대변인으로 가장 활발히 공식적인 활동을 했다. 다른 포로들은 수년 간 인터뷰하기 힘들었으나[31] 마후린은 항상 접촉이 가능했고, 한국전쟁 경험을 담은 회고록인 『정직한 존』(Honest John)을 1962년 출간했다. 그의 한국전쟁 경험을 둘러싼 상황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마후린 대령은 1952년 34살의 전투기 조종사로, 2차세계대전의 격추왕 출신인 직업 군인이었다.[32] 한국에 가기 전에 그는 전략공군사단 내 보급처 전투기 담당 책임자로 1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고 워싱턴의 미 공군 본부에서 근무했으며, 이후에는 미 공군장관의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직무상 미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중심인 메릴랜드 주 디트릭 기지를 방문했으며 CIA와도 접촉을 유지했다.[33]

1951년 12월 그는 한국에 파견됐다. 자술서에 따르면 그의 임무는 최신예 F-86 세이버 전투기로 세균전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조종사들을 지휘하고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회고록에서는 2차세계대전 때의 옛 동료들이 한국에서 러시아제 미그기를 격추해 격추왕인 자신의 기록을 앞서가자 개인적인 경쟁심에서 한국에 일시 파견해 달라

고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마후린 대령의 임무에서 보안은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회고록에서 "비행전대 내 다른 대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숨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썼다. 전투 필름들은 은닉하고 소각해야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지 밖으로 절대 유출시키지 않았다."[34] 이 비밀임무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술서에서 그건 바로 북한 지역과 압록강 너머 중국 선양 시에까지 철도를 오염시키고 폭격 이후 복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세균전 임무였다고 밝혔다. 그는 회고록 개정판에서 보안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와 동료들이 UN 사령부의 복무 규정을 어기고 적 전투기를 '맹렬히 쫓아' 중국 내 중립 지역까지 넘어갔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35] 그러나 그는 동시에 미 합동참모본부가 중국 지역으로의 '맹렬한 추격'을 비밀리에 구두 승인했다고 밝혔고,[36] 이러한 승인은 모든 조종사들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지 내 보안은 불필요했다.

이 점은 국제적인 사건에 의해 확인된다. 1952년 봄 한국에서 미 공군 F-86 세이버 전투기를 몰았던 캐나다 조종사 W. G. 닉슨은 소속 부대 상관이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보고가 사실이냐고 묻자 이를 시인했다. 닉슨은 상관에게 압록강을 넘어 만주 지역으로의 비행이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실시됐다고 말했다.[37] "조종사들이 압록강을 넘어 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건 정말 사소한 일이다."[38] 캐나다 외무장관 레스터 피어슨은 워싱턴에 해명을 요청했고, 워싱턴 주재 캐나다 대사는 다음과 같이 오타와에 보고했다. "기본적으로 극동지역 미 공군 내에서 비행전단 혹은 비행대대 단위로 심각한 규율 위반 행위가 있어 왔다는 주장이 있다. 어제 본인과의 대화는 이

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받아들인 첫 암시였다."[39]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게 이 정보의 출처를 알리고 싶지 않았고 또한 의도는 전달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마후린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모순은 분별 있는 관찰자로 하여금 자백을 번복하려는 그의 시도에 깊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의구심은 한국에서 돌아온 후 UN에 제출한 그의 번복 진술서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 오랜 심문으로 심신이 지쳐 가고 그들이 내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무심코 메릴랜드 주 프레더릭에 있는 디트릭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해 버렸다. 당연히, 이것은 그들이 원하던 것이었고, 나에게 방문 내용을 자세히 쓰라고 강요했다.…… 기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 나자 그들은 모두 자백하라며 꽤 심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마후린은 중국군에게 제출한 자술서에서 질병 매개체로서 미 공군의 감염 곤충 사용 실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가 미국인의 손으로 돌아와 한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군해상수송부(MSTS) 소속 하우즈 호에 승선해 약식 군법회의 소속 장교 헨리 R. 피터슨을 만나 군법회의 회부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자 그가 디트릭 기지 활동에 관해 중국군에게 제공한 상세한 정보는 갑자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우둔한"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다.[40] 마후린 대령은 자술서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맹세했지만 중국은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진실은 마후린 대령이 좀처럼 속지 않는 중국인에게 말한 것에 분명히 더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군의 과거 실험에 관한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워진 디트릭 기지는 세균전 실행 수단으로 매개 곤충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곳 과학자들은 매개 곤충을 사용한 현장 실험이 성공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이 실험을 직접 수행했다. 따라서 헨리 카봇 로지 2세가 중국의 사악한 거짓말이라며 순진한 UN 총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은 미군이 세균전 수행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전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판명됐다.

1952년 봄, 중국의 세균전 주장이 더욱 강도를 높이자 당시 미 공군이 보안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A. F. 비니 대령이 지휘하던 포항(K-3)의 미 해병 33비행단은 평균 이틀에 한 번씩 '기밀' 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 3월 비니 대령은 항공대 정보부의 퀀셋 막사 일부를 막아 그곳에서 은밀히 조종사들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임무 이행 보고를 받았다. 그 다음달 후임자 M. A. 시버슨 대령은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기밀 물질을 파기할 때 '소각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폐품을 활용, 45갤런들이 낡은 기름통에 수많은 구멍을 내고 손잡이를 단 이 통은 비행단 정보 장교에 따르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41]

미 공군은 해병 조종사들의 일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시키고자 부심했다. 이 문제에 관한 보안 강화를 위해 미 극동사령부는 종전 후 세균전과 관련된 문서들을 기밀 또는 1급기밀로 취급할 것을 두 차례나 명령했다. 다음 주제들에 관한 문서는 일반인의 열람이 금지됐다.

특정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생물학전 수행과 관련한 군사 작전 상의 정책, 계획, 지시들…… 학명이나 발표에 의해 정체가 확인된 특정 활성 병원체나 그 독성 파생물이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위해 표준화됐다는 사실…… 활성 생물학전 병원체의 대량 생산과 관련된 생산 공정이나 시설물의 세부 내용.[42]

기밀 문서들의 은닉과 파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에 관한 일선 공군기지에서의 문서상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제5공군 정보참모본부는 고위 사령부가 다음날 폭격 계획을 입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정보를 취합해야 했다. 보고와 계획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승무원들이 폭격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면 비행대대의 보고실로 가서 규격화된 양식을 채워 부대 정보 장교에게 제출했다. 승무원과 구두 면담한 뒤 정보 장교는 손으로 작성한 양식을 송신병에게 넘겨주었으며, 송신병은 그 내용을 즉시 나고야로 전송했다. 나고야의 정보참모본부에서는 이 정보를 분석, 요약해 6쪽 분량의 '일일 작전 및 전략 요약' 이라는 등사 인쇄물을 만들었다. 이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 참모들은 텔렉스 사본에 주석을 달거나 그들이 갖고 있던 다른 정보나 목록을 근거로 특정 임무 보고서에 '기밀' 이라고 쓰거나 혹은 '보안, 제한' 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원본은 일선 공군기지에서 주의를 기울여 소각했지만 정보 장교들의 주석이 달린 이들 빛 바랜 텔렉스 사본은 비밀작전의 문서상 흔적으로 남아 있다. 그 중 상당수는 제5공군 문서보관소에 있으며, 나머지는 파기되거나 'B-5', 'D-5' 등의 기밀 봉투에 담긴 채 비밀 장소에 보관돼 있다.[43]

'일일 작전 및 전략 요약' 은 작전처장 J. L. 메이슨 대령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휘부의 동료들과 함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날 작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이른 아침 시각 나고야에서 한국의 대구(K-2)에 있는 제5공군 작전센터로 수송됐다. 회의 결과는 '작전 명령' 이라는 또 다른 등사 인쇄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문서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부분 명령') 각기 다른 부대에 전달돼 다음 24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매일 8백 회에 달하는 출격의 정확한 임무와 목표물을 지시했다.

'작전 명령' 중 140-52호에서 142-52호까지(1952년 5월 19~21일)와 153-52호(1952년 6월 1일)만이 공개됐다. 이 문서들은 당시 한국에서 제5공군의 명령 아래 작전을 수행한 제1해병항공비행전대 문서보관소에 있다. 이들 희귀 문서는 특정한 내용이 '제거' 되었지만 특히 퀸과 에녹이 속한 제3폭격비행전대에 내려진 지시들이 주목을 끌었는데, 맥락상 역사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증거로 내세우는 B-26기 출격이 맞는 증거인지 정황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한다.[44]

5월과 6월의 이 시점 작전 명령은 제3폭격비행전대의 B-26기 30대(각각 5백 파운드 GP[일반 목적] 폭탄 10개 이상 적재)에 야간 무장 정찰비행 임무를 부여해 북한 서부 특정 지역에서 차량과 열차를 찾아내 폭격하도록 했다. 이 B-26기들 중 4대는 전폭기들이 하루 종일 급강하 폭격한 철교나 철도가 있는 특정 지역으로 향했다. 야간에 4대의 B-26기는 수십 톤의 고성능 폭탄을 추가 투하해 철도를 완전히 끊었다. 후미 2대는 지연 폭탄을 떨어뜨렸고 마지막 1대는 공격 말미에 2발의 전단폭탄을 투하했다. 이것이 전형적인 폭격 패턴이었다.

예를 들어 5월 20일 제3폭격비행전대 소속 B-26기 4대에 내린 비

행 작전 명령은 다음과 같다.[45]

(c) 4 acft wkg P-3 w/drop internal bb load at rail cut area F-3 YD4744 to YD4846 last 2 acft w/b carrying max 500# GP bbs with 1 to 48 hr delay fuses w/last acft carrying two leaflet bbs. No. 8281 on last two stations.

이를 해석하면 평양 동북쪽의 Purple-3 목표 지역을 향하는 4대의 항공기들은 평양과 원산 간의 동서철도 1.5마일 구간을 적재한 폭탄으로 폭격할 것. 이 구간 철길의 정밀 지도상 좌표는 YD4744와 YD4846 사이다. 마지막 2대의 항공기는 지상 투하 1~48시간 뒤에 폭발하는 5백 파운드급 GP 폭탄을 최대한 적재할 것. 마지막 항공기는 8281호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내장한 2발의 전단폭탄을 적재할 것.

B-26기들의 이러한 폭격 유형은 생포한 미군 조종사 퀸과 에녹에 대한 심문과 그들 자신의 관측에 의거해 중국군이 묘사한 내용과 잘 들어맞는다.

중국은 세균전 공격이 B-26기에 의한 정규 폭격의 한 부분으로 수행됐으며, 세균에 감염된 깃털이나 곤충은 '불발탄' 또는 '어둠 때문에 시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등과 같이 보고된 5백 파운드 규모 전단폭탄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46] 이러한 공격의 목적은 폭격 지역을 감염시키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도 보급망을 복구하려는 복구 요원들의 작업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지연 폭발 폭탄은 '복구 노력 저지' 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47]

중국측 주장이 제기된 뒤 제3폭격비행전대 요원들은 공군이 생물학전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미 공군 특별조사실(OSI)

부관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어떠한 생물학전도 부인했지만, 그들 중 몇몇은 한국인에게 '파손된 철길에서 떨어져 있고 복구를 시도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하거나, '적군이 UN 관할 지역으로 투항하도록 안전 통행증'을 제공하는 전단폭탄(4천 피트 상공에서 투하)을 포함해 몇 종류의 폭탄을 섞어 항공기에 탑재했다고 확인했다. 1952년 1월부터 11월까지 제3폭격비행전대를 지휘한 윌리엄 G. 무어 대령은 세균전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며, '미 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군사 목표 인접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사상(死傷)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기 위해 전단폭탄을 투하했다'는 내용의 선서 진술서에 서명했다.[48]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1952년 5월의 실제 작전 명령(또는 확인 가능한 다른 날의 작전 명령)과 비교해 보면 공허하게 들린다. 1952년 5월 20일 Purple-3 목표 지역 내에 위치한 사인장 및 신원 마을의 한국인들에게 인도적 경고를 발한 시점은—그것이 진정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제49 및 제136전폭기비행전대 소속 F-84 급강하 폭격기 36대가 오전 7시 15분부터 10만 파운드의 엄청난 폭격을 퍼부은 후가 아니라 전이어야 했으며, 또한 그날 저녁 늦게 제3폭격비행단 소속 B-26기 4대가 폭격을 시작하기 전이어야 했다.[49] M105 전단폭탄에 실제로 생물학무기가 들어 있었다면 미국 작전 기획자들의 논리는 알 만하다. 전단폭탄을 마지막에 투하한 이유는 매개 곤충이나 감염된 깃털이 다른 폭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폭격이 끝난 뒤 복구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지연 폭탄마저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물체들을 목격했을 것이다. 미 제5공군은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열병이나 페스트에 걸린다 해도 대규모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보수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또한

표 4

미 공군의 한국전쟁 특별 임무

1952년 3월 1일~21일

날짜 1952	비밀 출격 출격 부대와 투입 항공기 유형			심리전 출격	총 출격 횟수
비밀임무 횟수	5공군과 관련 부대	5공군 제6167 AB비행단 '규슈 집시'	미 해병대 제33해병항공 비행단 2분견대	'규슈 집시' 제315비행사단 21비행대대	
3월 1일(2)	1(F4U)		1(AD-2)	3(C-47) 전단 1,130,000매 1(C-47) 육성 방송	633
3월 2일(4)	1(F4U) 1(RB26)	1(C-47)	1(AD-2)	7(C-47) 전단 2,455,000매 1(C-47) 육성 방송	671
3월 3일(3)	1(RB26)		1(AD-2) 1(F4U)	6(C-47) 전단 2,125,000매	767
3월 4일(3)	1(C-46) 1(B-26)	1(C-47)		13(C-47) 전단 4,680,000매	806
3월 5일(4)	1(F4U) 1(AD-2)		2(AD-2)	7(C-47) 전단 2,920,000매	653
3월 6일(3)	1(F4U) 1(C-46)		1(AD-2)	6(C-47) 전단 2,050,000매	748
3월 7일 —	기록 분실		—		—
3월 8일(2)	1(RB26) 1(C-46)			5(C-47) 전단 705,000매	109
3월 9일 —				8(C-47) 전단 1,910,000매	714
3월 10일(6)	1(F4U) 3(C-46) 1(RB26)		1(AD-2)	9(C-47) 전단 2,590,000매	835
3월 11일(2)	1(B-26) 1(C-46)			8(C-47) 전단 3,920,000매	931

3월 12일(3)	1(RB26)	2(C-47)		6(C-47) 전단 1,370,000매 1(C-47) 육성 방송	기록 불완전
3월 13일(3)	1(C-46)	2(C-47)		1(C-47) 육성 방송	기록 불완전
3월 14일 —	기록 분실				—
3월 15/16일(7)	1(F4U) 2(C-46) 1(B-26)	1(C-47)	1(AD-2) 1(F4U)	1(C-47) 전단 50,000매 1(C-47) 육성 방송	518
3월 17일(5)	1(F4U) 2(C-46) 1(B-26)		1(AD-2)	1(C-47) 육성 방송	804
3월 18일(6)	2(F4U) 1(RB26) 1(B-26)	1(C-47)	1(AD-2)	1(C-47) 육성 방송	480
3월 19일 —	기상 악화				239
3월 20일(2)		2(C-47)		3(C-47) 전단 1,635,000매	969
3월 21일(1)	1(RB26)			7(C-47) 전단 2,450,000매 1(C-47) 육성 방송	499
총: (56)				총: (103)	

출처: 한국전쟁 기간 5공군 임무 보고, 1952년 3월의 '일일 작전 요약 및 통계 요약', RD 3598, Box 7102, RD 3599, Box 7103, RD 3600, Box 7104, RG 342, NA; 미 해병대 제33해병항공비행단의 1952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작전 일지(3월에는 비밀임무가 잡다한 임무 'Miscellaneous Missions'로 기록되었다) No. 65A-4620, Box 58, RG 127, Suitland Records Center; 어니스 G. 톰슨 대위의 위대한 공수 작전: 전투 수송 이야기(The Greatest Airlift: The Story of Combat Cargo, 도쿄, 1954), pp. 413~417

★ '규슈 집시'에 대해서는 9장 참조; '규슈 집시'와 제6167비행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Stephen Pease, PSYWAR(New York, 1962), p. 61 참조.

나머지 노동자들을 공포에 질리게 함으로써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설령 M105 폭탄에 인도적 메시지와 경고를 담았다 해도 이 폭탄을 폭격 맨 마지막에 투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친 김에 미 공군이 선전용 전단 프로그램을 정말로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엄청난 작업이었다. '규슈 집시' 비행대대 소속으로 '공중 열차' 라고 불린 C-47 더글러스 수송기가 매일 밤 인도적 약속과 안전 통행증을 담고 있는 전단을 3백만 장이나 북한 지역에 살포했다. B-26 폭격기의 적재함을 가득 채운 폭탄 가운데 섞인 전단폭탄 2발로는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정도로 선전전에 양이 차지 않았을 것이다.

1952년 5월과 6월의 작전 명령 중 산악 지형이 많고 낙후된 북한의 동쪽 절반을 담당한 제17폭격비행전대(제452폭격비행전대와 교체된 부대)의 B-26기에 내려진 명령은 제3폭격비행전대에 전달된 것만큼 자세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세균전 의심을 유발할 만한 대목이 전혀 없다. 매일 저녁 33대의 B-26기가 '수송 차량과 열차를 최대한 파괴하고, 적의 이동을 막기 위한 야간 감시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정 목표 지역으로 출격했다.

그러나 당시 제17폭격비행전대가 나고야로 보낸 빛 바랜 텔렉스에서, 비록 모든 세부 사항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 정보 기관의 포로 심문 기록에 들어 있는 정보에 상당한 신뢰를 더하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7비행대대 폭격 항법사인 보비 E. 해머트 중위는, 중국군에게 얘기했듯, 실제로는 이 부대 정보 장교 중 한 명이었으며 폭격 후 보고 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12일 밤 동안 해머트 중위는 조종사인 제임스 거노 2세와 위치 측정 담당인 데이비드 E. 페니와 함께 9차례 야간 출격에 참가했다. 해머트와 페니는 같은 해 6월 7일 격추돼 포로로 붙잡혔다.

중국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진술했듯이, 그들은 비행대대의 기획 장교로부터 '사전 지시 받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사전에 지시 받은 이 대대의 계획이 세균전 임무였다고 중국인에게 말했다. 나고야로 보낸 텔렉스 임무 보고서에는 그들의 출격 목적이 기록돼 있지 않다. 그들은 수안(Green-7, 중국 인민지원군의 병참 병력 거점) 근처를 폭격한 뒤 그 중 셋을 '불발탄' 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한 시점은 자술서에서 밝힌 5월 24일이나 25일이 아니라 5월 28일이었다.[50]

이 즈음에 중국군은 제5공군 사령관으로 글렌 바커스 장군이 부임했음을 포로들로부터 알아냈다. 미 공군 문서보관소에 따르면 그의 부임과 동시에 제17폭격비행전대의 '불발탄' 수가 극적으로 늘어났다. 5월의 마지막 12일간에만 42발의 불발탄이 발생했으며, 그 중 절반은 제95비행대대가 투하한 것이었다.[51] '비밀', '제한', '보안 정보' 등의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간 도장은 '배구', '올챙이' 등으로 불린 레이더 통제 폭격 임무에 관한 텔렉스 사본에는 물론 일상적인 임무 요약 보고서에도 찍혔다. 어떤 조종사들은 그들의 무기를 '알 수 없는 폭탄' 이라고 적어 보고하기 시작했다.[52]

바커스 장군이 '보다 강도 높고 효율적인' 폭격을 지시하면서 1952년 봄과 여름에 비밀임무의 범위와 빈도는 공중전의 격화와 함께 더욱 늘어났다.[53] 포로로 붙잡힌 미군 조종사들의 자백을 근거로 한 중국 군사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이라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사기에 영

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들 나라 상공에서 비밀 전술 실험과 비밀 특수 작전을 실행했을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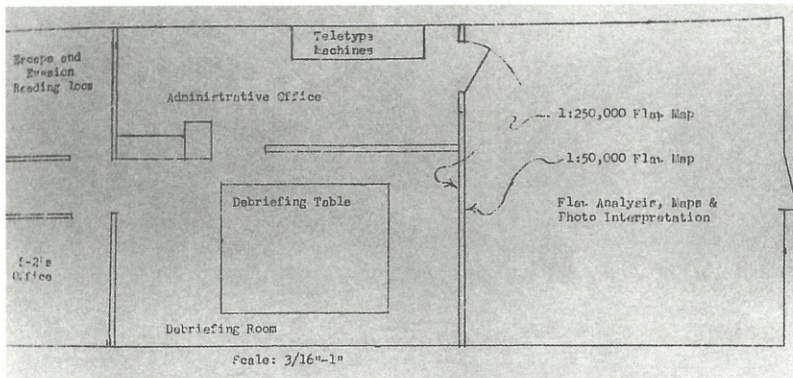
"비밀문서 소각용 기름통"

이 소각통은 한국 주둔 미 해병 33항공비행단에 의해 1952년 3월 만들어졌다.

Command Diary, April 1952, Appendix 2, Box 58, ACC No. 65A-4620, RG127

프랭크 H. 슈와블 대령

미 제1해병항공비행단장. 1952년 7월 격추돼 포로로 잡힘. 한국에서 미 공군의 세균전을 묘사하는 방송 출연 모습.

NCNA

포항 주둔 미 해병 33항공비행단 기지 내에서 정보 장교들이 사용한 퀀셋 막사의 평면도. 조종사들이 비밀리에 명령을 받고 보고할 수 있도록 1952년 4월 칸막이가 설치되었다.

MAG-33 Historical Diary, March 1952, ACC No. 65A-4620, Box 58, RG127, Navy Yard, Washington

북한 벽동의 제5전쟁 포로수용소
Photo No. 5832,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벽동 근처 압록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포로들
NCNA

命

對於持證投　　　　　　國籍，應本我軍
寬待政策，妥爲　　　　　之司令部，並切實
遵行下列四項保證：
1. 保證生命安全，
2. 不沒收私人財物，
3. 不虐待，不侮辱人格，
4. 受傷者給予治療。
此令

中國人民志願軍司令部關防

年　月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彭德懷

彭德懷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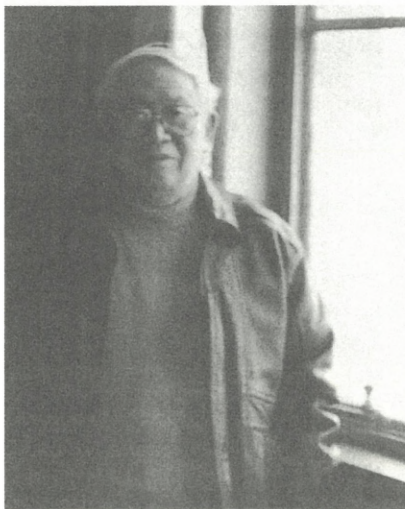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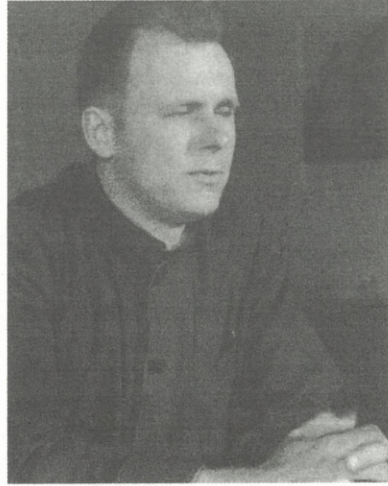
ORDER

The BEARER,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rank, is to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our policy of leniency to prisoners of war and escorted to the nearest local headquarters of the Korean People's Army or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He is to be guaranteed:

1. Security of life.
2. Retention of all personal belongings.
3. Freedom from maltreatment or abuse.
4. Medical care if wounded or ill.

KIM IL SUNG,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PENG TEH-HUAI,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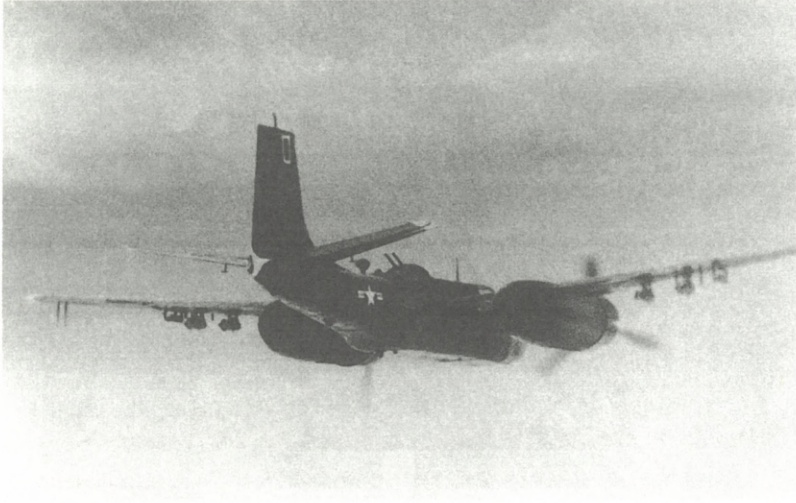
"한국에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려는 군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 통행증을 소지하였다."
People's China, 16 Dec. 1951

주춘 교수
1951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파견 중국 인민지원군 소속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정치 장교로 근무했다.
Photo by S. Endicott

제3폭격비행전대 소속 조종사인 **존 S. 퀸**(왼쪽)과 항법사인 **케네스 L. 에녹**은 1952년 1월 13일 밤에 함께 격추당해 전쟁 포로가 됐다.
NCNA

하워드 B. 히첸스 2세
제17폭격비행전대 항법사인 히첸스는 1952년 10월 29일 격추당했다.
NCNA

워커 M. 마후린
제4전투요격비행단 지휘관이자 조종사였던 마후린은 1952년 5월 13일 북한에서 생포됐다. 1953년 9월 송환되던 날, 아직도 가슴에 전쟁 포로 표지를 붙인 채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방 기자들과 포로수용소 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USAF, Korean War Series, Box 3048, RG 342, NA

한국에서 세균전 수행을 자백한 3명의 대령들. 1953년 9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는 사진이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워커 M. 마후린, 프랭크 H. 슈와블, 앤드루 에반스 2세.

국제과학위원회(ISC)가 중국평화위원회의 구오모로(가운데) 회장에게 중국과 한국에서의 세균전에 대한 진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장면. 구오모로 왼쪽에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조지프 니드햄.

Photo No. 6355,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Collection, Museum of Military History, Beijing

1952년 10월 10일 북한 상공의 미 제5공군 제3폭격비행전대 소속 B-26 폭격기
USAF, Korean War Series, Box 3002, RG 342, NA

12 결론

> 그 비난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유엔이 우리에게 부여한 한국에서의 신뢰 의무를 배반한 것이다.…… 세균전 실시를 명령할 위치에 있는 2명의 미국 고위 관리는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그런 주장에는 어떠한 진실도 없다고 말해 왔다.
>
> **월터 리프만, 워싱턴 칼럼니스트, 1952년**

>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펼쳤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당혹스럽고 수치스런 마음으로 당시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
> **조지 왈드, 노벨상 수상자, 1979년 3월 15일 편지에서**

냉전이 진행 중일 때 미국 정부는 생물학전 능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에는 소련이 주요 타깃이었다.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2차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총력전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전쟁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었다. 어떤 전략가들은 심지어 생물학전이 다른 많은 종류의 전쟁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적을 죽이기 위해 의학을 이용하는 이 도덕적 타협은 2차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우려를 야기했다. 그러나 냉전 초기의 분위기 속에서 정책 결정자들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했다. 베를린 봉

쇄, 중국 장제스의 몰락, 소련의 핵폭탄 실험 성공, 한국전쟁 발발 등 정치 ·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서구 문명을 구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군사적 수단이 정당화됐다.

1949년 미 합동참모본부는 생물학전을 비상 전쟁 계획으로 세워 놓았으며 만약 베를린 봉쇄가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그들은 생물학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 1951년 적잖은 논의 끝에 군사적으로 유익하다면 생물학무기를 선제 사용할 것이라는 정도로까지 발전했다. 미 합참은 생물학전을 핵 전쟁과 동일하게 최우선적인 전략적 선택 범주로 분류해 놓은 상황이었다.

합참 입장에서 보자면 생물학무기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전쟁 발발 시부터 사용될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은 1956년 3월까지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공식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들이 점차 생물학전에 적응해 갔고 1952년에는 생물학전이 미군의 사고와 훈련에서 중요한, 심지어 중심적인 요소가 됐다. 그들은 2년 내에 완숙된 작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주로 세균 병원체를 운반하는 현재의 방식이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생물학무기를 사용하지도, 실험해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논거를 들이댄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한국전쟁 동안 생물학전에 대한 기술적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는 많이 있다. 또 다른 주장은 한국전쟁은 제한전이 될 것이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비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지적 분쟁이 미국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전면전으로 확대됐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있다. 생물학전의 큰 이점은 적이 자연 발생적인 질병과 생물학전으로 인해 생

기는 질병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미군은 이를 믿고 있었다. 만약 생물학전이 탐지되더라도 미국은 적군 지역의 빈약한 위생시설 탓으로 돌릴 수가 있었다.[1] 또 미국의 생물학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반공연합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으로부터 자금 요청을 받고 있어서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무기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 투입할 자금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추정은 1951~1953년 생물학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영국과 캐나다가 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 왔고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현안으로 걸려 있었다. 아마도 우리들의 결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박은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이 한국전 기간 내내 '선제사용 금지 정책'에 의해 통제됐고, 이에 따라 적군이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2] 그러나 이것은 이에 반하는 문서상의 증거로 볼 때 지지받을 수 없는 주장이다.

'선제사용 금지' 논리를 내놓은 학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한다면 이와는 다르게 기술한 문서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문건들에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생물학전이 '오직 보복 차원에서만 사용'한다는 원칙에 의해 지배됐다고 쓰여져 있다.[3] 따라서 생물학전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놓고 미 정부와 군의 최고위층에서 벌인 이 논쟁('선제사용 금지'냐, '오직 보복 차원의 사용'이냐 등: 옮긴이 주)은 오해하기 쉽고 요약하기도 어렵다.

1956년 '선제사용' 입장이 공식적으로 채택될 때까지[4] 미국은 생

물학무기 사용에 관해 어떠한 공식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다른 2개의 정책에서 유추한 독트린이 있을 뿐이었다. 그 2가지 정책은 '오직 보복 차원'의 화학전 사용(1950년 2월 17일 채택), 대통령의 재가에 따른 핵무기 사용이었다.

한국전 동안 미 합참은 생물학전에 대한 공식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하다면 언제라도'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는 정책을 선호했다. 이것이 군의 관심을 자극하고 생물학전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식적인 정책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의 여론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그들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화학전은 그 특성상 특별한 범주로 분류됐는데, 미군 사령관들은 생물학전은 대중들에게 이 같은 특성이 '훨씬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정립된 생물학전 정책은 '당시의 화학전 정책과 단지 비슷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제한적이었다.'[5] 이런 개연성에 직면하자 그들은 공식적인 정책을 갖지 않는 게 더 실용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핵폭탄 사용을 지배하는 두 번째 유추(대통령의 재가에 따른 사용)에 의존하기를 선호했다.

1952년 2월 25일 로버트 러빗 국방장관의 압력에 따라 합참은 '지체 없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생물학전 능력'과 '이전의 사용 유무에 구애받음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효과적인 수단'의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합참은 이를 하나의 명령으로 시행하기 위해 참모들에게 '각 군에 내리는 지령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6] 이는 그(1952년

2월 25일) 이후 한국전 기간 동안의 생물학전에 대한 실무 정책이었다. 나중에 파기해야 할 '선제사용 금지' 정책이 아예 없었다. 군은 대통령의 재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태의 진전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생물학전에 대한 많은 미국측 문서들이 파기됐거나[7] 분실됐으며 아직까지 비밀로 묶여 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상세한 내용은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데 죽음을 다루는 이처럼 기괴한 유형의 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런 비밀을 예상할 것이다. 아마도 이 같은 은폐의 가장 적나라한 예는 한국전쟁 이후 생물학전에 관한 그들의 기록과 문서들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미 극동사령부의 두 번에 걸친 요청일 것이다. 우리는 화학부대의 기록들이 1969년 미 국립문서보관소로 최종 넘겨지기 전에, 극동사령부와 생물학전을 담당한 미국 내 정부 조직 사이에 1952년 주고받은 최소 19개의 '비밀' 급 통신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상세히 기록, 입증한 바 있다.[8]

그렇지만 이렇게 잘 개발된 생물학전 비밀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디트릭 기지에 있는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병원체와 그 운반 시스템을 생산, 그 창의력과 성공으로 극찬을 받았다.[9] 미 공군 본부들은 비밀 생물학전 작전—물론 다른 임무도 있었지만—을 감독하고 지시할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10] 그리고 이 특수부대는 특수 훈련을 받은 비행전대를 극동으로 보내 그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11] 이 부대에 대한 계획과 감독 업무가 최소한 1951년 1월 중순쯤에는 자리를 잡았고, 그에 따라 모든 종류의 세균전으로 활동 범위가 넓혀졌으며, 한국에서 전술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됐다. 1951년 2월 합참은 '전술적 사용을 위한 병원체가 정

말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병원체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라고 요청했다.[12] 1952년 이 특수부대는 공격용으로 세균무기를 시험, 생산할 것을 CIA와 합의했다.[13]

또한 합참에는 '생물학전 은폐 및 기만 계획'이라는 부분적으로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 있다. 문서들은 양동 작전과 기습을 위한 전통적 의미의 계획으로 은폐와 기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미군 사령관들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게 세균전 도입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두 장관 모두 배제시키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토론이 끝난 시점에서 그들은 국방장관에게만 알리고 국무장관은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미 상원 교회위원회 청문회에서 윌리엄 콜비 CIA 국장에 의해 논의된 바와 같이 '관련 부인' 독트린에 따라 국무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14]

위의 내용(관련 부인 등)과 이전의 사용 유무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효과적인 전쟁 수행 수단을 사용하라는 합참의 지시를 고려했을 때,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특히 휴전협상이 요지부동으로 지연되고 있던 시기에 북한군과 중국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미군의 생물학무기 실험을 억제할 정치적, 실제적 억지력이 부족했다는 징후가 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이 생물학무기를 실험했다는 확실하고 확인 가능한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 남아 있는 형태의' 미국 문서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 비밀 해제된 풍부한 자료들은 미국이 매개곤충과 기타 다른 생물학전 수행 수단을 사용했다는 중국군과 중국 공공보건 당국의 자료들에 강력한 확증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 역사가인 치더쉐 대령에 따르면 세균전 관련 루머에 대한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의 초기 회의론이 한국 파견 중국 42군에서 나온 의학적 증거들로 인해 점차 경계심으로 바뀌었음을 중국군 자료들은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15] 놀란 저우 총리는 미국이 세균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을 지지했고 경계를 발동했다. 또 한국으로 통하는 병참로 인근의 중국 지역에 공공보건기구를 조직했다.

그 당시 서구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의료 기술을 깔보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미국의 생물학전 주장을 증거로 제시한 중국과 북한의 의료진과 과학자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은 서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당수의 의료 과학자들이 서구의 주요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에 세운 의료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마오 정부 아래서 의료 학교들은 대중들에게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의료진을 공급하기 위한 단기 교육 과정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고등 교육을 받은 핵심 의료 과학자들과 의사들도 있었다. 비록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전문의들을 서구화된 부르조아 집단으로 불신하기는 했지만 서양 의학을 높이 평가해 계속 육성했다. 또한 서양 의학은 전염병으로부터 중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마오의 계획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했다.[16]

서구인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 과학자들이 거짓 선전 활동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때 그 일에 관여한 중국 과학자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의 확신은 중국 사회가 더욱 개방되고 중국 의학자들이 외국에서 일하고 여행하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17] 서구 과학자들이 곤충 표본을 수집한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었

겠는가?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ISC)의 조사 요원들은 이렇게 자문하면서 인터뷰와 조사를 벌인 목격자 수백 명의 증언들이 의심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서로 너무 일치하며, 너무 독립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18]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지프 니드햄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가 비록 중국 혁명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단 한 명만 소련권 출신일 뿐 나머지는 모두 서구에서 훌륭한 경력과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다.[19] 그들은 중립적인 사람이 적었던 시절에 활동했었다. 역사의 이면을 다룬 그들의 60쪽짜리 보고서—부록은 6백5쪽임—는 중국측 문서에 나타난 증거와 미군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비춰 볼 때 더욱 존경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결론만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전 동안 곤충과 다른 매개물을 이용해 생물학전을 실험했다는 북한과 중국의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마찬가지로 설득력 있게 재창조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실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국 현장을 다녀간 다른 두 방문자의 관찰을 허구라고 주장한 서구의 광범위한 캠페인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록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호주 외무부 장관을 지낸 존 버튼 박사와 중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여생을 그곳에서 보낸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G. 엔디콧 박사는 사람과 그 동기에 대한 노련한 관찰자들이다. 최근 비밀 해제된 캐나다의 세균전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들은 엔디콧 박사가 당시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캐나다 외무부 자료들을 보면 미국이 캐나다의 지원을 받아 중국 동북부에서 세균전을 벌이고 있다는 엔디콧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캐나다 당국이 외무부의 외교 연락망까지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20] 그 가운데에는 그가 중국 혁명 정부의 적극적인 동조자라는 이유로 그의 결론을 일축한 것도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반박은 미 국무부의 제안으로 캐나다 외무부가 포섭한 캐나다 과학자 3명이 제출한 보고서였다. 미국은 캐나다 정부가 엔디콧을 반역죄로 기소할 수도 있는 계획을 막기 위한 맥락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캐나다 과학자들은 한국 주둔 유엔군사령부의 미군 장교들이 엔디콧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을 반박하는 증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미군 장교들은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았다.[21]

캐나다 과학자 3명의 보고서는 중국측 보고서들에 나타난 것은 과학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폭로했으며[22] 캐나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비공산권 전역에 배포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과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캐나다의 세균전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아마도 그 프로그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23]

그러나 캐나다 외무부는 또한 정부의 생물학전 패널 회원이자 온타리오 주 킹스턴에 있는 퀸스 대학 생물학전 실험실 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인 G. B. 리드 박사로부터 네 번째의 과학자 의견을 조용히 이끌어 냈다. 저명한 과학자인 리드 교수는 2차세계대전 당시 생물학전 개척자로 입지를 굳혔으며 기록을 보면 캐나다 · 미국 · 영국의 공동 생물학무기 프로그램에서 매개 곤충 연구에 가장 크게 관여한 인물임을 알수 있다. 그는 한국전 기간 내내 미국과의 공동 프로그램에도 여전히 관여했다. 리드 교수는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군과 함께 근무한 북한군 의무부대가 작성한 실험 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 비행기가 질병을 퍼뜨리

기 위해 매개 곤충을 사용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리드는 약간의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증거들은 모두 있을 법한 것들이라고 결론내렸다. 리드 교수의 견해를 담은 보고서에는 외무장관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이 읽었다는 도장이 찍혀 있다.[24] 그의 보고서는 최근 비밀 해제될 때까지 그 자리에 비밀로 남아 있었다. 리드 교수는 피어슨이 북한 의무부대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피했다고 시사했다.

리드 교수의 공격적인 생물학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비밀스러웠고 깊이 묻혀 버렸다. 그 시기의 윤리적 측면을 보여 주는 한 편린이기는 하지만 그는 1947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회 국제미생물학회의에 캐나다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회의 대표들은 생물학무기를 비난하고 전 세계 미생물학자들에게 '그런 야만적인 방법'의 악용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갈채로 채택했다.[25]

1963년 말경 디트릭 기지 미 육군 생물학연구소의 전(前) 수석 곤충학자 데일 W. 젠킨스 박사는 1953년 이전과 중국이 비난을 제기한 시점 이전에 "미국은 절지동물을 생물학전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26] 그러나 미국의 문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준다. '곤충에 의한 생물학전 병원체 살포' 프로젝트(디트릭 기지 프로젝트 No. 411-04-004)에 참가한 사람들은 1951년 3만4천6백17달러를 썼고 1953년까지 16만 3천 달러의 예산을 갖고 있었다. 생물학전의 병원체로서 모기 매개충과 뇌척수염 바이러스에 관한 또 다른 프로젝트(No. 411-02-041)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함께 실시됐는데, 1951년 14만 7천9백5달러를 사용했고 1953년까지 38만 달러 이

상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27] 게다가 미국은 캐나다 퀸스 대학의 리드 교수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수행한 캐나다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매개 곤충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중국이 미국판(版) 중립국 조사단을 거부한 그 시기에 많은 것들이 이뤄졌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북한과 교전 중인 유엔의 기구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회원인 스위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차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가스 수용소의 존재를 위원회 대표단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는 등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 재임한 ICRC 위원장은 2차세계대전 당시 ICRC 위원이었다. 게다가 새로 비밀 해제된 기밀 문서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제적 조사를 제안했을 때 이 제안이 솔직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 국방부는 벤저민 코헨 UN 대사에게 "미국이 한국에서조차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미 극동 사령관 매튜 리지웨이 장군은 적십자사 조사단이 구성될 경우 그들이 특정한 정보원(源)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리에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헨 대사는 유엔 앞에서 미국은 "그런 문제를 숨기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개방 정책 추구를 선언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비난을 퍼부었다. 생물학전에 관한 캐나다 외무부 서류철의 한 문서는 국제적십자사가 직접적인 정보 없이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의 보고서를 준비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28]

미국의 폴 카셀 교수는 1983년 『스탠포드 법률 평론』에 기고한 글

에서 대심(對審)제도가 국제법 위반 성립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29] 그는 사례 연구로 한국전쟁 동안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생물학전 비난을 선택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동정적인 저명한 서양 법률가 집단의 지원하에 정치적으로 동정적인 유명 서양 과학자들로 구성된 기구들을 찾는 일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국제법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지원이다. 우리는 국제과학위원회(ISC)와 국제민주변호사협회(IADL)가 발견한 것들을 단순히 선전으로 치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한발짝 물러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국제 정의는 항상 전쟁의 열광에 희생됐다. 그러나 법학자인 카셀은 전쟁이 끝난 오래 뒤 양쪽의 증거를 모아 평가한 결과 미국의 범죄 행위를 보여 주는 정황적 증거(비록 그가 집필할 당시 그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미국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미국의 정책이 총력전으로 이동하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미국은 2차대전과 한국전 동안 전략 폭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무시했고, 이후 1956년 개정된 미 육군 '지상전 교전 수칙'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무제한적 폭격을 쉽게 용인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전략적 폭격의 범위를 확대했다.

니드햄 박사가 이끄는 국제과학위원회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받아 서방 세계에 건네준 자료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생물학무기 프로그램, 미국이 확보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보다 긴 역사적 안목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증거는 그 당시의 일부 회의론자들의 견해를 변화시켰다. 나중

에 니드햄 보고서에 존경심을 표시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생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하버드 대학 생물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故) 조지 왈드 교수가 들어 있다. 그는 우리에게 사적으로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전했다.

> 나는 그 신문 기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중국에서 세균 전쟁을 벌였다는 생각을 전면 거부했다. 조지프 니드햄은 국제과학위원회 위원 중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공산주의에 편향됐다고 믿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증언에 대해 세상 물정에 어둡고 암시에 쉽게 감응하는 그의 성향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나는 이제 당혹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니드햄은 훌륭하고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며 기념비적인 학자이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펼쳤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당혹스럽고 수치스런 마음으로 당시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30]

아마도 국제과학위원회가 직면해야 했던 가장 어렵고도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는 미국이 질병을 퍼뜨리기 위해 파리와 모기, 벼룩과 다른 절지동물 등 곤충을 사용했고, 세균을 품은 곤충들이 미군의 공습 이후 대량으로 매우 비정상적, 비자연적인 환경과 기상 조건에서 나타났다는 중국측의 불평이었을 것이다.[31] 나중에 이에 대한 미국의 '관련 부인'은 중국군에 전쟁 포로로 잡혔던 미 공군 워커 M. 마후린 대령의 '벼룩, 파리, 모기'가 세균을 퍼뜨리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그 가능성[32]에 대한 조롱에서부터 디트릭 기지의 전(前) 수석 곤충학자였

던 데일 젠킨스의 이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젠킨스는 곤충들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적었지만, 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 생물학전쟁을 위해 절지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33] 이런 결백 주장과는 모순되게 그 이후 공개된 미국측 문서는 1942년과 그 이후 계속해서 미 정부와 캐나다, 영국 등 미 동맹국들이 생물학전을 목적으로 벼룩과 파리, 모기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그것이 성공적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34]

이런 곤충들이 질병 매개물로서 생존 가능하다는 중국의 주장—국제과학위원회가 이를 지지했다—은 '전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다. 미국의 부인은 거짓이고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다. 중국이 제기한 또 다른 비난은 감염된 깃털이 질병을 퍼뜨리고 지역을 오염시키기 위해 미군기로부터 투하되었다는 것이다.[35] 1952년 당시 중국이 알 수 없었던 미 국방부의 1급기밀 문서들은 이런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이 문서들은 칠면조 깃털이 농작물은 물론 적군의 군사 지원 장비와 보급품들을 오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생물학무기 체계에서 표준화된 세균 매개체였음을 드러내고 있다.[36]

또한 미국이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했던 질병의 종류와 중국이 1952년 봄 미군 공습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질병들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새롭게 공개된 중국측 문서는 중국 의료진들이 어떤 특이한 병과 갑작스런 죽음들에 대한 진단을 확신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것들로부터 미국의 세균전 실험에 사용된 병원성 미생물들이 페스트, 탄저균, 수막염, 뇌염, 발진티푸스, 재귀열, 콜레라, 파라티푸스, 살모넬라 등이

었음을 확신하게 됐다.[37] 이런 모든 질병들(다른 것도 더 있다)은 생물학전의 잠재력으로 미국 과학자들이 연구, 검토해 온 것들이었다.[38]

중국과 북한의 관찰에 따르면 감염된 곤충과 깃털,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菌類)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와 폭발하지 않는 물체, 종이 다발, 5백 파운드짜리 일반 폭탄과 크기가 같은 공중에서 터지는 전단폭탄('M105'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음)[39], 실크 낙하산이 달린 마분지 통, 종이 낙하산에 매달려 스스로 터지는 종이 컨테이너, 원통 모양의 자기 · 계란 껍질 컨테이너 등이었다.[40]

미국측 문서는 분무형 방식과 전단폭탄이 1952~1953년 동안 공공연하게 진행된 생물학무기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비밀 프로그램은 판별하기 어렵지만 광범위한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실험됐다. 훗날 디트릭 기지 연구 개발 부서의 기술국장이 된 시오도 로즈버리 박사는 일찍이 1942년에 매개 곤충의 운반 수단으로 종이 다발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나중에 북한과 중국이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41] 그는 1947년 과거 기밀로 분류되었던 1942년의 연구 결과를 공동 저술해 출간했을 때도 이런 관심을 반복해 보였다. 거기에서 그는 그동안 병원 매개 곤충의 개발과 운반 시스템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화학부대 기록의 한국전쟁 시기 서류철에는 원통형 판지(또는 종이) 컨테이너 사진이 있는데 이는 일본이 개발한 매개 곤충과 설치류 숙주를 담을 수 있는 낙하산 종이 컨테이너 폭탄과 딱 들어맞는 형태다. 기록에는 '비밀' 이라는 표시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았다.[42] 중국측 출판물에는 니드햄 박사가 낙하산 종이 컨테이너 폭탄 옆에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는 미국측 자료의 사진과 닮았다.[43]

또한 미 육군이 일본 이시이 장군과의 커넥션을 통해 세균 살포 방법을 배웠다는 정보가 있다. 미국 정부는 비록 오랫동안 이 같은 커넥션을 부인했지만 1992년 비밀 해제된 이시이에 관한 극동사령부의 극비 문서는 미 육군이 이시이와 일본 731부대 요원 20명을 심문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들을 상대로 벌인 생체 생물학전 실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다. 그 결과 미국은 '이 실험의 모든 세세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게 됐다.' 1947년 초 미군 사령부는 '이시이의 소재 및 활동에 관한 정보는 극비이며 그의 소재와 활동에 관한 어떤 정보도 외부 기관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는 명령을 내렸다. 이시이와 그의 동료 전범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미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보호' 를 받았다.[44]

미국이 한국에서 생물학무기를 실험했음을 확인해 주는 수많은 정황적 증거의 흔적들이 있다. 생물학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정교한 비밀작전이 존재했었다는 점; 병원균을 품은 곤충의 생산(미국측)과 그 뒤 이 곤충들이 동북아시아에서 발견된 점(중국과 북한측); 감염된 가금류의 깃털이 준비됐고(미국측), 폭탄이 떨어진 인근에서 이것들이 출현한 점(중국); 배양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미국측)와 진단된 질병(중국과 북한측) 사이의 일치점; 분사식, 비폭발식 물체, 전단폭탄, 원통형 판지와 같은 특정 무기의 제조(미국측)와 이와 동일한 것들의 발견(중국과 북한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육군과 일본 생물학전 전문가들 간의 커넥션으로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중국은 단언했으나 그 뒤 사실로 드러난 점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미국 고위 지휘부의 다음과 같은 확고한 정책이 있었다. 즉 공격적인 생물학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이전의 사용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효과적인 전쟁 수

행 수단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추정하듯 공산주의자들이 선전 목적으로 꾸며 낸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작전이며 그 자체가 엄청난 내적 논리를 갖고 있다.

다른 것도 더 있다. 생물학전에 참여했다고 자백했다가 귀환한 포로들을 다룬 미국의 방식이 미국의 '유죄' 인상을 더욱 짙게 한다. 포로들의 자백은 중국에게는 생물학전에 대한 강력한 확증이었으나 미국에는 미묘하고도 난처한 문제였다. 미 정부 최고위층은 선전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45]

미 국무부는 캐나다 정부에 한때 중국에서 죄수로 수감되었던 캐나다인들로부터 중국이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사용한 '육체적 폭력'과 '미묘한 형태의 압력'을 묘사하는 진술서를 받아내 달라고 두 번이나 요구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두 번 모두 이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유는 중국에서 투옥된 캐나다 선교사들로부터 받아 낸 이들 진술서에는 '중국인에 의한 지속적이고도 고의적인 학대'에 대한 불평이 없었기 때문이다.[46]

미국 심리전전략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공산주의자의 사상 주입 및 자백 강요 방법의 심리 이용 계획'을 주제로 연구하면서 포로들의 자백을 받아 내는 중국의 방법들에 대해 사악한 느낌을 주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언론에 자료를 공개할 때 '세뇌(brainwash)'라는 단어를 선택했다.('정신 살해' menticide라는 단어는 의미가 너무 강해 오히려 중국측의 주장에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47] 그러나 1953년 봄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 포로를 위한 국가 헌신의 날'을 제안했을 때 위원회는 그런 제안이 역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주의를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한국에서 생물학전 폭탄을

투하했다고 자백했던 미국의 전쟁 포로들을 유엔에 세워 자신들의 얘기를 말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경고를 줬다. 실무위원회는 이런 적극적 제안에 대해 몇가지 주의를 줬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자백을 한 미군 포로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얼마나 강한 압력을 받았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 포로들이 중국쪽 선전 영상물에 나와 증언한 내용대로 유엔 앞에서 얘기할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48] 실무위원회는 대신 '우리 포로들로부터 거짓 자백을 유도한 적들을 비난하고 생물학전을 다시 한 번 부인하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보도물을 배포하자고 제안했다.[49] 나중에 미 정부가 유엔에 가져간 것은 군사법정에 세우겠다는 위협 아래 포로 8명에게서 받은 철회 진술서였는데 심리전전략위원회는 그런 조건 아래서 얻어진 철회 진술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봤다.[50] 그 이후 미 국방부는 자술서를 쓴 조종사들을 비하했고 '버틴 친구들을 높이 샀다.'[51]

조종사들의 구체적인 자백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 생물학무기 프로그램과 대조해 봤을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대부분의 포로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감금돼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두들겨 맞거나 자신들의 진술서를 채울 정보를 제공받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미 육군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미군 전쟁 포로들의 고도의 협력과 관련해 세뇌는 쟁점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국제과학위원회(ISC)는 한국과 중국에서 조사 활동을 마치면서 아주 많은 사실들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매우 시사적인 것으로서 긴밀히 결부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들에 노력을 집중한 뒤 이 위원회의 남녀 구성원들은 이성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과 중국의 인민들이 정말로 생물학무기들의 대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이들 무기는 미군 부대들에 의해 아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용되었으며 이들 수단 가운데 일부는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것을 미군이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보였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니드햄 박사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여러 나라 국민들로부터의 광범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인륜적인 기술이 실제 행해졌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가운데 그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과학적 발견이 인류를 파괴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52]

위원회의 이 같은 정서는 역사를 관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전쟁과 정부 정책, 공공 윤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조지프 니드햄이 호소한 지 반세기가 지난 이제 우리들은 미국이 냉전 초기에 수행한 생물학전 정책의 블랙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비밀 해제된 문서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무심결에 도덕적 문제들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공공 책임의 위험을 회피했으며, 생물학전을 공격적인 군사 전략으로 세웠는지를 보여 준다.

미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모든 구체적 사안 바로 밑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미국은 왜 한국전에서 그것을 사용했는가? 우리가 내놓는 주장은 이렇다. 한국에서의 미국의 전쟁 경험은 초토화 전술, 방화, 한국 국경 내에서의 총력전 전략 등을 용인하는, 심지어는 전쟁범죄들도 용인하는 군사 문화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를 조장하는 요인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리지웨이 장군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보여 준 도덕적 확신이라는 상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는 이 메시지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느님은 미군 편이라고 암시했다. 이런 확신이 미군을 윤리적 장님으로 만들고, 또 뿌리 깊은 민주주의적 문화를 가진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도덕적 합의에 반하는 수상한 활동들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상의 보안과 기만을 가능케 했다. 두 번째는 미군은 네이팜탄, 원자폭탄, 생물학무기 및 월등한 무기 운반 체계와 통신 수단 등 적군의 보복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인도주의적 한계를 넘어 총력전을 기꺼이 치르겠다는 의지를 조장했다. 또 다른 요인은 인종적 편견으로 이방인을 쓰레기 취급하며 인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미군은 한국인을 '누렁이'(gooks), 중국인을 '떼거리'(hordes)로 불렀다.

마지막 요인은 두려움이었다. 바로 서구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우월성 그 자체가 도전받고 있던 시대에 미국의 군,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보다 더 큰 불확실한 충돌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적을 약화시킬 효과적인 수단을 찾지 못한다면,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부 장관의 말마따나 '적을 가르칠 수 없다면' 전쟁 이상의 것을 잃을지도 몰랐다.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사태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총력전으로 어쩔 수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짧은 기간에 미국 정책 결정자들과 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생물학이 원자폭탄에 비해 많은 측면에서 우월한 새로운 슈퍼 무기를 제공할 것이며, 미국에게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줄 것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미 국방부가 생물학

전을 위한 '충격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2차세계대전으로부터 형성된 군, 민, 공공 부문의 폭넓은 연대를 어떻게 되살리고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서부터 풀려야 한다.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임무는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비상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데올로기, 두려움, 인종주의, 권력, 이윤, 과학과 전쟁의 새로운 미개척 분야에서 얻게 될 기회에 대한 본능적 흥분 등 복잡하게 얽힌 동기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료 사회 내부의 논리는 초기의 전망 위에 서 있었다. 그것은 연구 개발, 전략적 개념, 군사 계획, 작전 구조 등이 극도로 파괴적인 무기를 찾아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한국전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가운데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전략공군사령부는 세균무기를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 계획으로 세웠고, 전술 및 전략 공군사령부는 둘 다 지상군에 대해 생물학무기를 사용한다는 최우선 순위의 전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 공군은 비밀 생물학전을 위한 작전 체계를 갖추고 극동에서 비밀작전을 위한 1개의 비행전대를 완비했다. 이런 압력들과 능력들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한국, 중국 등에서 얻은 정황적 증거들에 더해져 우리는 미국이 한국전에서 마지막 단계로 비밀리에 생물학무기를 실험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역사와 한국전쟁에서의 실험 그리고 이때 발생한 것들에 대한 미국측의 끊임없는 발뺌과 비밀 때문에 한국전은 공공 윤리와 전쟁 수행에 관한 계속되는 논쟁의 살아 있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 비밀은 여전히 이 시기를 휩싸고 있다. 또 미국이 1972년 생물학전에 반대하는 국제협약을 최종적으로 비준했지만 그 성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77년 상원 보건과학연구 소위원회의 '미 생물학전 프로그램에서 미 육군의 활동'에 관한 청문회에서 위원장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진실을 감추지 말 것을 촉구하는 개회 성명을 발표했다. 소위원회에 제출된 육군 보고서는 한국전쟁 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은폐와 역사적 오보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자료 중 하나로 판명됐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군부가 상원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일부 역사가들을 포함해 대중들을 오도했다.

세계 제일의 군사 대국 미국의 행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생물학무기 감시자 중 한 사람인 프린스턴 대학 리처드 포크 교수는 1989년 "생물학전 개발에 대한 압력과 기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53] 은폐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지식과 역사적 통찰력을 갖게 되면 대중과 정책 결정자는 과거 냉전 초기의 열기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생물학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공개돼 치유의 과학이 두 번 다시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도록 의사와 과학자, 대학들이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전 기간의 기만 기록과 '관련 부인'은 20세기 후반부 50년 동안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많은 고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례가 됐다. 우리는 이러한 선례가 미래 세대로 하여금 국제적 긴장의 시대에 제기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특별한 호소에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자극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부 록

■ 부록 1

합동심층연구위원회가 합참에 보고한 생물학전 비망록

■ 부록 2

미 공군 생물학전 프로그램 지침

■ 부록 3

파기된 증거

■ 부록 4

M105: 전단폭탄 그리고/또는 세균폭탄?

APPENDIX 1

U.S. Joint Chiefs of Staff on Biological Warfare

TOP SECRET
J.C.S. 1837/26
21 September 1951

MEMORANDUM BY THE JOINT ADVANCED STUDY COMMITTEE

CONCLUSIONS

"3. BW possesses a great potential as a weapon of war.

"4. National security demands that the United States acquire a strong offensive BW capability without delay. A sound military program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ll effective means of waging war without regard for precedent as to their use.

"5. A more vigorous test program including large-scale field tests should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specific BW agents under operational conditions.

"6. BW is distinctive as a weapon in that it does not destroy structures or property. The use of such a weapon would greatly simplify certain postwar economic rehabilitation problems.

"7. If low production costs of BW agents can be realized, a partial solution may be offered to the acute need of maintaining a strong military posture for long periods without jeopardizing our economic structure. Further, the achievement of a BW capability may not compete with the procurement of our present weapons systems.

"8. The small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in the Services who are interested in, or accurately informed about, BW should be increased by establishing a BW indoctrination course.

"9. The adoption of a positive military policy to the effec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prepared to employ BW whenever it is militarily advantageous would serve to stimulate Service interest in the BW field and accelerate its development."

Approv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25-26 February 1952(J. C. S. 1837/29), RG218, National Archives

부록 1

합동심층연구위원회가 합참에 보고한 생물학전 비망록

(130~134쪽 참조)

극비

합참 1837/26

1951년 9월 21일

합동심층연구위원회의 결론 비망록

3. 생물학전은 전쟁 무기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4.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체 없이 강력하고 공격적인 생물학전 능력을 갖춰야 한다. 견고한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전의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효율적인 전쟁 수행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5. 작전 상황하에서 특정 생물학전 병원체들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야외 실험을 포함해 보다 활발한 실험이 실행되어야 한다.

6. 생물학전은 시설물과 재산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 같은 무기의 사용은 몇몇 전후 경제 복구 문제들을 아주 단순화시킨다.

7. 만약 생물학전 병원체의 낮은 생산 가격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경제 구조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강력한 군사적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에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생물학전 능력의 보유는 현재 우리의 무기 획득 시스템과 경쟁 관계가 아닐 것이다.

8. 생물학전 교육 과정을 설립함으로써 생물학전에 관심 있거나 정확히 알고 있는 군 내부의 소수 인력들을 늘려야 한다.

9. 미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하다면 언제라도 생물학전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군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생물학전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생물학전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952년 2월 25~26일 합참이 승인.(합참 1837/29), 국립문서보관소, RG218

APPENDIX 2

U.S. Air Force Biological Warfare Program Guidance

SECRET

SECURITY INFORMATION

AFOPD-PW 17 March 1953

MEMORANDUM FOR: CHIEF, WAR PLANS DIVISION
CHIEF,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SUBJECT: (UNCLASSIFIED)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1.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actions concerning BW and CW within the Directorate of Plans will be as follows:

a. The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will direct and supervise covert operations in the scope of unconventional BW and CW operations and programs an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BW and CW.

b. The War Plans Division will:

(1) Prepare and disseminate general Air Force BW and CW policy and program guida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as applied to 1a above.

(2) Integrate capabilities and requirements for BW and CW into war plans.

(3)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of munitions requirements for BW and CW to impelement approved plans.

2. The functions outlined in paragraph 1b (2) and (3) above were previously assigned to the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Transferral of these functions to the War Plans Division will proceed in a manner so as not to interrupt the activities of the Directorate in these matters.

3. This directive will supersede previous instructions on this subject with which it may conflict.

ROBERT M. LEE
Major General, USAF
Director of Plans

C
O
P
Y

SECRET

SECURITY INFORMATION

U.S. Air Force Operations, BW/CW General Decimal Files for 1953, Entry 199, Box 5, File 337-385, RG341, National Archives

부록 2

미 공군 생물학전 프로그램 지침

(183쪽 참조)

비밀

보안 정보

1953년 3월 17일

비망록 대상: 전쟁기획국 책임자
심리전부대 책임자

주제: (기밀 사항이 아님) 생화학전

1. 전쟁기획국 간부진 내에서 생화학전과 관련, 작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심리전부대는 비재래식 생화학전 작전 및 프로그램, 생화학전의 심리적 측면 등의 범위 내에서 비밀작전을 지도 감독한다.

b. 전쟁기획국은

(1) 일반적인 공군 생화학전 정책과 프로그램 지침을 상기 1a에서 적용된 대로 심리전부대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확산시킨다.

(2) 생화학전 능력과 필요 요건을 전쟁 계획으로 통합한다.

(3) 상기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 생화학전에 요구되는 군수품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2. 위의 1b (2)와 (3)에서 약술된 기능들은 이전에 심리전부대에 할당됐었다. 이 기능들의 전쟁기획국으로의 이동은 이 문제에 대한 전쟁기획국 간부진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 이 지령이 이 문제들에 대해 이전에 내렸던 지시와 상충될 경우 이 지령이 우선한다.

로버트 M. 리
미 공군 소장
전쟁기획국장

비밀

보안 정보

사본

APPENDIX 3

Destroyed Ev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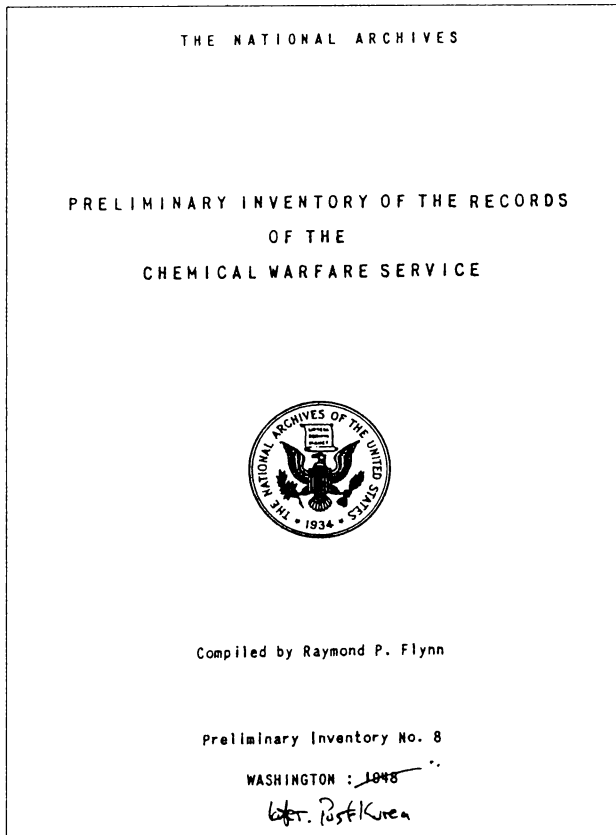
THE NATIONAL ARCHIVES

PRELIMINARY INVENTORY OF THE RECORDS
OF THE
CHEMICAL WARFARE SERVICE

Compiled by Raymond P. Flynn

Preliminary Inventory No. 8

WASHINGTON : ~~1948~~

[illegible]. Post Korea

Preface to records of the Chemical Warfare Service, accession lists for 1949–1954 files, "Preliminary Inventory No. 8," compiled by Raymond P. Flynn, RG175 Indexes, v. 1, Accession 67A4900, National Archives

부록 3

파기된 증거

(260～261쪽 참조)

국립문서보관소

화학전부대 기록 예비 일람표

레이먼드 P. 플린 엮음

예비 일람표 No. 8
워싱턴: ~~1948~~
[illegible] Post Korea

"이 리스트는 미 육군이 작성한 것이며 기록들은 1956년 기록센터로 이송됐다. 이 기록들은 수납 서류들에 첨부됐으며 1956년에 드러난 것처럼 수납 문건들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1956～1969년 사이 몇몇 자료들이 육군에 의해 회수됐으며 다른 것들은 파기됐다. 이 기록들은 1969년 국립문서보관소에 의해 영구 수납됐다."

화학전부대 기록 자료들의 서두. accession lists for 1949-1954 files, "Preliminary Inventory No. 8," compiled by Raymond P. Flynn, RG175 Indexes, v. 1, Accession 67A4900, National Arch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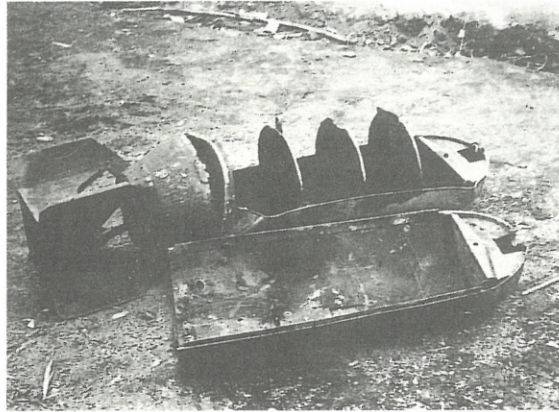
APPENDIX 4

M105: 전단폭탄 그리고/또는 세균폭탄?

(263~268쪽 참조)

중국의 항의

"1952년 봄 중국은 미 공군 제3폭격비행전대가 모델 번호 M105, 5백 파운드짜리 전단폭탄을 이용해 생물학전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People's China, No. 7(1 Apr. 1952), No. 10(16 May 1952)

M16 전단폭탄과 유사한 M105 폭탄 NCNA PHOTO

무어 대령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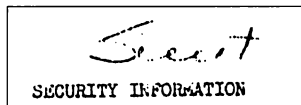
군번 AO 418054, 윌리엄 G. 무어 대령은 1953년 3월 23일 미 공군 감찰감에게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 자신이 1952년 1월 17일부터 그해 11월 29일까지 제3폭격비행전대장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그들은 전단 살포 임무를 띠고 출격했다. 목적은 미 공군의 공격 대상인 군사 목표물 인근 지역에 있는 비(非)전투원에게 경고하고, 그럼으로써 민간인들에게 부상과 사망으로부터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미 공군이 한국에서 생물학전에 참가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 1953년 4월 22일 미 공군 본부 감찰감 특별조사국

제3폭격비행전대 공격의 실제 양상

미 공군 기록들은 급강하 폭격기 전대가 낮 동안 온종일 폭격한 뒤에('이전'이 아니다) 제3폭격비행전대가 밤마다 2개의 M105 '전단폭탄'을 철로 인근에 있는 마을과 수비대 인근에 떨어뜨렸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무어 대령의 '설명'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1952년 5월 작전 명령 141-52 [발췌한 내용임]

제5공군 사령관의 명에 의거한 비밀

공격 목표 F-3: 북한 사인장 마을 근처의 1.5마일 구간 철로(지도상 좌표는 YD4744에서 YD4846)

예하 부대의 임무:

I. 제136전폭기비행전대는 공격 목표 F-3을 공격하기 위해 F-84 항공기 24대를 보낼 것이다. 8대 중 3대는 07시 15분, 12시 25분, 18시 40분에 각각 공격한다.

J. 제49전폭기비행전대는 13시 20분에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12대의 F-84 항공기를 보낼 것이다.

K. 제3폭격비행전대는 지속적인 야간 공격을 위해 B-26 폭격기 30대를 보낼 것이다. 이 중 4대는 공격 목표 F-3을 공격한다. 마지막 2대는 1~48시간 내에 터지도록 지연 신관을 장착한 5백 파운드짜리 일반용 폭탄을 최대한 실을 것이며, **이 중 마지막 비행기는 2개의 전단폭탄을 탑재할 것이다.**(이런 강조점이 표기돼 있다)

출처: Declassified by DOD DIR 5200.10, 1st Marine Air Wing Records, Box 8, RG 127, NA

폭격기 임무 보고서 및 질문 [발췌한 내용임]

임무 수행 일자: 1952년 5월 20/21일

목표물 공격 시간: 02시 33분(마지막 비행기임)

목표물: YD4744에서 YD4846, 철로

무기: 5백 파운드짜리 M64 지연 폭탄-4개

1백 파운드짜리 M47 즉발 폭탄-4개

5백 파운드짜리 M105 전단 깡통-2개

제3폭격비행단 임무 번호 3-176433

항공기 유형: B-26. No. 325

조종사: 매드슨 항법사: 키건

사수: 샹키

임무 유형: 이미 설명했음

19. Acft No Pilot Nav Bombardier VO Eng Gunner
325 Madsen Keegan Shanke
19. Interrogator's name Hawkins A2/c
Time and date completed 21 May 52 0535

질문자 성명: 호킨스, A2/c

질문 마친 시간: 1952년 5월 21일 05시 35분

출처: 제5공군, 한국 임무 보고서, 제3폭격비행단, Box 149, RG 342, 국립문서보관소

주석

1장. 한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통증과 열병

1. 존 버튼(John Burton)이 스티븐 엔디콧(Stephen Endicott)에게 보내는 편지. 1997년 4월 12일.
2. 리드 박사(G. B. Reed,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 소재 퀸스 대학의 생물학전 실험실 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가 레스터 B. 피어슨(Lester B. Pearson)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Communist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secret), enclosure in *Escot Reid*, Memorandum for the Minister, 15 May 1952, File 50208-40, Pt. 2, Vol. 5919, RG 25, National Archives of Canada [NAC].
3. 랴오닝성 문서보관소(선양). Volume 43, long-term preservation, Northeast Patriotic Health Campaign Committee, Reports of the Research Group of the Northeast Epidemic Disease Prevention Committee, Reports of Group Report [hereafter cited as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7, 21 Apr. 1952, "Bacteriological Examination Results." 다른 기록으로는 이와는 약간 다른 설명이 있는데 중앙문서보관소(베이징)를 볼 것. Volume 343, Office of the Northeast Bureau, "Report from the Rehe Provincial Party Committee to the Northeast Bureau and Various City, County, and Banner Party Committees on the Occurrence of Anthrax," 5 Apr. 1952.
4.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4, 10 Apr. 1952, "Recent Case of Anthrax."
5.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9, xx May 1952, "Bacteriological Examination Report," and No. 16, xx Apr. 1952, "Recent Discovery of Anthrax Patients." See Also Appendix AA, pp. 361-416, with photographs, in Joseph Needham et 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61 pp. plus 600 pp. of appendixes (Peking, 1952) [hereafter cited as Needham Report (1952) after its principal author, Dr. Joseph Needham,

FRS, biochemist, Cambridge University].

6. Liaoning Archives, Volume 43, long-term preservation, Northeast Patriotic Health Campaign Committee, Daily Reports of the Northeast Region Epidemic Disease Prevention Committee [hereafter cited as Liaoning Archives, Daily Reports], Daily Report No. 13, 16 Mar. 1952, "Luda City Epidemic Disease Prevention Committee Reporting at Midnight of 15 March." 저우언라이 총리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일 보고서를 받아 보았다. 이는 1950년대 베이징에 있는 중앙 당정 문서보관소장을 지낸 선정글러(Shen Zhengle)가 알려 왔다. 일일 보고서는 「고위 관계자를 위한 비밀 문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7.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9, xx May 1952. 한 중국 항공감시부대의 보고서는 미국의 B-26 폭격기가 만징 역 위로 날아간 시점을 이틀 전, 3월 14일로 기록하고 있다. Map printed on p. 416(d), Needham Report(1952).
8. 1952년 여름 중국 동북부지역에서는 1백70건의 '삼림 뇌염'이 발생, 36명이 숨졌다. 발생 건수는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었다. 그 전년인 1951년에는 단 3건만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24, 23 July 1952, "Forest Encephalitis Special Report," by group leader Chen Yingqian.
9. Needham Report(1952), Appendix TT, Biographical Register, p. 652.
10.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8, 14 Mar. 1952.
11. Liaoning Archives, Volume 63, permanent, Northeast Patriotic Health Campaign Committee, Central Party telegram of 19 Mar. 1952, re: Anti-bacterial warfare instructions. See also "Report on Fungus-Laden Plant Materials Dispersed by U.S. Military Planes in Northeast China and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Appendix Ja, Needham Report(1952), pp. 181-189; New China News Agency [NCNA] report of 29 Feb. 1952, "U.S. Aircraft Again Drop Bacteria-Laden Insects," *Survey of China Mainland Press* [SCMP](Hong Kong, 1952), No. 285, pp. 2-3.
12. "Report of the Commission of the Medical Headquarters of the Korean People's Army on the Use of Bacteriological Weapons" [hereafter Korean Medical Commission Report], pp. 3-5, in Canadian Peace Congress, "Documentation on Bacteriological Warfare, 1 April 1952" (mimeograph), File 50208-40, Pt. 1.1, Vol. 5919, RG 25, NAC.
13. 위의 보고서, pp. 6-8.
14.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Situation of the Enemy's Bacterial War and the Use of Poisonous Gas," 28 Jan. to 31 Mar. 1952, by the Headquarte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5 Apr. 1952, People' s Liberation Army [PLA] Archives, Beijing, JW-1, 1952, Vol. 107, Doc. 14. 한국전쟁 당시 미군 의무부대의 역사가였던 앨버트 코드리 (Albert Cowdrey)는 한국에서는 페스트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고, 면역이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백신도 없었다고 말했다. Cowdrey, *The Medics' War* (Washington, D.C., 1987), p. 175.

15. Korean Medical Commission Report, p. 9.
16. 치더쉐(Qi Dexue)의 *"Chaoxian zhanzheng juece neimu"* {(The Inside Story of Decision-Making in the Korean War) (Shenyang, 1991), pp. 281-282}에서 인용. [hereafter cited as *Juece neimu*].
17. 위의 책, p. 282.
18. The Chinese People' s Committee for World Peace and Against American Aggression, *Stop U.S. Germ Warfare!* (Peking, 1952), pp. 1-5; NCNA, 25 Feb. 1952, "Chou Enlai Issues Statement...," *SCMP* (1952) No. 282, pp. 2-4.
19. Qi Dexue. *Juece neimu*, pp. 288-289.
20. Nie Rongzhen, *Nie Rongzhen junshi wenxuan* [Selected Military Writings of Nie Rongzhen] (Beijing, 1992), p. 365.
21. Qi Dexue, *Juece neimu*, p. 289.
22. "The Disease Situation of the Army," PLA Archives, JW-1, 1952, Vol. 107, Doc. 14.
23.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역사" 2nd ed.(Beijing, 1990) p. 149 [hereafter cited as *Zhongguo*]. 미국은 1912년 이래 한국에서 페스트가 보고 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는 1987년 한국전쟁의 공식 의료 역사에서도 확인했다. Cowdrey, *The Medics' War*, p. 175 참조.
24. "The Disease Situation of the Army," PLA Archives, JW-1, 1952, Vol. 107, Doc. 14.
25. *Zhongguo*, p. 150
26. Qi Dexue, *Juece neimu*, pp. 288-289; *Zhonogguo*, pp. 151-152. 한국 민간인과 북한군의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아마도 중국측보다 피해가 훨씬 클 것이다.
27. New China News Agency (English edition), "U.S. Invaders Extend Bacteriological Warfare to China' s Northeast" (NCNA special correspondent, Mukden), 6 Mar. 1952, *SCMP* (1952), No. 290, pp. 3-4. For further eyewitness reports, see *SCMP* (1952), No. 297, p. 2; No. 300, p. 2; No. 303, p. 2; No. 304, pp. 5-6; No. 306, pp. 10-11; No. 315, p. 9; No. 319, pp. 5-6.
28. Liaoning Archives, Volume 63, permanent, Northeast Patriotic Health Campaign

Committee, "Central Party telegram, instructions to various regions. Approved by Zhou [Enlai]," 19 Mar. 1952. Classification: AAAA.

29. Qi Dexue, *Juece neimu*, p. 290.
30.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3, 5 Apr. 1952; NCNA, "Sufficient Evidence on U.S. Germ War Collected in Northeast China," 26 Mar. 1952, *SCMP* (1952), No. 304, p. 5.
31. "Report of the Northeast China Group of the Commission for Investigating the American Crime of Bacteriological Warfare," pp. 2-3, *Daily News Release, Supplement*, 8 Apr. 1952, NCNA.
32. Needham Report (1952), pp. 30-31, 654.
33.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3, 5 Apr. 1952.
34. Liaoning Archives, Daily Reports, No. 12, 15 Mar. 1952 (confidential document for leading cadre reference);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xx, 12 Mar. 1952.
35. Central Archives, Volume 271, Office of the Northeast Bureau, Liaodong Provincial Committee, "Disease Prevention Report and Comments by the Central Disease Prevention Committee," 23 Apr. 1952. 첫 페이지 하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분실하지 말 것. 2개월 만에 한 번씩 불태울 것."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염병예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저우언라이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중국 당국은 세균전의 결과를 담은 비밀 문건들이 적들의 손에 넘겨질까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36. Liaoning Archives,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4, 10 Apr. 1952.
37. Liaoning Archives, Volume 62, permanent, Telegram: "A brief report by the Central Epidemic Disease Prevention Committee on the anti-germ warfare epidemic disease-prevention work situation of May." 이 전보는 마오 주석이 초고를 작성했다. "이 보고는 매우 훌륭하다. 많은 지역에 경고문을 돌려야 한다. 5월 14일."
38. Liaoning Archives, Volume 68, permanent, Northeast Patriotic Health Campaign Committee, "Brief, Comprehensive Report on Epidemic Disease, March to May 1953, Presented to Vice-President Li [Xiannian]." Volume 43, long-term preservation, Daily Reports, No. 177, 3 Mar. 1953, to No. 193, 15 July 1953.
39. Liaoning Archives, Volume 68, permanent, "Brief, Comprehensive Report...," May 1953. 1946년 여름 헤이룽장성 서북부지역에서는 끔찍한 페스트 유행병이 돌아 2만 3천1백71명이 사망했다. 이때는 1945년 중국 동북부가 해방되는 바로 전날 일본군이 하얼빈

인근에 있는 세균 제조 실험실을 서둘러 파괴하고, 세균에 감염된 동물들을 밖으로 내보낸 이후이다. NCNA report, 16 May 1951, *SCMP* (1951), No. 105, p. 10; NCNA report from Harbin, 28 Feb. 1952, *SCMP* (1952), No. 285, p. 4. See also Sheldon Harris, *Factories of Death: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1945 and the American Cover-up* (London and New York, 1994), pp. 3-5.

40. Liaoning Archives, Volume 43, long-term preservation, Daily Reports, No. 11, 14 Mar. 1952.
41. 위의 보고서, No. 8, 11 Mar. 1952.
42. 위의 보고서, No. 12, 15 Mar. 1952.
43. 위의 보고서, No. 14, 17 Mar. 1952.
44. 위의 보고서, No. 12, 15 Mar. 1952, and No. 130, 18 Aug. 1952.
45. Liaoning Archives, Volume 68, permanent, Northeast Patriotic Health Campaign Committee, "Brief Comprehensive Report on Epidemic Disease, March to May 1953."
46. "Results of Scientific Tests on Germ-Laden Insects Dropped in Northeast," NCNA, Mukden, 1 Apr. 1952, *SCMP* (1952), No. 308, p. 3.
47. "Annual Historical Report 1950,"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Professional Section, pp. 185-186, Historical Division, U.S. Medical Department [AMEDD] Records 1947-1961, Box 242, HD 319.19, RG 112,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
48. Liaoning Archives, Volume 43, long-term preservation, Daily Reports, No. 13, 5 Apr. 1952.
49. 스티븐 엔디콧이 1996년 3월 25일 베이징에서 치더쉐를 인터뷰한 내용. 당시 치더쉐는 인민해방군 군사학 파트의 군 역사 부문 연구원으로 있었음. 인터뷰 내용은 "Oral History Project on the Korean War" (York University)에 나옴. 치 대령은 중국 인민지원군 공식 역사에서 한국전쟁 기간 중 세균전을 다룬 장(章)을 썼으며, "*Juece neimu*"를 저술했다.
50. NCNA Peking, 14 Mar. 1952, name list of "Mission for Investigation of U.S. Bacteriological Warfare Crimes," *SCMP* (1952), No. 295, pp. 5-6.
51. 스티븐 엔디콧이 1994년 4월 21일~23일 베이징에서 츄웨이판, 셴치이, 얀렌잉, 랴오가일룽 등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용은 "Oral History Project on the Korean War" (York University)에 나타남.
52. 츄웨이판 교수의 「미군기가 북한에 퍼뜨린 자줏빛 얼룩점 병균을 품은 콩 줄기와 꼬

투리」 보고서는 니드햄 리포트 (1952), pp. 181~183에 있음.

53.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와 데이비드 윌리스(David Wallace)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 종전까지의 일본의 세균전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해 '미들섹스(잉글랜드 남부의 주, 1965년 런던에 편입: 옮긴이 주) 연대' 소속 한 대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한 사람을 인터뷰했다. 이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 미군이 1950년 11월 평안남도 군우리(軍隅里)에서 철수할 때 세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Peter Williams and David Wallace, Unit 731: The Japanese Army' s Secret of Secrets, (London, 1989), pp. 265~266.

우리는 1996년에 그 의심되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단 소속 사람 10여 명과 광범위한 접촉을 가졌다. 그들은 맨(A. M. MAN) 대령과 그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그 여단의 한국 클럽과 한-영 참전용사협회 스토크 온 트랜트(잉글랜드 북부 도시: 옮긴이 주) 지부를 통해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질문을 퍼뜨렸다. 그 여단 소속으로 한국에서 근무했고 우리와 인터뷰했던 사람 중 한 명은 군사 역사가가 됐는데, 그는 그 여단이 한국에서 한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윌리엄스와 윌리스의 글을 보고는 특정 중대로 목격자를 좁혀 갔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연락해서 만났는데, 이 중대에 소속됐던 병사 중 한 사람은 우리에게 연락을 해 왔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 윌리엄스와 윌리스가 말한 그 하사관이 누구일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윌리엄스 등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하사관은 대상이 3명으로 좁혀졌는데 이들은 우리가 취재에 나서기 1~2년 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다.

54. 존 버튼 박사가 1996년 3월 14일 우리에게 보낸 편지(존 버튼 박사와의 토론과 관련한 야프 밴 기네켄Jaap van Ginneken 박사의 편지, 1983년 8월 1일, 우리가 소지하고 있음). 한국전에서의 세균전과 관련된 문서가 사라진 또 다른 사례는 벨기에 문서보관소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벨기에 참모총장인 피롱(Piron) 중장은 1952년 2월 일본 도쿄를 방문, 도프레슨 드 라 슈발러리(Daufresne de la Chevalerie) 주일 벨기에 대사와 함께 주한 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van Fleet) 장군을 만났다. 이때 밴 플리트 장군은 미군은 한국전에서 "이전에 없던 대량 구제(驅除)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고 서독 뉴스통신인 ADN이 보도했다. 2명의 벨기에 관리가 밴 플리트 장군을 만난 것에 대한 벨기에 문서보관소의 유일한 기록은 밴 플리트 장군이 답례로 보낸 1952년 2월 29일자 편지다. 이 편지에는 밴 플리트 장군과 벨기에 대사가 만나는 사진 2장이 있고, 겉봉투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벨기에 대사가 벨기에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으

로 돼 있었다. 도쿄에서 온 이 문서는 일련번호가 'No. 399 D. 17390, 5 Mar. 1952' 로 매겨졌으며 벨기에 외무부 중앙문서보관소에 있다. 그러나 그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벨기에 대사의 보고가 포함돼 있지 않다. 담당 관리는 단지 "우리 문서보관소는 피롱 장군의 도쿄에서의 임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만 말했다.(Dr. Richard Boijen to Stephen Endicott, 5 Apr. 1996). 따라서 2명의 벨기에 관리와 밴 플리트 장군 사이의 대화에 대한 보고는 공식 문서보관소 2곳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방어적인 변명을 듣자면 장 피에르 가이드(Jean-Pierre Gahide)의 "벨기에와 한국전쟁"(La Belguque et la Guerre De Coree 1950-1955(Bressels, 1991), pp. 72~73)을 볼 것.

2장. 미국 생물학전의 기원: 제2차세계대전

1. 화학전부대가 생물학전 가능성을 연구했다는 첫 언급은 1924년 9월 24일 화학전부대 에지우드 병기고의 기계화사단 보고서 No. 442에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p. 1 of H. I. Stubblefield, "A Resumé of the Biological Warfare Effort," 21 Mar. 1958, Record 54763, Box 2, Chemical and Biologic Warfare Collection, National Security Archive, Washington, D.C. [hereafter cited as Stubblefield (1958)]을 볼 것. 스터블필드 박사는 화학전 과학연구 분야 부책임자의 생물학전 보좌관이었다. 폭스의 글은 "Bacterial Warfare: The Use of Biologic Agents in Warfare" *Military Surgeon 72*(March 1933)이다.
2. 미국의 2차대전 생물학전 개발에 대해서는 Sheldon H. Harris, "*Factories of Death: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1945 and the American Cover-up*" (New York and London, 1994)와 Barton J. Bernstein, "America' s Biological Warfare Program in the Second World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 (March 1992)를 볼 것. 캐나다와의 커넥션과 관련해서는 John Bryden, *Deadly Allies: Canada' s Secret War, 1937-1947*(Toronto, 1989)을 볼 것.

   논의될 공식 역사는 Norman M. Covert, *Cutting Edge: A History of Fort Detrick, Maryland, 1943-1993* (Fort Detrick, Md., 1993); Richard M. Clendinin, *Science and Technology at Fort Detrick, 1943-1968* (Fort Detrick, Md., 1968); and Dorothy L. Miller, "History of Air Force Participation in the Biological Warfare Program 1944-1954," 2 vols. (U.S. Air Force, Air Materiel Command, Historical Division, Wright-Patterson Air Force Base,

Ohio, 1952, 1957) [hereafter cited as Miller (1952) and Miller (1957)] 등이다. (밀러의 발간되지 않은 공식 역사는 1988년 부분적으로 비밀 해제됐다. 주석은 비밀로 분류돼 있다. 우리는 정보자유법A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고, 이를 공군이 육군에 넘겼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내부로부터 나온 가치 있는 정보는 생물학전부대 특별 고문인 조지 W. 머크가 전쟁부 장관에게 보낸, '생물학전 분야에서의 미군의 활동(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of Biological Warfare)'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출처는 Entry 488, Box 182, RG 165,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 [NA]이다. 머크 보고서의 개요는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의 1946년 3월호 pp. 16-18에 '생물학전에 대한 공식 보고'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앞으로는 Merck Report (1946), resumé로 인용한다. 또 다른 훌륭한 내부 역사는 스터블필드(1958)이다.〕

셀던 해리스가 역사적 기록을 위해 사용한 기본 자료는 Rexmond C. Cochrane, "History of the Chemical Warfare Service in World War II (1 July 1940-15 August 1945), Biological Warfare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2 vols. (Historical Section, Plans, Training and Intelligence Division, Office of Chief, Chemical Corps, November 1947, unpublished 'draft' typescript, Fort Detrick Archives)이다. 해리스는 이 연구가 2차대전 생물학전 연구에 대한 공식 역사라고 밝혔다. 디트릭 기지 역사가인 노먼 코버트(Norman Covert)는 1990년 4월 해리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6백 쪽짜리 타자 원고는 결코 출판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들이 그 내용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리스는 중요한 사진과 부록들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또 U.S. Congress, *U.S. Army Activity in the U.S. Biological Warfare Programs*, 2 vols., unclassified, presentation to Senate hearings in February-May 1977(Washington D.C., 1977)을 볼 것.

3. "Technical Study No. 10," Chemical Warfare Service, 28 Aug. 1939. Cited in Stubblefield (1958), p. 2.
4. Colonel James S. Simmons to H. H. Bundy, 14 Aug. 1941, Entry 295A, Box 6, p. 26, WBC, 61 253, RG 175, NA. Cited in Harris, *Factories of Death*, p. 152.
5. "Minutes of a Conference on Biological Warfare at 2101 Constitution Avence," 20 Aug. 1941, Entry 295A, Box 6, RG 175, NA. Citied in Harris, *Factories of Death*, p. 153.
6. 위원장은 위스콘신 대학 대학원 원장인 에드윈 B. 프레드(Edwin B. Fred)였다. 위원회에는 예일, 존스 홉킨스, 코넬, 시카고 대학과 록펠러 연구소, 국립리서치위원회, 국립과학아카데미 등의 대표자가 참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Stubblefield (1958), p. 7과 Harris,

Factories of Death, p. 153을 볼 것.

캐나다 세균전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맥길 대학의 머레이(E. G. D. Murray)박사와 퀸스 대학의 생물학전 실험실 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인 리드(G. B. Reed) 박사는 WBC 위원회의 첫 모임에 참석했다. 이 모임은 1941년 12월 28일 볼티모어의 로드 볼티모어 호텔에서 열렸다. 모임을 자세히 기록한 머레이 박사의 10쪽짜리 노트는 세균전 역사의 가치 있는 한 부분이다. 이 노트는 특정 질문에 빠른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법을 지적하고 있다. 논의는 두 나라(미국과 캐나다)가 인간, 동물, 식물 질병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됐다. 거기에서 미국 화학전부대의 보툴리누스 독소 실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된 또 다른 질병들은 구제역, 우폐역(牛肺疫), 아프리카 마역(馬疫), 비저병 등이다. 이 밖에 인체에 작용하는 많은 독소들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 황열, 천연두, 앵무병, 디프테리아, 파상풍(破傷風), 살모넬라, 페스트 등이 있었다. 모기는 북쪽 기후에 어울려 관심이 있었다.

이때 머레이 박사는 미국이 영국과 함께 캐나다 앨버타 주 서필드의 수천 평방마일을 세균전 실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WBC 위원회는 캐나다 퀘벡시 아래 로렌스 주 강에 있는 조그만 섬 그로스 일(Grosse Ile)에서 우역(牛疫)을 실험하기 위한 캐나다-미국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머레이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Bryden, *Deadly Allies*, pp. 94-97.

7. Quoted by Bryden, *Deadly Allies*, p. 105.
8. 위의 책, p. 107; Robert Harris and Jeremy Paxman, *A Higher Form of Killing; The Secret Story of Gas and Germ Warfare* (London, 1982), pp. 95-96.
9. Stimson to Roosevelt, 29 Apr. 1942, President's Secretary File 104, Franklin D. Roosevelt Library, as cited in Harris and Paxman, *Secret Story*, p. 154.
10. Merck Report (1946), resumé; Harris, *Factories of Death*, p. 154.
11. Stubblefield (1958), p. 8; Harris, *Factories of Death*, p. 154.
12. Stubblefield (1958), pp. 9-12.
13. For the above historical summary, see Stubblefield (1958), pp. 6, 13-20, 22-23; Merck Report(1946), resumé; Bryden, *Deadly Allies*, See also Memorandum from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7 June 1944, on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anthrax-filled bombs, Box 2,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Collection, NSA.

14. 2개의 세계대전 사이에 생물학전과 관련된 군축협상은 Frederic J. Brown, *Chemical Warfare: A Study in Restraints* (Princeton, N.J., 1968)를 볼 것.
15. Truman to AEC Commissioner Thomas Murray, 19 Jan. 1953, Harry S. Truman Library, cited by Barton J. Bernstein, "Origins of the U.S. Bacteriological Warfare Program," in Susan Wright, ed., *Preventing a Biological Arms Race* (Cambridge, Mass., and London, 1990), p. 20.
16. William D. Leahy, *I Was There: The Personal Story of the Chief of Staff to Presidents Roosevelt and Truman, Based on His Notes and Diaries Made at the Time* (New York, 1950), pp. 439-440.
17. Brown, *Chemical Warfare*.
18. Theodor Rosebury, "Medical Ethics and Biological Warfare,"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6* (Summer 1963): 514-515, quoted in Harris, *Factories of Death*, p. 158. 전쟁 기간 대부분 동안 디트릭 기지에서 세균전 프로그램을 지휘한 이라 볼드윈(Ira Baldwin)도 "내가 같이 일하자고 권유했을 때 뿌리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해 비슷한 감정을 피력했다. (Bryden interview, *Deadly Allies*, p. 254)

    아마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자신의 임무를 우선시한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캐나다의 프레데릭 밴팅(Frederick Banting) 박사일 것이다. 존 브라이든 박사가 입증한 대로, 인슐린을 공동 개발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이 캐나다 의학계의 우상은 세균전 프로그램 개발 초기 단계에 캐나다가 참여토록 한 추진력이었다. 그는 훈족이 문명에 대한 위협이었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세균전으로 독일인들에 맞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토론토 시내에 있는 밴팅 연구소는 북미에서 세균전 연구의 산실이 됐다. 공격용으로 대인(對人) 세균전을 실험한 밴팅의 프로그램은 영국보다 1년, 미국보다 2년이나 앞섰다. 동시에 밴팅 연구소는 페니실린 개발과 관련해 결정적인 연구가 진행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밴팅 연구소와 2개 빌딩을 사이에 두고 토론토 대학 생명윤리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영국 솔즈베리 포튼에서 진행된 영국의 세균전 프로그램은 영국 미생물학전위원회 위원장인 행키 경(Lord Hankey)에 의해 수년간 지체됐다. 행키는 이전의 위원장과 달리 세균전 가능성에 진정으로 놀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세균전 프로그램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밴팅은 행키 위원회 앞으로 캐나다의 실험을 세균전의 사례로 내세웠으나 행키는 그 장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밴팅은 잘 선택된 말을 이용해 행키에 반박했다.

    행키의 발뺌은 세균전을 포함, 신무기에 열중하고 있던 처칠이 그를 해임함으로써 끝

났다. 밴팅이 주도권을 잡은 결과 캐나다 전쟁 내각과 합참의장은 1940년 세균전을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초기 작업은 밴팅 연구소, 코넛트 연구실, 토론토 대학, 퀸스 대학, 국립연구위원회 등지에서 주로 이뤄졌다. 그 이후 캐나다 대부분의 대학으로 확대됐다.

19.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168-170; Bryden, *Deadly Allies*, pp. 218-219.
20. The above material is from Bryden, *Deadly Allies*, pp. 90, 106, 116-117, 210-211, 214; 251, nn. 15 and 18; 292, n. 9; 294. He cites Stanley P. Lovell, *Of Spies and Stratagems* (New York, 1964), pp. 152-160; transcript of a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General Porter and U.S Army authorities in Germany, Autumn 1945, Box 143, p. 337, RG 175, NA; E. G. D. Murray to James Patterson, 12 Dec. 1944, C1, 4354-33-13-6, RG 24, NAC.
21. 2차대전 중 미국과 연합국의 가스전 관련 역사는 Bryden, *Deadly Allies*, pp. 60-61, 181, 185-195, n. 26;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158-159를 볼 것.
22. 보툴리누스균 및 그에 적합한 무기의 가능성과 개발에 대한 흥미 있는 정보 교환은 Bryden, *Deadly Allies*, p. 291, n. 5를 볼 것.
23. 위의 책, pp. 197-199.
24. Bernstein, "The Origins of the U. S. Biological Warfare Program." p. 20.
캐나다의 세균전 프로그램도 사용할 기회를 놓친 2차세계대전의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군이 보낸 풍선이 캐나다 태평양 해안에 떨어지자 캐나다에서는 일본이 세균전을 펼치고 있다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 캐나다 세균전 프로그램 책임자인 머레이 박사는 보복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사령관인 오토 마스(Otto Maass)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마스는 세균전 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했다. 머레이 박사는 승낙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오타와에 있는 업랜즈 공항에 캐나다 공군 소속 폭격기를 대기시켜 놓았다. 이 폭격기는 밴쿠버와 하와이를 거쳐 날아가 일본에 페스트균을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Bryden, *Deadly Allies*, pp. 219-220. 브라이든은 오타와에 있는 국립연구위원회 화학전 실험실에 근무하는 킹(T. E. king) 박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3장. 일본 커넥션

1. 조지 머크는 디트릭 기지의 과학자들이 이런 필요한 곳에 급히 배치돼야 한다고 1946

넌 보고서에서 밝혔다.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of Biological Warfare," a report to the Secretary of War by George W. Merck, Special Consultant on Biological Warfare, Entry 488, pp. 7-10, Box 182, RG 165, NA, as cited in Sheldon Harris, *Factories of Death: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1945 and the American Cover-up* (London and New York, 1994), p. 191. 이 작업은 미국 문서보관소에서 비밀 해제된 관련 서류를 모두 이용해 책 분량으로 만든 첫 연구였다.

2. Sheldon Harris, "Japanese Biological Warfare Research on Humans: A Case Study of Microbiology and Ethic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60* (1992): 50. Harris emphasizes that it was the Joint Chiefs of Staff who pushed for the deal.
3. John W. Powell, "An American Newspaperman Goes Home," in *China Monthly Review: Editors on Trial*, pamphlet, 29 pp. (Peking, 1957), p. 13.
4. 일본 세균전 전범에 대한 기소 면제를 법률적으로 은폐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 알바 카펀터(Alva Carpenter)가 존 파월을 심문한 미 상원 국내안보소위원회(제너 위원회)에서 고문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 John W. Powell, "Japan' s Germ Warfare: The U.S. Cover-up of a War Crim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2, no. 4 (October-December 1980): 12; Robert Gower, John W. Powell, and Bert V. A. Rolling, "Japan' s Biological Weapons: 1930-194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October 1981, pp. 43-53.
6. Peter Williams and David Wallace, Unit 731: *The Japanese Army' s Secret of Secrets* (London, 1989), p. 301. 1986년 하반기까지도 미 육군의 수석 문서보관 담당관인 존 해처(John Hatcher)는 육군이 일본 생물학전과 관련된 어떠한 파일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인했다. Harris, *Factories of Death*, p. 223.
7. Memoranda and letters of 14 Dec. 1945, 21 Dec. 1945, 7 Jan. 1946, 6 Sept. 1947, in file ISHII, Shiro, File 201, Book I,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2), General Staf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RG 331, NA.
8.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62-71; *Materials of the Trial of Former Servicemen of the Japanese Army Charged with Manufacturing and Employing Biological Weapons* (Moscow, 1950), pp. 15ff.
9.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138-146, 263, n. 69. 또 다른 '죽음의 공장'은 장춘(長春)에 있는 100부대로, 와카마쓰 유지로 중장이 이끌었다. 이 부대는 이시이 부대와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10. "Biographical Sketches of Toyoda Group," n.d., circa June 1947, ISHII, Shiro, File 201, Book I,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2), General Staff, Far East Command, RG 331, NA.
11.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203, 221.
12. 위의 책, p. 53; Powell, "Japan' s Germ Warfare," p. 15, n. 1; Seymour Hersh,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merica' s Hidden Arsenal (New York, 1968), pp. 13-18.
13.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59, 64-65, 188, 206-207. 해리스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뒤져 8천 장의 슬라이드 사진을 제외하고 모두를 찾았다.
14. 위의 책, p. 66. 그 직후 디트릭 기지 육군 지휘부는 자신들이 얻은 정보의 의미를 축소시키려 했으나 그들이 보인 관심과 당시 습득한 정보의 가치를 시인한 것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 ; 위의 책, pp. 221-222
15. Memo, Norman Fell to Chief, Chemical Corps, 20 June 1947, Fort Detrick Archives, Frederick, Md., cited by Albert E. Cowdrey, *The Medics' War* (Washington, D.C., 1987), p. 219, n. 24.
16. Williams and Wallace, Unit 731, pp. 26-27;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55, 68, 107, 110. The Japanese also experimented with lice as a vector; ibid., p. 107.
17. 파월은 "홀씨로 깃털을 감염시키는 것은 이시이의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Japan' s Germ Warfare," p. 10.
18. Cowdrey, *The Medics' War*, pp. 64; 201-202, n. 73; 280; Powell, "Japan' s Germ Warfare," p. 10; Williams and Wallace, Unit 731, pp. 310-313, 316; Keiichi Tsuneishi, Kieta Saikinsen butai [The Germ Warfare Unit That Disappeared] (Tokyo: Kai-mei- sha Publishers, 1981), pp. 130-133, as cited in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64, 68, 81-82, 280, n. 73. 이시이의 스케치로 미국이 그린 7개의 실험용 폭탄은 가장 철저한 조사자의 보고서에서 발견된다. Camp Detrick' s Lt. Colonel Arvo Thompson, "Report on Japanese Biological Warfare Activities," 31 May 1946, Record No. 53139, NSA.

4장. 마셜 국방장관과 프로그램 재개

1. 1947년의 국가안보법은 전쟁부 장관과 해군장관을 국방장관으로 대체했다. 군 장관들은 대통령의 비공식 자문단으로 남았다. 법은 또 3군 장관과 협조하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조언을 받는 국방장관이 대표를 맡는 국가안보기구(National Security Establishment)

를 새로 만들어 군사 계획을 조율하려고 시도했다. 국방장관은 국무장관, 3군 장관,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된 다른 기관의 수장들과 함께 대통령에게 군사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할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했지만 3군 장관들도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에 직접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같은 확대 기구가 국방장관에게 힘을 신지 못하고 각 군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에 여전히 실권을 남겨 두게 되자 의회는 1949년 국가안보법을 수정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용은 국가 군사기구를 국방장관이 지휘권을 장악한 국방부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개정법은 3군 장관을 각료의 지위에서 집행 부서가 아닌 각 군의 수장으로 강등시켰으며 명백히 국방장관의 하위직으로 규정했다. 각 군 장관들은 또 국가안보위원회로부터도 제외됐다. 합참은 대통령에 대한 조언자로 남게 됐지만 개정법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직위인 합참의장에 의해 대표됐다. 목적은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는 나아가 군사 정책의 힘의 축을 군대로부터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 대표되는 민간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2. Colonel William M. Creasy, Chief, Research and Engineering Division, Office of the Chief, Chemical Corps, "Presentation to the Secretary of Defense' s Ad Hoc Committee on CEBAR," 24 Feb. 1950, CCS 385.2 (12-17-43), Sec. 10 (B.P.Pt.I), Box 207, RG 218, p. 2; also to be found in th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Collection, National Security Archives [NSA], Washington, D.C., Record No. 54874, 24 Dec. 1950. [Hereafter cited as Creasy Report (1950).]
3. 브라이든(Bryden)은 「치명적인 동맹」(Deadly Allies)에서 머크(Merck) 보고서의 초안을 읽은 캐나다의 생화학전 프로그램 책임자가 공동 연구에서 캐나다측이 수행한 역할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분노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 책임자는 화를 내고 로비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브라이든은 캐나다 정부와 맥켄지 킹(Mckenzic King) 수상 자신이 생물학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PP. 233-234, 239
4.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of Biological Warfare," a report to the Secretary of War by Goorge W. Merck, Special Consultant on Biological Warfare, Entry 488, Box 182, RG 165, NA. The resumé of the report released to the media is available as George W. Merck, "Official Report on Biological Warfar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 1946, pp. 16-18.

5. 영국 합참은 "미래의 생물학전 개발 (1945. 12. 6)이라는 합참 기술전쟁분과위원회의"세부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의 4가지 이유에서 생물학무기 개발을 강력히 지지했다.
   a)추가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생물학전의 엄청난 살상력 증대
   b)비교적 쉬운 생산
   c)핵전과 생물학전의 상호 보완 가능성
   d)생물학전 잠재력과 대응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Collection, Box 12, Record No. 57709, NSA. For continuing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ee also Records No. 57679 and 55002. For the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Great Britain, see Box 2 in this collection.
6. 위원회 멤버 구성은 2차세계대전 동안 설정된 균형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위원회는 3명의 민간인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마다 최대 2명, 미 공중보건국이 임명한 위원 1명, 농업부 출신 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File 954/2,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JSPC], 23 Aug. 1950, 6 (Enclosure "C"), RG 218, NA.
7. Jeanne McDermott, *The Killing Winds: The Menace of Biological Warfare* (New York, 1987), p. 163. 1949년의 개정 국가안보법은 국방부와 국방장관을 정책 개발의 수장으로 확립했다. 이 같은 제도적인 권력 보장과 그의 개인적인 명성이 마셜로 하여금 생물학전을 특별히 강하게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8.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s Ad Hoc Committee o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arfare," 30 June 1950, CD 385 (General), RG 330; also in Record No. 54791, NSA[Hereafter cited as Stevenson Report (1950).]
9. 위의 보고서, pp. viii-ix.
10. 위의 보고서, pp. 9-10
11. 위의 보고서, pp. 8-9.
12. 위의 보고서, pp. 5, 21-22.
13. 위의 보고서, p. 11.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는 소련의 세균전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면 아마 동등한 수준 정도로는 발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위의 보고서, p. 15. 동시에 "소련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추정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위의 보고서, p. 11.
14. 위의 보고서, pp. 16-17.

15. Memorandum from George C. Marshall, Secretary of Defense, on "The Secretary of Defense's Ad Hoc Committee o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arfare," 27 Oct. 1950, to the secretarie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chairma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the chairman of the Munitions Board, the chairman of the Military Liaison Committee, the director of the Weapons System Evaluation Group, and the director of public informations, JCS 1837/18, pp. 225-227, Enclosures C and D, RG 218.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마셜이 내린 평가에 대해서는 Comments on the Stevenson Report, Doc. 941196, pp. 73-90, CD 385 (General), RG 330, NA(declassified at our request, 1996)를 볼 것.
16. "1951 Program Guidance Report," 15 Dec. 1950, CD 383.8 (Biological Warfare), RG 330, NA. The total expenditure for biological warfare in 1950, including overhead, was $6.6 million.
17. Dorothy L. Miller, "History of Air Force Participation in the Biological Warfare Program, 1944-54," Vol. 1, pp. 53-54. 미 공군의 생물학전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공식 역사인 이 책은 출판되지 않았지만 1권은 1952년에 완성되었다. 1952~1954년의 기간을 다룬 제2권은 1957년에 완성되었다. 1, 2권 모두 오하이오 주의 미 공군기지에서 입수할 수 있다. 〔앞으로는 Miller (1952), Miller (1957)로 인용한다.〕
18. "Department of Defense Activities Engaged in Biological Warfare Program," Doc. 941196, p. 172, attached to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21 Dec. 1951, Acquisition No. TS-A94-0125 R1 Doc. 9, Doc. 941196, pp. 143-173 (including attachments), CD 385 (General), RG 330, NA (declassified at our request, 1996).
19. 위의 문서, p. 2. 이 지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새 국방장관 찰스 윌슨(Charles Wilson)의 명령으로 취소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Miller (1957), p. 78.
20. Col. James Totten, Chief BW-CW Division, USAF, Memorandum for Record, 13 Feb. 1952, Folder 17, Nonlogged TS, Jan.-June,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Box 4, RG 341, NA.
21.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15 Dec. 1951, TAB "E," Para. 8, p. 16, attached to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21 Dec. 1951, Acquisition No. TS-A94-0125 R1 Doc. 9, Doc. 941196, pp. 143-173 (including

attachments), CD 385 (General), RG 330, NA.

22. 군사적으로 이득이 되면 언제나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 정책에 따라 보복 공격 정책을 포기한 결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Memorandum from Lt. Colonel C. E. Hutchin, Jr.,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o Ralph N. Stohl, 4 Feb. 1952, Subject: Use of CW and BW in Retaliation Only, CD 385 (General), RG 330, NA; National Security Council Document NSC 50621/1, March 1956; John Ellis van Courtland Moon,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The Korean War Cas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66* (1992): 69; Statements of Policy and Directives on Biological Warfare, 11 June 1952, JCS 1837/34, p. 330, Decimal File 385.2 (Top Secret), RG 218, NA; Joint Chiefs of Staff, Decision on JCS 1837/29, 26 Feb. 1952, p. 307, and Note by the Secretaries, Decimal File 385.2 (Top Secret), RG 218, NA; Routing and Record Sheet, From: Psychological War Division, D/Plans, DCS/O, To: Director of Operations, DCS/0, Subject: (Secret) BW Plans for SAC Operations, 20 Mar. 1952,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File 17, Nonlogged TS Jan.-June 1952, Entry 199, Box 4, RG 341, NA; Report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National Policy, 1 July 1952, 27-28, BW-CW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File 18, Nonlogged TS, Entry 199, Box 4, RG 341, NA; Commander in Chief, United States Air Force in Europe, to Col. Seiler, Subject: BW-CW Appendix, 25 Oct. 1952, BW-CW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File AFOAT BW TS 52/000 to 100, Box 4, RG 341, NA; Memorandum to Secretary Pace from Thomas K. Finletter, 1 Nov. 1952, BW-CW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File 15, 000/ 100, Entry 199, Box, 4, RG 341, NA를 볼 것.

    생물학전을 제1전략 그룹에 넣은 결정에 대해서는 "Decision on JCS 1862/18: A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Request for Strategic Guidance," JCS 1862/18, 11 Sept. 1951, Enclosure A, 1 Sept. 1951, Memorandum for the Chairman,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Subject: Strategic Guidance for Use in Preparing a Research and Development Guidance Paper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107, USAF-Plans, Decimal File 385.2 (Top Secret), Entry 335, Box 505, RG 341, NA; "USAF Operational Concepts for BW and CW," BW-CW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File 15, Entry 199, Box 4, RG 341, NA를 볼 것.

5장. 연구 개발: 1945~1953

1. Maj. General E. F. Bullene, speech of 8 Feb. 1952, "Chemicals in Combat," as printed in *Armed Forces Chemical Journal 5* (April 1952): 4-7.
2. William M. Creasy, Commanding General, Chemical Corps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and, "Biological Warfare," *Armed Forces Chemical Journal 5* (January 1952): 16-18, 46.
3. William M. Creasy, "Presentation to the Secretary of Defense' s Ad Hoc Committee on CEBAR," 24 Feb. 1950, CCS 385.2 (12-17-43), Sec. 10 (B.P. Pt. 1), Box 207, RG 218, NA; Record No. 54874,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Collection, National Security Archive, Washington, D.C., p. 29. [Hereafter cited as Creasy Report (1950).]
4. H.I. Stubblefield, "A Resumé of the Biological Warfare Effort," 21 Mar. 1958, Record 54763, Box 2,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Collection, National Security Archive, Washington, D.C. [hereafter cited as Stubblefield (1958)], p. 27.
5. 디트릭 기지와 더그웨이 무기 성능 시험장의 역사와 이에 대한 기술은 Sheldon Harris, *Factories of Death: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1945 and the American Cover-up* (London and New York, 1994), pp. 155ff; Jeanne McDermott, *The Killing Winds: The Menace of Biological Warfare* (New York, 1987), pp. 139-141, 203-205를 볼 것. 화학부대는 또 생물학전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무기 공장을 메릴랜드 주 에지우드에서 운영했으며 1952년 이후에는 아칸소 주 파인 블러프에서 운영했다.
6. 화학전부대는 1945년 각 군과 미 공중보건국, 농업부, 대학들의 대표를 연구개발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1946년 이 위원회는 전쟁부와 해군부 소속의 새로운 합동연구개발위원회로 바뀌었고, 이것은 다시 새로 조직된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위원회가 되었다: Stubblefield (1958), p. 27.
7. 일본이 항복하자 전쟁부는 화학전부대의 책임자에게 전후의 세균전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 아래 전쟁 때부터 추진된 몇 개의 프로젝트는 완성이 계획되고, 몇 개의 작은 프로젝트는 통합되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폐기됐다. 수정된 1949년 프로그램은 67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같은 숫자는 전쟁이 끝날 무렵의 2백 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었다.(Stubblefield [1958], p. 25). 대규모 해군 프로그램과 화학부대와의 접점들은 1951년 12월 21일의 세균전 준비 태세에 대한 러빗의 지시에 첨부된 해군 세균전 프로그램 조직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CD 385 (General),

RG 330, NA.

8. Stubblefield (1958), pp. 25-26; Creasy Report (1950), pp. 31-32.
9. Stubblefield (1958), p. 27
10. Stubblefield(1958), pp. 25-26.
11. "Report of the Biological Department, Chemical Corps, to the Panel on Program of the Committee on Biological Warfare,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October 1949, Appendixes 18, 20, Records of the Chemical Corps, Dugway Proving Ground, computerized keyword index. 화학부대에 관한 모든 특급 기밀 서류는 더그웨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기록들은 기밀로 남아 있으며 정보자유법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12. Creasy Report (1950), p. 8.
13. 위의 보고서, pp. 20-23, 33.
14. 위의 보고서, p. 21.
15. 위의 보고서, pp. 16-19, 31.
16. 위의 보고서, pp. 3, 4, 7, 27-28, 저장 문제가 지적된 유일한 병원체는 식물 병원균이었다. 녹병균의 생존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기록돼 있다. 크리시는 저장 기간을 고려해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을 선택했는데, 다른 세균들은 냉장 저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p. 25, 27) 야전에서 실험한 3가지 세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은 2차세계대전 때 실험했고, 브루셀라균은 1950년에 처음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툴라렌스균은 비상 기지 한 곳에서 세균무기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17. Dorothy L. Miller, "History of Air Force Participation in the Biological Warfare Program, 1944-1954," Vol. 1 (1952), U.S. Air Force, Air Materiel Command, Historical Division, Wright-Patterson Air Force Base, Ohio [hereafter cited as Miller (1952)], pp. 64-65. 이 목록이 2월의 크리시 최우선 순위 목록으로부터 변경된 것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실험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크리시 목록에는 브루셀라균, 보툴리누스균, 앵무병균, 야토병균, 탄저균 등이 포함됐다. Creasy Report (1950), pp. 3-4.
18. Dorothy L. Miller, "History of Air Force Participation in the Biological Warfare Program, 1944-1954," Vol. 2(1957), U.S. Air Force, Air Materiel Command, Historical Division, Wright-Patterson Air Force Base, Ohio [hereafter cited as Miller (1957)], p. 12.
19. A. B. Christie, *Infectious Diseases: Epidemiology and Clinical Practice*, 4th ed., Vol. 2 (Edinburgh, 1987), pp. 1133, 1135, 1142-1143.

20. 위의 책, p. 1061.
21. 위의 책, pp. 1052-1053.
22. Miller (1952), p. 55.
23. 위의 책, P. 65; Creasy Report (1950), pp. 3-4.
24. Creasy Report (1950), pp. 5-8.
25. CD 383.8 (Biological Warfare), p. 6, RG 330, NA.
26. Creasy Report (1950), pp. 5-8.
27. 실험 결과표는 축적된 지식의 정도를 보여 준다. 그들은 세균 배양에 소요되는 기간,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비율, 치사율, 활동 능력 상실 비율과 기간, 사람들간의 전염 속도, 살포 방법, 살포 후 지속 기간, 해독제와 효과 정도, 구체적인 치료법, 특정 생산 시설의 준비 기간, 취급과 저장의 안정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거의 삭제하고 제공한다. (생물학전) 준비 태세를 우선적으로 갖추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 "Note by the Secretaries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Military Priority Rating for Development of BW Agents," 3 July 1951, Appendix to "Enclosure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2 July 1951 and 1 Sept. 1951, JCS 1837/27, pp. 236-240, "Note by the Secretaries to Holders of JCS 1837/27." 13 Sept. 1951, Enclosure B, JCS 1837/23, pp. 265-272; Memorandum for the Chairman,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from the Joint Chiefs of Staff, Subject: Military Priority Rating for Development of BW Agents, 13 Sept. 1951, RG 218, NA; Top Secret Special Report No. 138, prepared by Special Operations Division and Crops Division, Biological Department, Chemical Corps, "Feathers as Carriers of Biological Warfare Agents: I, Cereal Rust Spores," 15 Dec. 1950, File 2807-T, CCS 385.2 (12-17-43), B. P. RG 330, NA.
28. "1951 Program Guidance Report," Committee on Biological Warfare, 5 Dec. 1950, CD 383.8 (Biological Warfare), RG 330, NA (declassified at our request, 1996).
29. Creasy Report (1950), pp. 16-19, 31.
30. 위의 보고서, pp. 18, 31.
31. "1951 Program Guidance Report," pp. 2-3, 7, 12.
32. Creasy Report (1950), p. 9. 자세한 내용에도 불구, 크리시 보고서에는 미국 과학자들이 일본의 세균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방대한 지식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또한 미국-영국-캐나다 공동 프로그램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연구원들에 의해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시사하는 바가 없었다.

33. 위의 보고서, p. 21.
34. 위의 보고서, p. 12.
35. 위의 보고서, p. 22
36. 위의 보고서.
37. 위의 보고서, p. 29
38. Miller (1957), pp. 11-17. 처음에는 전폭기의 내부에 싣고 비행해 일정 지역에 집중 투하하는 폭탄으로 고안됐으나, 세균무기가 가진 전략적인 특성뿐 아니라 전술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적어도 1948년부터 필요에 따라 공군은 전폭기 외부 장착 방식도 사용했다. 위의 책, p. 13.
39. 위의 책
40. 위의 책, p. 19.
41. 위의 책, p. 11
42. 이 인용문은 밀러의 저서로부터 따온 것이다. (1957), pp. 11-13. 1942년부터 실제 사용되기까지 M33/M114 소형 폭탄 개발의 지난한 역사를 살펴보려면 특히 Miller (1952), pp. 83-86, and Miller (1957), pp. 11-22, 85를 볼 것. 세균무기의 기술적인 문제점은 대량 운반이 어렵고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며 연무폭탄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43. Miller (1952), pp. 84-86, and Miller (1957), p. 84. E61R2의 기술적 목표는 1949년 9월 정해졌고 E61의 지침은 1949년 12월 20일 내려졌으며 군사적 특성은 1950년 8월 7일 발표됐다. E133 폭탄과 E61 소형 폭탄의 기본 디자인은 1953년 7월 확정됐다.
44. "1951 Program Guidance Report."
45. Miller (1952), pp. 79-81; Miller (1957), pp. 104-111, 124;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21 Dec. 1951, 15 CD 385 (General), RG 330, NA. 깃털폭탄은 1947년 9월 26일 이래로 대(對)작물용 세균무기를 필요로 했던 공군의 요구로 제작됐다. 실험에 사용한 전단폭탄과 칠면조 깃털 그리고 실험 장소 지도 등을 찍은 사진이 첨부된 실험 성공 보고서가 Top Secret Special Report No. 138, "Feathers as Carriers of Biological Warfare Agents: I. Cereal Rust Spores."에 들어 있다. 집속탄이 터지면서 깃털을 담은 용기의 뚜껑이 열리고 내용물이 퍼지도록 M16을 개조했다. 깃털은 세탁해 부풀린 흰 칠면조 털이었는데 규격은 평균 3과 1/2인치 길이에 1과 3/4인치 넓이로 일정했고 전체 무게는 1천5백 파운드였다. 깃털에는 작물을 죽이는 세균이 뿌려졌다. 이와 관련 17장의 삽화를 곁들인 9쪽짜리 실험 분석서가 있다.
46.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47. Miller (1957), pp. 159-176.

48. For reference to those not mentioned previously, see Miller (1952), p. 158.

49.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An Air Force table of organization for bacteriological warfare is an attachment with reference number 941196-172 (declassified at our request, 1996).

50. Ibid. Attachment titled "Defense Activities Engaged in Biological Warfare, U.S. Army," with Defense Department document and page reference 941196-172 (declassified at our request, 1996).

51. AFOAT,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ect: OSD Conference, BW-CW Decimal Files 152 (Top Secret), File 17, Nonlogged TS, Jan.-June 1952, Entry 199, Box 341, RG 341. NA.

52.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on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attached table of organization of the Navy's bacteriological warfare program with Department of Defense document and page reference 941196-171; "Vote by the Service Secretaries to the JCS on Research Program in Biological Warfare," 28 Aug. 1952, RG 218, Appendix 362, JCS 1837/40, RG 218, NA. 해군 조직표는 대학 및 일반 기업과 광범위한 연구 계약이 체결됐음을 보여 준다. 이 가운데는 캘리포니아 대학과 체결한 포괄적 계약인 '생물학전 병원체에 관한 기초 연구'가 있는데, 브루셀라균 연구를 위한 계약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건조된 세균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살포기 개발을 위한 제너럴 밀과의 계약도 있었다.

53. 위의 문서, pp. 14-15.

54. 위의 문서.

55. Miller (1957), p. 119.

56. For the above section, see Miller (1952), pp. 78-81, 87-90; Miller (1957), pp. 117-121. 밀러의 역사 책 중 연무탱크 개발을 다룬 페이지는 실험된 병원체에 관한 내용 등의 기밀자료가 거의 알아볼 수 없도록 심하게 삭제돼 있었다. 공식 역사는 공군이 "가끔 화학부대의 조달 작업이 지연될 경우 긴급히 그것(세균)이 필요하면, 공군 스스로 짧은 시간 안에 만족할 만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적고 있다. Miller (1957), p. 121.

 공군은 또한 전략 무기로 스스로 떠다니는 무인 기구를 만들기 위해 생물학전 무기 개발 예산 중 1/6을 투자했으나 결국 다른 군과의 마찰로 포기했다. Miller (1957), pp. 112-113.

57. 위의 책, p. 119.

58. Dale W. Jenkins, "Defense against Insect-Disseminated Biological Warfare Agents," *Military Medicine* 128 (February 1963): 116. 같은 심포지엄에서 디트릭 기지 미 육군 의무부대 지휘관인 댄 크로지에르(Dan Crozier) 대령은 생물 병원체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곤충이 세균 살포의 가능한 수단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 주는 실험 자료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위의 책, pp. 83-84.

59. William M. Creasy to Assistant Chief of Staff, G4, Department of the Army, 30 Oct. 1951, p. 6, Control no. 400.112, Entry 1B, Box 235, RG 175, NA.

60. William J. Allen, Chief,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Project Listings..." (Secret), 6 Dec. 1951, Project No. 411-02-041, Control No. 400.112, Entry 1B, Box 235, RG 175, and "Detailed Justification for Supplemental Funds for FY-1953," for the same project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n.d., p. 9, Control No. 637-10-S, Entry 1B, Box 243, RG 175, NA.

61. Special Weapons, Annual Report June 1952 to June 1953," July 1953, Defense Research Boar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Canada. This report turned up in recently declassified Chemical Corps papers in the U.S. National Archives, Control No. 11825, pp. 101, 103, Entry 1B, Box 255, RG 175, NA.

62. 위의 보고서, pp. 60-61.

63. John Bryden, *Deadly Allies: Canada's Secret War, 1937-1947* (Toronto, 1989), pp. 207, 210, 224-245, 251.

64. G. B. Reed. "Present Position of Bacteriological Warfare," 16 Dec. 1947, pp. 8-12, File 54-935-302, Vol. 4152, RG 24, NAC.

65. "Special Weapons, Annual Report June 1952-June 1953," pp. 60, 61, 99; "Progress Report on 'R' Work at GIES," 10 Apr. 1952, File DRBS-1850-11, Vol. 4224, Interim Box 43, RG 24, NAC; Defense Research Board, Minute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Entomological Research Panel, 18 Dec. 1948, File DRBS 4-120-43-1, Vol. 4130, RG 24, NAC.

66. Defense Research Board, Minute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Entomological Research Panel, 18 Dec. 1948, p. 5; Minutes of the Fourth Meeting, 5 Feb. 1949, pp. 2, 4-5, Appendix A: "Preliminary Plan for Entomological Survey of the Arctic (Biting Insects)"; Colonel Francis J. Galing, Foreign Liaison Officer to A. L. Wright, Defense Research Member, Canadian Joint Staff, Washington, 21 Apr. 1949, File DRBS 4-120-43-1, Vol. 4130, RG

24, NAC.

67. Canadian Joint Staff to Chairman, Defense Research Board, "Special Weapons-Test Facilities," 7 Dec. 1951, File 700-900-267-1, Vol. 4220, Interim Box 43, RG 24F, NAC; Memo to Chief Superintendent, Suffield Experimental Station, Ralston, Alta., 27 Dec. 1951, ibid; "First Periodical Standardization Report, Canadian Army," 23 May 1949, and Appendix E. 31 Mar. 1949, File 190-0-325, Vol. 4158, Interim Box 43, RG 24F, NAC.
68. Defense Research Board Annual Report, September 1951," pp. 10-11, Speeches, etc., Vol. 2425, RG 24F, NAC.
69. Chemical Corps Medical Laboratories, "Special Report No. 34, Research Accomplishments of the Medical Laboratories, Army Medical Corps," Part II, p. 79, Nov. 1953, Control No. 24325, Entry 1B, Box 2263, RG 175, NA.
70. 위의 보고서, p. 1.
71. Chemical Corps Medical Laboratories, "Mechanism of Entry and Action of Insecticidal Compounds and Insect Repellents," 465-20-001, 26 Oct. 1952, attached to Renewal of FY 1953 Budget, from Chief Chemical Officer to Acting Chief of Staff, G4, Entry 1B, Box 237, RG 175, NA. The Biological Laboratories project that this would support, No. 411-04-004, is the previously mentioned project on arthropod dissemination in biological warfare.
72. Memorandum for Chief Chemical Officer, Deputy Chief Chemical Officer, Subject: Research Accomplishments of the Medical Laboratories, Army Chemical Corps, Part II, "A Historical Review of the Project Program Based on Medical Laboratories Reports, 1944-1952" (MISR No. 34), 26 Jan. 1954, Control No. 2432S, Entry 1B, Box 263, RG 175, NA.
73. 1953년 대인(對人) 세균 실험용 장비 개발을 둘러싸고 해군 소속 의료진이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관해 디트릭 기지의 해군부대 의료진과 병원체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생물학 실험실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있다. 이 기록에는 완성된 관련 장비의 사진까지 들어 있다. From LCDR J. H. Stover, MC, USN, and LTJG W. J. Williams, MC, USNR, to Colonel G. Orth, MC USA, 7 May 1953, 15 pages, File 1497S, Entry 1B, Box 257, RG 175, NA.
74. Classified supplement to the *Monthly Newsletter to Staff Chemical Officers*, GHQ, FEC, Office of the Chemical Officer, 28 Feb. 1949, cited in Peter Williams and David Wallace, *Unit 731: The Japanese Army's Secret of Secrets* (London, 1989), p. 283.
75. Theodor Rosebury and Elvin A. Kabat, with the assistance of Martin H. Boldt, "Bacterial

Warfare: A Critical Analysis of the Available Agents, Their Possible Military Applications, and the Means for Protection against Them," *Journal of Immunology* 56 (May 1947): 7, 22-25; Rosebury, "An Opinion on BW as a Weapon," to the Technical Dir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Camp Detrick, Md., 8 Aug. 1946, Record No. 5700, NSA. See also n. 18 of chap. 2.

76. 3장 참조

77. Bruce W. Rohrbacher, Comptroller, to Chief, Research and Engineering Division, Army Chemical Center, Maryland, Subject: FY 1953 Budget Justifications, 23 Oct. 1951, Control No. 110.01, Entry 1B, Box 233, RG 175, NA.

78. Miller (1952), p. 49.

79.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Chemical (Toxic)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31 Aug. 1953, JCS 1837/50, 219, RG 218, NA.

6장. 작전 계획과 임무: 1945～1953

1. 전략 계획을 위한 행동 개시는 합동참모총장과 국방장관(1947년 이전에는 전쟁부 장관과 해군장관), 합참의 합동전략기획위원회 또는 합참 사무총장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 합참은 산하에 전략기획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실무기구인 전략기획국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나의 계획이 독트린으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합동전략기획국이 모든 준비를 끝마친 뒤 합동전략기획위원회가 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가 승인해야 했다. 세균전 전략 개발 책임은 합동참모에 있었다. 핵 전쟁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전의 실행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각 군과 CIA와 같은 정보 기관은 지상, 바다, 하늘, 비밀작전 등 각기의 권한 영역 내에서 무기의 특화와 작전 태세를 갖추는 책임을 졌다.

2. Joint Chiefs of Staff Decision on JCS 1927/3, "A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on the Employment of 〔삭제됐음〕 in Support of U.S. Military Position and Policy," 28 Sept. 1949, JCS 1927/3, pp. 83-92, RG 319 〔육군 참모본부의 기록〕, JCS Papers maintained by the Office of the Army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우리의 요구에 의해 1996년 비밀 해제됨) 비록 JCS 1927/3 서류가, 그것이 세균전을 위한 전략 계획임을 숨기기 위해 심하게 삭제됐지만 '세균전 은폐, 기만 작전' 에 관한 한 문서와 관련돼 있다는 언급이 있어서 그 내용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 문서는 "합참 사무총장은

합동참모본부가 JCS 1927/3에서 승인한 기만 작전을 실행할 권한이 있다"고 적고 있다. 1952년 2월 1일 해군 작전처장이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비망록. 제목은 '생물학전 전장에서의 기만 작전에 관한 합참 사무총장의 비망록(Memorandum by the Director, Joint Staff on Deception in the Biological Warfare Field)' 해제하도록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건은 1952년 7월 3일 Memorandum by the Chief of Staff, U.S. Air Force,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Statements of Policy and Directives on Biological Warfare, JCS 1837/36, RG 218[1991년 비밀 해제됨]과 함께 비밀 해제됨.

국무장관이 아니라 국방장관이 세균전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육군 참모총장의 건의는 '생물학전 전장에서의 기만' 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나와 있다. 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이 서류는 해군 작전처장의 1952년 2월 1일자 비망록과 함께 공개됐다. 두 문건은 JCS 1837/36과 함께 공개됐다.

정부가 '관련 부인' (Plausible Denial) 독트린의 존재를 시인한 것에 대해서는 스티븐 엔디콧의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The Korean War, 1952-1953," *Modern China* 5, No. 1 (1979): 79-104를 볼 것. CIA 국장 윌리엄 콜비는 "관련 부인 독트린을 위한 기본적 논리는 우리 국가가 어떤 것을 부인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975년 9월 16~18일 첩보 행위와 관련된 정부 작전을 연구하기 위한 상원특별위원회의 청문회, Frank Church, Idaho, Chairman, Vol. 1 ("The Handling of Toxins"), p. 24)

3. Dorothy L. Miller, "History of Air Force Participation in the Biological Warfare Program, 1944-1954," Vol. 1 (1952), U.S. Air Force, Air Materiel Command, Historical Division, Wright-Patterson Air Force Base, Ohio [hereafter cited as Miller (1952)], pp. 35-36.
4. Twining to Weyland, Redline message, Hoyt Vandenberg Papers, Box 86, Library of Congress. 이들 서류를 담은 97개 박스 중 96개는 기밀 해제됐다. 그들은 특히 반덴버그가 관련된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5. 목표물은 산터우(汕頭), 광저우(廣州)의 식량 창고였다. 이곳은 1953년 2월 1일까지 공격 준비를 갖춰야 할 A그룹이었고, 안산(鞍山)은 1953년 3월 15일까지 준비가 완료되는 B그룹이었다. 난징(南京), 수저우(蘇州), 상하이(上海) 등은 6월 1일까지 준비가 완료되는 C그룹에 속했다. Request for Target Folders, 20 Nov. 1952, BW-CW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File 15 (000/100), Entry 199, Box 4, RG 341, NA. No targeting documents were found for STEELYARD. For STEELYARD, see Memorandum for all Branch Chiefs, BW-CW Division, Subject: (Top Secret) Use of Code Word "STEELYARD," 28 Aug. 1953,

BW-CW Decimal Files 1953 (Top Secret), File TS/53-300-325, Entry 199, Box 2, RG 341, NA를 볼 것.

6. 유럽 전역(戰域) 계획 문건은 'USAF Operational Concepts for BW and CW' BW-CW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U.S. Air Force Operations, File 15, Entry 199, Box 4, RG 341, NA이다. 입수 가능한 문서에는 유럽 작전 계획의 암호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를 추적한 결과 클래스룸 계획(Plan CLASSROOM)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클래스룸 계획은 1949년 입수 가능한 문서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Joint Chiefs of Staff Decision on JCS 1927/3, "A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on the Employment 〔제목 부분은 삭제돼 있음〕 in Support of U.S. Military Position and Policy," 28 Sept. 1949, JCS 1927/3 (극비), 83-92, RG 319). 클래스룸 계획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다음 다시 이름 지어질 예정이었다. 클래스룸 계획은 생물학전, 화학전의 다양한 부속 문서들을 통합한 것이었다. 통합 이전에 부속 문서 A는 베를린 봉쇄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 작전이었다. 위기가 끝났을 때 부속 문서 A는 폐기됐다. 이 가운데 부속 문서 B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부속 문서 B에 합병됐다. 부속 문서 B는 광범위한 은폐, 기만 계획이었는데, 폐기된 부속 문서 C의 내용 중 특징적인 것들도 병합했다. 부속 문서 C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부속 문서 B는 대(對)소련 생화학전에 대한 은폐, 기만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 맥더모트(Jeanne McDermott)는 자신의 『죽음의 바람: 생물학전 위협』The Killing Winds: The Menace of Biological Warfare(New York, 1987), pp. 159, 298에서 작전 계획 암호명 '스쿨야드(SCHOOLYARD)'는 한국전을 위한 비밀 생물학전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맥더모트는 '은폐, 기만 계획' Cover and Deception Plan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비밀 서류를 언급했다: Deception in the Biological Warfare Field, Memorandum by the Chief of Staff, U.S. Army, JCS 1927/JCS 1927-31 〔Plan Schoolyard〕, n.d.) 우리는 스쿨야드에 관한 더 이상의 언급을 찾지 못했다. 이 책을 쓸 당시 우리는 생물학전의 은폐, 기만과 관련된 319 기록 그룹(RG 319)의 1927년 시리즈 문건 1개만 겨우 비밀 해제할 수 있었다. 한국에 파견된 중국군과 중국 내 철도 교통은 전술적 은폐, 기만 계획을 위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실험 목표로 꼽혔다. 이 유혹은 처음에는 미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이남으로 밀려 나는 위기를 맞으면서 높아지고 나중에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고조됐다.

생물학전을 위한 전술 계획 실행의 초기 일정은 "Tactical Air Mission Summary Statement,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28 Oct. 1952, USAF Operations, BW-CW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Entry 199, File 15 (000-100), Box 4, RG 341, NA.에 나와

있다. F-86 세이버 전투기가 생화학전에 참가하도록 임무를 배정받았다는 것은 AFOAT, Memorandum for Record, Subject: Briefing for Commanding General ARDC, 11 July 1952, p. 2, BW-CW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File 18, Nonlogged TS, Entry 199, Box 4, RG 341, NA에 나와 있다.

7. Undated Memorandum from the JCS to the Chief of Staff, U.S. Army, Chief of Naval Operations, Chief of Staff, U.S. Air Force. Subject: Biological Warfare, JCS 1837/34, Enclosure, pp. 380-381, RG 218, NA.
8. "A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o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arfare," 21 Feb. 1951, JCS 1837/18, p. 217, RG 218, NA. The JCS response to Lovett's memo of 21 Dec. 1951 is Memorandum from JCS to the Chief of Staff, U.S. Army, Chief of Naval Operations, Chief of Staff, U.S. Air Force (undated), JCS 1837/34, Enclosure, pp. 380-381, RG 218, NA.
9. 합동심층연구위원회(JASC, Joint Advanced Study Committee)가 생물학전에 관해 합참에 보고한 비망록. 21 Sept. 1951, JCS 1837/26, Enclosure, pp. 280-295, RG 218, NA. 공군 참모총장 호이트 반덴버그는 생물학무기의 상대적으로 짧은 생존 기간, 이에 따라 빈번하게 재고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 비축 세균의 냉동 저장을 위한 부가 비용 등이 다른 무기와 같은 수준으로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일하게 수정을 가했다. 그는 비용이 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을 때까지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이 보고서가 전후(戰後) 문제들을 단순화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물학전이 전후 경제 재건 문제를 단순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반덴버그는 그 보고서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JASC의 결론은…… 대체로 견실하며, 결론에 대한 합참의 공식 승인은 세균전 프로그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심지어 "JASC의 연구가 시작된 이후 세균전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뤄졌다.…… 어떤 공격적 능력은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고서의 낙관론을 더욱 증폭시켰다. 반덴버그는 또 3군이 순회 교육 팀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보고서에서 지적된 세균전에 대한 교육 문제를 이미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순회 교육 팀이 1952년 늦가을까지는 창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15 Feb. 1952, Memorandum by the Chief of Staff, U.S. Air Force for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Biological Warfare, JCS 1837/29, RG 218, NA, pp. 305-307). The JCS approved the report of the study committee with Vandenberg's revisions (26 Feb. 1952, Joint Chiefs of Staff, Decision on JCS 1837/19, 1837/29, attached as top sheet to 1837/29, RG 218, NA). See also Col. Arthur E. Hoffman, Deputy Chief, BW-CW Division,

USAF, Memorandum for the Record, 21 Feb. 1952, USAF Operations, BW-CW General Decimal Files TS 1952 (Top Secret), Folder 17, Nonlogged TS Jan.-June 1952, Box 4, RG 341, NA.

10. 정보와 관련해서는 "Intelligence on Soviet Capabilities for Chemical & Biological Warfare (Secret)," 16 June 1952, Joint Intelligence Committee, Joint Chiefs of Staff, Central Decimal Files 1951-1953, File 385 (1-23-43), Sec. 15, Box 152, RG 218, NA; Memorandum on Biological Warfare Intelligence, 24 Sept. 1952, Office of the Director, Central Intelligence Agency, JCS 1837/42, RG 218, NA;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Recommendations of the Air Force in BW-CW Fields, 21 Nov. 1952, Enclosure B, JCS 1837/43, pp. 376-377, RG 218, NA를 볼 것.
11. 비망록은 또한 미국 공중보건국이나 대학들과 계약을 맺어 이들에 의한 인체 실험을 권고했다. Memorandum on Biological Warfare, 21 Sept. 1951, JCS 1837/26, p. 292, RG 218, NA.
12. 위의 비망록, pp. 281-285, 292, 295.
13. 위의 비망록, pp. 288-289.
14. 위의 비망록.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bid., pp. 293-295.
15. Miller (1952), p. 45; Dorothy L. Miller, "History of Air Force Participation in the Biological Warfare Program, 1944-1954," Vol. 2 (1957), U.S. Air Force, Air Materiel Command, Historical Division, Wright-Patterson Air Force Base, Ohio [hereafter cited as Miller (1957)], p. 72.
16. Miller (1957), pp. 69-70.
17. 위의 책, p. 4.
18. 위의 책, p. 13.
19.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to the JCS on Chemical (Toxic)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31 Aug. 1953, JCS 1837/50, p. 454, RG 218, NA. 입수 가능한 유일한 자료는 1953년 10월에 이르러 공군 연구개발센터가 중형 및 대형 폭격기용뿐만 아니라 소형 폭격기용 무기 요구서를 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Miller (1957), p. 200.
20. 1952년 4월 23일 프랭크 페이스 육군장관이 국방장관에게 보낸 비망록에는 그 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묘사돼 있다. Subject: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JSPC 954 22/D, 380.2 (12-17-45), Sec. 14, p. 70, RG 218, NA.

21. 상세한 병참 계획에 관해서는 Miller (1957), pp. 30-33을 볼 것. 공군 이외에 세균전 계획을 유일하게 훑끗 볼 수 있는 곳이 육군이었다. 육군은 1950년 말 세균전의 지원을 받거나 세균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지상군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으며, 1952년에는 지상 전술 무기의 사용에 부속되는 세균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Memorandum by the Director, Weapons System Evaluation Group for JCS, Subject: Proposal and Outline for WSEG Study of "An Evaluation of the Military Worth and Effectiveness of Present and Projected Ground Force Weapons System," 16 Oct. 1950, pp. 3-5, JCS 2162, RG 218, NA; Memorandum from Frank Pace, Jr., Secretary of the Army, to the Secretary of Defense, Subject: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23 Apr. 1952, pp. 2-4, JSPC/22/D, 382.2(12-17-23), Sec. 14, RG 218, NA.
22. Miller (1957), pp. 71-72.
23. "WPB-55U Strategic Guidance," 9 Jan. 1953, BW-CW Decimal Files 1953 (Top Secret), AFOAT-BW TS 53/27, Entry 199, Box 1, RG 341.
24. Miller (1957), pp. 74-75.
25.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to the JCS on Chemical (Toxic)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31 Aug. 1953, JCS 1837/50, RG 218, NA; Arthur Radford to Charles Wilson, 11 Sept. 1953 (Top Secret), File 82301-S, Box 35, CD 385 (General), RG 330, NA (declassified at our request, 1996).
26. 1952년 9월 11일 열린 제7차 3자 회의에서 생화학전에 대한 언급. USAF Operations,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2 (Top Secret), Folder 18, Nonlogged TS, Box 4, RG 341, NA.
27.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to the JCS on Chemical (Toxic)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아서 래드포드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 Subject: Chemical (Toxic)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11 Sept. 1953, p. 4, CD 385 (General), File 82301-S, Box 35, RG 330, NA.

7장. 한국전쟁: 제한전?

1. Mackinlay Cantor and Curtis LeMay, *Mission with LeMay* (New York, 1965), p. 382.
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1983),

p. 221;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1969), p. 463.

3. 1945년 뉘른베르크 헌장은 전쟁범죄를 '도시, 마을, 민가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로, 반인도적 범죄를 '민간인에 대한 비인간적 행위'로 각각 선언했다. 이 규정은 나치에게 적용되지만 연합군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됐다. 연합군은 전쟁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을 두지 않는 적의 범죄적 공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무력도 사용할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뉘른베르크에서 미국측 주임 검사였던 미국 대법원 판사는 전쟁과 인간성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은 장래 미국에 적용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그 법적 책략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 전면전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승자가 패자에게 항상 전쟁범죄 혐의를 떠안기고 자신이 '충실한 방어' 중 저지른 월권 행위는 면제받으려는 것이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양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전사의 길을 선택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도쿄와 다른 일본 도시들을 폭격으로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만든 도쿄 헌장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이란 문구를 주의 깊게 배제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미 국방부가 1940년에 개정한 '야전교범 27-10: 지상전 교전 수칙'(*Field Manual 27-10: Rules of Land Warfare*)에 따라 싸웠다. 뉘른베르크 헌장과 마찬가지로 1940년 규정은 민간 목표물 폭격에 대한 금지를 존중했다. 군사 목표물은 '전투 병력이 점령하고 있거나 병력이 통과할 수 있는 지점'으로 정의된 '방어 지역'으로 제한됐다. '방어 지역'의 이 같은 정의는 일본에 대한 전략적 폭격은 물론 한국에서 미국이 벌인 대부분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1956년 '야전교범 27-10'을 개정하면서 '방어 지역'의 개념을 민간인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소모적 폭격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모든 동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방어 지역은 '비록 방어되지 않고 있더라도…… 탄약과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군대 막사, 탄약과 군수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 군 작전이나 병사들의 숙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장소들'이 됐다.(Para. 40, p. 19) 개정된 야전 교범은 이와 동시에 '민간인은 오로지 그들만을 대상으로 겨냥되는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늘어놓고 있다.(Para. 24, p. 16)
4. 위의 책, p. 20.
5. 위의 책, p. 28.

6.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해 진행된 논의 중 가장 철저하고 사려 깊고 학술적인 저작은 브루스 커밍스의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1997)이다. 커밍스는 "내전이란 누군가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것이다"라며 내전은 복합적인 원인들 속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p. 238. 또 커밍스의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The Roaring Cataract, 1947-1950* (Princeton, N.J., 1990)을 볼 것.
7. 이 점의 찬반 증거에 관해서는 커밍스의 *Origins* Vol. 2, pp. 615ff를 볼 것.
8. Robert Simmons, "Korean Civil War," in Frank Baldwin, ed., *Without Parallel: Th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 (New York, 1974), pp. 151-153.
9. 미국이 1950년 6월 25~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한에 대한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경찰 활동'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소련은 유엔에 장제스 대표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참석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안보리에 불참,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Donald F.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Vol. 2: *1950-1960* (New York, 1961), pp. 601-603; Cumings, *Origins*, Vol. 2, pp. 636-637을 볼 것.
10. 최근 공개된 구소련의 문헌들은 김일성이 스탈린으로부터 확약을 얻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한다. 소련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과 3차세계대전을 벌이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한 북한 지도자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이용 가능한 기록과 관계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소련은 결국 김일성의 재통일 작전을 돕기 위해 비전투 군사 자문관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Evgeni Bajanov, "Assessing the Politics of the Korean War, 1949-1951," *Cold War in Asia Bulletin*, Winter 1995-96, pp. 54, 87-91과 Paul Lashmar, *Timewatch: Korea-Russia's Secret War*, BBC/A&E documentary film (London, 1996)을 볼 것. 중국이 한국전에 개입한 이유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마오쩌둥이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군을 보낸 동기를 놓고, 미국이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 안보를 위협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거나 '어떠한 위험과 비용을 무릅쓰고라도' 서방권에 교훈을 주려는 문화적 · 공격적 태도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 같은 관점들의 요약은 Zhang Shu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ans., 1995), pp. 1-11을 볼 것.
11. Zhou Enlai, "The First Year of People's China," *People's China* 2, no. 8 (1950): 7.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 주장을 막기 위해 7함대를 대만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저우언라이로부터 비난을 샀다.
12.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pp. 238-243, 284.
13.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pp. 617-18. 맥아더의 공군은 1950년 8월 27일부

터 압록강변에 있는 중국의 통신, 철도 기지들을 정찰, 공격, 폭격하고 있었다. "Foreign Ministry Spokesman Refutes MacArthur's Distortions," 11 Nov. 1950, *People's China*, Supplement to 2, no. 11 (1 December 1950): 5를 볼 것.

14. Peng Dehuai, *Memoirs of a Chinese Marshal* (Beijing, 1984), pp. 474-475; *Zhongguo renmin zhiyuanjun kangmei yuanchao zhanshi* [History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the Resist America, Aid Korea War] (Beijing, 1990) [hereafter cited as *Zhongguo*], Map 2, "The First Phase Offensive, October 19-25, 1950."
15. Zhang, *Mao's Revolutionary Romanticism*, p. 110; Lt. Col.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College Station, Tex., 1989), pp. 44-45.
16. Appleman, *Disaster in Korea*, p. 58에서 인용.
17. 위의 책, pp. 58-59.
18. 위의 책, pp. 40, 57.
19. "Volunteers for Korea," by Qiao Guanhua, editor, *People's China* 2, No. 10 (16 November 1950).
20. 쓰촨성(四川省) 벽지의 농촌 젊은이들이 1951년 군 입대 요청에 응한 사례는 Stephen Endicott, *Red Earth: Revolution in a Sichuan Village* (Toronto, 1989), pp. 47-48을 볼 것.
21. Mao Zedong, *Selected Military Writings* (Beijing, 1968), p. 137.
22. Appleman, *Disaster in Korea*, pp. 102, 104.
23. 위의 책, pp. 4-5.
24. Zhang, *Mao's Revolutionary Romanticism*, p. 114. 로이 애플먼 대령은 2사단 배후에서 전개된 중국측 기동 작전은 "미8군을 청천강 전선에서 후퇴하도록 압박하면서 병력 대부분이 함정에 빠지도록 잘 고안되고 제대로 실행됐다"고 평한다. Appleman, *Disaster in Korea*, p. 232.
25. *Zhongguo*, p. 43.
26. Appleman, *Disaster in Korea*, chap. 14;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1 (London, 1990), pp. 333-335.
27. Appleman, Disaster in Korea, p. 286.
28. MacArthur, CINCUNC Tokyo to DEPTAR for JCS Wash. DC, 30 Nov. 1950, CCS 383.21, Korea(3-19-45), Box 43, Sec. 40, RG 218, NA. 그의 위기감을 강조하기 위해 맥아더는 4일 뒤인 1950년 12월 3일 이 메시지를 합참에 다시 보냈다. 위의 책.
29.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p. 623.

30.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to the JCS on the use of the atomic bomb, 4 Dec. 1950, CCS383.21 Korea (3-19-45), Enclosure A, p. 47, Sec. 40, JCS 2173/3, RG 218, NA. 맥아더, 합참, 국무부, 트루먼, 애틀리 간의 대화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보여 주며, 트루먼과 미군이 1951년 2월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던 대규모 군사적 패배의 위협을 막기 위해 원자폭탄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준다. 미국이 한국에서 원자탄 사용을 검토한 다양한 사례에 관해서는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pp. 290-293을 볼 것.
31. Statement by Chou En-lai, 24 Feb. 1952, in Stop *US Germ Warfare!* (Peking, 1952), p. 1.
32. Zhang, *Mao's Revolutionary Romanticism*, p. 118, see Appleman, *Disaster in Korea*, pp. 285-289, for losses by the U.S. 2nd Division.
33. Appleman, *Disaster in Korea*, p. 17.
34.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p. 623, General Omar Bradley testifying at the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the MacArthur Hearings), U.S. Senate, 82nd Congress, First Session, Pt. 2, pp. 732-733, as quoted in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p. 641.
35.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New York, 1967), pp. 264-265.
36. Lt. Colonel Roy E. Appleman, *Ridgway Duels for Korea* (College Station, Tex., 1990), pp. 576-577.
37. John Gittings in "The War before Vietnam," in Gavan McCormack and John Gittings, eds.,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New York, 1978), p. 66에서 인용.
38.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pp. 460-461, as cited in Futrell, *The USAF in Korea*, p. 505.
39. Walter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1966), pp. 500-501.
40. "자발적 송환"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치른 값비싼 대가에 관한 논점들은 Admiral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1955), p. 152, and Hermes, *Truce Tent*, pp. 500-501을 볼 것.
41. Peng, *Memoirs*, pp. 482-483.
42. U.S. I Corps Command Report, October 1951, Sec. I, pp. 161-167, as cited in Hermes, *Truce Tent*, p. 101.
43. 위의 보고서, p. 192. Also UNC/FEC Command Report, Dec. 1951, as cited in ibid., pp. 180-181.

44. 위의 보고서, pp. 186, 293.

45. General Mark Clark, UNC/FEC Message C50218, CINCFE to JCS, 15 June 1952, as cited in ibid., p. 293.

46. Zhang, *Mao's Revolutionary Romanticism*, pp. 177ff.

47. Hermes, *Truce Tent*, p. 108; Futrell, *The USAF in Korea*, pp. 406-411.

48. Redline message, 21 May 1951, Hoyt Vandenberg Papers, Box 86, Library of Congress; ibid., 22 June 1951.

49. Futrell, *The USAF in Korea*, p. 412에서 인용.

50.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19 May 1951, quoted in Zhang, *Mao's Revolutionary Romanticism*, p. 171.

51. 위의 책, p. 170.

52. Phillip S. Meilinger, *Hoyt S. Vandenberg: The Life of a General* (Bloomington, Ind., 1989), pp. 187-188.

53. Miller (1957), pp. 74-75.

54. 195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Daily Korean Bulletin"이 플로리다의 백악관에 있던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미군 정보부가 만든 이 문건은 북한 내 적군 병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1월 30일 59만 6천 명에서 1주일 뒤인 12월 7일엔 80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전투 지역의 병력은 21만 3천 명에서 29만 2천 명으로 증가했다. 적은 연대 병력으로 소대 병력을 공격했으며 공군력은 '전선까지 닿을 정도의' 능력을 확보했고 공격적으로 활동했다.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8 (White House), Nos. 1333, 1334, 1337, 1340, 1342.

55.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Situation of the Enemy's Bacterial War...," 28 Jan. to 31 Mar. 1952, by the Headquarte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5 Apr. 1952, JW-1, 1952, Vol. 107, Doc. 14, PLA Archives, Beijing.

56. Albert E. Cowdrey, "'Germ Warfare' and Public Health in the Korean Conflic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39* (1984): 157.

57. Memorandum of Conversation, 2 Mar. 1951,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78 (Department of State), No. 90B.

58. Albert E. Cowdrey, *The Medics' War* (Washington, D.C., 1987), p. 221.

59. 1장 참조.

8장. 심리전과 생물학무기

1. 미국 정부 비밀 해제 문서. Index 1988, No. 1784, p. 8.
2. Memorandum for the Record (Top Secret), 11 Aug. 1953, File 246-298A,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3, Entry 199, Box 2, RG 341, NA.
3. Memorandum for Colonel John J. Hutchison, Chief,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U.S. Air Force (Secret), 17 Mar. 1953, File 337-385,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3, Entry 199, Box 5, RG 341, NA.
4. James A. Rafferty, Operations Analyst, HQ USAF, "Diagnosis of the USAF Program in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Dec. 1952, 3 File TS53/67-99,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3, Entry 199, Box 1, RG 341, NA.
5. Major General Robert M. Lee, Director of Plans USAF, Memorandum for Chief, War Plans Division [and] Chief,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17 Mar. 1953, File 337-385, USAF-Operations,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3, Entry 199, Box 5, RG 341, NA. 이 메모는 미국의 비밀 세균 작전 조직 및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작전 관할권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심리전부대에 내려진 초기 명령을 보려면 이하 참조. Lieutenant General I. H. Edwards,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USAF, Memorandum on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Top Secret), 5 Dec. 1950; Major General Truman H. Landon, Director of Plans USAF, Memorandum on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Top Secret), 19 Jan. 1951, File 1,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2, Entry 199, Box 1, RG 341, NA.
6. '581ARC 비행전대' 부대사 1952년 3~4월을 보면 존 J. 허치슨 대령을 'ARCS 부사령관'으로 기술했으며 이름은 'J. J. Hutchinson 대령'으로 적고 있다. History of the 581st Air Resupply and Communications Wing, p. 7-b, Microfilm K3642, 581 ARC Wing, K318.85-581. USAF Historical Research Agency,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7. L. Fletcher Prouty, *The Secret Team: The CIA and Its Allies in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nglewood Cliffs, N.J., 1973), p. 220.
8. Michael E. Haas, *Air Commando! 1950-1975: Twenty-Five Years at the Tip of the Spear* (Hurlburt Field, Fla., 1994), p. 17.
9. 위의 책, p. 17
10. 미국 정부 비밀 해제 문서, Index 1989(White House), No. 2967, 27 May 1953.
11. History of 581st ARC Wing, July to December 1952, pp. 6-7, Microfilm Roll K3642, 581

ARC Wing, K318.85-581, USAF Historical Research Agency,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12. 위의 책, 23 July to 31 Oct. 1951.

13. "Judgement of Military Tribunal on U.S. Spies in the Arnold-Baumer Espionage Case," 23 Nov. 1954, published in Supplement to *People's China*, 16 Dec. 1954. p. 4.

14. History of 581st ARC Wing, 23 July to 31 Oct. 1951, Preface, Microfilm Roll K3642, 581 ARC Wing, K318.85-581, USAF Historical Research Agency,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15. Joseph Needham et 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Peking, 1952) [여기서부터는 Needham Report (1952)로 인용], p. 181.

16. Headquarters Air Resupply and Communication Service, Washington, 21 May 1952, "Amendment of Movement Order, 581st AR&C Wing," Microfilm Roll K3643, 581 ARC Wing, K318.85-581, USAF Historical Research Agency,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17. Alfred H. Paddock, Jr., *US Army Special Warfare: Its Origins—Psychological and Unconventional Warfare, 1941-1952* (Washington, D.C., 1982), p. 78에서 인용. 다른 조정 기관은 합동참모본부 산하 합동전략기획위원회, 작전총괄국, 심리전조정위원회 등이다. 이들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미국 정부 비밀 해제 문서를 참조할 것. Index 1979, No. 161-C; Index 1992 (White House), No. 2855; Index 1991 (White House), No. 3546; Index 1989 (White House), No. 2967.

18. Edward P. Lilly, Ph.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sychological Operations 1945-1951" (Top Secret), 95 pp.,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8, No. 1742, pp. 93-94.

19. Minutes of the Fifteenth Meeting,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11 Sept. 1952 (Top Secret),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8, No. 1779, pp. 25-27.

20. "Working Draft for the Guidance of Panel Members,"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17 Nov. 1952,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93, No. 1150, p. 1.

21. Minutes of General Staff Meeting,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29 Aug. 1952,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8, No. 1778.

22. Memorandum on Plan Takeoff, for the Director,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18 Sept. 1951, PSB File 387.4 Korea,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William Korns,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ect: Operational Planning on Broadbrim [Takeoff], 26 Nov. 1951, PSB File 387.4 Korea,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23. 예를 들어 1951년 8월 '이륙' 작전 기획안 초안은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리전전략위원회는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조정과 높은 수준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James Webb,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Gordon Gray, Director,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18 Sept. 1951, Section X, Planning, Coordination and Execution, PSB File 387.4 Korea,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24. 1951년 9월 18일 승인된 '이륙' 작전에 앞서, 같은 해 9월 4일, 날짜가 적히지 않은 8월의 작전 초안이 있었다. 고든 그레이가 같은 해 8월 31일 '이륙' 작전이란 제목으로 존 퍼거슨(John Ferguson) 외 여러 사람에게 보낸 메모는 두 번째 초안을 언급한다. 로버트 러빗 국방장관은 1951년 9월 6일 초안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기초해 '긴박성에 비추어' 1951년 9월 18일 계획 공표에 동의했다. 고든은 계획안 조정 명령을 에드워드 배럿(Edward W. Barrett)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 겸 심리전조정위원회 의장에게 1951년 9월 19일 내렸다. PSB File 387.4 Korea,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참조.

25. 심리전전략위원회 참가자 메모에서 드러나듯 극동사령부 내에서 스스로 작전 조정을 할 수는 없었다. Colonel J. Woodall Greene, Memorandum for the Record, 16 Nov. 1952, Subject: Comments on Memorandum for the Record Dated 9 Nov. 1952 from Mr. Norberg on "Broadbrim" and "Affiliate," PSB File 387.4 Korea,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26. Brig. General J. D. Balmer, Chief, Joint Subsidiary Plans Divis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Memorandum for the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Subject: Plan "Takeoff," 14 Sept. 1951 (Top Secret),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8 (White House), No. 1502.

27. Memorandum for Mr. Gray, n.d.,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8 (White House), No. 1729;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emorandum for the Director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Subject: Plan "Takeoff," 18 Sept. 1951,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91 (White House), No. 3541 (also in Index 1988, No. 1503).

28. Two "Memorandum for the Record," both dated 3 Oct. 1951,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91 (White House), No. 3540. Operation Broadbrim ("Takeoff") was placed into "the green" by the Joint Subsidiary Plans Division (the Defense Department body responsible for pulling together psychological and covert warfare operations) near the end of December 1951, and was expected to receive action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about the first week of January 1952. Edward W. Barrett, Assistant Secretary, Department of State to Gordon Gray, Director,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29 Dec. 1951, PSB File 387.4 Korea,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29. Memorandum for General Reuben E. Jenkins, Subject: Report on Trip to FECOM, 7 Nov. 1951,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75, No. 68-D.

30. 11장 참조.

31. Maj. General Reuben E. Jenkins, Assistant Chief of Staff G-3, Memorandum for the Chief of Staff, U.S. Army, 20 Nov. 1951,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75, No. 69-A.

32. Thomas H. Etzold and John L. Gaddis, *Containment: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ew York, 1978), p. 127.

33. William Korn,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ect: Operational Planning on Broadbrim ("Takeoff"), 26 Nov. 1951, PSB File 387.4 Korea,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34. 험머 작전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건이 있다. Charles McCarthy, Addendum to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D-7, D-7/a, D-7/b, PSB File 387.4 Korea, 25 Oct. 1951,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35. Letter from Gordon Gray to Edward W. Barrett,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Affairs, and to Chairman, Psychological Strategy Operations Coordinating Committee, 19 Sept. 1951, PSB File 4120; Letter, Edward W. Barrett to Gordon Gray, 29 Dec. 1951, PSB File 387.4 Korea, Papers of Harry S. Truman, Truman Library.

9장. 한국전에서의 CIA

1. 윌리엄 콜비 CIA 국장은 1975년 CIA와 디트릭 기지와의 관계에 대해 '치명적인 세균전 병원체 및 이를 은밀하게 사용하는 데 적합한 관련 운반 체계의 개발을 위한 것'이

었다고 증언했다. 콜비는 이 주제에 관한 많은 CIA 기록이 1973년 파기됐음을 시인한 뒤 아직 끝나지 않은 임무를 포함해 "이들 물질이나 수단이 살상 작전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Congress, *Final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to Study Government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Intelligence Activities* (The Church Committee) (Washington, D.C., 1976), Vol. 1: *The Handling of Toxins*, pp. 5-7, 22-23.

2. William Blum. *The CIA, a Forgotten History: US Global Interventions since World War 2* (London and Atlantic Highlands, N.J., 1986) pp. 211-212, 301-302, 146; "Fever Virus Sent to Cuba, Paper States," Reuters dispatch, New York, *Toronto Globe and Mail*, 10 Jan. 1977; "Cuba Denounces Biological Aggression from the United States," text of Cuban report to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appearance of the "thrips palmi" plague, *Granma International*, June 1997, p. 3.
3. L. Fletcher Prouty, *The Secret Team: The CIA and Its Allies in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nglewood Cliffs, N.J., 1973) p. 221.
4. Alfred H. Paddock, Jr., *US Army Special Warfare: Its Origins—Psychological and Unconventional Warfare, 1941-1952* (Washington, D.C., 1982) pp. 73, 75-76, 79.
5. 위의 책, pp. 80-81, 108-109.
6. 위의 책, p. 106; Prouty, *The Secret Team*, p. 222.
7. Maj. General John K. Singlaub with Malcolm McConnell, *Hazardous Duty: An American Soldier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1991), p. 182.
8. Prouty, *The Secret Team*, p. 223, also pp. 138, 221-222.
9. 위의 책, p. 232.
10. 위의 책, p. 222.
11. 위의 책, p. 138.
12. 위의 책, pp. 222-223.
13. William M. Leary. *Perilous Missions: Civil Air Transport and CIA Covert Operations in Asia* (Tuscaloosa, Ala., 1984), pp. 112-113.
14. Victor Marchetti and John D. Marks, The CIA and the Cult of Intelligence (New York, 1980), p. 113.
15. Annis G. Thompson, *The Greatest Airlift: The Story of Combat Cargo* (Tokyo, 1954) p. 449.
16. 위의 책, Acknowledgments.

17. Leary, *Perilous Missions*, p. 124.

18. "Psychological Warfare Research: A Long Range Program," Pt. 1: "Essential Background Information, March 1953," pp. 35-37,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4 (Dept. of Defense), No. 1564; Paddock, *US Army Special Warfare*, pp. 75-76; Etzold and Gaddis, *Containment*, pp. 125-128. 정책조정실(OPC)에 대한 CIA의 통제력은 국무장관이 OPC 실장을 임명할 때 CIA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OPC 실장은 CIA의 책임자이자 모든 정보 활동의 조정 책임을 맡은 CIA 국장에게 보고했다. 위의 책.

19. Leary, *Perilous Missions*, p. 127에서 인용.

20. Frank W. Wisner, Memorandum of 1 Aug. 1949 to Colonel Yeat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s cited in Paddock, *US Army Special Warfare*, p. 76. 이 메모는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 Directive on Office of Special Projects, NSC 10/2, 18 June 1948, in Etzold & Gaddis, *Containment*, pp. 125-127을 반복한 것이다. 이러한 지시들이 군사 정책 속에 편입됐다는 확증에 관해서는 Department of the Army, "The Conduct of Guerrilla Warfare Activity," Army Special Forces Program, 14 Oct. 1953, File 1573-S, Box 258, RG 175, NA를 볼 것.

21. U.S. Congress, *Final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to Study Government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Intelligence Activities*, p. 24.

22. 6장 주석 2번 참조.

23. Leary, *Perilous Missions*, p. 116.

24. 위의 책., p. 125.

25. 위의 책, p. 124.

26. Prouty, *The Secret Team*, pp. 161, 221.

27. Michael E. Haas, *Air Commando! 1950-1975: Twenty-Five Years at the Tip of the Spear* (Hurlburt Field, Fla., 1994), p. 16.

28. File 385 (6-4-16), Box 151, RG 218, NA.

29. 위의 문서.

30. 위의 문서.

31. Haas, *Air Commando*, pp. 18, 22-26.

32. 위의 책, p. 121.

33. U.S. Air Force, "Guer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53" (Maxwell Air Force Base, Ala., 1964), p. 175 (Microfilm Roll K2627).

34. 공군 특공대의 지휘 기관에 관해서는 Haas, *Air Commando*, p. 11을 볼 것.

35. Letter from Herbert A. Mason, Jr., Command Historian, Air Force Special Operations Command, Hurlburt Field, Florida, to Edward Hagerman, 9 Jan. 1997.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CCRAK의 기록은 기술적 정보로 제한돼 있다. 극동사령부의 G-2가 CCRAK의 활동을 정보 수집 기능으로 다소 제한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게릴라전과 공군력: 1950-1953』은 CCRAK가, CIA가 극동사령부 산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 독자적인 활동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CIA를 지원하는 동시에 극동사령부를 위한 임무도 수행했다는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

36. '규슈 집시' 는 K-16 공항(서울)의 403병력수송비행전대 산하 6461병력수송비행대대로 편성됐으며 C-47기 21대로 구성됐다. 그들은 동시에 제5공군의 6167작전비행대대 소속이기도 했다. Microfilm Roll No 795, 483 Troop Carrier Wing (315 Air Division), KWG-483, 1953, Histories, Frame 0800, USAF Historical Research Agency,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and Stephen Pease, *PSYWAR: Psychological Warfare in Korea, 1950-1953* (New York, 1962), p. 61을 볼 것.

37. Thompson, *The Greatest Airlift*, p. 413; Microfilm Roll 795, 483 Troop Carrier Wing (315 Air Division), KWG-483, 1953, Histories, Frames 0185, 0720, 1613, USAF Historical Research Agency,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38. Thompson, *The Greatest Airlift*, p. 428. 비정규 작전에서의 규슈 집시의 역할에 관해서는 Guerrilla Warfare and Airpower in Korea, 1950-1953을 볼 것.

39. Haas, *Air Commando*, pp. 11-12, 21.

40. Thompson, *The Greatest Airlift*, pp. 136, 417.

41. Haas, *Air Commando*, pp. 13-14.

42. Ethel Dehaven, Helen Joiner, and Dorothy L. Miller, "History of the Air Materiel Command, 1 January-30 June 1952," Vol. 1, p. 329, Microfilm Roll K2004, Air Materiel Command, K200.01, 1950-1954, Histories, USAF Historical Research Agency,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43. Haas, *Air Commando*, p. 33.

44. 위의 책. 169-175.

45.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다음 자료들에 근거한 것이다. Leary, *Perilous Missions*, pp. 139-142; "Judgement of Military Tribunal on U.S. Spies in the Downey-Fecteau Espionage Case," *People's China*, No. 24, Supplement, 16 Dec. 1954; *New York Times*, 24 Nov. 1954;

an interview with John Downey in *People*, 18 Dec. 1978, pp. 45-46, 49-50.

46. Leary, *Perilous Missions*, p. 138.
47. "US Agents Captured," *People's China*, No. 24 (16 Dec. 1954): 35.
48. Leary, *Perilous Missions*, p. 139.
49. 위의 책, p. 140.
50. 위의 책.
51. *New York Times*, 24 and 25 Nov. 1954.
52. Leary, *Perilous Missions*, p. 141에 따르면 펙토(Fecteau)는 감옥에서 19년을 보낸 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두 달 전에 조용히 풀려났다. 하지만 다우니는 닉슨 대통령이 1973년 2월 기자회견에서 그가 중국 영토에서 군용기가 격추된 뒤 포로로 붙잡힌 CIA 요원이라고 시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53. John Ranelagh, *The Agency: The Rise and Decline of the CIA* (London, 1986), p. 218.
54. *New York Times*, 24 Feb. 1967, 26 Dec. 1977.
55. 우리는 프리거 출판사와 연락했으나 프리거의 기록들이 없다고 해 이 책에 관한 어떤 배경 정보도 얻지 못했다.
5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1966), p. 231.
57.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tudent Subsidies Bared," Facts on File, 9-15 March 1967, pp. 79-80; Sol Stern, "A Short Account of International Student Politics and the Cold W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NSA, CIA etc," *Ramparts 5*, No. 9 (1967): 29-38.
58. 『계간 중국』(*China Quarterly*)은 CIA가 '자금 지원 통로로 이용하던' 파리의 문화자유회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The masthead of *China Quarterly*, No. 1 (January-March 1960); and *New York Times*, 26 Dec. 1977, p. 37을 볼 것.
59. John C. Clews, *Communist Propaganda Techniques*, foreword by G. F. Hudson (New York, 1964).
60. Facts Bearing on the Problem and Discussion: Study on Biological Warfare by the Joint Advanced Study Committee," 21 Sept. 1951, JCS 1837/26, 1837/29, 26 Feb. 1952; JCS 1837/34, 11 June 1952, RG 218, NA.
61. *New York Times*, 17 Sept. 1975.
62. U.S. Congress. *Final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to Study Government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Intelligence Activities* (1976), pp. 5, 22-23.

10장. 점령지 일본에서의 매개 곤충: 406부대

1. "Annual Historical Report 1951,"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ies, Professional Section, Introduction, Historical Unit Medical Detachments [HUMEDS], Box 163, RG 112, NA.
2. *American Men and Women of Science*, 19th ed. (New York, 1994), p. 159. 한국전쟁 기간 동안 발표된 W. D. 타이거트(W. D. Tigertt)의 무수한 의학 연구논문 목록을 보려면 *Index Medicus* 참조.
3. 창설 이후 한국전쟁 내내 406부대 보고서는 첨부해야 하는 배포 목록이 빠져 있어 눈길을 끈다. 전쟁 후 수행된 겨울을 나는 모기와 B형 일본뇌염에 관한 연구에는 디트릭 기지를 포함해 긴 배포 목록을 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Interim Report on Japanese Encephalitis and Mosquito Vector titled "Bionics of Culex Tritaeniorhynchus,"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Japan, 1959-1960, Historical Division, U.S. Medical Department [AMEDD] Records 1947-1961, File HD 319.1, Box 242, RG 112, NA.
4. Edwin W. Payne, Supply Division, Memorandum for Record, 18 June 1949, 23 Sept. 1949, 2 Dec. 1949,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Documents, GHQ-SCAP, 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 RG 331, NA. 406부대에 실험용 동물을 공급한 기관은 사이타마(Saitama)동물실험연구소로, 연구소장은 이시이 시로 장군의 과거 동료였던 오자와 이치사부로였다.
5. "Annual Historical Report 1947," p. 3,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HUMEDS, Box 162, RG 112, NA.
6. "Annual Historical Report 1948." p. 8,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HUMEDS, Box 486, RG 112, NA.
7. Sheldon H. Harris, *Factories of Death: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1945 and the American Cover-up* (London and New York, 1994), chap. 10; and Peter Williams and David Wallace, *Unit 731: The Japanese Army's Secret of Secrets* (London, 1989), p. 279.
8. ISHII, Shiro, File 201, Book 1,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n.d., RG 331, NA; Nippon TV 1995, The Bacteriological Warfare Is Still Alive, a documentary featuring Professor Keiichi Tsuneishi on this topic.
9. "Annual Report of Medical Service Activities 1951," pp. 13-15, Administrative Section,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Tokyo, RG 112, Surgeon General. Historical Division, AMEDD Records 1947-1961, HD 319.1, Box 242.

10. "Annual Historical Report 1946," p. 19,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HUMEDS, Box 162, RG 112, NA.
11. 406부대의 모기 및 B형 일본뇌염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자료 참조할 것. "Annual Historical Report 1947," pp. 47, 49-50, 52-56, 59-61, HUMEDS, Box 162, RG 112; Annual Historical Report, Professional Section, 1949, Box 163, RG 112; "Annual Historical Report," Professional Section, 1950, pp. 155-186, AMEDD Records 1947-1961, File HD391.1, Box 242, RG 112; "Annual Report of Medical Service Activities 1951," pp. 9, 14-15, 49-50, ibid.; "Interim Report, 1959-1960," AMEDD Records, File HD 319.1, Box 242, RG 112, NA.
12. 공식 표현에 따르면 생태학 팀에는 B형 일본뇌염 매개충으로 의심되는 곤충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업무가 할당됐다. "Annual Report of Medical Service Activities 1951," p. 3, Administrative Section,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Far East 1951-1952, AMEDD Records 1947-1961, File HD 319.1, Box 242, RG 112, NA.
13. "Annual Historical Report 1950," p. 202, Professional Section, Historical Division,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AMEDD Records 1947-61, File HD 319.1, Box 242, RG 112, NA. The "Annual Historical Report 1949" of Unit 406, pp. 197-199, includes a bibliography on mosquitoes and encephalitis with fifteen references to works by Japanese scientists; HUMEDS, Box 163, RG 112, NA.
14. "Monthly Technical Report for September 1951," p. 12,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Box 163, HUMEDS RG 112, NA.
15. "Annual Historical Report 1953," pp. 2-5,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Department of Entomology, Taxonomic Entomology Section, pp. 1-7, HUMEDS, Box 163, RG 112, NA.
16. Records of Unit 406 projects are generally to be found in the monthly technical reports of HUMEDS, Boxes 162-163, and the AMEDD Records 1947-1961, File HD 319.1, Box 242, RG 112, NA. For early reports, see GHQ-SCAP, Box 9341, RG 331, NA.
17. "Annual Report of Medical Services Activities 1951"; "Annual Report 1952,"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Administrative Section, AMEDD Records 1947-1961, File HD 319.1, Box 242, RG 112, NA.
18. 406부대 연례 보고서가 지적하듯, "한 해 내내 군과 민간에서 우리 조직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극동사령부에 도착해 15일에서 그 이상 장기간 머물면서 특정한 의학적 문제를 조사하거나 자문에 응했다." "Annual Report of Medical Service

Activities 1952," AMEDD Records 1947-1961, File HD319.1, Box 242, RG 112, NA.
19. Memo to File: Progress Report on "R" Work at GIES, 10 Apr. 1952, File DRBS-1820-11, Vol. 4224, Interim Box 43, RG 24F, NAC.
20. Memorandum for the Officer in Charge, 14 Dec. 1945, Subject: Memorandum from Japanese Communist Party, File 201 (ISHII, Shiro, #700196), Book I,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GHQ, Far East Command, RG 331, NA. (Declassified in February 1992.)
21. Harris, *Factories of Death*, pp. 175-176.
22. "Monthly Technical Report for August 1951," 9 Oct. 1951,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HUMEDS, Box 163, RG 112, NA.
23. "Annual Historical Report 1946," p. 9,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HUMEDS, Box 162, RG 112, NA.
24. 1952년 12월 비엔나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인민대회의 일본대표가 배포한 팸플릿, New China News Agency, dispatch of 11 Mar. 1953; *Survey of China Mainland Press [SCMP]* No. 530, 1953.
25. Ms. Fuyuko Nishisato, freelance research worker, information given to Stephen Endicott in Tokyo, 5 Apr. 1994.
26. "Annual Historical Report 1951," pp. 266-271,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Professional Section, AMEDD Records 1947-1961, File HD 319.1, Box 242, RG 112; "Report of Activities of Epidemic Hemorrhagic Fever Field Unit, 14 July 1952," p. 12, HUMEDS, Box 163, RG 112, NA; Harris, *Factories of Death*, p. 206.
27. "Annual Report of Medical Services Activities 1951," p. 36,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Administrative Section, AMEDD Records 1947-1961, File HD 319. 1, Box 242, RG 112, NA.
28. Lt. Col. R. L. Hullinghorst and Lt. Col. Arthur Steer, Department of Pathology,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Pathology of Epidemic Hemorrhagic Fever," *Annals of Internal Medicine* 38 (1953): 101; "Foreword,"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16 (1954): 617. See Williams and Wallace, *Unit 731*, p. 338, n.78, and pp. 276-277, 283.
29. "Monthly Technical Report for August 1951," 9 Oct. 1951,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HUMEDS, Box 163, RG 112, NA.
30. 이 자료는 "Annual Historical Report 1952," 406 Medical General Laboratory, HUMEDS,

Box 163, RG 112, NA에서 찾을 수 있다.

31. "Far East Command Conference on Hemorrhagic Fever: Introduction," cited in Williams and Wallace, *Unit 731*, p. 283.

32. Williams and Wallace, *Unit 731*, pp. 338-339, nn. 78, 80, 83; Hullinghorst and Steer, "Pathology of Epidemic Hemorrhagic Fever," pp. 77-79, 101, and "Foreword,"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p. 671; Col. Charles L. Leedham, Medical Consultant, Far East Command, "Epidemic Hemorrhagic Fever: A Summariza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38 (1953): 106.

33. Albert E. Cowdrey, *The Medics' War* (Washington, D.C.. 1987). p. 175.

34. "Report by Brigadier General Crawford F. Sams, MC, Chief, 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 SCAP to Chief of Staff, Far East Command," Subject: "Special Operations in North Korea," 17 Mar. 1951, File, Special Operations in North Korea-General Sams, Box 3179 (Public Health and Welfare, Medical Section FEC, Korea, Reports to Korea-Sanitation), RG 338, NA. A document titled "Complete Discussion, Classification of Sams Report" was declassified 25 October 1977. 존 파월의 호의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서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았다. 그렇지만 참조 번호가 없다.

35. A. V. Hardy, R. P. Mason, and G. A. Martin, "The Dysenteries in the Armed Forces,"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January 1952, pp. 171-175. 같은 전염병을 다룬 다른 보도도 있다.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News* ("Dysentery among Enemy Prisoners Cut," February 1952) and i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28 Mar. 1953, pp. 1055-1059, and 4 Apr. 1953, pp. 1157-1159.

36. File CD 383.8(Biological Warfare), p. 5, RG 330, NA(declassified at our request, 1996).

37. G. B. Reed, "Present Position of Bacteriological Warfare," 16 Dec. 1947, p. 8, under cover, From: DRCS Washington, To: DRB (Action), July 1949, File 54-935-302, Vol. 4152, RG 24, NAC.

38. From: Medical Section to G-2, 12 Dec. 1950, Far East Command Medical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File 312.3, Box 76, RG 338, NA.

39. 7장 참조.

40. 11장 참조.

11장. 조종사들

1. 1장 참조.
2. 요크 대학의 『한국전 구술사 프로젝트』(Oral History Project on the Korean War)를 위해서 스티븐 엔디콧이 1996년 3월 27일 베이징에서 중국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인 주춘 교수와 가진 인터뷰.
3. 에드워드 해거먼이 『한국전 구술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1996년 1월 26일 플로리다 사라소타(Sarasota)에서 하워드 B. 히첸스 2세(Howard B. Hitchens, Jr.)와 가진 인터뷰.
4. 템즈 TV와 보스톤의 WGBH 합작, 필립 화이트해드(Phillip Whitehead) 제작 및 감독의 『한국: 알려지지 않은 전쟁』(*Korea: The Unknown War*)에서의 파러-호클리 인터뷰.
5. Anthony Farrar-Hockley, *The Edge of the Sword* (London, 1954/1981), pp. 222- 223.
6. Hitchens interview.
7. Eugene Kinkead, *In Every War but one* (New York, 1959), p. 17, and chap. 2, "Why They Collaborated.".
8. 1952년과 1953년 『인민의 중국』(People' s China)에 25개의 자술서가 영문으로 실렸다. 우리는 추가로 제67전술정찰비행단(Tactical Reconnaissance Group) 제45비행대대 소속 로버트 J. 번스(Robert J. Burns) 대위와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 제20공군 제19폭격비행단 소속 토마스 L. 아이레스(Thomas L. Eyres) 중위 등의 자술서를 1996년 3월 베이징의 중앙문서국에서 국가 문서국의 호의로 입수했다. 이 둘 모두 '1급비밀'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1952년과 1953년 베이징에서 발간된 전쟁 포로 진술서와 본질적으로 비슷했다.
9. 워커 M. 마후린(Walker M. Mahurin) 대령의 진술서, 10 Aug. 1953, in *Depositions of Nineteen Captured U.S. Airmen on Their Participation in Germ Warfare in Korea*, Supplement to *People' s China* (Peking), 1 Dec. 1953, p. 14.
10. 앤드루 J. 에반스 2세(Andrew J. Evans Jr.) 대령, 34세, 조종사, 제49전폭기비행전대 부전대장(deputy commanding officer). 1953년 3월 26일 한국에서 격추당해 포로가 됐다. 직업군인으로 지상 작전과 핵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훈련을 받았고 공군대학의 부총장, 합동참모본부 병참기획단 단장, 공군참모총장 직속 행정관 보좌관, 공군 전쟁기획사단의 일원으로 복무했다. 그는 중국군에 제출한 자신의 이력에서 마지막 부분은 그럭저럭 생략했지만 중국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위급 결정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Depositions of Nineteen US Airmen*, p. 4; "Sworn Statement" (typewritten) to Special Agent,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Far East

Air Force, 13 Sept. 1953, UN Secretariat Documents, A/C 1L66, 1953.

11. Colonel Frank H. Schwable, "Statements of Colonel Frank H. Schwable, U.S. Marine Corps," Supplement to *New Times*, No. 10 (4 Mar. 1953: 5-6.)
12. *Depositions of Nineteen U.S. Airmen*, pp. 43, 41.
13. 위의 진술서, pp. 5-6, 33, 34, 37.
14. 위의 진술서, pp. 11, 43.
15. 위의 진술서, pp. 6, 43, 49.
16. 위의 진술서, pp. 6, 44.
17. 위의 진술서, pp. 16, 22, 29, 41.
18. 슈와블(Schwable) 자술서 p. 8.
19. *New York Times*, 6 Sept. 1953.
20. 프랭크 하세 슈와블(Frank Hawse Schwable) 대령. 1908년 버지니아 노퍽에서 출생. 1900년 의화단 사건(Boxer Rebellion)과 필리핀 반란 진압에 참전한 해병 대령의 아들. 1929년 해병 입대. 2차세계대전 당시 4개의 수훈공군십자훈장을, 한국전에서는 '이례적으로 가치 있는 성취를 이뤄' 1개의 금성상(Gold Star)을 받았으며 해병대 안에서 가장 유망한 선임 장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해병대는 슈와블 대령이 중국군에 제출한 세균전 자백서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그에 대한 군법회의 심문 기록이 1천2백 페이지에 이른다. 결국 그는 1계급 승진해 전역했다. 수년 후 요크 대학의 『한국전 구술사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자인 켄 칸(Ken Kann)이 인터뷰 요청을 하자 슈와블 장군은 '옛 상처'를 다시 열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Elie Able, New York Times Service, Washington, *Toronto Globe and Mail*, 22 Feb. 1954; John W. Powell to Stephen Endicott, 2 Mar. 1978, 9 Sept. 1979.
21. Walker M. Mahurin. *Honest John: The Autobiography of Walker M. Mahurin* (New York, 1962), pp. 283-284, 287, 288; *New York Times*, 15 Aug. 1953.
22. Enclosure in Memorandum of 15 Sept. 1953 by General G. B. Erskine, USMC (Ret),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Special Operations), to the U.S. Air Force and the U.S. Marine Corps, CD 385 (Biological Warfare), RG 330, NA.
23. Meeting of POW Working Group, Operations Coordinating Board, Washington, D.C., 13 Nov. 1953, p. 4,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92 (White House, Secret), No. 2855.
24. UN Secretariat Document, A/C 1L66, 1953, 23 Sept.-26 Oct. 1953.

25. 위의 문서.

26. "Protest Statement," 8 Mar. 1952; *Stop U.S. Germ Warfare!* (Peking, 1952), p. 8.

27. 6장 참조.

28. "Report of Investigation of Communist Allegations That the USAF Participated in Biological Warfare in Korea," 22 Apr. 1953, pp. 5-6,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USAF, File K-142, 7691-1, RG 341, NA (declassified 21 Nov. 1977).

29. James Angus MacDonald, Jr., *The Problems of U.S. Marine Corps Prisoners of War in Korea*, Occasional Paper. History and Museums Division, Headquarters, U.S. Marine Corps (Washington D.C., 1988), pp. 157-158.

30. "Sworn Statement to Summary Court Official, Henry R. Petersen," 19 Sept. 1953, p. 3, UN Secretariat Documents, A/C 1L66, 1953.

31. 우리는 전쟁 포로들 중 14명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우리와 우리의 연구 보조원들은 하워드 히첸스(Howard Hitchens), 폴 니스(Paul Kniss), 워커 마후린, 반스 프릭(Vance Frick), 바비 해메트(Bobby Hammett), 프랭크 슈와블, 워렌 룰(Warren Lull), 로버트 루리(Robert Lurie) 그리고 플로이드 오닐(Floyd O' Neal) 등과 이야기했고, 그 중 히첸스, 룰, 루리, 니스와 마후린 등 5명과는 인터뷰에 성공했다. 한국전 구술사 프로젝트 참조.

32. 마후린에 관한 다음의 정보는 그의 자서전인 『정직한 존』(Honest John)에서 발췌한 것이다: '약식 재판관 헨리 R. 피터슨에게 선서한 진술서'의 발췌본이 1953년 11월 1일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His deposition in *Depositions of Nineteen U.S. Airmen*, pp. 43-72; 또한 1976년 7월 28일 한국전 구술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당시 워싱턴 대학의 마크 셀던(Mark Selden) 역사학 교수와의 인터뷰가 마후린의 집에서 이뤄졌다.

33. Mahurin, *Honest John*, p. 13.

34. 위의 책, pp. 70, 72, 84.

35. 위의 책, p. 69.

36. 위의 책, p. 68.

37. Lester B. Pearson, 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 to Hume Wrong, Canadian ambassador to Washington (Top Secret), 29 May 1952, and Wrong to Pearson, 5 June 1952, External Affairs Records, Vol. 35, MG 26 N1, National Archives of Canada.

38. W. G. Nixon, interviewed by Carl Dow in Calgary, 7 July 1976, for the Oral History Project

on the Korean War, York University.

39. Hume Wrong to Lester Pearson, 5 June 1952, External Affairs Records, Vol. 35, MG 26 N1, NAC.

40. "Sworn Statement," subscribed and sworn aboard MSTS *Howze* before summary court official Henry R. Petersen, 19 Sept. 1953, p. 3, UN Secretariat Documents, A/C 1L66, 1953.

41. U.S. Marine Corps, Marine Aircraft Group-33, Historical Diary for March 1952, Appendix 2, S-2 Report, p. 2; Marine Aircraft Group-33, Command Diary for April 1952, Appendix 2, S-2 Report, p. 2. See photograph of "Burn Barrel" in this book. Acquisition No. 65A-4620, Box 58, RG 127, Federal Records Center, Suitland, Md.

42. Headquarters UN Command, Far East Command, Command Report (RSC) CSGPO-28RI, 1st Quarter FY 57, July-Sept. 1956 (declassified 1980), as cited by Paul Cassell in the *Stanford Law Review* 35, no. 259 (January 1983): 271. (This document originally comes from ACC61A-1606, Box 3, FEC Reports 1956, RG 334, Suitland Records Center.) 이런 명령들은 미국의 세균전 능력이 '미국 본토 내에서만 유지됐다'는 정부의 공식 성명에도 불구하고 존재했다. Seymour Hersh,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merica's Hidden Arsenal* (New York, 1968), p. 20. 우리는 화학부대 서류철에서 극동사령부의 19개 '비밀문서'가 1956년 극동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삭제됐거나 파괴된 증거를 발견했다. 이는 1996년 각종 문서가 보안 해제됐을 때 그 중 남아 있던 문서와 레이먼드 플린(Raymond P. Flynn)이 『다방면의 비밀문서 1952년』(Miscellaneous File Secret 1952), originally in Accession 67A4900, 1949-1954, RG 175로 분류해 준비한 목록을 비교함으로써 밝혀졌다. 플린의 초기 목록표에 대해 한 문서보관소 직원이 써놓은 주석을 보면 "그 문서들이 1956년 기록센터로 옮겨졌을 때 육군이 원본 목록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다. 수납서류에 부착된 이 목록표들은 1956년에 나왔던 수납 자료의 내용을 반영한다. 그러나 1956년부터 1959년 사이 "육군은 일부 자료를 회수했으며 다른 자료들은 파기했다." 문서보관소 직원은 마지막으로 그 기록들이 1969년까지 국립문서보관소에 영구적으로 수납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he National Archives, PRELIMINARY INVENTORY OF THE RECORDS OF THE CHEMICAL WARFARE SERVICE," compiled by Raymond P. Flynn, Preliminary Inventory No. 8, WASHINGTON: post-Korea를 볼 것.

43. See, for example, 3rd Bomb Group, Combat Mission Reports Nos. 3-19614 to 3-19617 of 31 July 1952, Box 155; Nos. 3-19683 to 3-19685 of 3-4 Aug. 1952, Box 156; and Nos. 3-

20907 to 3-20908 and 3-20915 to 3-20916 of 26-27 Sept. 1952, Box 159, Mission Reports of U.S. Air Force Units during the Korean War Era, RG 342, NA.

44. 1952년 1월 13～14일 밤에 이뤄진 제3폭격비행전대 전투 임무(작전에 참가한 폭격기를 뜻함: 옮긴이 주) No. 14524는 격추됐고 퀸과 에녹은 세균전 작전으로 의심되는 초기에 생포됐다. 특별조사실의 레오 H. 존슨 중령이 연필로 쓴 기록에 의하면 1952년 1월 1일의 전투 임무 No. 14210을 시작으로 그들이 생포되기 전에 수행한 전투 임무 보고서 모두가 1952년 3월 23일자 서류철에서 제거됐으며 조사를 위해 입수할 수도 없었다. 3rd Bomb Group, Korean War Era, Combat Mission Reports, January 1952, Box 140, RG 342, NA.

45. 1952년 5월 20일 미 제5공군의 작전 명령 141-52(보안), U.S. Marine Corps, 1st Marine Air Wing, Korean War Era, Accession List 65A-4620, Location 002/36-02-7, Box 8, RG 127, Federal Records Center, Suitland, Md.

46. 세균폭탄 보고용 암호로 사용된 『불발탄(duds)』이나 『결과 확인할 수 없음(no visible results)』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Depositions of Nineteen U.S. Airmen*, pp. 178, 187, 201을 볼 것. 기밀 해제된 미군 기록은 1950년 12월 초에 M16 전단폭탄이 세균전의 매개물로 깃털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조됐음을 드러낸다. Special Report No. 138, B.P. CCS385.2 (12-17-43), 15 Dec. 1950, RG 218, NA.

47. Deposition by 1st Lt. William L. Fornes, 27 Aug. 1952, *Depositions of Nineteen U.S. Airmen*, p. 103, and Hsinhua News Agency, Introduction, ibid., p. 7.

48. 퀸과 에녹의 주장에 대해서는 "Report of Investigation of Communist Allegations That the USAF Participated in Biological Warfare in Korea," 22 Apr. 1953, pp. 2, 5, 15 참조. 미 공군 특별조사실의 보고서가 '미리 정해진 세균전 주장에 관한 거짓들' 때문에 '정상적인 객관적 보고서'가 아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의 목표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어 미 공군이 한국에서 생물학전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정보를 개발하는 데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지 이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이 개발됐다. Preface, pp. 1-2,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USAF Headquarters, File K-142.7691, RG 341, NA.

49. Fifth Air Force, Operations Order 141-52 for 20 May 1952 (Secret), U.S. Marine Corps, 1st Marine Air Wing, Korean War Era, Accession List 65A-4620, Box 8, RG 127, Federal Records Center, Suitland, Md..

50. 17th Bomb Wing (Lt), Combat Mission Reports for May and June 1952, Mission Reports of

U.S. Air Force Units during the Korean War Era, Boxes 166-167, RG 342, NA.

51. 17th Bomb Wing (Lt), Combat Mission Reports for May 1952, Mission Reports of U.S. Air Force Units during the Korean War Era, Box 166, RG 342, NA.
52. 17th Bomb Wing (Lt), Combat Mission Reports for 1952, teletype of 30/31 May, Mission Reports of U.S. Air Force Units during the Korean War Era, Box 166, RG 342, NA.
53. 바커스(Barcus) 장군은 공식적으로 1952년 6월 1일 한국 주둔 제5공군사령관으로 에베레스트(Everest)와 교체되었다.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1983), p. 483. Fifth Air Force, Operation Order No. 153-52, U.S. Marine Corps, Acc. 65A-4620, Box 8, RG 127, Federal Records Center, Suitland, Md.

12장. 결론

1. Colonel Arthur P. Long, "An Analysis of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1 Dec. 1952, pp. 3-5, File HQ770.6-2, Bacterial Warfare in Korea 52, Box 336,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U.S. Medical Department [AMEDD], RG 112, NA.
2. James Ellis van Courtland Moon,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The Korean War Cas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66* (1992): 69-71.
3. Lt. Col. George A. Carruth, Office of the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and Plans, U.S. Army, *U.S. Army Activity in the U.S. Biological Warfare Programs*, presented to U.S. Congress, Hearings of the Senate Subcommittee on Health and Scientific Research, chaired by Edward Kennedy, 24 Feb. 1977. U.S. Senate Committee on Human Resources, 95th Congress, 1st Session 32 (1977), 292 pp. (Washington, D.C., 1977) 자주 인용되는 이 역사 기술은 1950~1953년 동안 미국의 생물학전 활동의 영역을 최소화하려고 하며, 이 목적을 위해 반면(半面)만의 진실을 드러내고 얼버무리며 누락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문서 기록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상원에 보고된 공식적인 설명들이 의회와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벌인 은폐 홍보전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수잔 라이트(Susan Wright)는 그녀의 책 『생물학무기 경쟁 예방』(*Preventing a Biological Arms Race*) (Cambridge, Mass., 1990) 에서 상원위원회에서 이뤄진 캐러스(Carruth)의 발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미 육군 '야전교범 27-10: 지상전 교전 수칙' (Field Manual 27-10: Rules

of Land Warfare) 1954년 개정판 28쪽을 생물학전의 '선제사용 금지'의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 라이트의 주장은 몇 가지 이유에서 잘못됐다. 우선 1954년 개정판이 없거나 또는 야전교범 27-10에 대한 개정이 없었다. 둘째, 한국전 당시 쓰이던 야전교범은 1940년 개정판이었다. 1940년판을 보면 미국이 비록 '전쟁에서 질식 가스 · 독가스 등의 가스와 세균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협약에 서명했지만 1925년 6월 17일 미 상원은 이 협약을 비준하는 데 실패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따라서 "이 나라에는 그것이 구속력이 없다" (Para. 29, pp. 8-9, 1940 revision; emphasis added)와 같은 말이 다음 개정판인 1956년 야전교범(Para. 33, pp. 18-19)에도 나와 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은 세균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육군 야전교범에 따르면 이 같은 국내법도 없다. 이런 상황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국제생물무기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면서부터 비로소 달라졌다. 야전교범 1972년 개정판은 미국이 생물학무기를 선제 또는 반격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4. National Security Council document NSC 5062/1, of 15 Mar. 1956 여기에는 "사용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Moon, "Biological Warfare Allegations," p. 69.
5. Statements of Policy and Directives on Biological Warfare," 11 June 1952, JCS 1837/34, 330(Top Secret), Decimal File 385.2, RG 218, NA.
6. Joint Chiefs of Staff, "Decision on JCS 1836/29," 26 Feb. 1952, p. 307, and "Note by the Secretaries" (Top Secret), Decimal File 385.2, RG 218, NA.
7. Carruth, U.S. Army Activity, p. iii; "세부적인 사항을 다룬 몇몇 실무 문건들이 파괴됐다" 윌리엄 콜비 전 CIA 국장은 1975년 9월 16일 상원 특별조사위원회의 반대 신문에서 1952년 CIA가 디트릭 기지의 미 육군 세균전연구소와 함께 병원체와 병원체 운반 시스템 등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73년 일부 자료가 파기되는" 등 남아 있는 문서가 빈약해 세균무기가 공격 작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U.S. Congress, *Final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to Study Government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Intelligence Activities*, Vol. 1: *The Handling of Toxins* (Washington, D.C., 1976), pp. 5-7, 22-23.
8. 11장 주석 41번 참조.
9. Committee on Biological Warfare, "1951 Program Guidance Report," 5 Dec. 1950,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File CD 383.8 (Biological Warfare), RG 330, NA.
10. Robert M. Lee, Major General USAF, Director of Plans, Memorandum on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17 Mar. 1953 (Secret),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3, File 337-385, Entry 199, box 5, RG 341; also Truman H. Landon, Major General, USAF, Director of Plans, to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Memorandum, Subject: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Top Secret), 19 Jan. 1951, File 1, BW-CW General Decimal Files 1952, Entry 199, Box 5, RG 341, NA.

11. Michael E. Haas, *Air Commando! 1950-1975: Twenty-Five Years at the Tip of the Spear* (Hurlburt Field, Fla., 1994), p. 17.
12.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to Joint Chiefs of Staff, "Report on Chemical (Toxic)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31 Aug. 1953, p. 454, JCS 1837/50 (Top Secret), RG 218, NA (declassfied 1993).
13. U.S. Congress, *Final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to Study Government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Intelligence Activities*, Vol. 1, pp. 5-6.
14. 육군 참모총장, 해군 작전처장 등이 합참에 보낸 비망록. '생물학전 분야에서의 기만' 1 Feb. 1952, JCS 1927/3, released with JCS 1837/36 (declassified in 1991), RG 218, NA. 국무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가 어떠했는지는 1949년 대(對)소련 생물학전 계획과 관련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베를린 봉쇄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국무부의 동의는 '구두로' 구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문서는, 일부 삭제되기는 했지만, 위의 비망록 '생물학전 분야에서의 기만' JCS 1927/3, 28 Sept. 1949, p. 89, RG 319, NA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부인'에 대한 윌리엄 콜비의 언급에 대해서는 미 의회의 *Final Report of the Senate Select Committee to Study Government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Intelligence Activities* (1976), Vol. 1, p. 24.를 볼 것.
15. 1996년 3월 25일 베이징에서 스티븐 엔디콧의 인터뷰. 치 대령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학교의 군사(軍史) 부문 부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Chaoxian zhanzheng juece neimu" [The Inside Story of Decision-Making in the Korean War] (Shenyang, 1991)를 저술했다.
16. 중국과 북한 과학자들의 교육 및 직업적 배경에 대해서는 "Biographical Register of Chinese and Korean Scientist and Medical Men," In Joseph Needham et 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Peking, 1952), Appendix TT, pp. 635-665를 볼 것. [앞으로는 니드햄 보고서Needham Report (1952)로 인용한다.]
17. 1952년 생물학전 조사에 참가했던 츄웨이판 교수, 셴치이 교수, 얀렌잉 박사와 스티븐

엔디콧이 1994년 4월 베이징에서 가진 대화. Oral History Project on the Korean War, York University를 볼 것.

18. 니드햄 보고서(1952) p. 8. 1952년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생물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소련은 중국과 북한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세균 생물학자이자 소련 의학아카데미 부회장인 N. N. 주코프 베레즈니코프(N. N. Zhukov-Verezhnikov) 교수가 이 같은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2차세계대전 당시 생물학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군인을 상대로 한 하바로프스크 전범재판에 의학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1952년 중국과 한국에서의 생물학전에 관한 국제과학위원회(ISC)의 진상 조사에도 참가했다. 그는 여기서 "한국과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미군 부대가 실시한 생물학무기의 목표였다"라고 결론 내린 ISC의 보고서에 서명했다.

    17년 뒤인 1969년 소련 정부가 마음을 바꿔 입장을 뒤집었음을 암시하는 유엔 지원 문서가 등장했다. 당시는 중 · 소 관계가 최악이었고 닉슨 미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이 (결국 1972년 채택된) 생물학전협약 등을 포함해 군축협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때 소련 과학아카데미 회원이자 모스크바 대학 화학 교수인 O. A. 로토프(O. A. Reutov)는 "이런(생물학전) 병원체가 현대 군사 무기로 사용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또 전쟁 무기로 "세균(생물학) 병원체가 사용된 군사적 경험도 없다"는 선언에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여했다.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Biological] Weapons and the Effects of Their Possible Use*, UN Document E 69.1.24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0], pp. 3, 20).

    소련의 입장 번복과 미국, 일본에 대한 암묵적 면죄는 당시 설명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별로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 중국과 북한은 당시 UN 회원국이 아니었다.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측 문서들이 공개되자 더 많은 문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일본 신문은 1950년대 중국과 북한의 미국에 대한 (생물학전 관련) 주장은 조작된 것임을 보여 주는 소련측 문서들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산케이 신문, 1998년 1월 8일자) 1992년 영국인 역사가인 존 핼리데이(Jon Halliday)는 셀리바노프 장군, 사사노프 장군 등 2명의 전직 소련 장성과 인터뷰했다. 이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북한 정부의 고문이었다. 그들은 "우리는 그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며 생물학전 공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핼리데이에게 말했다. (존 핼리데이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임) 몇몇 서방 학자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소련측 문서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

    중국 당국이 우리가 그들의 증거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우리 자신의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랴오닝성 문서보관소와 이외 다른 문서보관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는 부분적으로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중국에서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자와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에 신중했고 책임감이 강했다는 우리의 판단을 1장에서 밝혔다. 중국은 오늘날에도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19. 니드햄 박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1995년 3월 27일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실린 그의 부음 기사 참조.

20. The material in Vols. 5959 and 5920 of recently declassified documents on the Canadian biological warfare program in the papers of the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RG 25, National Archives of Canada, Ottawa를 볼 것.

21. 흄 롱(Hume Wrong) 주미 캐나다 대사가 레스터 B. 피어슨(Lester B. Pearson) 캐나다 외무장관에게 보낸 편지. Subject: Possible Prosecution of Dr. Endicott, 17 May 1952(Secret), File 50208-40, Pt. 2, Vol. 5920, RG 25, NAC. 롱 대사는 편지에서 "미국 관리들은 엔디콧 박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캐나다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증거들을 자국 정보원(源)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썼다. 도쿄와 캔버라에 있는 캐나다 외교관들은 자국 외무부에 보고하기를, 한 인도 외교관, 전(前) 호주 외무장관, '저명한 스칸디나비아 출신 법학자' 등을 포함해 자신들이 세균전 논란에서 신뢰할 만한 옵서버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세균전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Tokyo dispatch, 8 Dec. 1953; Minutes on dispatches Nos. 366 and 367 of 6 and 10 June 1952 from Canberra, Subject: Dr. J.W. Burton, File 50208-40, Pt. 2-1, Vol. 5920, RG 25, NAC.

22. "Canadian Scientists Refute Germ War Charges," *External Affairs 4*, No. 7 (July 1952): 249-252.

23. 캐나다 국방부의 국방연구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이들 3명의 과학자들 W. H. 브리튼(W. H. Brittain, 맥길 대학), C. E. 애트우드(C. E. Atwood, 토론토 대학), A. W. 베이커(A. W. Baker, 온타리오 농과 대학)는 모두 캐나다 정부의 생물학전 프로그램 패널 회원이 아니었다. Notice of Meeting, 6 May 50, File 4-935-43-1, Vol. 4133, Interim Box 43, RG 24F, NAC.

24. 리드 교수는 피어슨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산주의자의 선전은 조심스럽게 준비돼 왔으며 질병들과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매개물이 명백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중에서 곤충을 떨어뜨리는 일은 전적으로 실행가능하다. 썩은 생선과 자루에 든 돼지고기 등은 비정통적인 생물학무기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깃털을 탄저균과 연결짓지만 탄저균은 우리의 실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깃털을 사용하는 실험은 캐나다에서도 실시된 적이 있다." Memorandum, Communist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enclosure in Escot Reid, Memorandum for the Minister, 15 May 1952, File 50208-40 Pt. 2, Vol. 5919, RG 25, NAC.

25. Canadian Peace Congress, "Documentation on Bacteriological Warfare, 1 April 1952" (mimeograph), in File 50208-40, Pt. 1.1, Vol. 5919, RG 25, NAC.
26. Dale W. Jenkins, "Defense against Insect Disseminated Biological Warfare Agents," *Military Medicine* 128 (February 1963); 116.
27. William M. Creasy, Revis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Listing (Secret), 30 Oct. 1951, Project No. 411-04-004, Arthropod Dissemination [of BW], Control No. 400.112, Entry 1B, Box 235, RG 175, and Henry H. Rogers, Chief, Research Branch, "Index and Classification...in D/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12 Mar. 1953, p. 6, Control No. 154-3-S, Entry 67A-4900, Box 246, RG 175, NA. William J. Allen, Chief,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Project Listings..." (Secret), 6 Dec. 1951, Project No. 411-02-041, "Mosquito Vectors and Encephalomyelitis Viruses as Agents for BW," Control No. 400.112, Entry 1B, Box 235, RG 175, and "Detailed Justification for Supplemental Funds for FY-1953," for the same project at Johns Hopkins University, n.d., p. 9, Control No. 637-10-S, Entry 1B, Box 243, RG 175, NA.
28.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of Conversation, 27 June 1952, p. 1, and Statement on Bacteriological Warfare, for use by Ambassador Cohen, p. 2, in Army G-3,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General Decimal File 1952 (Secret), Box 314, RG 319, NA; Memorandum on Proposed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ICRC to Counteract Communist Propaganda Campaign on Biological Warfare, 10 Mar. 1952 (Secret), Army G-3,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ecimal File 385, ibid.; Steering Group for Eighteenth International Red Cross Conference, "Communist Bacteriological Warfare Propaganda," 16 June 1952, File 50208-40, Pt. 6 FP1, Vol. 5921, RG 25, NAC; Isabel Vincent, *Hitler's Silent Partners: Swiss Banks, Nazi Gold, and the Pursuit of Justice* (New York, 1977). pp. 125-126, 295-297.
29. Paul G. Cassell, "Establishing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Yellow Rain' and the Treaties Regulating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Stanford Law Review 35* (January 1983): 259-295.

30. George Wald to Stephen Endicott, 15 Mar. 1979.
31. Needham Report (1952), pp. 14-17, Appendixes B, C, D, Gb, H, HH; Liaoning Archives, Volume 63, permanent, Northeast Patriotic Health Campaign Committee, Central Party telegram instructions to various regions, 19 Mar. 1952.
32. Walker M. Mahurin, *Honest John: The Autobiography of Walker M. Mahurin* (New York, 1962), pp. 250, 252; Mahurin, "Sworn Statement," *New York Times*, 1 Nov. 1953; Stephen Endicott,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 The Korean War, 1952-1953," *Modern China* 5, No. 1 (1979): 99-100.
33. Jenkins, "Defense against Insect-Disseminated Biological Warfare Agents," p. 116.
34. William M. Creasy to Assistant Chief of Staff G4, Department of the Army, 30 Oct. 1951, p. 6, Decimal File 400.112, Entry 1B, Box 235, RG 175, NA; H. I. Stubblefield, "A Resumé of the Biological Warfare Effort," 21 Mar. 1958, Record No. 54763,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Collection, Box 2, National Security Archive, Washington, D.C., pp. 14, 16, 25; "Defense against Biological Warfare: A Symposium," Military Medicine, February 1963, pp. 84, 116-118; John Bryden *Deadly Allies: Canada's Secret War, 1937-1947* (Toronto, 1989), pp. 207, 210, 224-225, 246, 251.
35. Needham Report (1952), Appendixes F, V-7, AA-1; Liaoning Archives, Volume 43, long-term preservation,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3, 5 Apr. 1952.
36. Department of Defens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Readiness," 21 Dec. 1951, Top Secret 3145.1-TS, 15,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File CD 385 (General), RG 330, NA.
37. Central Party telegram, instructions to various regions, approved by Zhou Enlai, Classification AAAA, 19 Mar. 1952, Liaoning Archives, Volume 63, permanent, Northeast Patriotic Health Campaign Committee, Reports of Research Group, No. 13, 5 Apr. 1952.
38. Theodor Rosebury and Elvin A Kabat, "Bacterial Warfare: A Critical Analysis of the Available Agents, Their Possible Military Applications, and the Means for Protection against Them," *Journal of Immunology 56* (May 1947): 32-33.
39. 5백 파운드 크기의 선전용 미국 전단폭탄은 코드명 M16으로 밝혀졌고 E73R/M115로 코드명이 붙여진 생물학무기 깃털폭탄으로 개조됐다. 같은 형태의 폭탄인 코드명 M105는 이것의 변형으로 보인다. 한국 주둔 미 제5공군 제3폭격비행단의 기록들은 M105 마크가 새겨진 5백 파운드 크기의 전단폭탄이 철도를 맹폭격한 후 맨 마지막으

로 투하되었음을 보여 준다. (U.S. Fifth Air Force, 3rd Bomb Group, 90th Squadron, Mission No. 3-17643, 20/21 May 1952, Box 149, RG 342, NA) 중국 당국은 이 M105 '전단' 폭탄들이 미국의 생물학전 실험의 일부분으로 감염된 곤충들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40. Needham Report (1952), pp. 37-44.
41. Rosebury and Kabat, "Bacterial Warfare," pp. 7-89.
42. Photographs (Secret), File 1280S 1953, Box 256, RG 175, NA.
43. People' s China, No. 18 (17 Sept. 1952).
44. Memo for Record, Subject: ISHII, Shiro, 6 Sept. 1947 (Secret); Summary of Information, Subject: ISHII, Shiro, former Lt. General, CG Kwantung Army Water Purification Unit, 10 June 1947 (Secret) (declassified 19 Feb. 199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Civil Intelligence Section, Counter Intelligence Division, Subject: ISHII, Shiro, 7009196, File 201, Book 1, RG 331, NA.
45. Minutes of the thirteenth meeting of the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12 June 1952,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8 (White House, Top Secret), No. 1770.
46.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낸 비망록: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감금된 죄수들로부터 거짓 자백을 억지로 받아 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에 관한 미국의 제의, 4 Nov. 1952, Defense Liaison, File 50208-40, Pt. 4.1, Vol. 5920, RG 25; Hume Wrong, Ambassador in Washington, to L. B. Pearson, Secretary of State for External Affairs, 4 Mar. 1953, File 50208-40, Pt. 4.2, Vol. 5920, RG 25, NAC.
47. 조종사들이 '세뇌' 당했다는 일반의 생각은 그 당시 에드워드 헌터의 『붉은 중국에서의 세뇌』(Brainwashing in Red China)(1951)라는 책이 널리 읽히면서 커져 갔다. 몇 년 후 미 육군의 대규모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미 국방부는 미군 전쟁 포로들이 세뇌당하지 않았으며 단지 고생과 스트레스, 감금에 시달렸다고 결론 내렸다. 미 육군의 조사 결과는 유진 킨케드(Eugene Kinkead)의 *"In Every War but One"* (뉴욕, 1959년)에 잘 요약돼 있다. 대부분 미 육군이 지원한 또 다른 추적 연구도 있다. Albert D. Biderman, "Further Analysis of POW Follow-up Study Data," Final Technical Report (Washington, D.C., 7 Apr. 1965); E. H. Schein, W. E. Cooley, and M. T. Singer, *A Psychological Follow-up of Former Prisoners of War of the Chinese Communists*, Pt. 1: *Results of the Interview Study* (Cambridge, Mass., 1960), E. H. Schein, W. F. Hill, H. L. Williams, and A Lubin,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ors and Resistors among American Prisoners of Wa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5* (1957): 197-201; J. Segal, "Factors

Related to the Collaboration and Resistance Behavior of US POWs in Korea" (Washington, D.C., 1965); Robert J. Lifton, "Home by Ship: Reaction Patterns of American Prisoners of War Repatriated from North Kore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 (April 1954): 732-737.

48. 심리전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국장 대리 조지 A. 모건(George A. Morgan)이 앨런 W. 덜레스(Allen W. Dulles) 중앙정보국 국장에게 1953년 3월 5일 보낸 의견. p. 2, U. 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88 (Top Secret), No. 521; C. D. Jackson to General Wilton B. Parsons, 11 May 1953, Index 1985, No. 618.
49. George A. Morgan, 5 Mar. 1953, ibid.
50. Meeting of POW Working Group, Friday, 13 Nov. 1953, Operations Coordinating Board, 16 Nov. 1953,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1992 (White House), No. 2855, p. 4.
51. Charles R. Norberg, Chairman, POW Working Group, Operations Coordinating Board, Washington D.C., Minutes of Meeting, 13 Nov. 1953, and Memorandum for the Acting Deputy Executive Officer, 13 Oct. 1953, U.S. Government Declassified Documents Index (White House) 1992, No. 2855, and Index 1979, No. 161C. 자백을 반박하기 위한 미 공군 특별조사실의 청문회도 또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왜냐하면 '반박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단서들만 부각됐기' 때문이다. "Report of the Investigation of Communist Allegations That the USAF Participated in Biological Warfare in Korea," prepared by th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the Inspector General, Headquarters USAF, 22 Apr. 1953, RG 341, NA를 볼 것.
52. Needham Report (1952), p. 60.
53.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3* (1989): 204.

감사의 글

이 책을 준비한 지난 20년 동안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의를 표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형편상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했다. 기록의 미로에서 큰 도움을 준 리처드 보일런에게 특별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공군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해 준 데이브 지오다노, 연구 초기에 방향을 제시해 준 고(故) 에디 미스, 연구 종반부 정리에 도움을 준 윌 매호니에게 감사한다. 탁월한 연구자인 에디 벡커와 조앤 요시와라는 수천 건의 기록 가운데서 유용한 것을 골라내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오랜 워싱턴 D.C. 체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남는 방을 쓸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했으며, 목욕 매트, 브리지 테이블과 의자, 주전자와 팬 그리고 커피를 끓일 수 있는 도구까지 내주어 워싱턴에서 우리의 생활을 쾌적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미국 내 각지의 군사(軍事) 기록 전문가와 군사(軍史)학자들이 정보와 도움을 주었다. 세인트루이스 기록센터의 빌 시버트, 슈트랜드 기록센터의 마이크 웨스크, 워싱턴 D.C.의 미 해병 역사센터 공식 기록 보관대 책임자이며 해군성 소속인 조이스 코니어스 허드슨, 미 공군 펜타곤 본부의 기록 분석가 올시아 S. 크룸,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본부의 수석 사학자 허브 메이슨, 노스 캐롤라이나 주 브래그 기지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의 스탠리 샌들러 그리고 앨라배마 주 맥스웰 공군기지 내 공군 역사연구실의 아치 디팬트 등이다. 우리는 심리전

전략위원회 기록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준 트루먼 도서관 데니스 빌거에게 감사한다. 오타와의 캐나다 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관련 기록을 찾도록 안내해 준 폴렛 도수와, 로버트 매킨토시, 폴 마스든, 노먼 포르티에 등의 신세를 졌다. 우리는 끊임없이 후원해 준 요크 대학 연구 사서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앤 캐논, 그레이스 헤기, 비비앤 몬티는 필요한 희귀 문서를 주문해 주었으며, 글래디스 펑은 여러 도서관을 뒤지면서 인내심과 솜씨를 발휘해 찾기 힘든 사료를 발견했다. 은퇴한 미국과 캐나다 공군 장교들과의 만남을 알선한 켄 캔, 마크 셀던, 칼 다우에게 감사한다. 장교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때 전쟁 포로로 붙잡힌 경험이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밝히는 데 동의했다. 초안의 일부나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 준 브루스 커밍스, 존 W. 파월, 츠네이시 케이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저자들이 사료를 취급함에 있어 법률 자문을 해준 노먼 엔디콧과 월튼 로즈에게도 감사한다.

여러 차례의 연구 목적 여행에서 우리는 중국 · 일본 · 영국의 많은 사람과 기관들로부터 신세를 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자료 번역을 비롯해 정부, 학계, 군 등 수다한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냉전의 험난한 시기에도 동아시아에서의 생물학전 실험과 관련해 자신들의 연구와 신념을 기록으로 남긴 선구자 두 분을 특별히 언급하고자 한다. 1952년 베이징(北京)에서 출판된 국제과학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조지프 니드햄 박사, 자신이 발행한 『월간 중국 리뷰』(China Monthly Review)의 기사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치안방해죄로 기소됐으나 이후 중국에 주둔한 일본군 731부대 출신 전범들과 미국의 비밀 거래 사실을 끝내 밝혀 낸 존 W. 파월 부부가 주인공이다. 그들의 연구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인용 자료로 남아 있다.

출판을 허락해 준 인디아나 대학 출판부 존 골먼 부장에게 감사한다. 책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제인 라일을 비롯한 출판부 직원에게도 적잖은 신세를 졌다.

캐나다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연구자문위원회, 요크 대학, 애트킨슨 대학의 재정 지원은 우리의 광범위한 연구를 가능케 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후원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흥분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공동 저작이란 속성상 요구되는 긴 과정을 인내해 준 우리의 아내 앤 아이어먼과 레나 윌슨 엔디콧에게 감사한다.

1998년 1월 30일

캐나다 토론토, 요크 대학에서

한국전쟁 기간의 한가운데쯤인 1951년 12월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러빗은 생물학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최단시간 내에 실질적인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몇 주 뒤 공군 참모총장 호이트 반덴버그는 그 같은 능력이 '신속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대대적인 생물학전 실험을 시작했다고 북한군과 중국군이 미국을 비난한 것은 두 사람간에 극비 전문이 교환된 직후였다.

1953년 9월 6일 일요일, 마지막 남은 미군 전쟁 포로를 실은 트럭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그날 아침, 베이징 라디오 방송은 한국에서 생물학전에 참가한 것을 시인한 미 공군 장교 25명의 이름을 발표했다. 판문점에서 38선을 넘은 첫 번째 지프차에는 이 25명 중 3명의 대령인 앤드루 에반스, 워커 마후린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프랭크 슈와블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에 송환된 뒤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위협 아래 자신들의 종전 자백을 철회했다.

한국전쟁이 CIA를 구했다.
한국전쟁에서 CIA의 은밀한 공작 활동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1950년 7월에 시작됐다. 한국전쟁은 CIA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전쟁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전시 상황 속에서 각 군의 자원까지 제공했다.

값 18,000원

03340
9 788989 524281
ISBN 89-89524-28-8